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박사학위논문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Cultural Facilities in Gyeongseong(Seoul)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김 성 태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권 영 상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김 성 태

김성태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오늘날의 생활 방식이 구축된 시기는 불과 100여 년 전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재편한 근대적 공간은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문화시설이 당시에든 지금과 같이, 입지를 정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공간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입지적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제 식민지기는 도시 공간과 시설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설이라 칭하는 것들의 기원, 공공성, 행정이 탄생한 시기이다.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공공 문화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공간을 재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생성된 지점에서 출발해야하기에 근대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된 물질적, 정신적 산물로서,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가 생성, 유통, 소비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문화시설은 인간의 정서적 활동에 따른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규정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전통적 공간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두드러져 성장하였다. 일제 식민지기 근대 시설의 도입은 1906년 탁지부건축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당시의 시설은 지시(instruction)와 검열(inspection), 통제(control)로 표출되었다. 이는 규율 권력을 발현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선인에 대한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 무단통치 체제에서의 근대 시설이 사법, 형행 제도 등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화정치’에서는 동화를 목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문화시설이 계획되었다. 문화시설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의 민중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접촉지대’로, 동화의 스펙트럼을 여과없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설립된 문화시설을 근대 도시계획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시 공간에서 문화시설이 차지하는 사회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10년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1937년까지이며, 통치 수

단의 변화가 나타나는 1920년을 기점으로 문화정치 전략과 근대문화시설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당시 경성부의 경계이며, 대상은 근대 사회의 전유물인 시각문화의 공간으로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선정하였다. 도서관은 당시 경성의 모든 도서관 중 전문학교 부설도서관을 제외한 공공과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며, 극장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인지도, 규모 등을 바탕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박물관은 박람회와 궁궐 내 입지한 전시시설, 그리고 상설 전시공간의 유무를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일제 식민지기에 설립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지적 관점에서 당시의 문화시설은 이중도시의 경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당시의 문화시설은 선진성의 표상으로 경성 곳곳에 설립되었다. 일제 식민지기에 도입된 문화시설은 건축적, 경관적으로 기존 건축과는 다른 모습으로 도심부에 입지하였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건물은 서구와 동일시하였고 조선의 건축과 ‘구별 짓기’를 통해, 근대성과 선진성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조선 왕실 소유의 토지에 부민관을 건립하고 대한제국의 영역에 경성부립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계획하는 등 국가 상징공간에 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일본인 거류지였던 남촌의 공간 동화로,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조선인을 유입하는 기제로 문화시설이 활용되었다. 각종 근대식 극장과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경성공회당은 남촌에 위치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주된 수혜자는 일본인이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차별적으로 배분된 문화시설은 조선인을 남촌으로 유인하는 소비 문화의 공간으로 작동하였으며, 조선인은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민중으로 이곳에서 근대성을 경험하였다. 세 번째,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되었던 민족 공간이 문화시설을 통해 경계가 희석되었다. 북촌과 남촌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식민 권력의 관계 속에 규정되었으나, 경제 권력이 북진함에 따라 영역 구분은 와해되었다. 조선의 경성도서관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되었고, 탑골공원 주변의 극장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등 경제적 수탈과 피식민 국민의 통제를 목적으로 일본인은 공간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민간 부문에서 조선총독부의 영향력 보다는 민족 간의 대립, 경쟁,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종합하면, 일제 식민지기의 경성은 서구의 식민지 도시

와는 달리 도시 내부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경성의 상징과 중심축이 근대식 박물관과 박람회장으로 변화하였으며, 궁궐 내 유희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시설이 조성되었다. 이는 일본 도쿄의 우에노 지역에 문화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에도 막부의 이미지를 지우려 했던 일본 메이지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의 문화시설은 시각적, 사회적으로 신문물 도입의 장소로 인식되어 조선 민중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해석으로,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시설은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일제는 문화시설을 관 주도의 규율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식민지배의 담론을 전시라는 이벤트로 재현하고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식민지에 대한 규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일제는 대륙 침략의 학술 교두보로서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도서관에는 일서 위주의 책을 수서하였고 극장과 박물관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간극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시체제 전쟁에 동참할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통치체제 강화를 위해 근대적 규율을 강조하고 문화적 우월성을 확립하고자 문화시설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조선인의 관점에서 문화시설은 계몽의 장소로서 새로운 계층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문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였다.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식민지적 특성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교육은 교양과 합리적 이성을 갖기 위한 계몽의 공간으로 문화시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일반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여가 및 유희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유적과 근대적 공간을 대비함으로써 조선을 동화하고자 하였지만, 조선의 민중은 이러한 시설을 오락 공간으로 전치하였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근대성의 선전장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원지에 가까웠으며, 민족으로만 치환되지 않은 유희와 오락의 공간으로서 당시의 문화시설은 인식되었다.

문화시설의 사회적 기능을 종합하면, 관에 의해 도입된 문화시설은 일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규율 공간으로 규정되었고 사회화를 통해 영구적 지배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민간에서 건립된 문화시설은 지역민들에게 사회교육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였고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성장시켰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조선의 일반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가의 장소, 취미생활의 일부로 치환된 것임을 분석하였다.

일제 식민지기는 일반적으로 통치방법에 따라 무단통치, 문화정치, 병참기지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에 박람회장을 유치하고 각각의 궁궐에 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일제에 의한 공간 전치는 식민지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도서관은 조선 교육령 선포 이후, 폐관되었다가 문화정치 이후 다시 등장하여 일제의 공공도서관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극장은 관제 행사에 이용되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즉 문화시설의 도입은 일제 식민지기의 시대 구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분석하였고, 조선과 일제 등의 설립 주체에 의해,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새로운 공공건축을 통해 문명화 된 도시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문명의 위대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주체적 생각이 결여된 채, 서구의 과정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도시 공간을 임의로 훼손하고 문화시설을 건립한 일제의 행위는 동화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방적인 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화시설의 이용과 역할의 측면에서 하나의 정연한 흐름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즉,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여가 및 유희의 장소로서 ‘일제의 의해 도입된 근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공공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당시의 문화시설은 근대성을 구현하지 못한 반쪽의 공간이지만, 새롭게 도입된 시설로 전근대와의 경계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문화시설의 조성 뿐 아니라 이용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당시 식민지 권력은 새로운 사회 질서와 제도에 의해 조선인을 학습하고 훈육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설립된 문화시설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성에 건립되었고 다양한 결과를 표출하였다. 1910년대 문화시설은 일제가 진보한 문명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고 1920년을 전후로 문화시설은 다방면에 건립되었다. 1930년대에는 관에 의해, 보다 과감히 문화시설이 도입되었고 일본인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예술 산업의 성장 등으로 자본과 문화가 결합한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민족적 영역의 경계는 흐려지면서 문화시설을 통한 공간 동화가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시설은 식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하였을지라

도 민중이라는 이용 주체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생적으로 구축되었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물리적 형태 뿐 아니라 지역의 분위기, 근대화 수준, 건립시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관계 맺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시설이 하나의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주체로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기에서 근대를 경험하였다면, 식민지기라 하더라도 근대의 기원은 당시부터 추적해야 한다. 당시의 근대적 경험은 현재의 성격에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규율과 계몽의 접촉지대로서, 문화시설이라는 단일 건물을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간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연예술학, 미술사학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와의 결합으로 교차학문적 분석을 통해, 통시적 접근과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도시가 근대화의 실험실이자 세계주의의 근거지였음을 상기해볼 때, 문화시설 연구와 도시공간 연구의 융합 필요성과 가능성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것이다.

주요어 : 일제 식민지기, 문화정치, 근대문화시설, 입지적 특성, 사회적 기능, 도서관, 극장, 박물관 및 미술관

■ 학 번 : 2015-31043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7
2. 연구의 내용	11
3. 연구 방법과 자료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국내·외 유관 연구 동향	13
2.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근대 도시와 문화시설

제1절 도시문화시설	20
1. 문화시설의 사회적 개념	20
2. 시각문화 형성의 근대문화시설	25
제2절 근대 도시계획과 문화시설	26
1. 프랑스 파리의 주체적 변화	26
2. 일본 도쿄의 모방적 차용	34
3. 식민지 도시의 강제적 수용	41
제3절 근대 도시 경성(京城)의 형성	45
1. 한양에서 경성으로의 변화	45
2. 문화정치의 등장	50

제3장 근대 도서관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

제1절 일본홍도회 도서실 설치 운영의 의미	54
1. 홍도회 도서실과 최초의 도서관에 대한 논의	54
2. 문화정치 이전의 도서관	55
제2절 문화정치 이후, 공공도서관의 등장	56
1. 경성부립도서관	56
2. 조선총독부도서관	61
3. 만철의 철도도서관	64
제3절 민간 주도의 사립 경성도서관	68
1. 일본 민간의 경성도서관	68
2. 윤익선의 경성도서관	70
3. 이범승의 경성도서관	71
제4절 소결	75

제4장 근대 극장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

제1절 극장의 기원과 '협률사'와 '광무대'의 설립	80
1. 협률사의 설립	80
2. 광무대의 입지와 공간적 변화	81
제2절 남·북촌 극장과 도시 공간	83
1. 문화정치 이전의 남·북촌 극장	83
1) 남촌의 극장	83
2) 북촌의 극장	88
2. 문화정치 이후 전문극장의 등장	91
제3절 근대 고급문화의 장으로서 공회당	97
1. 문화정치 이전의 공회당	97
1)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97
2) 천도교 중앙대교당	100

2. 문화정치 이후, 극장 계획과 기능 변화	103
1) 일본 자본에 의한 경성공회당	103
2) 공공에 의해 설립된 부민관	106
제4절 소결	110

제5장 근대 박물관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

제1절 궁궐 내 조성된 공공박물관	114
1. 이왕가박물관	114
1) 제실박물관의 설립	114
2) 1910년 이후의 변화	117
2. 조선총독부박물관	121
1) 경성박람회와 조선물산공진회	121
2)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공간 변화	126
제2절 문화정치 이후, 전시시설의 발전	131
1. 시각 체험의 장, 조선박람회	131
2. 예술 산업의 성장과 미술관 개관	136
제3절 경성 내 전시시설의 확장	143
1. 은사기념과학관	143
2. 백화점의 전시 공간	146
제4절 소결	152

제6장 근대문화시설로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의 해석

제1절 이중도시의 경계 완화	156
1. 선진성에 대한 표상으로 분포	156
2. 남촌의 성장과 ‘공간 동화’	158
3. 민족공간의 병립과 와해	159
제2절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	162
1. 관 주도의 규율 공간	162

2. 계몽의 장소와 새로운 계층의 출현	164
3. 조선인의 여가생활과 유희 공간	166
제3절 문화시설의 설립 주체별, 시기별 특성	168

제7장 종합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176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78
참고문헌	180
[Abstract]	193

[표 목 차]

[표 1-1] 시설별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건축물 사례 수	4
[표 1-2] 일제 식민지기 설립된 도서관 현황	7
[표 1-3] 일제 식민지기의 남, 북촌 극장 현황	8
[표 2-1] 일본 도쿄의 근대 도시계획 흐름	34
[표 3-1] 흥도회 도서관에 대한 연구자별 사용 명칭	54
[표 3-2] 흥도회 도서관의 변천 과정과 명칭 변경	54
[표 3-3] 경성도서관의 시기별 구분과 주요 연혁	74
[표 3-4] 1930년 조선의 장서량	76
[표 4-1] 1910년대 남촌의 극장 현황	86
[표 4-2] 1920년대 북촌의 극장 현황	91
[표 5-1]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공사 내역	124
[표 5-2] 일제 식민지기 경성에서 개최된 공진화와 박람회	131
[표 5-3] 덕수궁과 석조전 관람자 통계표	13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대상 및 시간적 범위	9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10
[그림 2-1]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 복원도	22
[그림 2-2] 1850년 샤를 피쇼가 그린 루브르 박물관 전경	24
[그림 2-3] 중세시대 성체로 건설된 루브르 궁	26
[그림 2-4] 오스만 사업에 의해 조성된 가로망	28
[그림 2-5] 오스만에 의한 중심축의 교차오스만에 의한 중심축의 교차	28
[그림 2-6] 2차 오스만 사업에 의한 Boulevard 계획	29
[그림 2-7] 파리의 오페라극장과 신설도로	30
[그림 2-8] 19세기 파리의 오페라극장	30
[그림 2-9] 2차 오스만 사업에 의한 직선가로의 형성	30
[그림 2-10] 1900년 파리 박람회의 모습	31
[그림 2-11] 1900년 파리 박람회 당시의 전시 공간	32
[그림 2-12] 1900년 파리 박람회의 대한제국관 모습	33
[그림 2-13] 1848년 에도의 모습	34
[그림 2-14] 우타가와 히로시게 3세 작 ‘도쿄제2명소 긴자벽돌거리 풍속도’	35
[그림 2-15] 긴자벽돌거리의 모습	35
[그림 2-16] 히비야 관청집중 계획 설계도	36
[그림 2-17] 1889년 동경기구개정위원회의 동경시구개조전도	37
[그림 2-18] 우에노에서 개최된 1877년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	38
[그림 2-19] 1907년 우에노 공원	38
[그림 2-20] 도쿄의 제국극장	39
[그림 2-21] 히비야 공원 입구에 위치한 도쿄시공회당	39
[그림 2-22] 메이지신궁의 내원과 외원	40
[그림 2-23] 메이지신궁 외원 계획도	40
[그림 2-24] 1911년 알제 센트로 모습의 엽서	42
[그림 2-25] 1935년 알제 카스바 지역의 경계	42

[그림 2-26] 싱가포르 도시계획에서의 공간적 격리	43
[그림 2-27] 인도의 델리와 뉴델리의 경계지역	43
[그림 2-28] 1900년 타이베이 청내이(城內) 계획	44
[그림 2-29] 1902년 캐나다 선교사 게일에 의해 처음 소개된 한양(한성부) 지도	46
[그림 2-30] 대한제국의 도시계획	47
[그림 2-31]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매일신보 1912년 11월 7일 기사)	48
[그림 2-32]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선도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6월 25일)	49
[그림 3-1] 20세기 초의 홍도회도서실	55
[그림 3-2] 러일전쟁 무렵의 한성병원	57
[그림 3-3] 명치정의 한성병원 위치	57
[그림 3-4] 도서관과 상담소 (1922년 7월 7일 동아일보 기사)	58
[그림 3-5] 개관된 도서관 참고될 인쇄전 (1922년 10월 3일 동아일보 기사)	58
[그림 3-6] 1901년 지도에 표기한 대관정의 위치	59
[그림 3-7] 일제 식민지기 대관정의 전경	60
[그림 3-8] 부립도서관 증축 설계 내용 (1927년 5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60
[그림 3-9] 경성부립도서관의 사회관	61
[그림 3-10] 도서관 무료공개 (1925년 10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61
[그림 3-11] 조선호텔 안내책자에 수록된 배치도 (1915년 발행)	62
[그림 3-12] 조선호텔과 원구단	62
[그림 3-13] 조선총독부도서관 배치계획 (1927년)	63
[그림 3-14] 조선총독부도서관 정문이었던 광선문	63
[그림 3-15] 적막한 조선 독서계 (1933년 1월 22일 동아일보 기사)	64
[그림 3-16] 국립중앙도서관과 석고단 터	64
[그림 3-17] 철도도서관의 위치	65
[그림 3-18] 서양식 주택으로 조성된 만철 사택	66
[그림 3-19] 만철경성도서관의 모습	66
[그림 3-20] 근대 도서관의 호시 (1940년 4월 2일 동아일보 기사)	67
[그림 3-21] 1920년대 경성유람안내도에 표시된 철도학교와 철도도서관	67
[그림 3-22] 1916년 山口情의 경성도서관	69
[그림 3-23] 1921년 북촌 지형도에 표시한 윤익선의 경성도서관	70

[그림 3-24] 경성도서관 본관 (1921년 12월 6일 동아일보 기사)	72
[그림 3-25] 신축확성된경성도서관 (1923년 7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72
[그림 3-26] 1960년대 철거되기 전의 경성도서관	73
[그림 3-27] 경성도서관에 새로 온 독일 서적의 정수 (1923년 8월 23일 동아일보 기사)	73
[그림 3-28] 최후의 일소 (1924년 11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74
[그림 3-29] 일제 식민지기 공공도서관의 입지	75
[그림 3-30] 일제 식민지기 도서관의 전수 분포	77
[그림 3-31] 일제 식민지기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변화과정	78
[그림 4-1] 봉상시가 표시된 당시의 지도	80
[그림 4-2] 최초의 서양식 원형극장 희대	80
[그림 4-3] 원각사 1층, 2층 평면도	81
[그림 4-4] 광무대의 위치 (와전공작장으로 표기)	82
[그림 4-5] 이전한 광무대의 위치	82
[그림 4-6] 경성우편국 옆의 본정1정목 입구	83
[그림 4-7] 세계제일활동사진 개관 (1910년 2월 18일 황성신문 기사)	84
[그림 4-8] 황금정통 개수와 극장의 입지 변화	85
[그림 4-9] 대정관 개관 광고 (1912년 11월 8일 매일신보 광고)	86
[그림 4-10] 1917년 일본인 토지소유 현황에 작성된 1910년대 남촌과 북촌의 극장	87
[그림 4-11]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재개장한 단성사 광고 (1918년 12월 21일 매일신보 광고)	89
[그림 4-12] 의리적 구토 개봉 광고 (1919년 10월 28일 매일신보 광고)	89
[그림 4-13] 1930년대 우미관의 위치	90
[그림 4-14] 1925년 당시 조선인 극장들 (1925년 4월 1일 동아일보 기사)	90
[그림 4-15] 건축중의 조선극장 (1922년 9월 18일 동아일보 기사)	91
[그림 4-16] 공연 초일의 성황 (1936년 2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92
[그림 4-17] 백주 인시정대화 부근일대대혼잡 (1936년 6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92
[그림 4-18] 돈화문통의 개수와 약초극장	93
[그림 4-19] 약초극장	94
[그림 4-20] 1930년대의 명치좌	94
[그림 4-21] 명치좌의 1-3층 평면도	94
[그림 4-22] 황금좌	95

[그림 4-23] 1934년 모더니즘 형태로 신축된 단성사	95
[그림 4-24] 약초극장의 2층 홀 (朝鮮と建築 15집 2호(1936년 2월))	96
[그림 4-25] 황금좌의 무대와 2층 관객석 (朝鮮と建築 15집 2호(1936년 2월))	96
[그림 4-26] 황금좌의 2층 홀 (朝鮮と建築 15집 2호(1936년 2월))	97
[그림 4-27] 종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입지	98
[그림 4-28]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99
[그림 4-29] 증축된 회관과 종로 거리	99
[그림 4-30] 십일청년단체가 일당에 집회하야 (1923년 7월 13일 동아일보 기사)	100
[그림 4-31] 1921년 건축된 천도교 중앙대교당	101
[그림 4-32]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축 설계도	101
[그림 4-33]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내부	102
[그림 4-34] 경성공회당 설계도면 (1918년 2월 27일 매일신보 기사)	103
[그림 4-35] 경성공회당	104
[그림 4-36] 1920년대 경성공회당과 주변 일대	104
[그림 4-37] 1929년의 소공로 일대	105
[그림 4-38] 팔백의관민이 공회당에모히어 성황의명함교환 (1922년 1월 2일 동아일보 기사)	105
[그림 4-39] 크라이슬러 대공연회 (1923년 5월 24일 경성일보 기사)	105
[그림 4-40] 경성도시계획 도심부근의 조감도	106
[그림 4-41] 태평통 시구개수와 부민관의 입지	107
[그림 4-42] 이전하기 전의 덕안궁	108
[그림 4-43] 부민관 입면 설계도	108
[그림 4-44] 일제 식민지기 부민관과 태평통	108
[그림 4-45] 경성학우영화회의 모습 (保導月報(보도월보) 1936년 4월)	109
[그림 4-46] 조선권번의 船遊樂(선유락) 공연 (京城彙報(경성휘보) 1936년 1월)	109
[그림 4-47] 단성사의 <春香傳> 광고 (1935년 10월 5일 경성일보 광고)	110
[그림 4-48] 단성사의 아리랑 第三篇 광고 (1936년 5월 15일 경성일보 광고)	110
[그림 4-49] 1920년대 경성유람안내도에 표시된 극장과 공회당	111
[그림 5-1] 창경궁 전각의 산재한 박물관 (1909년)	115
[그림 5-2] 창경궁급비원평면도 (1908년)	116
[그림 5-3] 식물본관과 춘당지, 1911-1917년 추정	117

[그림 5-4] 창경원 안내 (1919년 이후)	118
[그림 5-5] 통명전 앞 정원, 1910-1912년 추정	118
[그림 5-6] 창경원의 이왕가박물관(제실박물관) 본관	119
[그림 5-7] 제실박물관신축계획도	119
[그림 5-8] 창경원을 밤에도연다 (1924년 3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120
[그림 5-9] 춘당지에 오색홍탑 (1935년 4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120
[그림 5-10] 경성박람회의 기념엽서	121
[그림 5-11] 1907년 경성박람회의 대동구락부	122
[그림 5-12] 조선물산공진회 조감도 (1915년 9월 3일 매일신보 기사)	123
[그림 5-13] 조선물산공진회의 배치도 (1915년 3월 7일 매일신보 기사)	124
[그림 5-14] 시정오년기전조선물산공진회 일호관신축설계도	125
[그림 5-15] 광화문 앞 조선물산공진회의 장식탑	125
[그림 5-16] 조선물산공진회 관람객	126
[그림 5-17]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의 위치 변경	127
[그림 5-18] 조선총독부박물관 전경	127
[그림 5-19]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신축공사 설계도	128
[그림 5-20] 조선총독부박물관 평면도	129
[그림 5-21]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1926년 12월 16일 동아일보 기사)	130
[그림 5-22] 조선총독부박물관 증축설계도	130
[그림 5-23]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아래)와 1929년 조선박람회의 배치도(위)	132
[그림 5-24] 1929년 조선박람회 포스터	133
[그림 5-25] 조선박람회의 배치도	134
[그림 5-26] 조선박람회 산업북관의 모습	135
[그림 5-27]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한 광화문	135
[그림 5-28] 무엇을 어들가 (1929년 9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136
[그림 5-29] 이왕직과 총독부 양박물관도 합병 (1926년 7월 2일 동아일보 기사)	137
[그림 5-30] 구궁에 필 찬연한 미술의 꽃 (1933년 9월 15일 동아일보 기사)	137
[그림 5-31] 이왕가미술관 전경	138
[그림 5-32] 석조전 전시실 평면도	138
[그림 5-33] 신관 전시실 평면도	138

[그림 5-34] 1938년 덕수궁 배치도	139
[그림 5-35] 조선총독부박물관 현상설계 당선작 투시도	140
[그림 5-36] 조선총독부 시정25년기념 박물관과 과학박물관 평면도	140
[그림 5-37] 조선총독부미술관 준공 (1939년 5월 15일 동아일보 기사)	141
[그림 5-38] 조선총독부미술관 전시실 배치도	141
[그림 5-39] 1930년대 초중반의 경복궁과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신영공사의 과학관 배치도 ·	142
[그림 5-40] 과학관 명추개관 (1925년 12월 25일 동아일보 기사)	143
[그림 5-41] 은사기념과학관 안내	144
[그림 5-42] 남산 왜성대의 조선총독부 구 청사의 초기와 증축 모습	144
[그림 5-43] 은사기념과학관 전시실 배치도	145
[그림 5-44] 석정화백전람회 (1920년 5월 9일 동아일보 기사)	147
[그림 5-45] 연초 포스타 전람회개최 삼월오층에서 (1937년 12월 4일 동아일보 기사)	148
[그림 5-46] 미쓰쿠시 백화점의 3층 화랑 모습	148
[그림 5-47] 미쓰쿠시 백화점의 층별 안내도	148
[그림 5-48] 동아백화점 인수 후의 화신백화점	149
[그림 5-49] 종로의 화신백화점	149
[그림 5-50] 화신백화점 화랑 위치도	150
[그림 5-51] 동경여미전졸업생 작품전람회개최 (1938년 5월 7일 동아일보 기사)	150
[그림 5-52] 경성의 백화점 위치	151
[그림 5-53] 미쓰쿠시 백화점의 야경	152
[그림 5-54] 미쓰쿠시 백화점의 옥상정원	152
[그림 5-55] 경성명승 유람 안내	153
[그림 6-1] 명치정의 명치좌	156
[그림 6-2] 태평통의 부민관	156
[그림 6-3] 조선박람회의 우편엽서	157
[그림 6-4] 조선박람회의 조감도	157
[그림 6-5] 남촌의 극장인 희락관 외관	158
[그림 6-6]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조선인 거류지의 문화시설	160
[그림 6-7] 일본인의 복진과 부정책도 북촌주력 (1928년 11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161
[그림 6-8] 조선박람회장 안내도	163

[그림 6-9]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 첫날 광경	164
[그림 6-10] 여류옹변 고조된 신여성의 기백 (1925년 3월 22일 동아일보 기사)	165
[그림 6-11] 만추풍경 (1930년 10월 26일 동아일보 기사)	166
[그림 6-12]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일제 식민지기의 대표적인 도서관, 극장, 박물관	169
[그림 6-13]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1910년대 문화시설	170
[그림 6-14]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1920년대 문화시설	171
[그림 6-15]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1930년대 문화시설	172
[그림 6-16] 표지석으로 남아 있는 경성의 문화시설 (조선총독부도서관, 우미관, 조선극장)	173
[그림 6-17] 현재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경성의 공연 및 전시시설	17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 공유, 전달된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문화 시설은 다양한 문화가 생성, 유통, 소비되는 공간이다. 도시민의 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문화 공간이 곧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으며(이법재 외, 1992),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도시 공간의 인문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도시재생과 일상생활 공간의 문화화(化) 노력은 도시 및 문화정책의 주류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과 문화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욕구 역시 다변화되면서 문화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였다(백선혜 외, 2015). 이처럼 문화시설은 시대 및 문명의 진보에 발맞춰 인간의 생활환경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 왔다.

문화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되며¹⁾,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시설은 인간의 정서적 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마당이나 사랑방, 장터 등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근대 사회로 전환된 이후, 두드러져 나타났다.

과거 우리의 전통적 모습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향상된 생활조건을 형성한 사회를 근대 사회라 한다. 근대란 자본주의의 태동을 특징으로, 전근대 시기의 신분제적 격벽이 없는 평등한 시민 사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근대에 대한 정의는 주로 서구에서 발현된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서구와 달리 외부의 충격과 압력 속에서 근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타파, 과거제의 폐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제국주의와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며, 굴절된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민권 의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공연시설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회랑, 조각공원, 도서시설은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은 문학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에는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은 이들 기능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식 확산으로 계몽사회의 배경이 되었으며, 문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장치로서 근대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근대시설은 1906년 탁지부건축소(度支部建築所)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탁지부건축소는 한일합병의 준비 작업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많은 근대적 제도와 시설을 도입하였다(김태웅, 2002). 이러한 제도와 시설의 보급이 갖는 속성은 다양하지만,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주창했던 ‘문명화(文明化)’와 ‘동화(同化)’라는 관점에서 조성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명화’라는 개념이 식민 지배의 명분을 위한 대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동화’ 정책은 대내적으로 식민 지배의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김동노, 2006). 그러나 일제 식민지기 초기에 설립된 근대시설은 지속적인 지시(instruction), 검열(inspection) 그리고 통제(control)로 표출되었다. 1916년 공포된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청사, 학교, 감옥, 재판소 등 사법과 행정시설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들의 시설은 ‘구유 권력’의 발현 장소로, 피지배자로서의 조선인을 근대적 통치라는 명분으로 생활 전반을 제한하였으며(주상훈, 2010), 도서관을 폐쇄하고 문화유산을 약탈하는 등 민족 문화를 억압하려 하였다. 무력을 기반으로 한 ‘무단통치’ 체제 하에서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민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김동노, 2006).

그러나 3.1운동 이후 전환된, ‘문화정치’ 체제에는 ‘문명화’에서 더 나아가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동화’를 목표로, 일제는 교육과 계몽을 중시하였다(김신재, 2016). 기존 ‘무단통치’ 체제에서의 근대시설이 사법, 행정제도 등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화정치’ 체제에는 동화를 목표로 상호교류가 가능한 문화시설, 상업시설, 극장 및 경기장 건축이 다수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awabata Mitsuru 외(1988)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22년부터 1945년까지 ‘朝鮮と建築’에 나타난 시설별 건축물의 사례 현황은 [표 1-1]과 같다. 당시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사례로, 실제 건립 상황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건축계가 관심을 가졌던 건축물로서, 1910년대 탁지부건축소(度支部建築所) 주도의 건축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화가 진전되고 정치적 노선이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간 주도의 시설이 건립되었고, 관에 의해 설립된 근대적 시설들도 통치 목적보다는 근대적 도시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문화시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 맺으며 발전하였고, 근대적

2) 조선총독부관보 제1275호 <조선총독부건축표준>에 따르면, 1장 통치, 2장 방한구조, 3장 청사, 4장 학교, 5장 의원, 6장 감옥, 7장 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령은 당시 각 시설에 대한 건축 표준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령으로 타 시설보다 계획적으로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상훈, 2010; 김진균 외, 2003)

[표 1-1] 시설별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건축물 사례 수
 (출처 : 1922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의 건축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울외편)(1988), 검토 후 재작성)

건축 용도별(시설별) 구분	경성부 이외 지역 동 수(棟 數)	경성부 지역 동 수(棟 數)	합 계
1 공공건축	233	57	290
2 상업·사무소 건축	187	112	299
3 운송·창고업 건축	213	16	229
4 공장건축	77	20	97
5 병원·사회복지 건축	44	46	90
6 음식·오락시설 건축	31	22	53
7 호텔·여관 건축	15	9	24
8 극장·경기장 건축	103	57	160
9 그 밖의 공공건축	27	27	54
10 종교 건축	70	26	96
11 교육·문화 건축	270	129	399
12 주택 건축	7	169	176
13 기타	20	(32)	20 (32)
합계	1,297	690 (32)	1,987 (32)

의미의 문화시설은 문화정치 전후에 주로 성장하여 우리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선총독부 주도로 조성된 문화시설은 당시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우리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해 형성된 문화시설도 우리의 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문화시설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입지를 정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공간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입지적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제 식민지기는 도시 공간과 시설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설이라 칭하는 것들의 기원, 공공성, 행정이 탄생한 시기이다.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공공 문화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공간을 재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생성된 지점에서 출발해야하기에 근대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와 오늘을 잇는 공간으로 경성의 문화시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화정치’라는 정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일제가 식민 지배

를 위해 도입한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용된 문화시설'을 근대 도시계획 형성의 중요한 축이자,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문화시설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놓여있다. 일제 식민지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식민지 수탈론은 조선의 내재적 근대화 가능성이 일제의 침략과 약탈에 의해 진정한 근대화가 해방 이후까지 지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며, 식민지 근대화론은 조선 사회의 정체성 극복과 경제발전의 기반이 일제 식민지기에 근대적 체제가 구축되면서 조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우리의 근대 도시사는 역사와 사회구조를 규정하는 근대성과 식민성이라는 양가적 성격에 의해 규정되었고, 이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김백영, 2006).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근대성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가진 식민지성과 외부에서 이식된 근대성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기에(박선희, 2006), 앞서 언급한 이분법으로 이 시기를 규정짓는 태도는 지양하고자 한다. 사회화와 소비 자본주의의 산물인 문화시설에 대한 조성 and 운영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조선총독부의 권력과 의지, 재경성 일본인들의 자본, 이왕가와 조선인들의 대응, 계몽을 위한 재경성 선교사의 입장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조성 과정에서 운영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재경성 일본인들은 여가생활을 위해 문화시설을 거류지에 건립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조성은 단순히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의지와 목적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총독부도 '동화'를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없었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경성의 민중들도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경성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계층이나 계급, 성별,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김백영, 2009). 따라서 문화시설의 조성을 식민 지배의 의도로 규정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인들의 경험을 '민족적 수탈'로만 인식한다면, 민족말살 전략이라는 기존의 정서를 답습하는 결과로 엄밀한 해석이 어렵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의 굴절된 근대화 과정을 원인이 아닌 '어떤 것을 발생시킨 근원'으로 이해하고(전상인, 1998), 당시 문화시설 조성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살펴

봄으로써 추후 도시 공간에서 문화시설이 차지하는 사회적 함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 식민지기에 도입된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시설은 ‘문화정치’를 들여다보는 현장으로서, 정부(公)와 민중(共)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근대 시각적 문화공간의 대표적인 장소로, 책과 공연, 전시물을 ‘보는’ 공통점이 있다. 일제 식민지기 경성은 시각문화를 통해 근대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소였으며, 문화시설은 우리의 근대 사회와 문화를 이루는 축대로 기능하였다. 이에 당시의 문화시설을 근대 도시의 산물로 이해하고 근대 시민의 형성 공간으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문화시설은 경성에 등장한 이후, 거주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사회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었고 상업적 목적에 의해 조성된 문화시설은 대중의 욕망을 창출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에 의해 계획된 문화시설은 관(官)의 입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였고 식민지라는 민족적 울분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선진화된 사회상의 반영으로 당시의 문화시설은 자연스럽게 분포되었다. 이는 ‘문화정치’라는 일제의 의도대로 수행되었으며, 현재적 의미에서 Nudge³⁾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임을 고찰한다.

둘째,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근대 시민의 학습 공간으로서 문화시설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근대 사회로 재편되면서 문화시설은 계급 사회와 대비되는 수평 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제 식민지기의 사법, 행정시설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었고 문화정치 이후, 문화시설이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훈육과 규율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련된 방식으로 문화를 관철시킬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민간 차원에서 근대를 체득한 방식을 고찰한다. 또한 다른 차별이 존재했던 식민지에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건립된 문화시설의 역할을 분석한다.

셋째, 근대 문화시설이 문화정치 전후, 조성 주체와 시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우선 누가, 언제, 어디에, 왜, 어떻게 문화시설을 만들었는지 분석한다. 도시·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성 주체와 설립 의도를 밝히는 일은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고루 조성된 문화시설의 대중성과 상업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화시설의 조성 과정과 역할,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당시의 도시계획과 함께,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3) 넛지(nudge)는 ‘연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에 의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간접적인 개입의 특징은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선택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일제의 ‘문화정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일제 식민지기 근대화의 과정에서 민중이 겪은 문화시설의 경험은 다중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와 경성의 민중들이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접촉 지대’인 문화시설은 동화의 넓은 스펙트럼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민족, 성별, 신분의 기제가 문화시설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의 지층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도시사 및 문화 환경을 분석하고 탐구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시설의 입지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도서관, 극장, 박물관이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연구의 대상인 도서관, 극장, 박물관은 각각 사회교육을 수행하고 민중의 여가를 경험, 근대를 선전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가정했을 때, 근대화의 과정에서 대표성을 띠는 문화시설이다. 그러나 도서관, 극장, 박물관의 세 문화시설은 각각의 시설이 형성된 시기와 전개 양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도서관은 문화정치가 도입된 19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일제 식민지기에 경

[표 1-2] 일제 식민지기 설립된 도서관 현황

분류	도서관명	설립주체	설립시기	내용
공공 도서관	경성도서관	민간 (윤익선, 이범승)	1920	경성문고 도서를 바탕으로, 윤익선이 설립
	경성부립도서관	경성부	1922	경성부에 의해, 명치정 한성병원 위치에 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조선총독부	1925	석고단 자리에 조성
	철도도서관	만철주식회사	1920	용산 철도학교 인근 만철경성도서관으로 개관
전문학교 부설 도서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조선총독부	1926	동송동 소재, 경성제국대학 개교와 함께 설립
	보성전문도서관	천도교 등의 민족자본	1906	수송동에 위치한 교사에 보성관으로 시작 1937년 개교 30주년 기념 도서관 건립
	연희전문도서관	선교사	1915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건물에 기증도서로 시작 1924년 신촌 언더우드 홀 준공
	이화학당도서관	선교사	1913	정동 프라이홀(Frey Hall) 도서실 1935년 신촌 파이프홀 1층에 도서실 마련

성에 설립된 도서관은 총 8곳이며, [표 1-2]와 같이 공공과 민간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과 전문학교 부설도서관이 있다. 이 중 전문학교 부설도서관은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전문학교의 부속 기관으로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 개발에 미친 영향이 단일 건물의 도서관과는 구별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1920년대 일제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을 경성부립 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철도도서관으로 분류하였고, 민간 주도의 최초 사립도서관인 경성도서관은 설립자인 야마구치 세이(山口情), 윤익선, 이범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설립된 도서관에 대하여,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추후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선호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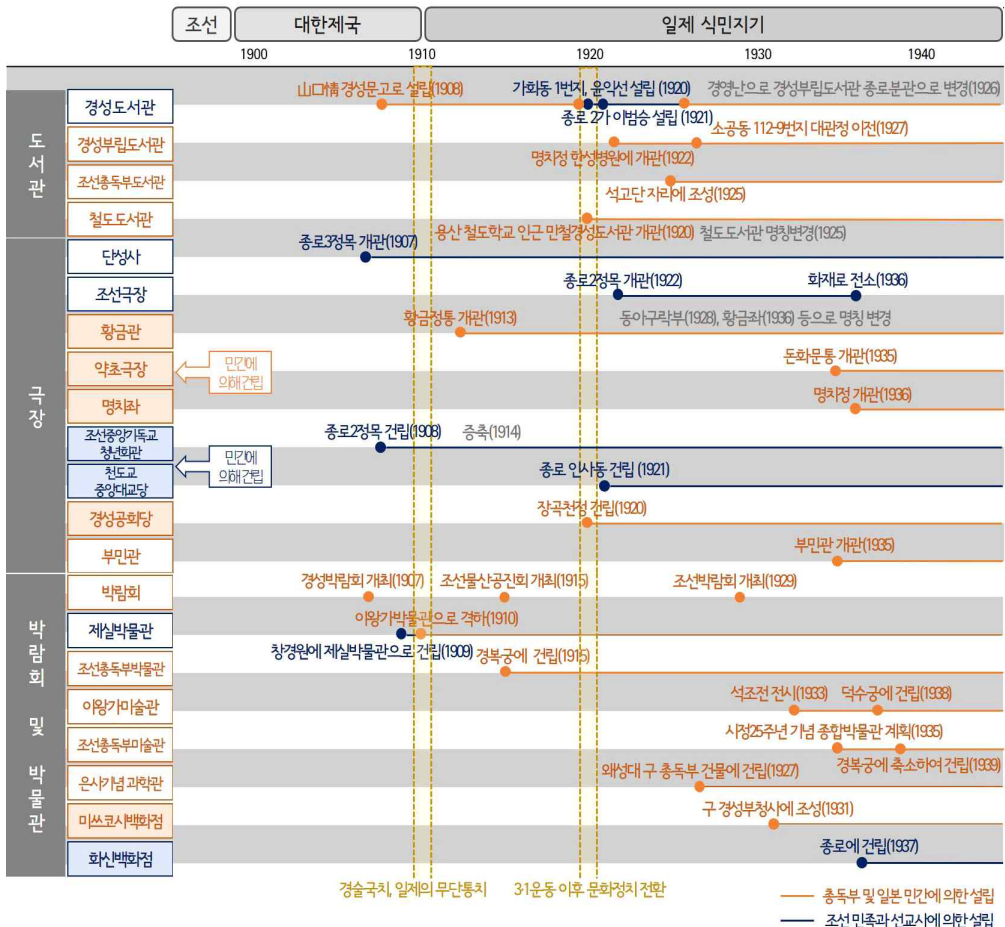
극장은 1902년 청경예식을 치르기 위해 희대·협률사가 설치되었고 민간분야에서는 1903년 동대문 기계창에서 서양의 활동사진을 상영하는 공간으로 경성의 극장은 대중문

[표 1-3] 일제 식민지기의 남, 북촌 극장 현황

분류	극장명	위치	개관 시기	내용
남촌의 극장	경성좌	주정 → 본정 4정목	1904	1910년 화재로 소실, 해방 후 극동극장으로 개관
	어상좌	남대문동 5정목	1906	남성좌로 바뀌어 1935년까지 존재
	가부키좌	-	1906	1912년 화재로 소실, 현 신세계백화점 좌측 위치
	수좌	수정 3정목	1908	경성극장(1919), 경성연예관(1931)으로 변경
	경성고등연예관	황금정 2정목	1910	제2대정관, 세계관(1915)으로 개칭
	대정관	앵정정 1정목	1912	활동사진 전문관
	수관	본정 3정목	1912	본정좌(1920)로 명칭 변경
	황금관	황금정 4정목	1913	동아구락부(1928), 황금좌(1936) 등으로 변경
	유락관	본정 1정목	1915	1918년 희락관으로 개칭, 1945년 화재로 전소
	약초극장	약초정	1935	모더니즘 건축 양식으로 돈화문동 가로에 위치
명치좌	명치정	1936	명동 네거리에 위치, 현재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용	
북촌의 극장	원각사	한성부 야주현 부근	1903	협률사 공간을 1908년 재개관, 창극이 주로 공연
	광무대	동대문 → 황금정	1907	동대문 기계창에서 운영, 황금유원으로 이전
	단성사	수은동	1907	1910년 중반부터 1932년까지 박승필이 운영
	우미관	관철동	1912	서양영화 개봉관으로 출발하여, 1910년대 부흥
	조선극장	종로 2정목	1922	영화상설관으로 허가 및 추후 연극 공연으로 확대

화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일제 식민지기 민족별로 구분되었던 남촌과 북촌의 극장은 [표 1-3]과 같이 경성의 곳곳에 설립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력, 인지도, 규모를 바탕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1910년대 남촌의 황금관과 북촌의 단성사를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분석하였고 1920년대 등장한 전문극장(조선극장, 약초극장, 명치좌)에 대한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회당으로서 선교사 및 종교시설로 종로에 지어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분석하고 문화정치 이후, 일본 자본에 의해 설립된 경성공회당과 조선총독부에 의해 계획된 부민관의 도시사회적 역할 변화를 파악하였다.

경성의 박물관은 1909년 제실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창경궁에 최초로 건립되었다. 또한 경복궁에서 크고 작은 박람회(경성박람회, 조선물산공진회, 조선박람회)를 개최하였고, 박



[그림 1-1] 연구의 대상 및 시간적 범위

람회장으로 사용된 건물이 이후 박물관으로 변화하였다. 일제가 기획하고 신설한 관람 제도는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시각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제공하였고 기존과는 다른 체제의 문화를 양산하였다. 이에 궁궐 내 입지한 전시시설(경복궁의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조선총독부미술관, 덕수궁의 이왕가미술관)과 이후 경성 내 전시공간의 확장 과정을 통해 조성된 은사기념과학관을 분석하고 관광명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시공간의 대중화를 위해 민간에 의해 설립된 미쓰코시 백화점과 화신 백화점의 화랑에 대한 사회적 기능도 분석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상품진열관, 동아일보사 사옥 등에서도 미술품의 전시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기획 전시공간으로 본 연구에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출처 : 경성부관내도, 서울역사박물관

서는 상설 전시공간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또한 간송 전형필의 보화각 역시 전시보다는 유물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문화시설 간의 구분으로 서술의 방법에 있어 연구 대상별 차이를 두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제 식민지기에 형성된 문화시설의 특성과 현재적 시점에서 사회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의 범위는 경술국치의 1910년부터 전시체제로 변화하는 1937년까지로 한정하였다. 통치수단의 변화에 따라 근대문화시설의 조성 현황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통치수단에 관계없이 민간차원에서 조성된 근대문화시설 또한 지역별,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시간적 범위는 [그림 1-1], 공간적 범위는 당시 경성부의 경계(도심부 및 용산 일대)로 [그림 1-2]와 같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근대문화시설의 도입과 전개과정 분석을 위하여, 시각적 문화공간의 대표성을 띤 도서관과 극장, 박물관을 고찰하였다.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내용 등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도출한다.

2장은 근대 도시와 문화시설의 전개과정을 기술한다. 도시 문화시설로서 문화시설의 사회적 개념을 정립하고 시각문화 형성의 공간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종단적, 횡단적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주체적 변화와 일본 도쿄의 모방적 차용을 바탕으로 근대 도시계획과 문화시설의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식민지 도시의 강제적 수용 과정을 통해 이중도시라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양에서 근대 경성(京城)으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일제 식민지기 문화정치의 등장 배경을 고찰한다.

3장에서 5장은 근대문화시설을 도서관, 극장,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를 분석한다. 각 사례는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정치 전후,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실의 기술과 해석을 병행한다. 3장은 도서관에 관한 연구로, 공공 도서관의 조성 과정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립 도서관이 대륙 침략을 위한 학술 교두보 및 사회교육 실현의 장이었음을 고찰한다. 4장은 극(劇) 공간으로 일제 식민지기 극장과 공회당을 살펴본다. 민족별로 구분되어 있던 남촌과 북촌의 대표적인 극장과 선교사 및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공회당에 대하여, 다양한 설립 주체와 설립 의도를 살펴보고 문화시설을

통해 이중도시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호 관계맺음을 통시적으로 해석한다. 5장은 궁궐 내 입지한 전시시설과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경성의 전시시설이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궁궐에 입지한 박물관은 점차 궁궐을 휘젓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조선의 민중들에게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또한 경성의 백화점에 조성된 전시 공간을 통해 문화정치 이후, 전시시설의 도시사회적 기능을 분석한다.

6장은 3-5장에서 분석한 도서관, 극장, 박물관에 대한 해석으로, 공간적 관점에서 문화시설이 거주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식민 도시의 대표적 특징인 이중도시의 경계를 완화하는 역할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의 기능에 대하여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시설이 설립 시기와 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찰한다.

7장은 종합 결론으로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이라는 문화시설이 어떻게 문화정치와 함께 조성되고 발전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고찰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시기별로 크게 공급과 수요, 혹은 조성과 이용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성이란 일제 식민지기 도입된 문화시설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즉 조성 주체와 의도를 살펴보고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설의 이용 문화를 해석하기 위해 이용자가 당시의 문화시설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 즉 새로운 대중문화 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공급과 수용, 시설에 대한 이용이 현재의 문화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였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극장, 박물관에 대한 면밀한 묘사와 해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문서, 공식기록물, 풍속지리지, 회고록 등의 다양한 문헌자료와 건축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림 등의 도상 자료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서관, 극장, 박물관의 조성 과정과 공간 변화는 주로 1차 문헌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논증하였다. 문화시설의 설립 배경과 의도는 당시 조선총독부와 지자체의 공식 기록, 신문기사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공간 구성은 근·현대 지도 및 도면과 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시기별 도면을 비교하여 공간 변화를 파악하였다. 과거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도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1910년대에

서 1940년 이전의 과거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자료는 과거 도시계획과 문화시설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하는데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소설과 영화 등의 예술 작품도 분석 자료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당대 도시 공간 속의 문화시설을 재구성함으로써 도시 역사, 사회·문화사, 인문 지리 등의 영역에서 그 결과물의 공유가 가능한 생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외 유관 연구 동향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근대 도시공간과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도시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우리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 이후, 지난 20세기 초반에 경험한 근대화 및 도시화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김백영, 2011). 근대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권영상·김진균⁴⁾은 조선 초기 전근대적 도시형성 원리에 의해 조성된 한성부가 17세기 이후 기능적 도시로 변모되는 과정을 통해 원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김광우⁵⁾는 경성의 시구개정은 식민지기 일제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적 도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도시문제의 대한제국 대응책으로 출발한 것임을 분석하였다. 염복규⁶⁾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 경성의 도로망과 공간 구획을 분석하여, 경성이 서로 다른 권력주체, 민족 및 계층 간의 쟁투, 토지의 공공성과 사유제 간의 모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고찰하였다. 김기호⁷⁾는 경성부 시구개정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 및 대한제국의 도시계획과 어떻게 다르며,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도시공간적 의미는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김흥순⁸⁾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관련 도시계획에서 표출된 근대성의 실

4) 권영상·김진균 2004, “주요시설 이동에 의한 조선 후기 한성부 도시구조변화의 해석”, 『도시설계』, 5권, 3호, pp.63-79.

5) 김광우 1991,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郷土서술』, 50호, pp.95-122.

6) 염복규 2004, “식민지근대의 공간형성 - 근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형성, 변용, 확장”, 『문화과학』, 39권, pp.197-219.

7) 김기호 1995, “일제강점기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호, pp.41-66.

8) 김흥순 200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8권, 4호, pp.155-173.

체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도시계획이 통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성 안에 내재된 고유의 특징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백영⁹⁾은 1920년대 대경성계획을 중심으로 행위 주체의 복수성과 지배 전략의 가변성, 실현 과정에서의 우발성이라는 관점에서 당시의 도시계획을 분석,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식민지 도시 사회 권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시공간의 근대화는 당시의 사회 및 문화의 근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제 식민지기 사회문화사적 연구에서 박세훈¹⁰⁾은 식민지 도시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공간이 분할되어 있으며 식민자들의 ‘문명세계’와 피식민자들의 ‘암흑세계’가 대조를 이루는 ‘이중 도시(dual city)’로서 식민지 도시를 분석하였다. 김영근¹¹⁾은 경성을 대상으로 식민지적 근대화에 따른 일상의 변화와 경험을 통하여, 조선인은 주변인적 부정의식의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식민지 근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김종근¹²⁾은 개화기(1885년)에서 일제강점의 전반기(1929년)까지 경성에서 일본인의 시가지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박선희¹³⁾는 식민지 경제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경성의 상업공간이 어떻게 식민지 근대성을 표출하고 있었는지 분석하여, 상업공간의 민족별 격리와 조선인 상업자본의 영세성이라는 이중구조를 파악하였다. 주상훈¹⁴⁾은 일제 식민지기 대량으로 도입되었던 관립 근대시설에 대하여 사범, 행형, 교육시설의 건축 도면 분석을 중심으로 건축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강상훈¹⁵⁾은 박람회, 보통학교, 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고찰, 모더니즘 건축이 어떠한 맥락으로 수용되었는지 ‘선진성의 표상’과 ‘합리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안창모¹⁶⁾는 여행과 관광의 장소로서 도시와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철도역사 건축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9) 김백영 2005, “식민지 도시계획을 둘러싼 식민 권력의 균열과 갈등 : 192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7호, pp.84-128.

10) 이론과실천모임 2002, 『국토와 환경 - 공간계획론의 새로운 접근을 중심으로』 1부 참조, 한울, 경기.

11) 김영근 2000,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 경성에서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권, pp.11-46.

12) 김종근 2003, “서울 중심부의 일본인 시가지 확산 - 개화기에서 일제강점 전반기까지(1885년~1929년)”, 『서울학 연구』, 20호, pp.181-233.

13) 박선희 2006, “경성(京城)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상업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1권, 3호, pp.301-318.

14) 주상훈 2010,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 : 사범, 행형, 교육시설 건축도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5) 강상훈 2004,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 박람회·보통학교·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6) 안창모 2002, “한국근대건축에서 식민지관광주의와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 철도역사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1권, 2호, pp.7-22.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 극장 및 공회당, 박물관과 미술관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춘희¹⁷⁾는 개화기의 도서관이 전근대적 시대에서 벗어나 전환기의 근대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사상적 배경 속에서 도서관의 발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실상을 고찰하였다. 김포옥¹⁸⁾은 일제 식민지기 도서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 운동의 본질과 성격을 살펴보고, 당시의 도서관이 어떻게 조직·관리되어 현재의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약, 기술하였다. 김용성¹⁹⁾은 경제적 측면과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항일시대의 도시화 과정이 공공도서관 설립과 존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김영석·이용재²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흥도회도서관이 일제에 의해 건립,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지숙·오동근²¹⁾²²⁾은 일제 식민지기 철도도서관의 문헌 분류표와 관립도서관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한 문헌 분류표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까지의 영향을 파악하였고, 정해성·여지숙²³⁾은 일제 식민지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현황과 대학 및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현황과 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홍의균²⁴⁾은 18-19세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근대공공도서관의 정착과 성장과정, 공공도서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을 고찰하였다. 해외의 연구에서 Black, A²⁵⁾은 영국 공공도서관의 설립과정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명하였으며, 한해정²⁶⁾은 독일 베를린 시립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공공’의 시각에서 추진되지 못한 도서관의 결핍된 역할이 베를린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근대 극장 및 공회당에 대한 연구에서 박노현²⁷⁾은 1900-10년대 극장을 중심으로 고고

17) 이춘희 1989, “근대 한국 도서관사 연구 - 개화기에 있어서 근대도서관사상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6권, 1호, pp.71-110.

18) 김포옥 1979, “일제하의 공공도서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권, 1호, pp.137-163.

19) 김용성 1997, “항일시대의 도시화 과정과 공공도서관”, 『인문과학연구논총』, 16권, pp.437-487.

20) 김영석·이용재 200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본 흥도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권, 2호, pp.131-150.

21) 여지숙·오동근 2004, “일제강점기 철도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2호, pp.95-114.

22) 여지숙·오동근 2004,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3호, pp.293-319.

23) 정해성·여지숙 2007,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권, 3호, pp.405-423.

24) 홍의균 1986,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배경에 관한 연구 : 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5) Black, A. 1996, *A New History of the English Public Library: Social and Intellectual Contexts*, Leicester University Press, London.

26) 한해정 2017, “베를린(Berlin) 시립도서관의 초기역사”, 『도시연구』, 17호, pp.161-190.

27) 박노현 2004, “극장(劇場)의 탄생 - 1900~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19호, pp.7-39.

학적 분석을 진행하여, 극장이 ‘관객’이라는 공중의 공간이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사교의 장, 공중에 대한 훈육의 공간임을 분석하였다. 박현선²⁸⁾은 근대의 극장이 식민지 근대성과 서구적 근대성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형성된 대중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극장을 분석하였다. 이세영²⁹⁾은 경성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여가문화에 주목하여, 영화 감상의 양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 당시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홍선영³⁰⁾은 근대성의 산물로 극장을 규정하고 경성에 건립된 일본인 극장이 ‘신도래자’들이 만들어낸 문화공간으로, ‘제국’의 문화적 과장의 경계에서 균질성과 비균질성의 긴장을 야기하는 영역으로 극장을 고찰하였다. 한상언³¹⁾은 조선이 식민지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1910년대 경성의 극장이 일본의 공원과 유곽, 극장 등으로 이식된 일본식 흥행문화의 흔적을 분석하였다. 김순주³²⁾는 식민지 경성의 건축물인 부민관이 어떠한 분위기와 과정 속에서 탄생하였는지 파악하고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당시 경성부민들의 삶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박명진³³⁾은 ‘대경성(大京城)’ 공간에서 1930년대 극장 문화를 극장 내부와 주변 풍경을 통해 해석하고,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소비활동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연구에서 James, B³⁴⁾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 처음 도입된 영화관에 대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사회적 논쟁의 장소로 이를 분석하였고, Luk, Y³⁵⁾는 홍콩의 극장을 중심으로 영국의 식민지와 이후 현대의 극장 문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근대 박물관과 미술관 연구에서 국성하³⁶⁾는 일제 식민지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고적조사보존사업의 전개과정과 박물관 설립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교육과 박물관 설립의 관계를 파악, 박물관 운영을 통한 일제의 문화교육정책 의도를 분석하였다. 궁궐 내의 전시시설에 대하여, 송인호 외³⁷⁾는 경복궁에서 열린 두 차례의 박람회를 통해 경복궁이 훼손되는 과정과 일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근대시설물이 입지하는 변화를

28) 박현선 2002, “근대 극장과 대중문화의 형성”, 『영상예술연구』, 2호, pp.102-118.

29) 이세영 2016, “영화를 중심으로 본 근대 경성의 여가문화 연구”, 『미술사논단』, 43호, pp.135-155.

30) 홍선영 2009, “경성의 일본인 극장 변천사 - 식민지도시의 문화와 ‘극장’”, 『일본문화학보』, 43호, pp.281-305.

31) 한상언 2012, “1910년대 경성의 극장과 극장문화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53호, pp.403-429.

32) 김순주 2014,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 - 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6호, pp.1-36.

33) 박명진 2008, “1930년대 경성의 시청각 환경과 극장문화”, 『한국극예술연구』, 27호, pp.63-93.

34) James, B. 2006, *The African Bioscope - Movie House Culture in British Colonial Africa, Afrique & histoire*, Vol. 5, pp.65-80.

35) Luk, Y T. 1998, *Post-Colonialism and Contemporary Hong Kong Theatre: Two Case Studies*, *New Theatre Quarterly*, Vol. 14, no. 56, pp.366-372.

36) 국성하 2003 『일제 강점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7) 송인호·김제정·최아신 2014, “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5호, pp.111-138.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성의 경관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김대호³⁸⁾는 일제 식민지기 경복궁의 ‘훼손’ 과정과 당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 행정의 공간인 조선총독부 청사, 문화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공간인 박물관, 일본적 경관의 후원 공간으로 3분화되었음을 분석하고 앞으로 경복궁의 참된 활용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김정은³⁹⁾은 창경원의 조성 과정과 공간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창경원이 다양한 성격의 시설이 혼재된 유원지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오락 문화를 수용하는 장소임을 도출하였다. 안현정⁴⁰⁾은 일제 식민지기 박람회 개최와 박물관 건립을 통해 일제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식민지 권력이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식민지 신민(臣民)’을 동화하기 위한 식민지 문화지배정책의 일부임을 파악하였다. 이경선⁴¹⁾은 은사기념과학관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은사기념과학관이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조선의 과학관’으로 정립하려는 과학원의 노력으로 상충하는 이중적 성격임을 분석하였다. 목수현⁴²⁾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이왕가박물관에 대하여 설립 경위, 소장품의 수집과정과 성격, 운영체제 등을 분석, 명칭의 정당성과 설립 주체에 대한 박물관의 성격을 파악하였고, 다른 연구⁴³⁾에서 당시 매체에 보도된 전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1930년대 경성에서 벌어진 미술 전시를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여, 여가와 교양으로서 서화 감상이 대중의 취미로 전환하는 계기를 고찰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조선후기부터 일제의 식민지기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는 기능성, 합리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식민지 근대(colonial modernity)’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하면서 급증하였다. 또한, 조선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민족적 입장에서 행동했을 것이라는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 민족 차별이라는 용어로 치환할 수 없는, 역사적 자취를 추적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도시공간의 변화에서는 단일성을 띤 것처럼 보이는 식민지 도시계획이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의 종속변수이며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김백영, 2011) 또한 파악하였다.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계획 의도

38) 김대호 2007, “일제강점기 이후 경복궁의 毀撤과 ‘活用’(1910~현재)”, 『서울학연구』, 29호, pp.83-131.

39) 김정은 2015, “일제강점기 창경원의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한국조경학회지』, 43권, 6호, pp.1-15.

40) 안현정 2010, “시선의 근대적 재편, 일제치하의 전시공간 : 박람회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권, pp.193-225.

41) 이경선 2012,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 - 일제강점기 은사기념과학관의 과학보급사업, 1925-1945』,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2) 목수현 2000,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호, pp.81-104.

43) 목수현 2009,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호, pp.97-116.

와는 달리, 공간을 생산하고 재창조하여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변화시켜 이용하였음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도 계급, 계층, 성별, 세대, 지역 등 '민족'으로 치환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잘 나타나는 장소로 근대문화시설을 선택하였다. 기존 학교와 같은 근대교육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어린이와 여성들의 사회교육 장소로서 도서관, 근대 시민을 형성하고 대중문화의 성장을 주도한 극장, 그리고 조선인의 민족의식 고취와 이를 말살하려는 일제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의 수용과 향유과정을 통해 근대 도시공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설립되며 성별, 민족, 남녀노소가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당시의 여가 및 일상생활을 반영하여 근대 도시문화의 실상을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도시와 민족 간의 긴밀한 관계를 시사한다. 기존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통해 일제에 의해 복합적으로 전유되었던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찾고자 함에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헌정보학(도서관) 혹은 공연예술학(극장), 미술사학 및 교육학(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학문적 세밀함도 훌륭하지만 교차학문적 연구방식을 통해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분야로서, 도시연구 혹은 도시계획 분야가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오늘날 도시 내 문화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한다면 문화시설과 도시공간 연구는 이미 많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각의 분야에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도시가 언제나 '근대의 실험실'이자 '세계주의의 근거지'였음을 상기해볼 때(김백영, 2011), 문화시설 연구와 도시 공간 연구가 결합할 필요성과 가능성도 연구의 의의라 할 것이다.

제2장 근대 도시와 문화시설

1. 도시문화시설
2. 근대 도시계획과 문화시설
3. 근대 도시 경성(京城)의 형성

제1절 도시문화시설

1. 문화시설의 사회적 개념

문화(文化, Culture)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한 용어로, 경작, 재배 등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교양, 예술, 관습 등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 공유된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문화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예술은 문화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유민영, 2004). 과거 우리는 문화에 대하여, 예술로 보는 경향이 많았으며 생활양식, 교양, 인간관계, 의식구조의 순으로 문화를 인식해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의 범위는 예술 행위를 비롯하여 교육,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이근해, 2008; 정주성 외, 1991).

이처럼 보편적 가치로서 문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 영역에서는 삶의 수준과 질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소비의 차이가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적 자본과 사회 계층과의 관계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창안한 ‘아비투스(habitus)’와 ‘장(場: Champ)’ 그리고 문화자본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개인적인 여가 소비 양식과 취향을 결정짓는 기제로 아비투스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제의 범주 안에서 여가 문화 활동의 축적을 통해 문화자본⁴⁴⁾이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아비투스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개인의 성향, 사고, 인지와 행동체계를 의미한다(조광익, 2006). 개인의 행위로서 아비투스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 속에서 일정 부분 지속되는 고정된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향체계로 남게 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1차적 아비투스는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되며 출신 계급의 배경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반면, 2차적 아비투스는 학교, 문화시설 등 사회적 교육기관에 의해 사회적 계급으로 형성된다. 경제자본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여 개인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아비투스에 의해 형성된 문화자본은 지식이나 취향의 형태로 자본의 소유자인 개인과 분리되지 않고 체화되어 나타난다(장미혜, 2002). 한편 부르디외는 사회를 총체적이고 단일한 문화로 귀결되지 않는 다수의 분화된 장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가 경제장, 문

44) 부르디외의 자본(capital) 개념은 행위자가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으로 이해되며,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경제자본 : 금전, 토지, 노동, 등의 경제적 재화 요소들의 총체, 2) 문화자본 : 가정환경, 가정교육으로 형성된 아비투스처럼 내면화된 것이나, 실재적인 문화재, 학력과 같이 제도화된 것 모두를 지칭, 3) 사회적자본 : 사회적 관계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 4) 상징자본 : 의식, 명예 등의 상징적 효과로 사회적 관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택수, 1998)

회장, 교육장, 정치장과 같이 상이한 장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장들은 그 자체의 논리와 속성, 고유한 원칙을 통해 구조화된 체계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양은경, 2002). 그러나 이들의 경계가 분명한 독립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김웅권, 2005), 사회교육이라는 아비투스(a)가 실현되는 장(場)인 문화정책, 즉, 문화시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지배 집단의 지식을 정당화하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 왔다. 사회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아비투스(a)와 장이 만나서 실천적 행위를 만들어낸다. 교육을 통해 다루어지는 지식과 인격이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동일한 아비투스를 생성하여 다시 사회교육의 장으로 재투입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자본의 역할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여가나 관광을 포함한 문화적 욕구는 점차 확대되었다(조광익, 2006).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가 고급 예술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작품을 이해하고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문화’와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체화된 문화자본이지만, 이는 사회계급들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조광익, 2006). 박물관에서의 예술품 관람, 음악회의 참석, 문자를 통해 지식을 교류하는 독서 등의 여가행위가 단순한 오락 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습득해 온 아비투스의 문화적 실천이며, 이러한 문화적 욕구나 취향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가 소비의 양식은 출신 계급과 사회교육 수준, 즉 문화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못하였고, 여가로 문화를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갈 기회는 부족하였다. 보다 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 체험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전시와 교육’, ‘체험과 위락’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가 생성, 유통, 소비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 음악당 등 물리적 측면이 강한 시설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문화시설은 ‘문화’라는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거리, 민족,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A)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주요 작품에 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명제 아래, 각 지역에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 문화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크 랑(J)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영역 즉, 만화, 서커스, 낙서 등의 대중문화도 문화의 범주로 인정하여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황혜진, 2010). 또한 교육기관과도 연계하여 학교 교육 내에서 문화 활동 양성가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

정책의 근대화를 이루었다. 즉 문화시설은 예술이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와 지식,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1) 지식 종람소의 도서관

도서관은 ‘Archive’와 ‘Library’라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Archive는 인쇄물을 포함한 자료의 집적과 관리를 위한 기록보관소이며, Library는 책을 두는 장소로 정보의 제공에 목적이 있다(김정희, 2007). 초기의 도서관은 인류가 문화를 구축한 이래, 사회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력층을 위한 고대 도서관과 달리, 중세에는 지식계급인 성직자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자료가 독점되었다(유경종, 2010). 이후 수도원의 독점화된 도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등장으로 쇠퇴하게 된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도서관이 지식의 중심이 되었으며, 인쇄술의 발명은 도서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곽철완, 2012). 지식의 공유와 급격한 도시·사회적 변화는 지식의 중심이 점차 대중에게 이동하도록 하였다.

근대적 의미에서 공공도서관은 영국의 공공도서관법이 제정된 185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Kelly, 1977). 유럽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성장, 시민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도서관이 발전하였으며, 북미에서는 이민자를 시민으로서 지적으로 성숙된 선거권자로 훈육하기 위한 역량 증진 차원에서 도서관을 활용하였다(홍의균, 1986). 공공도서관 태동의 사상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체제이다(Bryce, 1921). 또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장치로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에 의해 창조된 결과물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다양한 지식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창



[그림 2-1]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 복원도

출처 : 윤희윤, 『도서관 지식문화사』

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였으며, 인종, 국적, 연령, 성별, 종교,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으로⁴⁵⁾ 변화하였다.

2) 극(劇) 공간으로서 극장과 공회당

유럽의 극장은 제사와 축제를 통해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반영하여 시민들을 결집하는 그리스의 야외극장에서 출발하였다(임석재, 2018). 그러나 18세기 이전까지 극장은 왕가나 귀족 등 일부 계층만이 점유하는 소규모의 극장이었다. 이러한 극장들은 궁정이나 왕궁에 부속되었으며, 음악회는 주로 귀족들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교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궁정의 극장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관람객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계획되었으며, 화려한 장식이 부가된 형태였다(김형준, 2004). 극장은 19세기 이후 교회나 궁정, 귀족의 후원 대신 새로운 정치·경제적 주체인 부르주아 중산층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였고, 음악회는 사교의 장소가 아닌 순수하게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음악의 주된 소비층으로 시민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여가 생활이 표출되는 곳에 음악이 자리한 것이다. 음악의 소비계층이 변화하고 관객이 증가함에 따라 극장의 수와 규모는 점점 늘어났으며 이후 대중을 위한 공공극장이 등장하였다(김문환, 1998).

공공극장은 규모나 특징, 내용 면에서 궁정극장과 차이가 있다. 궁정극장의 경우 일부의 계층만 이용했기 때문에 궁정 내 소규모로 존재하였지만, 공공극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설되어 많은 좌석을 갖추었으며,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 속에 위치하였다. 18세기 후반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궁정극장은 점차 쇠퇴한 반면 공공극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되었다(정태용, 1986; 김형준, 2004).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국가들은 극장을 공공의 편의시설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영국에서는 극장을 도시의 문화적 상징으로 건설하였고 시민들은 공원처럼 극장을 방문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은 극장 자체를 구경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그 결과 내·외부가 웅장한 극장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으로 극장은 지역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극장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여가시설과 구경거리로 기능해왔다(김형준, 2004).

3) 전시공간의 박물관과 미술관

박물관은 라틴어의 ‘무제움(museum)’과 그리스어 ‘뮤세이온(museion)’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과거의 지혜와 유산을 보존하는 일종의 성소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45) UNESCO와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1994년 ‘공공도서관 선언문’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나이, 인종, 성, 국적, 언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된다.”고 선언하였다.

에 설립된 교육과 연구기관이 그 효시이다. 중세에는 각 사원이 박물관 역할을 하였고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수집품 중 일부는 예술가나 학자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항로의 개통, 신대륙의 발견, 문예 부흥 등 시야가 확장됨에 따라 수집된 자료와 물품들이 대학이나 공공박물관으로 이관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서구 사회에서 박물관이 대중에게 문을 연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이다. 프랑스는 박물관 설립을 통해, 박물관의 입장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공표하였다. 19세기 이후 박물관은 한 국가나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고, 각국은 국가의 정체성에 맞는 공간과 소장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장품은 반드시 진품으로 공공의 소유여야 했으며, 다른 공동체, 국가의 것보다 우월해야 했다. 실제로 박물관은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귀중한 문화적 요소를 수집, 전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자국의 우월한 소장품을 대중에게 보여주던 박물관은 20세기 이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컬렉션과 학문을 이념 하에,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냉전체제가 끝난 이후의 박물관은 보유하고 있던 소장품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찾아오는 관객의 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보관하는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변화하였다.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역사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공



[그림 2-2] 1850년 샤를 피소가 그린 루브르 박물관 전경

출처 : 김한결 역, 『박물관의 탄생』

간으로 박물관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과 이념의 대결을 겪은 후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겪은 시간을 박제하지 않고 대중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였다. 박물관이 과거 자랑스러운 유물만을 보여주던 공간에서 오늘날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된 것이다(김한결, 2014).

2. 시각문화 형성의 근대문화시설

시각이란 눈으로 지각되고 인지되는 감각으로, 시각문화는 시각적 재현물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행위와 가치 및 소득을 말한다. 과거와 달리, 근대는 개별적인 주체가 감각의 체험을 통해 시각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새롭게 개명된 시대이다. ‘본다’는 시각행위는 가장 주체적 시각활동으로, 근대는 시각문화에 의해 체험과 인식의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되고 ‘이미지’의 시대로 대전환이 촉발되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근대 도시민의 교양과 취미, 지식 및 정보가 시각문화로 재현되면서, 도시민에게 말과 글을 뛰어넘는 체험과 자극을 주었다. 당시 공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였기에, 의식 및 삶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시각문화는 근대를 인식하고 추종하는 매체이기도 하였다. 시각문화는 18-19세기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의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 상품의 대량생산 등에 수반되어, 대중 및 여가문화로 확산되면서 시각예술이 문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감각 체험과 구조에도 심층적 변화를 가져왔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또한 당시에 계획된 근대의 도시는 시각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서구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근대의 계획은 지배력 강화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 ‘보기 쉽고, 읽기 편하게’ 만들고자 나타난 결과물이었다. 이처럼 근대의 시각문화는 근대 도시와 도시성의 산물로서, 도시와 근대적인 삶 자체가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시각문화의 형성은 근대 도시의 특징으로서, 이를 쉽게 반영하는 공간은 당시의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자를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과 연극을 관람하는 극장, 전시품과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각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었다. 기존의 개념으로 형용하기 힘든 근대 도시의 시각문화 공람제도 및 유통과 이를 소비하는 대중인 ‘관람자’의 출현은 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상품화를 통해, 근대를 증식하고 근대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였다(김병규 외, 2009). 당시의 시민들은 ‘보는 것에 대한 신뢰’와 ‘체험의 질’을 달리 하는 전시 및 관람시설에서 공공성을 띤 공람제도와 인쇄매체를 통해 시각문화를 일상적으로 내면화하면서 ‘근대’를 체화하였다(목수현, 2009). 즉 전시품을 관람하고

신문, 잡지를 보는 그 자체로서 근대적인 삶으로 변화한 것이다. 누구나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공재가 된 시각문화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수혜 또는 수용의 주체로서 호기심과 취미, 관찰력에 따라 확장되고 심화되었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특히 박람회는 박물관과 미술관, 활동사진관과 같은 ‘파노라마 지각’ 기능이 집결된 근대적 공간이자 이벤트였으며, 도서, 신문과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 인쇄된 사진과 삽화, 광고도안 등은 시각문화의 공공화와 대중화를 견인하였다.

이처럼 근대의 도시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문명개화의 관찰공간이었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보여주기 위해 공람되고 유통되기 시작한 시각문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각이라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주형하였다(이성욱, 2004).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 감각과 양식을 바탕으로, 이를 관람하는 구경꾼에 의해 근대성이 체험되었고 근대문화시설은 대중적 감수성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2절 근대 도시계획과 문화시설

1. 프랑스 파리의 주체적 변화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서구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이전되고, 자유, 평등의 민주적 가치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는 왕정 중심의 도시 여러 시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793년 혁명 정부는 그랑 갤러리에 왕실과 귀족으로부터 압수한 예술품을 전시하는 Museum central des arts 설립을 공표하며, 루브르에 프랑스 국립 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 대중에게 문을 열었다. 새로운 공화제 헌법의 제정과 혁명 1주년을 경축하는 축제와 함께 개관했다는 사실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이 ‘공화정의 아카데미’ 즉, ‘혁명정신과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학교’로 기획되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Andrew L, 1988). [그림 2-3]과 같이, 중세에 성채로 건설되어 근대 초 왕궁으로 사용되었던 루브르



[그림 2-3] 중세시대 성채로 건설된 루브르 궁
출처 : <http://dreillard.vip-blog.com>

가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송기형, 2001). 혁명 정부는 ‘협오의 대상으로 파괴될 수도 있는 지난 체제의 잔재를 문화유산(patrimoine)으로 지정’하고 박물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거를 재해석하였다⁴⁶⁾. 혁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박물관을 활용하면서 영혼을 고양시키고 프랑스 공화국을 빛낼 강력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루브르에 박물관 설립을 처음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1789년 혁명가들이 아니라 절대왕정이었다⁴⁷⁾. 18세기 후반 정부는 ‘유럽에 대한 프랑스 문화적 패권의 상징’과 ‘계몽 사상의 정신에 호응하는 백과전서’로 루브르에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였다(Andrew L, 1988). 파리 한가운데 위치한 루브르는 한때 왕궁으로 쓰였던 건물이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로 이주한 이후에는 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를 비롯한 여러 왕립 아카데미들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비록 혁명 정부에 의해 박물관이 설립되었지만, 사회에 대한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계몽주의적 열망은 주체적으로 근대 도시 파리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루브르 박물관의 갤러리에는 회화와 조각 작품을 전시하였고 넓은 공간에 격조를 주기 위하여 대리석 테이블 및 장식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대중에게 박물관은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고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절대 왕정의 상징물에 대한 거부와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등장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였으며, 당시의 파리는 중세 도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좁은 길들이 미로같이 얽혀 있는 과도기적인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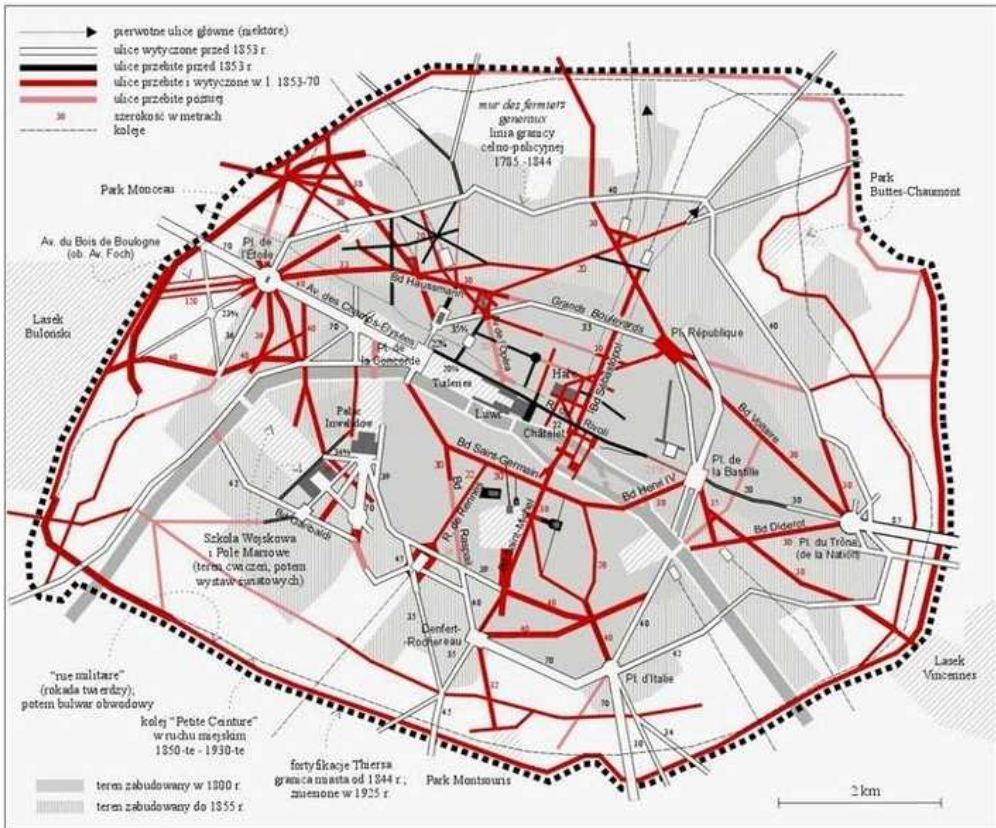
19세기 초반의 파리는 교외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파리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주택 부족과 주거 환경의 악화, 위생문제, 사회적 계층 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도시를 변화시키고 위생적 환경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었고, 183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가로정비 사업이 시행되었다. 1833년부터 1848년까지 도지사로서 재임한 랑뷔토(Claude-Philibert Barthelot de Rambuteau)는 질병 발생의 원인을 좁고 구불구불한 길과 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도시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파리 도심정비 및 가로확장 사업

46) 실제로 프랑스 혁명 시기였던 1793년 여름, 왕정과 관련된 유물들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국민공회도 왕권과 관련된 기념물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이를 부추겼다. (정연복, 2009; 박윤덕,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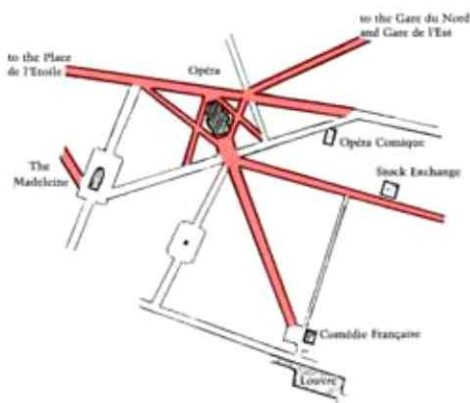
47) 18세기 중반의 루브르는 예술품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 당시 루브르에는 여러 아카데미와 정부 부처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 하사한 아파트에 기거하는 귀족들과 예술가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 이에 1750년 룩상부르 궁에 최초의 박물관이 설치되었으나, 1779년 루이 16세가 룩상부르 궁을 동생에게 하사함으로써 룩상부르 갤러리는 폐쇄되었고, 루브르 박물관 설립이 재논의 되었다. (Andrew L, 1988; 박윤덕, 2015)

내 지붕이 설치된 중앙시장(Halles)을 각 지역에 조성하고, 여가시설로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녹지를 통한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2차 오스만의 정비 사업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연계를 위하여 직선가로의 조성과 기차역 주변 지역의 철거 후, 정비를 통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원칙으로 노후화된 밀집지역을 정비하였다. 특히 파리의 중심인 시테(Cite) 섬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과 교회 등을 철거하여 기존의 거주인구 약 1만 5,000명의 빈민 밀집지역을 인구 5,000명 이하의 거주인구로 밀도를 낮췄다. 이렇게 정비된 시테 섬에는 법원, 경시청 등의 주요 관공서를 입지하였고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오페라 극장을 착공하여, 도시의 중요한 결절점이나 광장에 건설되었다. 과거 르 펠티에 가로(Rue le Peletier)에 위치했던 옛 ‘파리 오페라’ 건물의 화재로 오페라 극장 신축을 계획하던 중 오스만의 정비 사업과 맞물려, 새로운 부지 10,000㎡를 지금의 위치에 마련하였다. 극장 신축을 위한 대지가 부적합할 경우, 주변의 환경과 도시조직은 극장 건축에 부합하도록 변화하였고 극장들이 도시 곳곳에 건설되면서 도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극장의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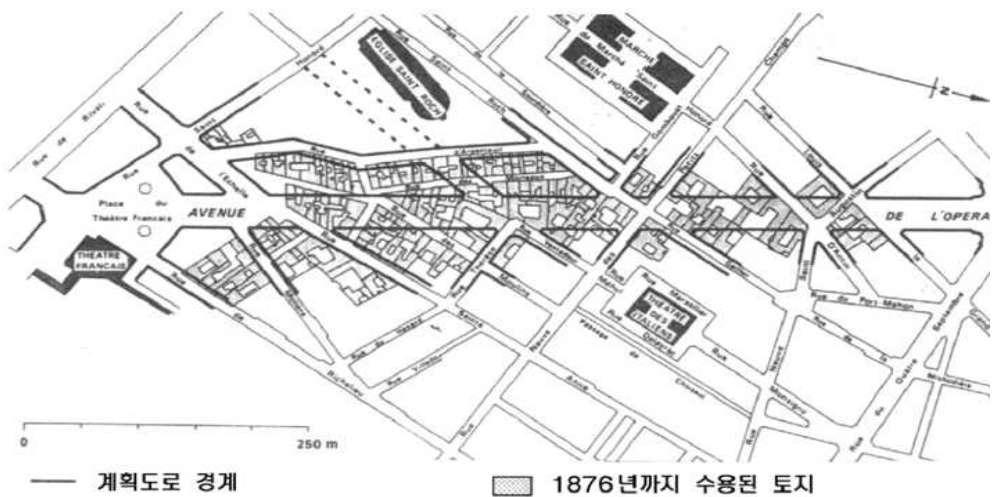
[그림 2-6] 2차 오스만 사업에 의한 Boulevard 계획



[그림 2-7] 파리의 오페라극장과 신설도로
출처 : 김형준, 『19세기 근대건축사설의 구축』

[그림 2-8] 19세기 파리의 오페라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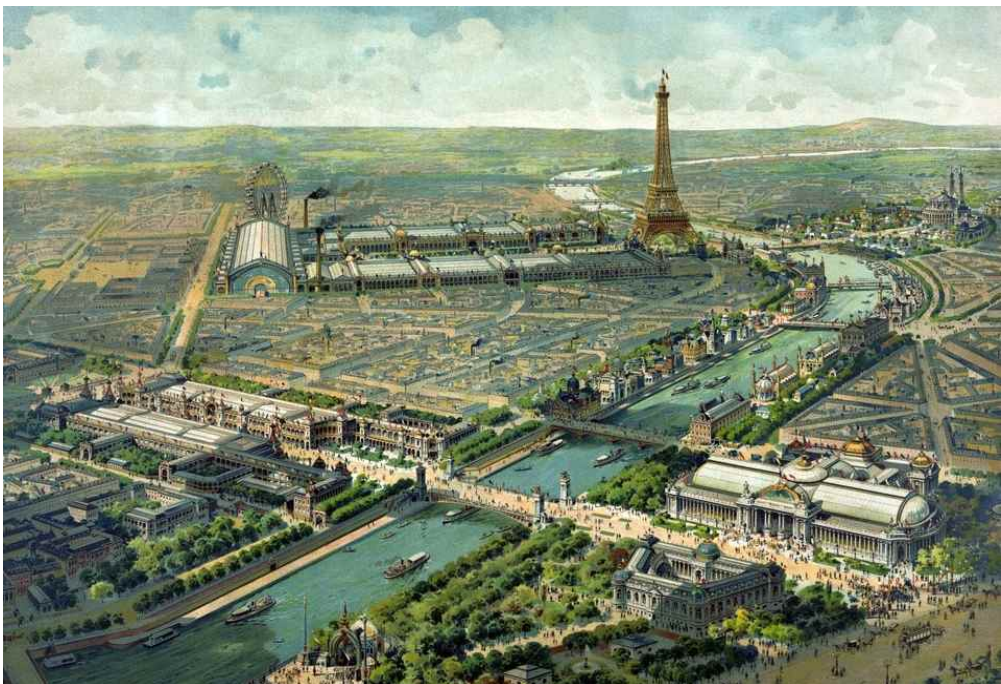
목적은 문명화된 도시의 상징으로, 극장을 경험한 시민들에게 문명의 위대함을 전달하고자 하였다(Carlson, 1989; 김형준, 2004). 과거 무지함과 불합리한 관습,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문명의 위대함은 계몽주의가 만든 새로운 세계관의 반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은 도시의 중요한 위치에 건설되었으며, 외관은 화려하고 극장 그 자체만으로도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만큼 웅장한 모습이었다. 2차 오스만 사업은 바로크 도시계획의 전형적 구조인 방사형 구조를 파리에 도입한 시기로 오늘날 파리의 도시구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개선문 광장(Arc de Triomphe)이나 트로카데로(Trocadero)와 같은 방사형 형태의 가로망은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또한 마들렌(Madelaire)과 몽소(Monceau) 광장을 연결하는 가로와 개선문이 위치한 에투알



[그림 2-9] 2차 오스만 사업에 의한 직선가로의 형성

광장(Place de l'étoile)을 계획하고 센 강 북쪽에는 샤토-도(Chateau d'eau)를 중심으로 세 개 주요 가로와 생 라자르(Saint Lazard) 역 주변을 철거하여 기차역 주변에 공지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가로망 구조는 파리의 도시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블록은 방사형의 가로망에 예각의 도로망이 관통하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분할되어 새로운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오스만식 가구(ilot haussmann, 오스만 일로)'라 불리는 새로운 도시 조직은 신설 도로가 기존 블록을 사선으로 분할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주로 예각 삼각형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블록 형태의 변화로 인해 필지의 형태도 삼각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최민아, 2014).

3차 오스만의 정비 사업은 1867년 발표되고 1869년에서 1925년까지 시행되었다. 이때 개선문 광장 등 2차 사업으로 착수된 사업이 완공되고, 오페라 가와 라파예트 가로와 같은 파리 중심가로는 조성되었다. 또한 뷔트 쇼몽(Butte Chaumon), 몽수리(Mont Souris) 공원 등 파리의 주요 공원이 조성되고, 1868년 리슐리외 거리에 국립도서관⁴⁸⁾이 이전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이 확충되었다. 당시 많은 양의 장서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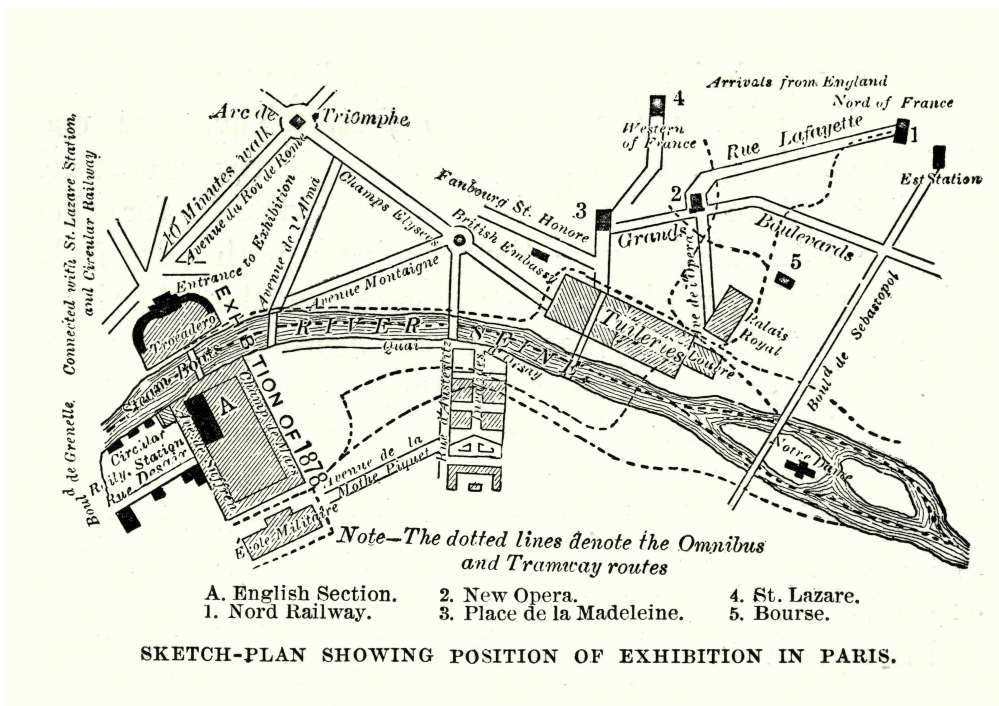
[그림 2-10] 1900년 파리 박람회의 모습

출처 : <https://www.reddit.com>

48) 국립도서관은 샤를 5세가 1368년 루브르 궁에 만든 왕립도서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루이 14세 시절 확장되어 1720년 일반에 공개되었으나, 정치체제 변화에 따라 제국도서관으로 변모하여 1868년 리슐리외 거리로 이전하였다.

구조로 아치 천장을 계획하였고 건물의 측면에 서가를 배치하는 등 프랑스 최고의 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박람회의 개최로 도시 공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총 관람객 수가 5,000만 명에 달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비롯하여, 1878년과 1889년 등 수차례 이어진 박람회는 많은 기계와 발명품, 그리고 건축물이 전시되었다. [그림 2-10]과 같이,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에펠탑과 전시공간으로 그랑 팔레(Grand Palais)와 프티 팔레(Petit Palais)가 건축되었다. 이들은 오스만에 의해 조성된 가로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지어졌으며, 그랑 팔레(Grand Palais)는 런던의 수정궁(Crystal Palace)에서 영감을 받아 철근과 유리를 주재료로 고전주의 양식의 석조 전면과 아르누보 양식의 철재 마감을 조합한 '보자르 양식(Beaux-Arts architecture)'으로 건축되었다. 19세기 만국박람회 당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에는 각종 전시를 개최하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당시의 박람회에 식민지 파빌리온이 등장한 점이다. 파리 앵발리드의 근처에 프랑스의 중요한 식민지였던 알제리와 튀니지의 파빌리온이 이슬람 양식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1900년 박람회에서 대한제국관은 경복궁의 근정전과 유사한 외관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국적 풍취의 파빌리온은 식민지 문화를 타



[그림 2-11] 1900년 파리 박람회 당시의 전시 공간

출처 : <https://www.istockphoto.com>

자로 규정하고 자신들 스스로의 시각과 목적에 의해 도시 공간에 전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국가의 삶을 산업화된 서구 사회와 자연스럽게 대비하여, 당시의 우수한 건축기술과 함께 근대 도시의 우월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근대 도시로의 사회적 배경이었다면, 19세기 오스만의 도시정비사업과 파리 만국박람회는 물리적, 공간적으로 파리를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과거 왕정의 공간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오스만은 사업 초기 도시면적의 60%를 17년간 개조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부터 도로 체계, 녹지 조성, 미관 관리에 이르는 도시계획과 운영을 통해 중세 파리와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주요 광장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대로가

만들어졌고 도로 주위에는 오스만 양식의 건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물들을 계획하고 각지에 크고 작은 녹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각종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주요 공공장소와 기념비들을 도시 외부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근대 공공공간이 시민의 삶에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그러나 서민주택의 철거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 파리 시의 재정위기, 저소득층의 축출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였다. 도시정비로 인해 새로 확충된 근대식 기반시설은 도시의 쾌적성 및 기능 확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반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시민에게만 혜택을 제한하였다. 과거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이 대부분의 시민을 수용하였지만, 파리의 오페라는 200만 시민 중 단지 2,000명만을 수용할 수 있어 문화시설이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비민주적 공간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Benevolo, 1983).

이처럼 근대의 파리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변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근대적 삶이 가능해진 도시를 구축함과 동시에 계몽의 수단으로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중앙집권의 통제를 관철시킨 지극히 정치적인 도시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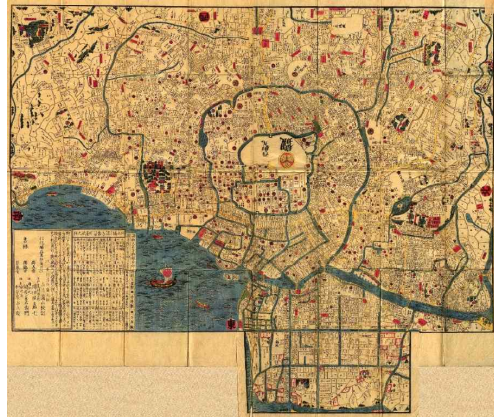
[그림 2-12] 1900년 파리 박람회의 대한제국관 모습
출처 :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49) 씨네21 2018, "남영동 대공분실과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근대 공공 공간", 2018.02.15. 기사 일부

2. 일본 도쿄의 모방적 차용

서구와 일본의 근대도시계획은 일정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되었다. 서구의 근대도시계획이 일찍 진행되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서구의 근대화를 따라가는 일본의 발걸음이 많이 뒤쳐지진 않았다(김나영, 2014). 1869년 교토에 머물던 메이지 천황⁵⁰⁾의 동순, 즉 도쿄 행차 이후 근대 일본의 천황들은 모두 도쿄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 도쿄는 '제도 도쿄'라 불리며 교토와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에도⁵¹⁾를 동쪽 수도로 정하여 동일본 통치의 거점으로 삼자는 동서 양도론, 제도 이전의 에도 천도론 등이 논의되었으나, 천황이 친정이라는 일본의 국가 이념에 따라 태정관⁵²⁾을 도쿄로 이전하면서 국가 상징의 수도가 되었다. 이 시기 천황은 도시를 순회함으로써 권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군주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영토가 공간적 일치를 이루는 공간통합 의례를 거행하였다(한석정, 2003). 천도와 순행을 통해 근대적 지배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869년 이후, 도쿄는 국가 행정적, 상징적 차원의 수도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로 건설되었다. 당시의 도시계획을 시기별로 살펴



[그림 2-13] 1848년 에도의 모습

출처 : <http://blogs.b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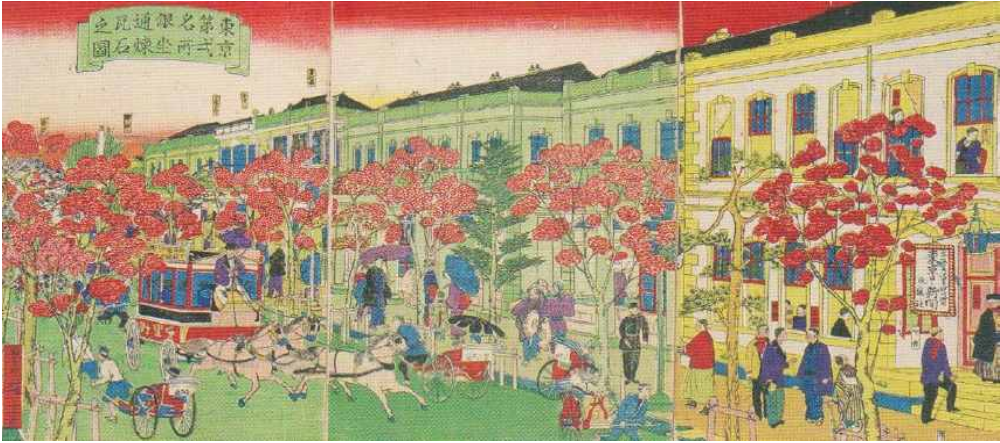
[표 2-1] 일본 도쿄의 근대 도시계획 흐름

년도	계획내용
1872	긴자 벽돌거리 계획
1873	우에노 공원 지정 (일본 최초의 계획)
1887	히비야 관청집중계획
1887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 개최
1888-1916	도쿄 시구개정(市區改正) 설계
1889	황거 앞 광장 계획
1919	도시계획법 수립
1920	메이지신궁 내원 완공
1926	메이지신궁 외원 완공
1924-1930	제도(帝都)부흥사업

50) 일본의 군주로 일본 황실의 대표이자 일본의 상징적 국가 원수이다. 대한민국의 신문, 뉴스 등의 매체에서 '일왕(日王)'으로 표기하지는 의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식 용어인 천황으로 표기하였다.

51) 에도는 일본 도쿄의 옛 이름으로, 에도 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에도 막부가 일본을 지배하던 1603년부터 1868년까지 막부의 중심지였다.

52) 일본 율령제에서 사법, 행정, 입법을 관장하는 최고 국가기관이다. 여러시대를 거치며 그 지위는 약화되었으나 상징적 의미의 관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885년 내각제가 설치되기까지 중앙정부기구를 통칭하였다.



[그림 2-14] 우타가와 히로시게 3세 작 '도쿄제2명소 긴자벽돌거리 풍속도'

출처 : <http://www.ginza.jp>

보면 [표 2-1]과 같다. 1872년 긴자 벽돌거리 조성사업은 서구인이 직접 일본의 도시계획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친 계획이다. 1872년 발생한 대화재를 기점으로 메이지 정부는 도쿄 전체를 불에 타지 않는 서구식 건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폐허로 된 가로에 서구식 거리(street)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목조 가옥을 벽돌 건물로 교체하고 도로의 폭을 확대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인 토마스 워터스(Thomas J. Waters)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2층의 벽돌 건물을 계획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했으며 가로수를 심고 가스등을 세웠다. 이는 런던 리젠트가의 퀴드란트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세기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볼 수 있었던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서구화를 갈망한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였다(전진성, 2014). 당시의 긴자는 변화한 거리가 아니었으나, 철도 개통 이후 요코하마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곳을 근대 국가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石田頼房, 1984; 김나영, 2014). 그러나 당시 변화가인 니혼바시에 비하여 성장하지 못하였고, 빈집도 간간히 존재하였다. 이는 소수 엘리트 관료에 의한 모험적인 기획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당시 길모습만 바꾼 '간판'에 불과하다는 지배적 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족하였다(David B. 1987).



[그림 2-15] 긴자벽돌거리의 모습

출처 : <http://showcase.meijitaish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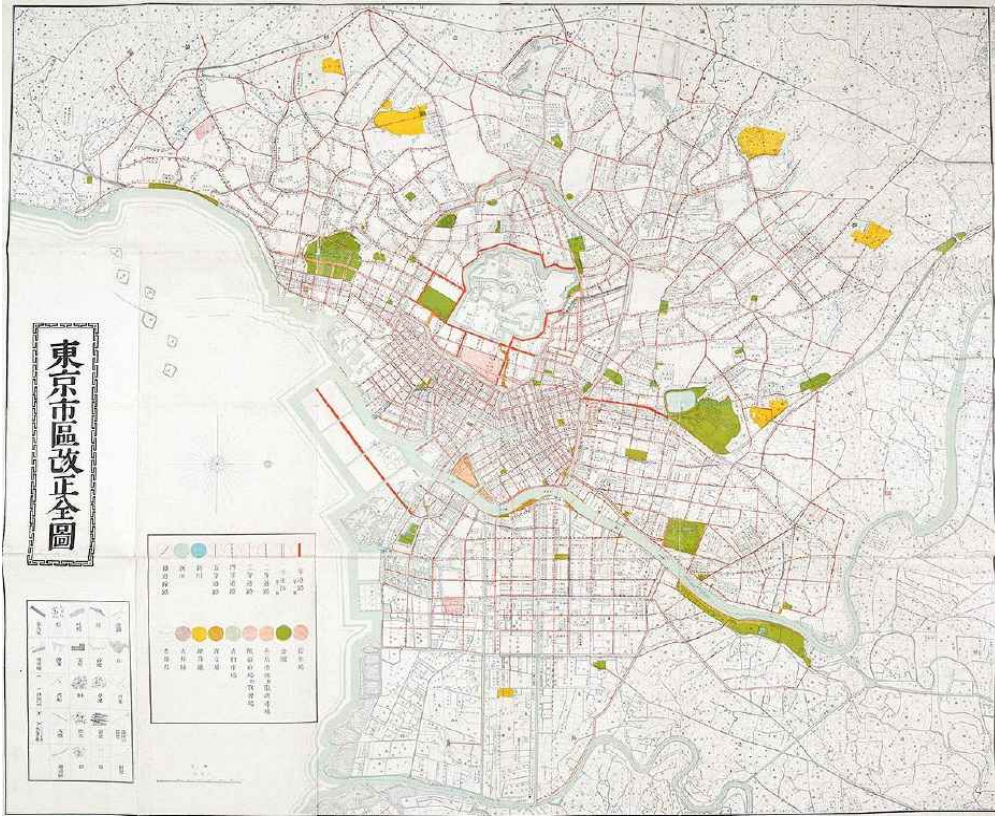
긴자 벽돌거리 조성사업은 일본 정부에서 고용된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한 사업으로, 이후 1887년 히비야 관청집중 계획에도 일본의 요청으로 독일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당시 유럽에서 시도되었던 네오 바로크풍의 도시계획으로 제국 수도로서의 위용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기념비적인 대로와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공공 건축물, 그리고 도쿄 남북을 잇는 중앙역의 건립은 새로운 제국 수도의 공간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서울학연구소, 2006). 히비야 관청집중 계획의 중심은 국회의사당의 건립으로, 외국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완공되었지만 1891년 화재로 건물이 유실되었고, 이 계획은 1888년 도쿄 시구개정 설계에 의해 대체되었다. 비록 원형의 일본 광장은 조성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제국의 중심을 계획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곳에 도쿄재판소와 사법성이 조성되었다.



[그림 2-16] 히비야 관청집중 계획 설계도

출처 : David,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1888년부터 시행된 시구개정 설계는 일본 최초의 법정 도시계획으로, 근대국가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전염병, 화재 방지, 교통 및 도로 정비를 위해 도입되었다. 일본은 개항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최고의 지식인들을 서구에 파견하여 근대 국가로서 서구의 모습을 직접 관찰, 경험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본을 근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중 도시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는 1871년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2년간 미국과 유럽 전역을 시찰하면서 서구의 근대 도시 조직과 가로경관, 서양식 건축 등을 경험하였다(현명철, 2006). 당시의 기록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도로 포장의 문제로,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차량에 의한 물자수송이 용이하고 도시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사절단의 생각은 시구개정의 계획 내용과 연결되었다(김나영, 2014). 사업의 성과로 노면전차 부설을 위한 도심부 도로를 확장하였고, 전염병 예방대책으로서 상수도 정비, 히비야 공원의 신설과 에도시대의 대저택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토지의 공적 이용과 규제라는 오스만의 파리 개조 방식을 차용



[그림 2-17] 1889년 동경기구개정위원회의 동경시구개조전도

출처 : <http://www.archives.go.jp/exhibition>

하여 도시계획의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수용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시구개정 설계는 1919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일본 사절단이 경험한 1850-60년대 파리의 도시개조 사업을 바탕으로, 서구의 근대도시계획 방식은 도쿄의 공원과 문화시설에서도 중첩되어 나타났다.

간에이지 지역은 에도성의 동북쪽에 위치한 우에노 산에 건립된 에도막부의 사찰로, 보신전쟁⁵³⁾으로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이후, 1870년 의학학교와 병원의 예정지로 검토되었으나 이곳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1873년 일본 최초의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우에노 공원에는 박물관, 동물원, 철도역사, 도서관 등 근대를 상징하는 각종 건물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1877년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1881년 제2회 박람회가 개최된 미술관은 이후, 1882년 우에노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이는 1851년 런던박람회

53) 보신전쟁은 1868년부터 1869년까지 일본에서 양정복고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와 에도막부 세력 간의 내전이다. 메이지 정부가 승리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다이묘들이 지배하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었다.



[그림 2-18] 우에노에서 개최된 1877년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

출처 : 일본 국회도서관



[그림 2-19] 1907년 우에노 공원

출처 : 일본 국회도서관

를 개최한 후, 그 결과물로 개관한 산업박물관의 사례를 따른 것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마친 마치다 히사나리(町田久成)에 의해 주도적으로 계획되었다(최석영, 2008). 당시의 일본은 근대화를 통한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위해 박람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메이지 정부



[그림 2-20] 도쿄의 제국극장

출처 : <https://blog.naver.com/caesar117>



[그림 2-21] 히비야 공원 입구에 위치한 도쿄시공회당

출처 : <https://blog.naver.com/caesar117>

는 간에이지 지역에 근대적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에도 막부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차문성, 2007). 1886년에는 우에노 박물관이 공원 부지와 함께 황실 소유로 변경되었고, 1889년 제국박물관, 1900년 제실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1883년 우에노와 동북부의 쿠마가야(熊谷)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고 우에노역을 건립하면서, 우에노역은 도호쿠 지역에서 도쿄로 오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많은 사람과 화물이 드나들면서 인근 지역도 자연스럽게 개발되었고 이후 1906년 제국도서관, 미술관, 과학관이 차례로 조성되는 등 메이지 정부 근대적 상징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1883년까지 에도 성은 기존 막부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1888년 황거가 완성되기 전, 이곳의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였다. 1889년 조성된 황거 앞의 광장은 국가 상징적 차원의 이벤트가 실시되는 공간으로, 1906년 러일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관병식은 이곳에 치러진 대표적인 이벤트였다. 황거를 중심으로 야스쿠니 신사, 일본 자본주의의 중심인 마루노우치, 국가행정적 차원의 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나가타초와 가스미가세키가 형성되어, 황거 앞 광장은 근대 일본의 국가 이념, 행정, 경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박삼헌, 2010). 1911년 마루노우치에 제국극장이 건립되고 1929년 가스미가세키에 도쿄시정회관이 건립되는 등 황거 앞 히비야 공원 주변으로도 문화시설이 다수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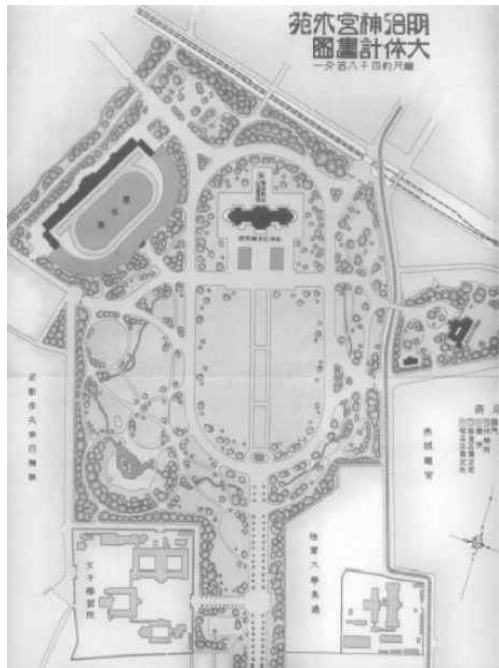
황거 앞 광장이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국체’ 관념의 상징적 공간이라면, 메이지신궁은 다이쇼 때 시작하여 쇼와 때 완성된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박삼헌, 2009). [그림 2-22]와 같이, 내원은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태후를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이고, 외원은 성덕기념회화관, 헌법기념관(현재 메이지기념관) 등 메이지천황의 ‘성덕’을 기리는 건물들과 메이지신궁 경기장(현재 국립 카스미가오카 경기장)을 포함한 서양식 공원이다. 메이지신궁 내원 건설의 주체는 정부기관인 메이지신궁 조영국으로 국비로 충당이 가능



[그림 2-22] 메이지신궁의 내원과 외원

출처 : 박삼헌, 『근대일본 '국체(國體)' 관념의 공간화』

하였으나, 외원은 민간의 메이지신궁 봉찬회가 담당하면서 헌금으로 조성되었다.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메이지신궁을 건립하면서 천황을 모시는 신사의 기능뿐 아니라, 이곳에 '황실중심주의의 중심점을 부식'해 놓음으로써 '만국이 모두 국체의 아름다움을 칭송'할 수 있는 '황실의 본원'으로서 역할도 기대하였다(박삼헌, 2010). 메이지신궁 외원의 배치는 남쪽의 아오야마 도로, 광장, 성덕기념회화관, 장례식 터로 이어지는 일직선 형태의 공간으로 성덕기념회화관에는 메이지 천황의 생애를 회화로 표현한 벽화가 전시되어 있다. 메이지신궁은 근대 일본 국가의 건설을 메이지 천황의 '개인적 영광'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서, 천황의 신격화를 통한 '국



[그림 2-23] 메이지신궁 외원 계획도

출처 : 이영석 외, 『도시는 역사다』

체' 개념의 절대화로 국민 동원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이영석 외, 2011).

과거, 전통, 역사를 상징하는 교토에서 현재, 문명을 상징하는 도쿄로의 전치는 관습과 전통을 위로부터의 개혁에 흡수시켰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국가의례로 천황의 신성함을 증폭함으로써 국가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명확히 하였다. 거대한 공공건축물과 기념비적인 도시계획 등 공개적으로 의례화 된 이미지는 국가공동체의 문화로, 민중을 흡수하려는 통치자의 노력에 의해 근대에 창안된 것이다(한석정, 2003). 도쿄가 근대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서구인의 참여와 서구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방과 변용을 통해 근대 도시를 형성하였다. 둘째, 에도막부의 사찰을 서양식 근대공원으로 전환하고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근대 공간으로 전치하였다. 셋째, 천황의 국제 공간 건립을 통해 '메이지식 근대화가 천황의 은혜'라는 논리로, 시민들에게 물질적, 정서적으로 수용하도록 기획하였다. 과거의 군주적 권력이 건축물을 통해 스스로를 과시하였다면, 근대의 규율 권력은 자신을 숨기는 대신, 그것이 행사되는 대상을 끊임없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비가시적, 익명적 방식으로 변화하였다(한석정, 2003). 근대 일본은 이러한 군주 권력과 근대의 규율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근대화를 이루었다.

일본이 근대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한 모습은 일본제국과 식민지의 도시를 둘러싼 관계에서 유사한 형태로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성이 근대 도시로 이행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사례를 통해 중첩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식민지 도시의 강제적 수용

식민지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17세기까지 서구 유럽인들은 일부 식민지의 도시에 정주하면서 기존 피식민 국가의 도시 조직을 유지한 채 토착민의 상업망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일부 주요 상업가로의 길목이나 연안 항구도시를 장악하여 이윤을 추구하였지만, 식민지 도시의 지배는 영토적 지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산업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유럽의 식민주의도 본격화되었다(현재열 외, 2011). 산업혁명의 급속한 성장은 원료와 도시 노동력을 위한 식량 수요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유럽의 피식민 국가에서 제공되었다.

피식민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차치하더라도 식민지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은 '공간적 격리(이중도시)'이다. 일부 구역이나 주거지역은 배타적으로 유럽 식민

지 정착민을 위해 마련되었고 행정 부지나 군사 주둔지는 토착민 거주지와는 구별되는 장소에 입지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격리’는 식민지 도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식민지 도시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뚜렷하게 기존의 도시와 구분되었다. 이는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식민지 도시와의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 도시였던 알제리의 알제는 항구에 면한 지역으로, 초기 프랑스 군대가 소유하고 기존의 도시 조직을 변화시켰다. 이슬람의 신성한 공간인 모스크를 파괴하고 이곳에 프랑스식 근대적인 건물들을 조성하였다(Celik, 1997). 이는 식민 정치 이념과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식민 주민들에게 근대 국가의 합리성과 발달된 과학과 문물을 전달하여 피식민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865년 이후 주

민들의 반발과 원활한 통치를 위해, 이슬람 왕국의 전통을 이음으로써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노선으로 변화하였다(Celik, 1997). 이에 공간적 격리를 통하여, 알제의 카스바 도시조직과 문화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근에 근대적 유럽형 신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알제의 항구지역에 대한 개조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도시의 외곽으로 신도시가 확장되었다. 프랑스 식민 정부가 이슬람 도시였던 카스바를 존치함으로써 도시 개발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고 외형적으로는 이슬람 전통 문화와 생활양식을 인정하였다. 또한, 카스바 지역의 경계부에는 국립극장 계획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완충 역할을 하였다. 이는 식민 정책을 동화와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프랑스에서 건너온 유럽인들과 식민 정부가 이용하는 신도시 공간 및 공공건물들에 이슬람의 전통 양식을 활용한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선전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송도영, 2002).

영국의 식민지 도시인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공간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도시의



[그림 2-24] 1911년 알제 센트로 모습의 염서

출처 : <https://www.judaicalgeria.com>



[그림 2-25] 1935년 알제 카스바 지역의 경계

출처 : <https://publishing.cdlib.org>

사이에 두터운 녹지 공원을 조성하여 둘 사이에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다(현재열 외, 2011). 이처럼 식민지 도시가 공통적으로 공간적 격리를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 자연환경과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서구 제국주의의 경우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지역에 정주하게 되면서, 여러 풍토병과 힘든 기후조건으로 전염병에 취약하였다. 이에 기존에 조성된 도시 옆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토착민들의 건강 및 위생상의 악영향을 막고, 근대 사회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Robert, 2013).

그러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식민지와 인접한 일제가 식민지 도시에서 시행한 공간적 격리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일제는 타이완 통치를 시작한 1895년부터 공공위생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식민지 도시에서 토착민에 대해 자신들의 ‘문명화된 모습’을 위생과 청결에서 찾고 이를 상하수도 사업의 시행과 도시계획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 중 하수도 시설 정비, 주택 정비, 비위생적 요소의 격리는 도시계획 초기에 가장 구체적인 사업이었다. 서구의 지식 체계를 습득한 일제는 타이베이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 도시를 ‘보기 쉽고, 읽기 편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파리의 오스만 정비 사업이 도쿄가 근대 도시로 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타이베이는 이러한 도쿄의 도시계획 과정을 계승하였다.

1900년 ‘타이베이 청내이(城內 - walled inner city) 계획’에 따르면, 성벽을 뚫고 성문을 증설하여 청내이(城內)의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화하였다. 이를 통해 형성된 53개의 블록은 기존 타이완 전통 거리의 선형과는 달랐으며, 인위적인 모습으로 기존의 도시조직은 파괴되었다(수수오빈(蘇碩斌), 2009). 내부의 주요시설은 관공서, 병원, 공원, 문화시설 등의 공공 건축물이었고, 중앙에 기획된 총독부 부지는 도시공간 속에서 시선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총독부 건물의 고층화를 통해 방사형 시각효과를 구축하였고, 청내이(城內)에 분포한 조각상과 기념비는 명확한 질서의 기점을 구성하고 있다(수수오빈(蘇碩斌), 2009).

일제의 동아시아 식민지 도시계획은 서구



[그림 2-28] 1900년 타이베이 청내이(城內) 계획

출처 : 수수오빈, 『시각화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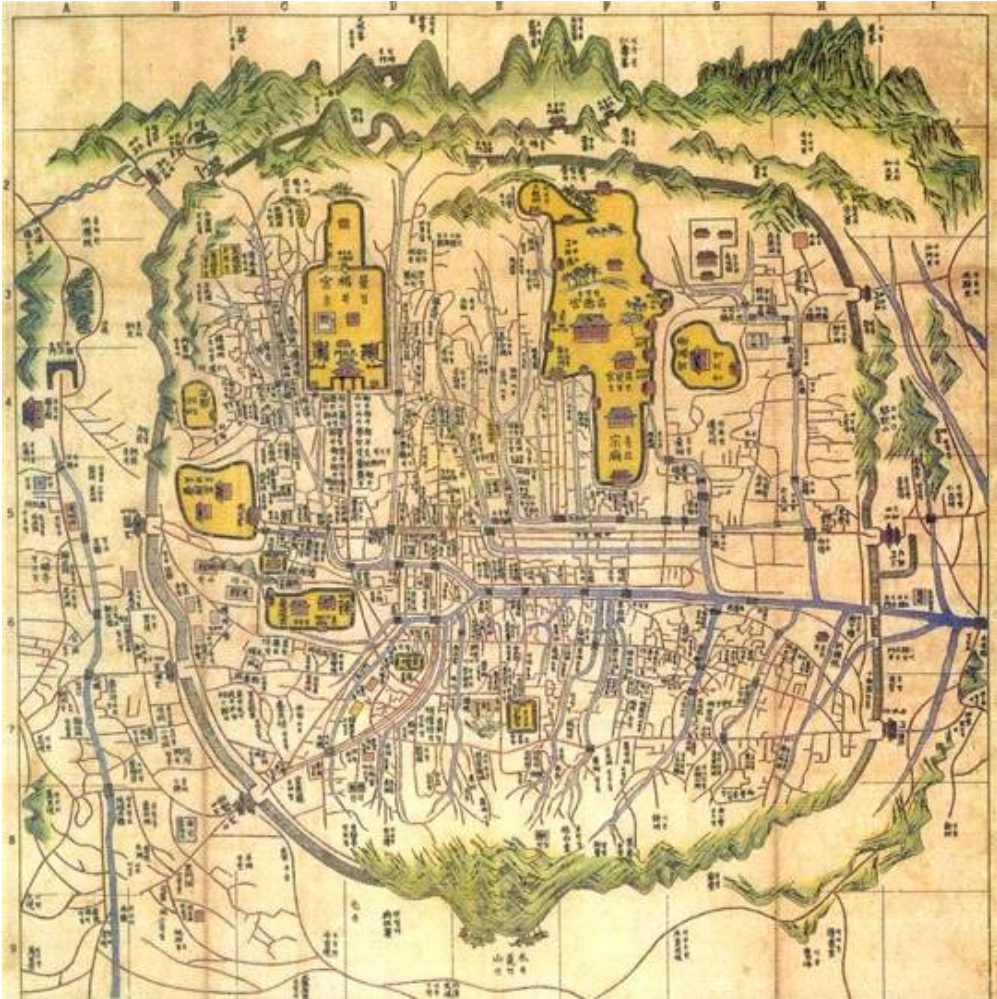
의 제국들이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겪은 환경에 따른 어려움과 일정한 편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현재열 외, 2011). 서구 제국들에 비해 지리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이 보다 쉬웠을 뿐 아니라, 피식민 국가인 타이완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지배체제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飯塚キヨ, 1984). 그러나 이 또한 일제 식민지기의 경성에서 나타난 ‘공간적 격리(이중도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시대 한양은 자연지형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타이베이의 사례처럼 정방형의 성곽이 아니었다는 점, 식민지 이전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으로 위생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점, 도성 내 민간에 의해 거류지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식민지 도시의 다른 사례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근대도시 경성(京城)의 형성

1. 한양에서 경성으로의 변화

조선 왕조의 수도인 ‘한양’은 풍수사상과 주례의 원리를 기초로 계획된 유교적 상징도시였다. 조선의 계획가들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인 종묘를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배치하고 토지와 곡물의 신을 모시는 제단인 사직단을 서쪽에 배치하는 등 중국의 선례대로 이를 조성하였다. 또한, 한양의 도시 공간도 유교적 신분 질서에 따라 동, 서, 남, 북으로 거주지가 분할되었고 이 경계는 내사산과 능선을 따라 조성된 성곽과 8개의 문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한양의 풍수도시적 성격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상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으로 약화되었으나(서울역사편찬위원회, 2015), 도시를 둘러싼 성곽과 성문, 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과 창경궁, 도성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종로와 청계천은 500여 년간 ‘한성’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상징체로 지속되었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궁궐의 재건과 주요 관아시설의 이동 및 신설은 한양의 도시공간을 다원화하였다(권영상 외, 2004).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질서는 왕권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따라 구성되었다. 정치의 결정은 국왕과 조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백성들과의 소통은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과시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당시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갖거나 분화되지 않았고 왕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전제왕정의 사회였다. 문화시설도 왕실의 소유물로 이용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도서관인 집현전은 학자 양성과 학문연구 기관으로서 많은 책을 구입하거나 인쇄본을 보관하였고 규장각



[그림 2-29] 1902년 캐나다 선교사 게일에 의해 처음 소개된 한양(한성부) 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은 궁궐 내의 도서관으로 학술, 언론기관 및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였다. 집현전과 규장각은 서적을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연구를 통해 도서를 출간하는 등 문예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통해 도서관이 소개되기 전까지 대중들을 위한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야외 놀이적 성격이 강했던 근대 이전의 연극에서 극장은 반드시 건축물의 형태가 필요치 않았고, 무대와 관객석에 대한 제약도 없었다(홍선영, 2009). 이후 개항기의 제도 변화, 타 지역 음악에 대한 관심 등으로 천천히 변화가 나타났고 실내극장 건립을 통해 양상을 달리하였다. 박물관은 과거 신라, 고려시대에 왕실의 수집품을 보관하는 고(庫)를 설립했으며 이곳에 귀중한 물건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수집, 보관, 관리의 기능만이 있었고, 구체적인 관리 방식과 구조에 대한 사료는 대부분 멸실되었다. 조선시대 함흥의 경흥전에 사립·일월원경·궁조장전 등을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란으로 모두 없어졌고 기타 사찰, 사원, 개인문고 등이 존재하였지만 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공공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자, 조선의 정치·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가 집권층들에게 큰 관심사였으며 한양을 왕조의 도읍에서 제국의 수도로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하였다(김백영 외, 2020). 근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도시계획은 치도사업으로 대표되는 도로 개량을 통한 도시 정비로 나타난다. 이는 위생 상태와 가로 경관에 대한 개선으로, 불결한 도로와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김기호, 1995).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도로에 가가를 철폐하고 노푼을 넓혀서 원활한 수송을 도모할 것, 경운궁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상 도로체계를 새롭게 확립할 것, 독립문과 파고다 공원 그리고 고종 재위 40주년을 기리는 청경기념비전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경운궁 중심의 한 도시계획은 고종황제가 경운궁을 본궁으로 가로의 정비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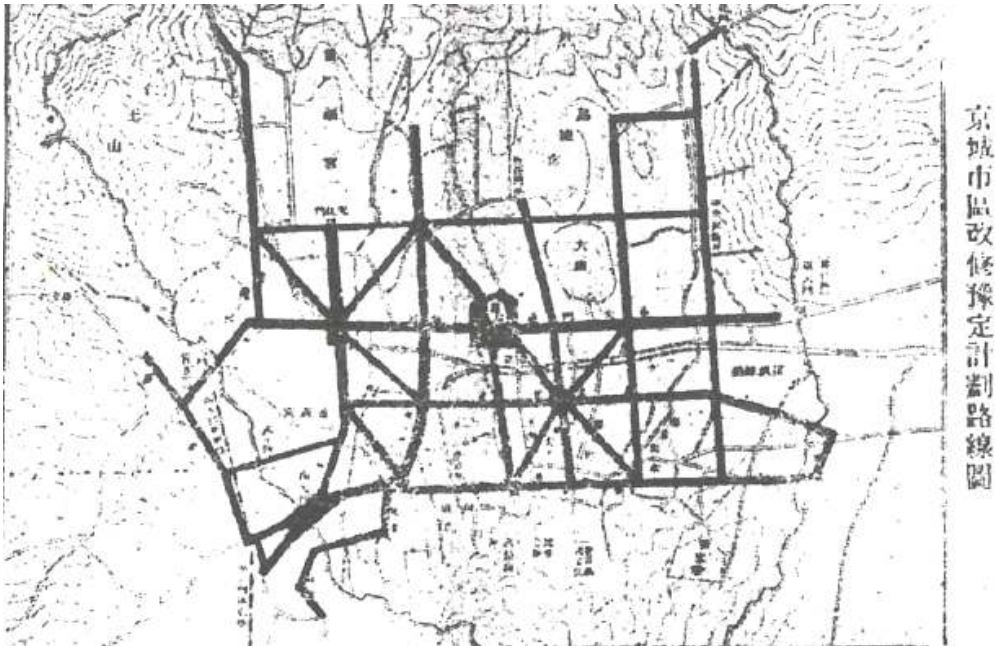


[그림 2-30] 대한제국의 도시계획

출처 : 김광우(199)의 연구 참고 후, 재작성

배치를 도모하고, 외국 공사관이 입지하고 있는 정동 일대에 대하여 우리의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김광우, 1991; 김기호, 1995). 그러나 1905년 일제강점기에서 승리하고 통감부가 설치된 후, 한양을 대한제국의 수도로 탈바꿈하고자 했던 고종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10년 을사늑약 이후 초기 조선총독부의 관료들은 대한제국의 개혁을 가로채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였고, 한양의 도시공간은 일제에 의해 근대를 드러내는 전시장으로 재구성하였다(김백영 외, 2020).

이후 ‘한양’에서 식민도시 ‘경성’으로의 변화는 시구개수를 통해 구축된 격자형 도로망으로 기존 질서는 해체되었다. 1912년 매일신보의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는 기존의 한양 지도에서 강조된 성곽, 궁궐 및 종묘와 달리, 굵은 선으로 4개의 동서노선과 5개의 남북노선으로 표기되었다. 당시의 계획에서 광장은 크게 세 곳에 조성되었다. 첫째는 조선시대의 주축인 종로와 태평통이 교차하는 경복궁 앞에 위치하였다. 이 광장은 대한제국의 중심지였던 경운궁(덕수궁)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김백영 외, 2020). 둘째는 경성의 남부인 남촌을 방사형으로 연결하고 교차점에 황금정 광장을 계획하여, 일본 거류민들을 위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⁵⁴⁾. 실제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총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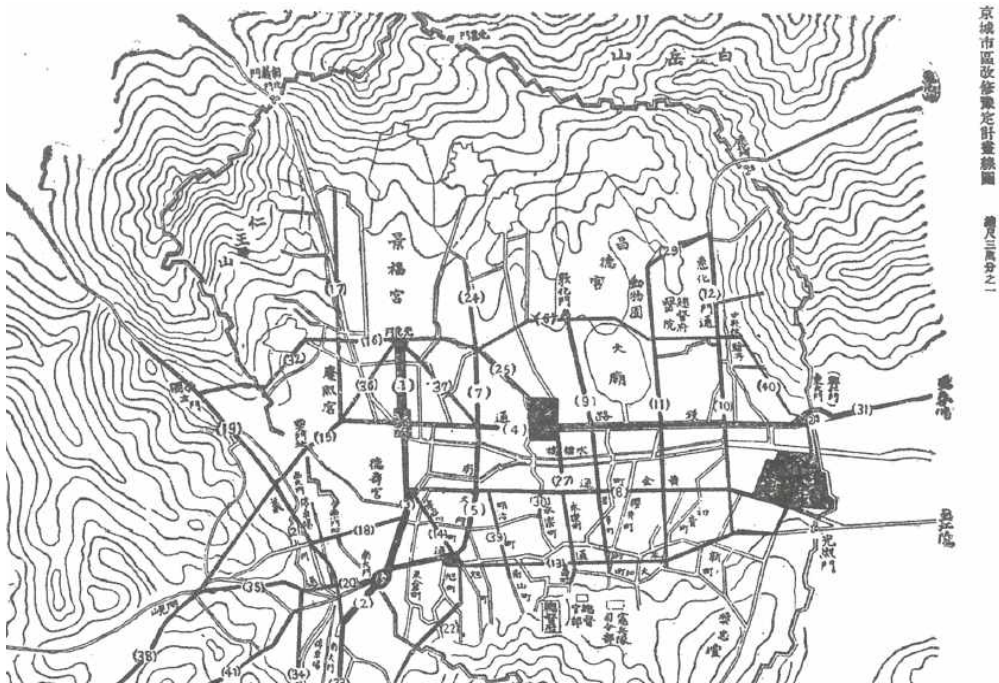


[그림 2-31]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매일신보 1912년 11월 7일 기사

54) 재경성 일본인 엘리트들은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요구하였고, 거류민단이 해체된 1914년 이후에도 그 요구는 지속되었다. (조선신문, 1913.05.21. 참조 및 朝鮮と建築 1929년 6월 호)

는 황금정통의 개수로 남촌의 도로와 거주환경은 개선되었다. 셋째는 황금정에서 북서쪽으로의 대각선 도로를 통해, 일본인 거주지역과 공공공간이었던 탑골공원, 경복궁을 연결하는 대안동(안국동) 광장을 계획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식민 국가에 대한 ‘동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북촌의 조선인 마을과 남촌의 일본인 마을을 연결함으로써 공간적 동화를 이루고자 하였고(이경수, 1990), ‘한양’이라는 전통적 공간의 해체와 ‘경성’이라는 새로운 식민지 구축을 통해, 도시 공간이 재편될 것임을 시각화하여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는 조선왕실을 폄하하고 신성함을 지우려는 일제의 의도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도심의 궁궐을 전략적으로 개축하는 방식이 동원되었으며, 궁궐 내부는 공원이나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되었다(김백영 외, 2020). 또한 시구개수라는 명목으로 경운궁을 축소하고 순종의 거처를 강제로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조치를 통해, 조선왕실의 상징성은 희석되었다. 1919년 부분적으로 수정된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선도>는 대각선 도로를 대신하여 경복궁에서 남대문을 잇는 직선의 도로가 부각되었다. 광화문통과 태평통을 관통하는 이 대로는 1925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경성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되었다. 또한 경복궁 터는 박람회 장소로 활용되



[그림 2-32]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선도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6월 25일

어 이 일대는 일본인들의 특권적 기여와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조선인들의 종속적 참여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김백영 외, 2020). 또한 대로를 따라 위치한 경성부청사, 경성일보사 사옥 등의 관공서가 만들어 낸 가로 경관은 당시 관광지도와 염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여, 조선총독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출하였다.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계획과 함께 서구적 패러다임의 도시 문화가 경성에 유입되었다. 1920년대부터 조선총독부는 경성을 백화점, 극장, 미술관, 도서관, 카페, 운동장 등의 공간을 부각시킴으로써 근대화라는 문명개화된 일상의 선전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당시의 경성은 봉건이라는 이름으로 배타시되었던 전근대의 유산과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서구의 기호들이 혼재했던 공간으로,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취향, 생활양식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2. 문화정치의 등장

일제는 1910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미 1905년부터 통감부를 설치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1910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담당하였다. 일제는 조선과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의식화하여 일선동조론에 근거한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중국, 조선 등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동일문화권 내의 단결, 통합을 통해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피식민국의 저항을 무마하고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천황 중심의 동일 국가로 이념적, 현실적으로 ‘내선일체’의 인식을 확산하여 독립적인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였다(주익종, 2008). 그러나 동화정책을 실시하기엔 조선의 형편이나 문명 수준이 일제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본 내지와는 다른 통치, 즉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조선을 통치하는 기조가 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군과 헌병경찰의 무력에 의해 직접 지배되는 무단통치의 시기로, 조선의 민중은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식민지 상태에 놓여졌다.

“한국을 병합하여 제국 영토의 일부로 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사정은 제국 내지와 원래 동일하지 않다. (중략) .. 문화의 정도에 따라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그 지식을 개발하고 점차 내국 인민으로 동화시키는 데 적절한 법제를 공포하여 내지와 동화하는 데 이를 때까지는 제국 내지와는 달리 특수한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중략) 잠정적으로 동 반도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국헌법의 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1910년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

이러한 무단통치 방식은 3·1운동을 계기로 전환되어, 조선인에 대한 정신적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의 고유문화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민족의 고유문화는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민족의식을 결집하는 주요 요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윤형숙, 2003). 이에 새로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조선의 지배정책으로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신조로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총독정치의 기본을 순전한 문화정치로 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하고 크게 문화적 개발에 힘을 기울이기 위하여 보통 문화정치라고 일컬어지지만 무단통치의 근본방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상이할 바가 없다. 그 시정상의 강령은 (一) 치안의 유지, (二) 민의의 창달, (三) 행정의 쇄신, (四) 국민생활의 안정, (五) 문화 및 복리의 증진 등이다.” (조선총독부 편찬, 시정시습오년사)

문화정치는 동화정책을 위한 내면화의 수단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문화 지배의 대중화’를 통해 식민 지배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술책으로 활용되었다. 당시의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민족주의적 활동은 용납되지 않았지만,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일종의 ‘문화적 민족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허락하였다. 일제는 3·1운동처럼 격렬하고 비타협적인 정치적 민족주의를 식민지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문화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주익중, 2008). 당시 일본 내지에서는 1920년 이후 신문, 잡지 등의 발달로 문화와 정보가 대량으로 복제되었고, ‘이데올로기를 담는 그릇’으로서 자본주의 속성이 두드러지는 ‘문화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문화적 매체를 통해 ‘근대화의 환상’과 ‘황국신민의 허상’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자 하였다(이지원, 2000). ‘황국신민’으로서 조선인들에게 ‘국체’와 ‘일본 정신’이라는 명목으로 교육과 실천을 통해 황실 숭배의 원리와 의식이 주입되었고, 일제는 언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습관의 일선 융화를 도모하였다(주익중, 2008). 이처럼 ‘문화’라는 용어는 관습적인 면 뿐 아니라, 통치성을 촉진하는 규율 권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세밀한 형태의 권력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능동적으로 침투하였다.

1920년대 문화정치의 목표는 저항하는 조선인의 에너지를 정치에서 문화로 이동하여 ‘관심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사회교화의 한 방법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청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 박물관, 전람회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정책의 변화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로 구체화 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내무국 산하에 사회과가 신설되었고, 학무과는 총독 직속의 6국 가운데 하나인 학무국으로 승격, 학교 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교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김동노, 2006). 또한 민영 언론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시찰단을 구성하는 등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적 지배는 무단통치로 시작하여 경제적 착취로 이어졌고, 문화적 지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일간신문의 경우 매일신보, 경성일보, Seoul Press 등 총독부 기관지만 발행되었으나 문화정치 이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어 신문이 허용되었으며 잡지들도 발간이 허락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와 조선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사찰단을 구성하여 상호 방문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이후 사회교화사업은 농촌진흥운동, 정신자흥운동, 등 일련의 정신주의를 강조하는 지배정책의 실시와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 1936년에는 학무국 산하에 사회교육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중 교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강연회, 영화, 청년단체제도, 도서관, 박물관, 종교 사원, 고적조사 및 보존 등에 대한 여러 분야가 민중교화 업무로 편제되었다(이지원, 2000). 이와 같은 조치의 기저에는 일제가 문화정치를 통해 '주지(周知)와 선전(宣傳)'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조희문, 2006), 각종 문화시설도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경성부 곳곳에 설립되었다.

제3장 근대 도서관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

1. 일본홍도회 도서실 설치 운영의 의미
2. 문화정치 이후, 공공도서관의 등장
3. 민간 주도의 사립 경성도서관
4. 소결

제1절 일본홍도회 도서관 설치 운영의 의미

1. 홍도회 도서관과 최초의 도서관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문헌은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 학자들의 명칭은 ‘독서구락부’, ‘홍도회도서관’, ‘홍도도서관’, ‘부산도서관’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홍도회 도서관은 1901년 초량왜관 터에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되면서 일본인들이 독서구락부(독서클럽)를 조직하여 책을 구매하고 읽고 난 후의 책을 모아 두었는데, 이것이 많아지면서 독자적인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김영석 외, 2018).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홍도회 도서관의 존재를 밝힌 김포옥의 연구(1979) 이후, 김세익(1982)과 백린(1982) 등의 연구에서 ‘일본인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홍도회 도서관이 오늘날 부산광역시립시립시립도서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의미를 인정하고 있고, [표 3-2]와 같이 부산광역시립시립시립도서관의 연혁에서도 밝히고 있다. 1911년 사립 부산교육회에서 홍도회 도서관을 승계하였고 1919년 부산부로 이관되며 공공도서관으로 발족하였기에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홍도회 도서관은 6천여 권의 도서와 약간의 신문과 잡지를 구비하였으며,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김남석, 2010). 1911년 사립 부산교육회는 산하정(山下町)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

[표 3-1] 홍도회 도서관에 대한 연구자별 사용 명칭
 (출처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2018), 검토 후 재작성)

저자	사용한 명칭
김포옥 (1979)	부산도서관
김세익 (1982)	독서구락부, 부산도서관
백린 (1982)	부산독서구락부, 부산도서관
김경자 (2003)	홍도회도서관, 독서구락부, 부산도서관, 용두산 도서관
김남석 (2010)	홍도회도서관, 부산도서관
곽철완 (2012)	부산도서관
최순남 (2013)	홍도회 도서관

[표 3-2] 홍도회 도서관의 변천 과정과 명칭 변경

연도	변천 과정 및 명칭 변경
1901	사립 홍도회 독서구락부 설치
1911	사립 부산교육회에서 승계-운영 (용두산 도서관)
1919	부산부 이관으로 부산 부립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1948	부산시립도서관으로 개칭
1982	부산직할시립 시민도서관으로 개칭
1995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으로 개칭

하였다⁵⁵⁾. 김경자(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부지 316.8평에 목조 2층 건물로 본관 30평과 부속건물 16평, 서고 9평과 하나의 열람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⁶⁾. 당시 흥도회 도서관은 장서가 제공되었고 서고와 열람실이 있었던 점에서 최소한의 도서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20세기 초의 흥도회도서관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러나 김영석 외(2018)의 연구는 이러한 인식이 재고되어야함을 주장하며 다음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일본인 단체에

의해 건립되었고 둘째,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 셋째,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장서 대부분이 일서라는 사실과 넷째, 건립 단체가 군국주의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 초기 일본인 교양 교육을 위해 건립되었지만 이후 식민지정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료 센터로 활용되었고(김포옥, 1979), 일제가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 보급으로 그 목적이 변화하였다. 당시 흥도회 도서관을 포함한 일제의 도서관운동은 개화기 조선의 신문화 및 도서관운동을 봉쇄하였고, 공공도서관이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흥도회 도서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제 식민지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에, 근대 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정치 이전의 도서관

개항 이후 촉발된 외국 문물제도의 견문과 신교육운동을 통해, 근대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보관하고 읽게 하여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없애는 곳'으로 소개되었다. 서유견문이 발간된 1895년

55) 당시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 아래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전소되어 현재는 용두산공원 내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후, 부산시민도서관은 몇몇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며 그 경로는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점차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산책자>의 저자 강예린은 식민통치의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산시의 전략으로 해안을 지배의 공간으로 기억하는 식민주의 장소와 거리를 두고 내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6) 백린(1982)과 김영석(2018)의 연구에서 목조 2층 규모의 건물이 초기의 모습이 아닌 설치 후 40여 년이 지난 1945년의 모습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1911년 용두산 종턱에 [그림 3-1]과 같이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였다. 1937년 8월 구 부청사 건물에 도서관을 이관하였으나 1938년 화재로 용두산 종턱의 구 도서관 건물에 다시 이관하게 되는 데, 이를 신축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1945년 동광동 시교위 청사에 도서관을 이관하여 재개관하였다.

은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으로 원문에서는 서적고(書籍庫)라고 표현되었다. 조선시대의 00부, 00각, 00고 등으로 불리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된 것이다. 이후 개화운동의 결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고 학교의 설립과 함께 신문, 잡지의 출판 및 도서관 설립 운동이 일어났다. 개인이 대중에게 지식의 공유를 목적으로 사립 도서관을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모든 계층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대 도서관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이 문헌 자료의 보존이었다면, 근대 도서관은 시민들의 이용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였다. 식민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개화기의 선구자들은 도서관 설립에 많은 노력을 가하였다. 1901년 부산에 설치된 흥도회도서관을 비롯하여, 1906년에 설립된 경성의 ‘대한도서관’과 평양의 ‘대동서관’이 존재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대한도서관은 근대적 도서관의 필요성을 자각한 지식인 모임이 〈황성신문〉에 보도되면서 각계 인사의 기증과 지원으로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1910년 국립도서관으로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한일 강제병합 이후 1911년에 수집된 10만여 권의 장서는 조선총독부에 몰수되었다⁵⁷⁾. 1906년 평양에서 개관된 대동서관 역시 지역 세력가들이 세운 공공도서관으로 1만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1910년 강제병합으로 폐쇄되었다. 민간 운영의 도서관은 1908년 ‘경성문고’라는 이름으로 경성 수정(壽町, 현 남대문로 주자동)에 있는 ‘일본인 상업회의소’내에 서기장 山口情(야마구치 세이)에 의해 산업 및 상공업 관련 조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송승섭, 2020). ‘경성문고’는 이후 경성 도서관으로 개칭되었으며, 윤익선의 경성도서관에 장서를 제공하는 등 조선인이 설립한 최초의 도서관의 기틀이 되었다. 이후 일제 식민지기의 도서관은 전문학교의 일부 시설에서 운영되었고 1920년대 문화정치가 시작되면서 공공도서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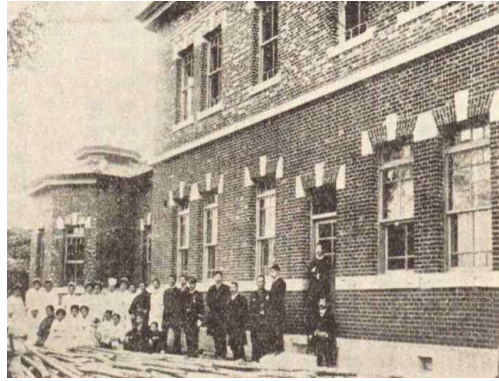
제2절 문화정치 이후, 공공도서관의 등장

1. 경성부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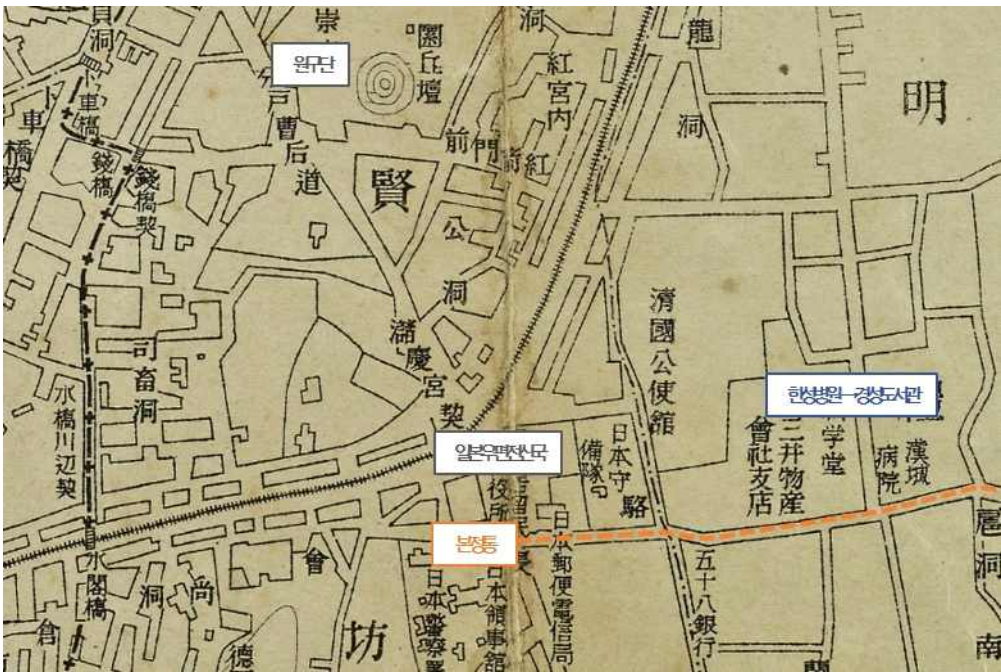
1922년 국내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민간 차원의 도서관이 소수 있었으나 규모나 내용면에서 빈약했고 경성에는 관·공립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남산도서관 80년사, 2002).

57) 대한도서관의 장서는 몰수된 상태로 보관되다가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이관, 다시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오마이뉴스 2019, “나치보다 일제의 ‘분서’가 더 악독한 이유”, 2019.06.13.)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장려라는 일제의 문화정책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때문에, 사회 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강압적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의 저항이 심해지자 일제는 '문화정치'로 전환하고⁵⁸⁾ 1922년 경성에 '경성부립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당시 우리 민족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던 경성도서관의 존재가 일제로 하여금 공공도서관 설립을 자극했다는 추측⁵⁹⁾과 도



[그림 3-2] 러일전쟁 무렵의 한성병원
출처 : <http://blog.naver.com/johneye>



[그림 3-3] 명치정의 한성병원 위치

출처 : 한국경성전도, 서울역사박물관

58) 무단통치의 시대에 일제는 조선의 학교, 책방, 개인 주택을 수색, 51종 20여 만 권의 책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애국장서회진'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이 분서 사건으로 조선의 출판물은 크게 훼손당하였다. 분서 이후에는 대대적인 금서 조치로 단행본 출판물을 규제하였으며,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교육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조선인을 양성하며 향교와 서당 같은 조선의 교육시설과 구미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등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오마이뉴스 2019, "나치보다 일제의 '분서'가 더 악독한 이유", 2019.0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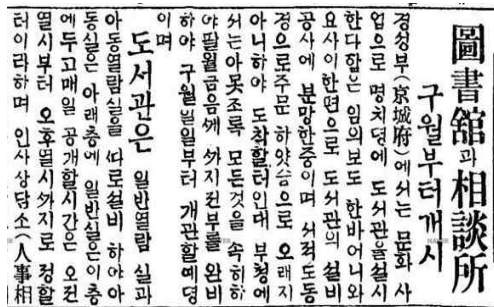
59)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글에 따르면, '대정9년(1920년) 경성시내를 산책했을 때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어 들어가 보았다. 반도의 이범승 군이 많은 서적을 수집해서 청년에게 읽히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 한다. 나는 부임해서 경성에 관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청년들이 독서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감격하였다. 그래서 경성에 훌륭한 도서관을 세워야겠다고 굳게 명심하게 되었다.' (남산도서관 80년사 편찬위, 2002)

서관을 식민통치의 교화시설로 활용하자는 의도도 설립 배경이 되었다. ‘경성부립도서관’이 위치한 곳은 메이지쇼 2정목 25번지(지금의 명동 2가)로, 한성병원 건물에 도서관을 개관하였다⁶⁰). 옛 한성병원은 일본인 세와키 도시오(瀨脇壽雄)에 의해 1895년 창설된 근대적 의료기관으로, 1906년 개축, 확장되었다. 이후 1914년 경성부가 소유주인 일본인 거류민단으로부터 매입, 공공사업에 사용해오던 건물을 개수하여 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남산도서관 80년사, 2002). 한성병원은 일본인 거류지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그림 3-3]과 같이, 본정통과 명치정통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본인에게 익숙한 건물을 도서관으로 전환했기에 그들에게 이용이 편리하였다. 일제는 재조선 일본인 시가지가 조성된 곳의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입지를 결정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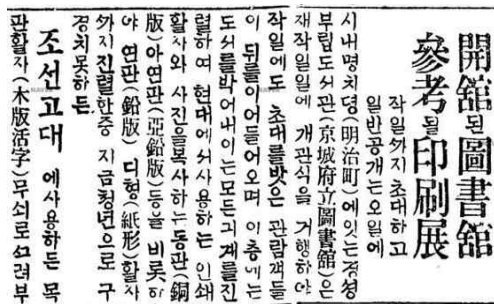
당시 경성부립도서관은 벽돌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아동실(22평), 휴게실(3평), 사무실(3평)이 있으며, 2층에는 일반열람실(32평, 좌석 60석)과 서고(5평)가 자리했다(남산도서관 80년사, 2002).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9~10시까지 개관하여 주변의 상인들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였고, 도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2세 이상은 한 사람당 2전씩 입장료를 부과하였다⁶¹). 그러나 경성부민에게 많은 이용을 장려한 것과는 달리, 1925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성부립도서관은 ‘남성의 전유물’로서 남성 이용자 4,768명 대비, 여성 이용자는 16명뿐이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제공한 경성부립도서관은 이후, 급증하는 열람자로 인해 1927년 소공동 112-9번지로 이전한다.

60) 한성병원은 지금의 명동성당 입구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8년 대한의원이 준공될 때까지 남대문 밖 도동(현, 서울역 맞은편 세브란스 빌딩 자리)의 세브란스 병원과 더불어 조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식 병원이었다. (프레스리안 2010, “잊혀진 의사, 후로시로는 누구인가?”, 2010.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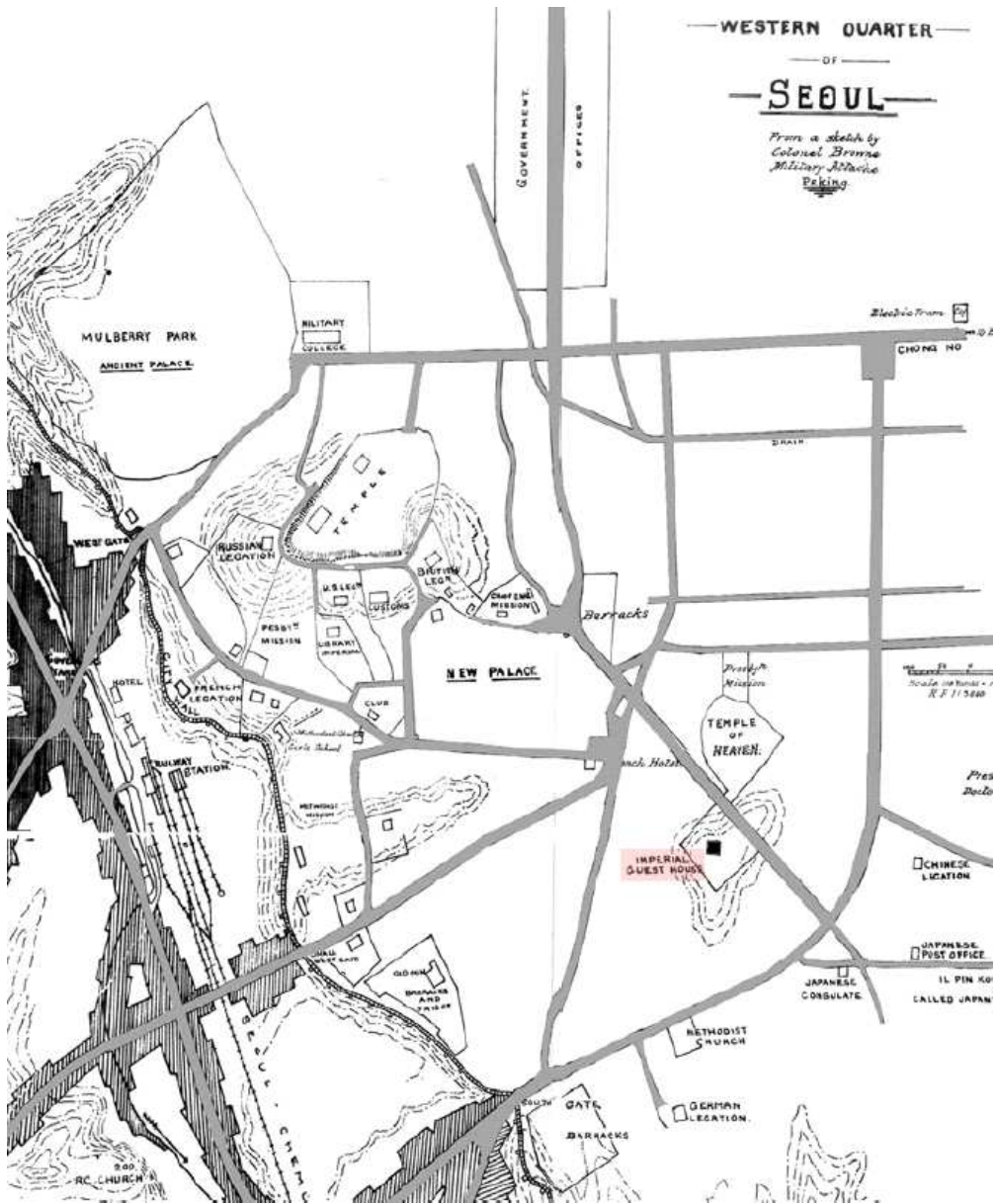
61) 동아일보 1922, “부영도서관 래월 중순에 개관”, 1922.08.20. 기사 일부



[그림 3-4] 도서관과 상담소
1922년 7월 7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3-5] 개관된 도서관 참고용 인쇄전
1922년 10월 3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3-6] 1901년 지도에 표기한 대관정의 위치

출처 :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참고 후 재작성

경성부립도서관이 이전한 소공동 부지는 과거 ‘대관정’이 있던 자리이다⁶²⁾. 일본군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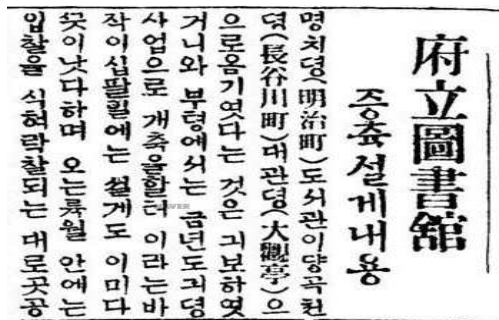
62) 대관정은 1897-98년경에 세워진 2층 양식의 건물로 1901년 당시 지도 <WESTERN QUARTER OF SEOUL>에는 'Imperial Guest House'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 외국인들에게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황실의 영빈관'으로 꾸며졌으나, 1904년 일본이 러일전쟁을 구실로 무단으로 점령하고 군 사령부 및 당시 조선 주둔군 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관저로 사용하면서 조선을 침략하고 병합하는 '전초 기지'의 기능을 하였다.

였던 대관정은 1923년 미쓰이물산 소유로 이전되었다가 1926년 경성부에서 매입하여 도서관으로 전환하였다⁶³). 과거 황실의 영빈관인 대관정이 무단으로 일본군에 점유된 후, 공공도서관으로 변화한 것이다.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고 기존의 영빈관 건물과 인근에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신축할 넓은 면적 확보된 점은 식민 권력에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 메이지초(명동)에서 소공동으로 옮겨 오면서 경성부립도서관은 1925년 설립된 조선총독부도서관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경성부립도서관은 [그림 3-9]⁶⁴와 같이, 신축한 사회관을 본관으로 1층은 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2층은 일반열람실 외에 부녀 열람실, 도서출납실을 계획하였으며 3층은 사회사업활동을 위한 사회관,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하여 열람자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다⁶⁵). 한편, 대관정 시절부터 있던 건물은 별관으로 활용하였다. 별관의 신문실은 이전과 함께 신문의 유료 열람제도를 폐지하였고, 어린이실은 일본식 좌석을 사용하여 책상을 배치하였다(백린, 1982). 어린이실은 ‘개가제’로 운영되었으며⁶⁶, 대출은 허락되지 않는



[그림 3-7] 일제 식민지기 대관정의 전경
출처 : <http://blog.daum.net/dandakhan>



[그림 3-8] 부립도서관 중축 설계 내용
1927년 5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또한, 1905년 을사늑약 당시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이곳에 머물며 을사늑약을 지휘, 조종하기도 하였다. 소공로를 중심으로 원구단 맞은편(남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종황제의 거처였던 덕수궁 별채인 수옥헌과 지근거리에서 내려다보며 대한제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한제국 외교의 산실이자 일제 침략의 근거가 되는 대관정은 1966년 민주공화당 당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철거 시점도 알려지지 않은 채 허물어졌다. 현재 이곳은 대관정이었다는 건물이나 표지석도 없이 돌계단 등 터의 흔적만 일부 남아있으며, 호텔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63) 동아일보 1926, "경도부영결정 부립은 대관정에 이전", 1926.02.23.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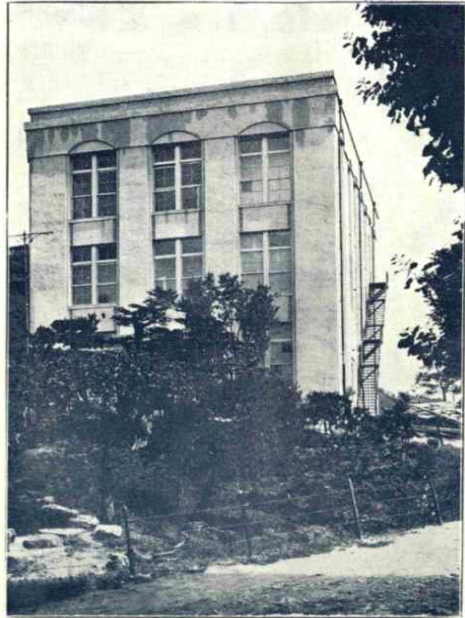
64) 국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블로그 및 일제 식민지기 근대도서관 관련 참고자료 및 논문 등에서 '경성부립도서관 사회관'을 다른 '경성도서관'과 혼동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

65) 동아일보 1926, "부립도서관 중축 설계 내용", 1927.05.29. 기사 일부

66)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들어가는 데 아무런 수속 절차가 필요 없었고 아저씨 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앞의 책상에 앉아 있고 아저씨 뒷면 벽이 온통 책장이었는데 아무나 자유롭게 꺼내다 볼 수 있었다."로 기술되어, 어린이실은 '개가제'로 운영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마이뉴스 2019, "남산도서관② - 공공도서관이 유료였다? 늦게 태어나길 잘했네", 2019.05.30.)

‘관내 열람’만 가능한 도서관이었다. 1937년 이후에는 사회관으로 사용되던 3층도 공간 부족으로 열람실로 대체하였으며, 500석의 열람석을 갖춘 확장된 공공도서관으로 변화하였다(남산도서관 80년사, 2002). 경성부립도서관의 장서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는 총 예산 대비 20%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구입 도서 외에도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기증도서가 장서 증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945년 해방 후 경성부립도서관은 ‘경성부립남대문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48년 서울특별시 승격과 함께 ‘서울특별시립남대문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1927년부터 37년 동안 소공동에 있던 ‘남대문도서관’은 1964년 남산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현재까지 자리하고 있다.



新築の圖書館社會館

[그림 3-9] 경성부립도서관의 사회관
출처 : 남산도서관 80년사 편찬위, 『남산도서관 80년사』

2. 조선총독부도서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유화적인 식민지 문화정치를 시도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조선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인정하고 조선인에게 조선 총독부 관직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일제는 조선인들 사이에 간극을 조성하는 한편, 친일 세력을 육성하여 식민통치를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1921년에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에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도서관 건립비용이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이 비용을 조선상업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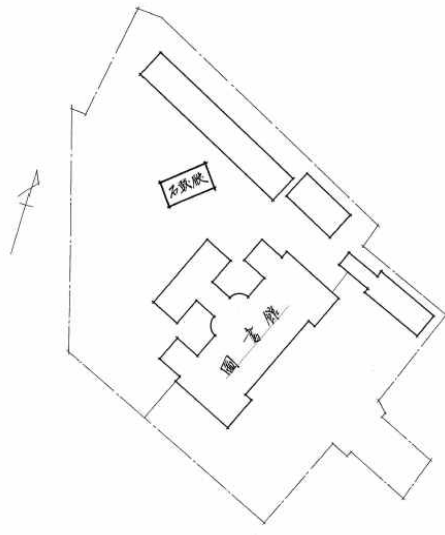
[그림 3-10] 도서관 무료공개
1925년 10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크기였으며, 도서관 본관뿐만 아니라 3-4동의 부속 건물로 석고전은 도서관과 부속건물에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다(허유진 외, 2015). 일제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즉위식을 거행했던 환구단을 없애고 '조선호텔'을 건립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도 대한제국과 고종황제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석고단 자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후 1938년 인근에 '반도호텔'을 건축하는 등 환구단 영역의 훼손과 대한제국에 대한 말살정책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영역은 호텔의 정원과 조선총독부도서관 뒷마당으로 전락하였다⁶⁸⁾. 공공을 위한 근대 도서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조성 계획에 따르면, 일반열람실과 부인열람실 외에 전문가들의 특별실이 계획되었고 문예, 연극과 교육에 관한 활동 및 학술강연 등을 개최할 대강당이 마련되었다. 책이 부족한 지방 도서관에 매월 50권씩 대출하는 순회문고를 운영하였고 조선총독부도서관사업회를 만들어 각종 강연회, 독서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성의 타 도서관과 함께

일반인에게 무료 공개일을 지정하고 동화회와 부인강화회를 개최하는 등 근대적인 도서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⁶⁹⁾.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조선의 전체 도서관 장서의 1/3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서의 편중이 극심하였다. 당시의 도서관 이용자를 비교해도 일제의 36.2%에 비해, 3.4%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독서 환경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로 나누어 십진분류법으로 분류했으며 조선인이 열람할 수 있는 책은 주로 신서로 제한하고 고서와 양서는 열람할 기회가 극히 적



[그림 3-13] 조선총독부도서관 배치계획 (1927년)
출처 : 국가기록원, 『이전취체건물 실측도』 일부



[그림 3-14] 조선총독부도서관 정문이었던 광선문
출처 : 안창모, 『덕수궁』

68) 오마이뉴스 2019, "나치보다 일제의 '분서'가 더 악독한 이유", 2019.06.13. 기사 일부

69) 동아일보 1925, "도서관 무료공개", 1925.10.31.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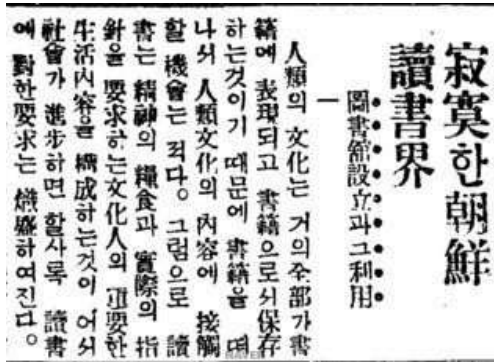
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민족사연구에 관한 것은 정리라는 명목 하에 열람을 제한시켰다(여지숙, 2004). 조선어 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서 위주의 책을 수서한 것은 장서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제한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조선총독부 학무국 소속으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발맞춰 운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도서관 기관지인 <문헌보국>에서는 조선 내 발매금지 도서목록과 문부성 추천도서를 소개하면서 일제 도서를 홍보하는 사상 통제 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해방 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토대가 되었다⁷⁰⁾.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조성되었던 도서관의 관계를 지도, 통제하여 발전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사상과 지식을 통제하고 제국주의 선전의 장이었다는 점과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역사적 장소에 상처를 남긴 부분은 일제가 문화정치의 수단으로서 도서관을 활용한 것임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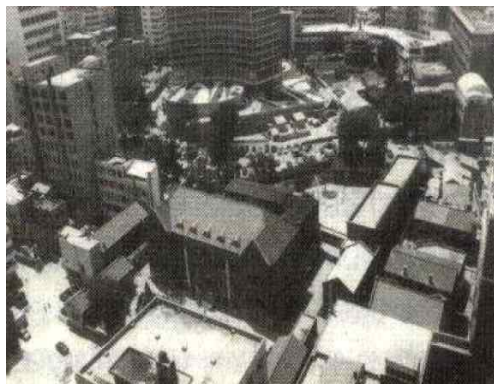
3. 만철의 철도도서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도성 밖 사평리와 이태원 일대의 땅 300만 평을 군용지로 수용하였다. 일제는 영구 주둔을 위해 용산역 주변의 토지를 군용지화 하였고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적 루트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한동수 외, 2005). 당시에 건립된 일제의 군사 및 철도 관련 시설과 많은 관사는 현재의 한강대로 양쪽으로 분포되어 있다. 1906년부터 격자형의 가로체계에 의해 필지를 분할, 부지를 구획하고 관사 이외의 철도병원,

70)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해방 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바뀌었지만, 도서관이 있던 자리는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이 들어서며 사라졌다. 1925년부터 1974년까지 조선과 대한민국 도서관의 중심에 있던 도서관은 현재 백화점 주차장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옛 터'라는 표석 하나만 남아있다.



[그림 3-15] 적막한 조선 독서계
1933년 1월 22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3-16] 국립중앙도서관과 석고단 터
출처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2』



[그림 3-17] 철도도서관의 위치

출처 : (위) 용산시가도(1927), 서울역사박물관, (아래) 대경성시가지도(1937),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구락부(회관), 철도 공원 등 철도 종사원을 위한 주거지 계획이 시작되었다. 조선 최초 시가지 계획으로 형성된 용산은 이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가 철도국을 관리하면서 문화시설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⁷¹⁾. 만철의 '조사부'는 만주와 몽고, 중국, 러시아의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유통하고자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1917년 만철은 경성부에 경성관리국을 설치하고 철도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익금으로 1919년 '경성철도학교'를 설립하고 1920년 인근에 '만철경성도서관'을 개관하였다(여지숙 외, 2004).



[그림 3-18] 서양식 주택으로 조성된 만철 사택
출처 : <http://blog.naver.com/kmjs1516>

“만철경성도서관은 일반 공중의 閱覽에 供하기 위하여 滿鐵京城圖書館 지난 번 20일부터 열렸다. (중략) .. 경성도서관은 그 뒤로 도서가 점점 증가하여 지금은 1만 2천 부 이상에 달하고 9월 중에는 3천 여 부가 증가할 것이요 개관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요. (중략).. 무료로 공개해도 사원 외에 다른 사람은 적게 입장하는데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경성 유일의 도서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 것이다. 지식의 보고는 여러분의 입장을 환영하는 도다.” (매일신보, 1920년 9월 1일)

만철이라는 회사가 도서관을 건립하였으나 사실상 일제의 총독부가 경성에 설립한 첫 도서관이 되었다⁷²⁾. 위의 기사에 따르면, 만철경성도서관은 만철 직원과 가족을 위한 전문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5년에는 만철에 위탁했던 철도 운영권이 조선총독부로 넘어오면서 철도국 직속의 '철도도서관'으로 바뀌게 되었고, 운영 재원



[그림 3-19] 만철경성도서관의 모습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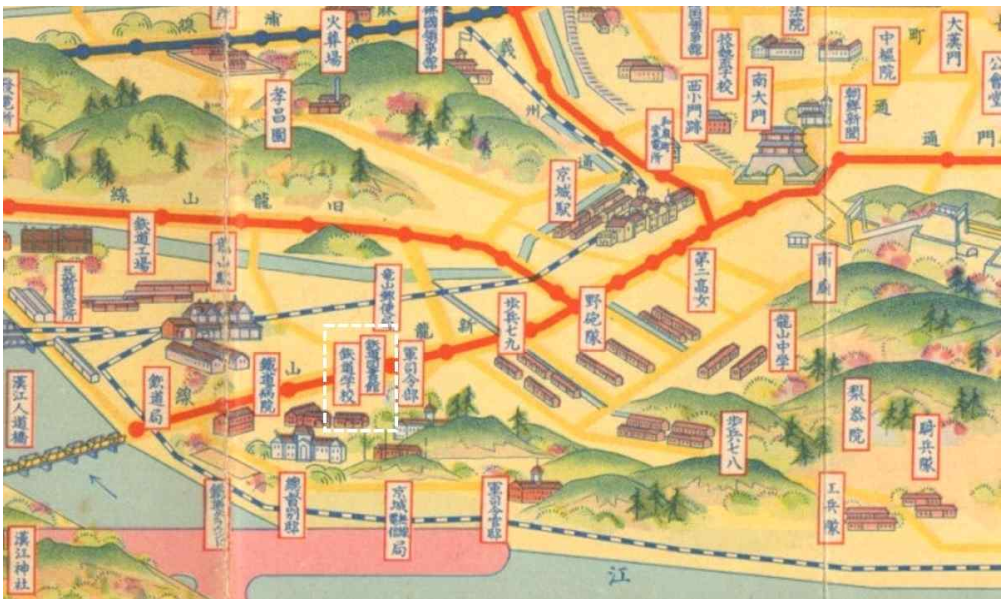
71)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는 조선총독부, 타이완총독부와 함께 '일제의 3대 식민 통치기구'이다. 주변 국가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만주를 전략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통치기구로 일본 제국 내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배은선, 2017)

72) 1940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근대 도서관의 효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익선의 경성도서관이 1920년 11월 5일 개관했고,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이 1921년 9월 10일, 일제가 운영한 경성부립도서관이 1922년 10월 1일 문을 열었다. 경성으로 국한하면 1920년 7월 21일에 개관한 철도도서관이 '근대 도서관'의 효시인 셈이다. 1925년 4월 3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개관,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모두 문화통치 시기인 1925년 전후 개관하여,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을 국가로부터 조달하는 ‘국립도서관’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철도종사원을 양성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함으로써 정부나 군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위해 1927년 43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증축하고 1931년 126평의 서고를 추가로 건축하였다. 장서량과 운영 면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서관으로⁷³⁾ 개관 초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다. 1923년 이용자가 책을 서가에서 자유롭게 접근하되 열람을 위해서는 대출을 거치는 ‘안전개가제’를 일본 내지와 식민지의 도서관 중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유일한 사례이다(배은선, 2017).



[그림 3-20] 근대 도서관의 효시
1940년 4월 2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3-21] 1920년대 경성유람안내도에 표시된 철도학교와 철도도서관
출처 : 경성유람안내도, 서울역사박물관

73)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1930년에 철도도서관은 8만 514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고 10만여 권 이상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과 10만 1501권을 소장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이어, 조선에서 장서가 세 번째로 많은 도서관이었다.

만철의 전문도서관으로 개관한 철도도서관은 이후 민중에게 보유 자료를 공개할 뿐 아니라,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 기능을 점차 확대하였다(여지숙 외, 2004). 이에 따라 교통과 공학 분야의 도서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를 위한 문학과 어학 관련 서적도 비치하였으나, 한글도서는 수서하지 않았다(김정의, 1984). 만철 사택 거주민들을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일부의 공간에 어머니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열람, 관외대출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철도도서관은 열차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철도문고’를 운영하였으며, 특급열차의 ‘전망차’에는 독서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는 등 일반인에 대한 도서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 독서 문화를 변화시킨 철도도서관은 1948년 미군정 시기에 ‘교통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철도도서관은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내지로 빠져나가면서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하였다(여지숙 외, 2004). 당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철도도서관은 조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일제로부터 철도 관련 장서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또한 용산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폭격에 의해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철도 관련 시설과 장서는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철도도서관은 교통도서관으로 재건되었지만, 교통부 시설의 일부로 축소되었다가 결국 철도 전문대학 도서관으로 흡수되었다.

제3절 민간주도의 사립 경성도서관

1. 일본 민간의 경성도서관

1908년 일본인 상업회의소 서기장이었던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에 의해 설립된 ‘경성문고’는 한서(漢書) 약 1,300여 권과 관공서 간행물, 각종 통속서 등을 추가하여 1909년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하였다. 그러나 경성 수정(현 중구 주자동)에 있던 일본인 상업회의소 내의 협소한 열람실과 공간 부족으로, 1911년 남미창정⁷⁴⁾(현 중구 남창동)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경성도서관’으로 개칭하여 재개관하였다. 개인 사재로 운영한 도서관이었지만 90여 명의 특별 기증자 및 찬조자가 있었고 200여 명의 도서기증자, 신문 및 잡지를 기증한 200여 개의 신문사와 출판사, 각종 기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를 위시하여 관련 기관 등의 범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송승섭, 2020).

74) 남미창정은 조선시대 대동미의 출납을 관장한 관청인 선혜청이 있던 곳으로,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며 남대문시장에 대한 일본인 상인들의 이권 다툼으로 일본인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이다.

실제 도서관 활동도 활발하여 <경성도서관 개황>의 1915년 통계에 따르면, 개관 일수는 연 303일, 입관자 수 5,420명, 열람 책수 2만 637권에 달하였으며, 이용자 중 80%가 일본인, 20%는 조선인이었다. 또한 경성도서관은 1912년에 <경성도서관도서월보>라는 홍보지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조선에서 일본인에 의해 만든 최초의 도서관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3-22] 1916년 山口情의 경성도서관
출처 : 山口情, 『京城圖書館概況』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의 경성도서관은 건립 당시부터 참고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설립자는 <경성도서관개황(京城圖書館概況)>에서 ‘산업 및 상공업 조사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설했다.’고 이를 밝히고 있다. 야마구치 세이(山口情)는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의 저자로, 이 책은 당시 조선의 농업·상업·공업·산림·광업·어업 등에 관한 각지의 사정을 조사하여 실은 것인데, 1911년 이 책 10부를 경성도서관 이름으로 순종황제에게 바치고 순종황제는 경성도서관에 기부금 150원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⁷⁵⁾. 이처럼 경성도서관은 산업 관련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하였고, 당시 경성에서 최고 수준의 장서를 소장했을 뿐 아니라 이용도 활발하였다. 조선인 이용자가 20% 정도이지만 당시 한국의 일본어에 대한 문맹률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이용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山口情, 1917). 당시 발간된 <매일신보>에 따르면, 경성도서관은 일본인 상공업 종사자 뿐 아니라 야간 열람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과 1911년 11월 전등료와 난로 등의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다는 기록, 그리고 하루 열람자를 60명으로 관리하고 시설의 확장과 휴관 등 도서관에 대한 현황이 신문에 소개되었다⁷⁶⁾. 또한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었지만, ‘조선교육령’에 따라 조선인을 총량한 일본인으로 형성하기 위한 일제의 의도에 충실하였고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 장서 관리와 도서목록 점검을 이행하여, 경성도서관이 조선총독부의 기증과 관리를 받는 주요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도서관은 개인 사재 출연의 문화시설로 수익에 목적을 두지 못하였고 1919년 경영난을 이유로 폐관되었다. 그러나 야마구치 세이(山口情)가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다른 회사의 중역으로 부임하여 경성도서관을 폐관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다(송승섭, 2020). 경성도서관 폐관 당시, 장서 수는 1만 6,000여 권으로 참고 도서류,

75) 순종실록부록 4년 7월 5일과 4년 7월 13일 기록 참조

76) 매일신보 1911년부터 1917년까지의 기사 참조

관청 자료 등 시판되지 않은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그 장서의 대부분은 1921년 윤익선, 김장환, 김윤식, 윤양구 등에 의해 설립된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으로 계승되었다.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에 대하여,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의 경성도서관을 인수 또는 재건이라는 견해가 있으나(백린, 1982), 경성도서관의 장서는 경영을 위임받은 하시모토 시게오(橋本茂雄) 등이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에 매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宇治郷毅, 1985). 또한, 두 도서관 사이에는 어떠한 인수인계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야마구치 세이(山口情)라는 일본 민간의 도서관과 조선 자본으로 다른 장소에 독자적으로 설립된 윤익선의 경성도서관이 사상적으로 동일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송승섭, 2020).

2. 윤익선의 경성도서관

1920년 윤익선의 '경성도서관'은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이다. 경성도서관의 위치는 종로구 가회동 1번지 취운정⁷⁷⁾으로, 일본인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의 경성도서관이 폐관함에 따라 그 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면서 개관하였다⁷⁸⁾. 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조선 각계각층의 협력이 있었고 개관식에는 내빈 300여 명, 학생 수천 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대중의 기대 속에 설립되었다⁷⁹⁾. 도서관 창립을 주도한 윤익선은 보성전문학교 교장 재직 중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투옥되었으나, 옥중에서 계몽을 위한 민중운동의 시작으로서 도서관 계획을 수



[그림 3-23] 1921년 북촌 지형도에 표시한 윤익선의 경성도서관

77) 취운정은 지금의 종로구 가회동 북쪽과 삼청동 일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과거 유길준이 1887년 가을부터 1889년 봄까지 '서유견문'을 집필했던 장소로, 1920년 윤익선은 조선귀족회가 소유했던 취운정 일대 건물을 빌려 경성도서관을 개관했다. 경성도서관 초기 자금의 40%를 '개벽', '어린이',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는 천도교에서 지원하였다. 이는 일제에 항거하여 3.1운동을 적극적으로 기획, 실행한 천도교의 '문화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2019, "뉴욕타임스에서 '혁신'이라고 극찬한 한국 도서관", 2019.09.05.)

78)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은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의 장서를 새로운 경영자로부터 750원에 구입하였고, 이에 더해 조선인들이 기증한 장서를 바탕으로 총 1만 5천여 권의 장서량으로 설립되었다. (송승섭, 2020; 大阪朝日新聞 1920.12.5. 기사 일부)

79) 매일신보 1920, 1920.11.29. 기사 일부

립하는 등 ‘지식 계급의 발전’과 ‘학자의 양성’이 조선 민족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宇治郷毅, 1985; 송승섭, 2020). 경성도서관 개관 당시의 장서 수는 1만 5천여 권으로,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의 경성도서관 장서량과 비슷한 조선 최대의 장서량으로, 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및 일본 각처에서 기증된 서적도 포함되었다⁸⁰⁾. 국내의 잡지, 신문 뿐 아니라 외국의 신문 10여 종을 구비하여 개화기의 ‘신문종람소’ 역할을 하였고, 이후 조선 고서적, 당서류 등을 기증받아 그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조선인이 설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지만 일제와 조선총독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고, 장서 대부분도 일서(日書)와 한서(漢書)로 구성되어 당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송승섭, 2020).

당시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은 조선인 거류지였던 북촌에 입지한 유일의 도서관으로 종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으며,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였다. 이후 부인 열람자도 증가하여 부인을 위한 독서 공간을 따로 조성하는 등 개관 초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21년에 일반인의 기부금은 5,300원에 달하였으며,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자사 발행 도서 300권을 기부하고 각계에서의 도서 기증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유지비용은 주로 윤익선, 김장환, 윤양구의 사재에 의존하여 재정 기반은 취약하였고 경성도서관은 1년 만에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은 1922년 이범승이 인수하여 경성도서관의 분관으로 승계되었으나, 이는 장서 면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송승섭, 2020). 경성도서관 건립을 주도했던 윤익선은 1923년 도서관을 폐관한 이후, 장서 1만여 권과 함께 간도로 활동 무대를 옮겨 ‘간도동흥중학교’를 설립하였다(宇治郷毅, 1985).

3. 이범승의 경성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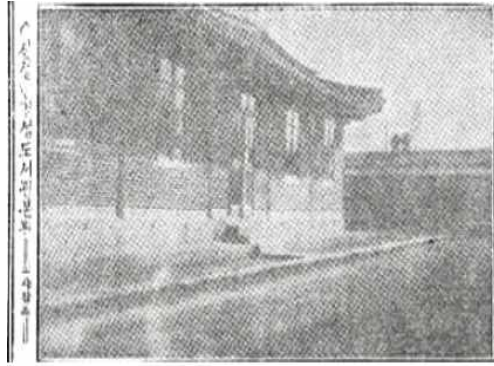
1921년 일본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이범승은 종로 2가의 탑골공원 옆에 신문잡지 종람소를 개소하였고, 1922년 같은 자리에 ‘경성도서관’을 개관하였다⁸¹⁾. 개관 당 일에는 무료입장이었으나 이후 입관료로 1인당 2전을 징수하였으며, 한 달 표는 40전이였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⁸²⁾. 이범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탑골

80) 조선일보 1920, “경성도서관에 도서기부”, 1920.12.29.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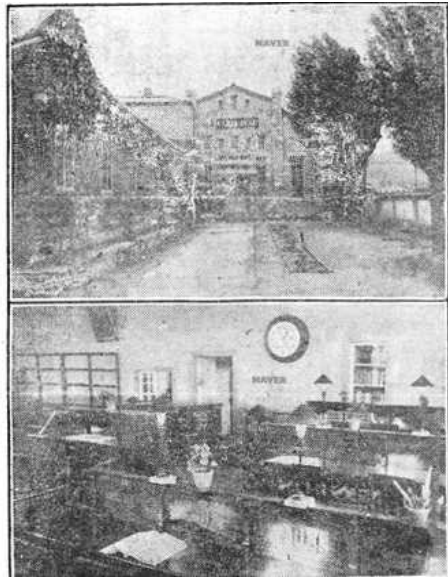
81) 이범승은 경성도서관 개관에 앞서, 1921년 9월 신문잡지 종람소를 공개하였다. 40여 종의 신문과 150종의 잡지를 비치하였는데, 매일 수백 명의 관람자가 이용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관람자의 수는 9,000여 명에 달하였다.

82) 1922년 4월부터는 관람자의 증가에 따라 1년간 오후 10시까지 야간개관도 진행하였고, 1923년 4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변경되었다. (동아일보 1922, “경성도서관야간개관”, 1922.04.02.)

공원 서쪽의 부지 531평과 대한제국의 군악대 건물이었던 단층 한옥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⁸³⁾. 3·1운동 직후 일제는 탑골공원을 1년 이상 폐쇄하는데,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은 탑골공원이 다시 개방된 시기에 맞춰 함께 개관하였다⁸⁴⁾. 윤익선의 취운정 도서관은 이범승이 인수하여 탑골공원 도서관을 경성도서관 본관으로 취운정 도서관을 분관으로 구성하였다. 1922년 경성도서관은 민영휘가 기부한 1만 원과 관민의 지식인들 기부를 통해⁸⁵⁾, 1923년 기존의 한옥 건물 옆에 130여 평의 2층 석조 건물(그림 3-25와 3-26의 가운데 위치한 건물)을 완공하는데, 이 건물이 도서관 전용으로 경성에 세워진 최초의 건물이었다. 건물의 1층에는 100여 종의 신문, 잡지를 갖춘 신문실과 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었다. 2층에는 7,200여 권의 신간서와 2,300여 권의 고서적을 진열하였으며, 기존의 한옥 건물은 어린이관으로 수리하여 사용하였다⁸⁶⁾. 당시 경성도서관은 조선인 중심의 거주지인 종로에 자리하고 있어 열람자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⁸⁷⁾.



[그림 3-24] 경성도서관 본관 (구 군악대 건물)
1921년 12월 6일 동아일보 기사



◇ 신축락성된경성도서관

|| 산물환정과그내부

[그림 3-25] 신축락성된경성도서관
1923년 7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83)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실력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개관 과정에서 탑골공원 건물과 부지를 '무상 제공'한 일제는 1926년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을 '인수'한다. 이는 일제 식민지기 여느 도서관의 폐쇄 과정과 달랐으며, 경성부가 인수한 도서관은 경성도서관이 유일하다. 대한제국 황실과 일왕가의 결혼을 통해 '일선융합'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도서관 설립을 주장했던 이범승에 대하여 '특혜'와 일제의 '의도'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9, “‘결혼 기념으로 도서관을...’ 일제가 반긴 조선 엘리트의 제안”, 2019.06.13.)

84) 대한제국의 군악대를 조직, 육성하기 위하여 독일인 에케르트(Eckert, F)가 1900년 내한하였고, 1902년 탑골공원 서쪽 부지 일부에 군악대 건물이 세워졌다. 1907년 통감부의 명령으로 군악대가 해산되었고, 이 건물은 폐옥처럼 방치되다가 이후 경성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까지 탑골공원의 면적은 1만 1,003㎡이었으며, 도서관 부지는 1,637㎡이었다. (그림 4-25의 왼쪽 한옥 건물)

85) 동아일보 1922, “연구적정신의 필요”, 1922.6.27. 기사 일부

86) 동아일보 1923, “신장의 산뜻한 경성도서관”, 1923.7.29. 기사 일부

87) 동아일보 1922, “양처에 도서관”, 1922.3.17. 기사 일부

또한, 조선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도서관이 었기 때문에 교민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모국에 책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며 다양한 서적이 기증되었다⁸⁸⁾. 경성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도서의 대여와 열람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강좌, 학술강좌, 순회문고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교육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범승은 일본을 통해 선진 도서관 사상을 흡수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열람실을 계획하였다. 빈민 아동을 위하여 도서뿐 아니라 표본이나 궤도, 과학기구 등도 구비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정환, 정홍교 등의 어린이 운동가를 초청한 동화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⁸⁹⁾. 야간에는 ‘조선여자청년회’에 무료로 공간을 대여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말에는 부인들을 위한 학술, 위생, 가사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등 독서의 공간을 넘어 조선인을 위한 사회교육에 앞장섰다(윤금선, 2009).

그러나 국내·외 민족의 호응 속에 유지되었던 경성도서관은 1924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간 1만여 원에 달하는 유지 경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3만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기한 휴관을 해야 했다.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이 수익에 목적을 두지 못하여 개인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기부도 있었고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의 보조도 있었지만, 기부에 의존하기에는 한



[그림 3-26] 1960년대 철거되기 전의 경성도서관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3-27] 경성도서관에 새로 온 독일 서적의 정수
1923년 8월 23일 동아일보 기사

88) 동아일보 1923, “과학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서적의 정수가 경성도서관에”, 1923.8.23. 기사 일부

89) 동아일보 1923, “경성도서관의 동화회”, 1923.11.18. 기사 일부

계가 있었다(宇治郷毅, 1985). 경성도서관이 처한 상황과 폐관의 위기에서 이를 구하려는 호소는 지속적으로 신문에 기사화되었고 경성부에서 매입하여 부영도서관으로 운영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결국 경성도서관은 1년 후에 건물과 장서를 경성부에 이관한다⁹⁰⁾. 1926년 4월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1927년 장서가 대관정으로 모두 이관하면서, 당시 유일했던 조선인의 도서관은 7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하였다.

경성도서관은 조선인이 경영했던 유일한 도서관이었음을 차치하더라도 민족적인 의미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 도서관이었다. 건립부터 국내·외 조선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기부를 통한 장서 구비 및 운영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의 힘도 적지 않았다(윤금선, 2009). 지식 보고이자 민족 사업이기도 했던 경성도서관은 일제로 하여금 관·공립 도서관의 설립을 자극했던 그 자체로 상징성 있는 시설이었으며, 조선교육령을 통한 사회교육의 한 방편으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의 선호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근대 도서관이었다.



[그림 3-28] 최후의 일소
1924년 11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표 3-3] 경성도서관의 시기별 구분과 주요 연혁
(출처 : 일제 강점기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2020), 검토 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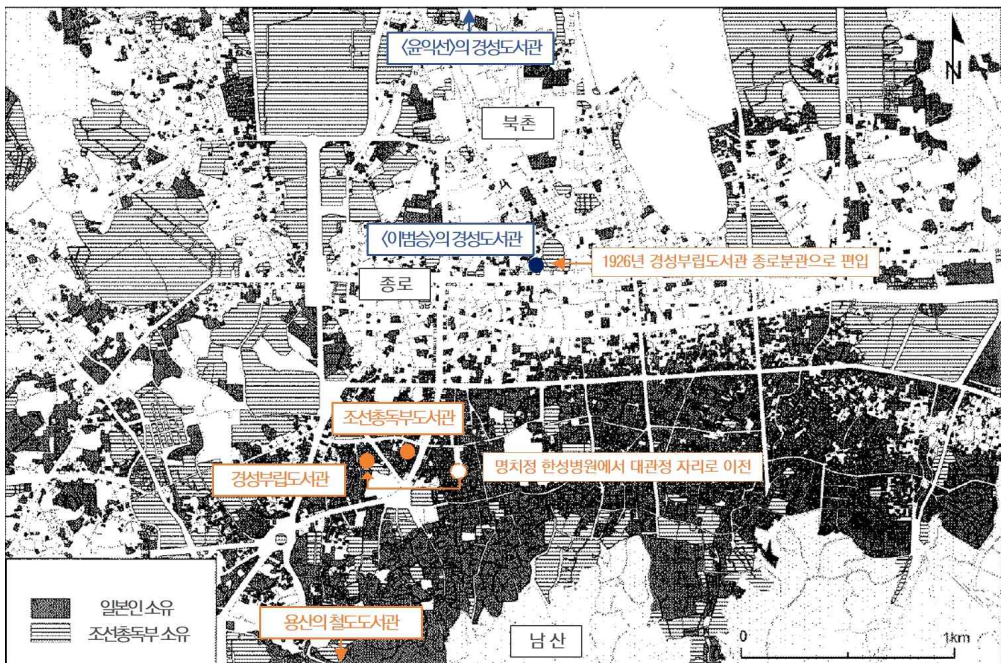
설립자	도서관명 및 위치 (설립 - 폐관연도)	주요 연혁
야마구치 세이 (山口情)	경성문고, 수정 (1908-1911) 경성도서관, 남미창정 (1911-1919)	· 일본인상업회의소 내, 경성문고로 시작 (1908) · 주자동에서 남창동으로 이전 (1909) · 경성도서관으로 개칭 (1911) · 폐관 (1919)
윤익선	경성도서관, 북촌 취운정 (1920-1923)	· 山口情의 장서 구입, 경성도서관 설립 및 개관 (1920) ·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으로 흡수 (1922) · 폐관 (1923) · 장서 일부를 '간도동홍중학교'로 이전 (1924)
이범승	경성도서관, 종로 탑골공원 (1921-1926)	· 탑골공원 인근 군악대 건물에 설립, 일부 운영 (1921) · 경성도서관으로 개관 (1922) · 2층의 석조 건물로 신관 준공 (1923) · 경성부립도서관에 양도, 종로분관으로 개칭 (1926)

90) 동아일보 1926, “경성도서관부영”, 1926.2.12. 기사 일부

제4절 소결

무단통치 시대의 일제는 조선의 학교, 책방, 개인의 집을 수색하여 20여만 권의 책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애국장서회진’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이 사건 이후로, 출판물을 규제하였으며,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에 대한 우민화정책을 실시하였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유화적 문화정치로 전환하였고, 근대의식이 무르익던 1920년대의 도서관은 학교를 대신하는 사회교육 기관으로 부각되었다. 일제 식민지기 설립된 공공도서관은 19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설립되었으며, 입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제에 의해 조성된 경성부립도서관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본인 거류지에 위치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거나 식민정책을 주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통치수단의 전환으로 도서관 건립은 기존의 도시 조직 내 규모가 큰 건물을 빌려 운영하거나 인근에 건물을 추가로 증축함으로써 공간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환구단 영역 내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건립한 것과 대관정이 경성부립도서관으로 변모한 것은 일제에 의해 의도된 상징적인 장소로, 넓은 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고려 대상이었다. 경성부립도서관은 초기 명치정의 한성병원에서 이전하여 현재의 소공로에 입지



[그림 3-29] 일제 식민지기 공공도서관의 입지

출처 : 김중근, 『서울 중심부의 일본인 시가지 확산』 참조 후, 재작성

하였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남대문로에 면하고 있었다. 도심부에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경성부립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거류민단의 사무실, 우체국, 경찰서 등 일제의 행정중심지로 소공동, 명동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음을 확인하였다. 경성철도학교와 함께 조성된 만철의 철도도서관 역시 철도를 활용한 식민지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총독부와 군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⁹¹⁾. 다만, 조선 최초의 계획된 시가지에 입지하여 도서관 조성에 따른 도시 공간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 제작된 경성유람안내도(京城遊覽案内圖)와 1934년 만들어진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에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표현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보아(송승섭, 2020), 당시의 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위상과 조선총독부의 인식이 변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으로, 1908년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의 경성문고를 시작으로 윤익선, 이범승 등 민간주도의 경성도서관은 조선인 거류지에 조성되어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 결국 취운정의 경성도서관은 폐관되고 탑골공원의 경성도서관은 경성부립도서관의 종로분관으로 예측되는 등 1930년대 조선인 거류지의 도서관은 전무하였다. 경성도서관을 비롯하여, 당시의 도서관들은 어린이 열람실을 따로 마련하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각종 문화 사업을 계획하는 등 약자에 대한 사회 교육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공공도서관 확장과 병행하여 도서관 주간, 도서보급운동, 전국도서관대회 등 각종 운동과 대회를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이 시기에 국민정신 부흥주장과 겹쳐 ‘사상의 척도’로서 도서관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제의 정치적 목적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계몽의 공간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기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공공도서관이 모두 1920년대에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1930년 경성제국대학 부설도서관을 제외하고 조선 전체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는 31만 5,244권이다. 당시 경성부 4개의 도서관 장서량이 조선 도서관 장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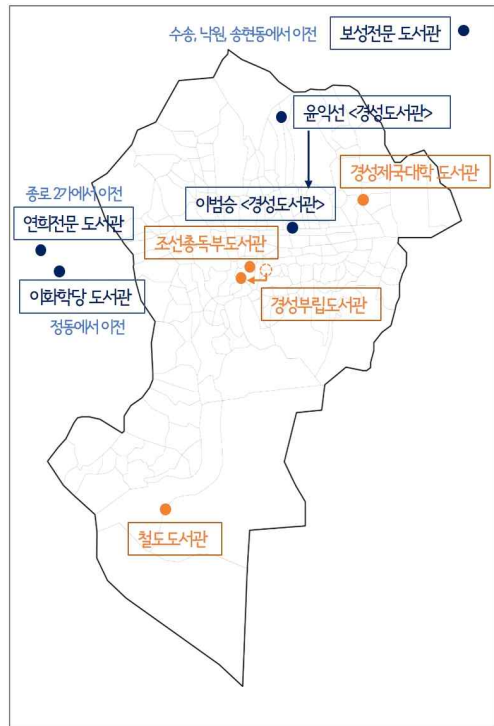
[표 3-4] 1930년 조선의 장서량
(출처 : 1930년 조선총독부 통계연표)

도서관	장서량(권) 315,244	비율	
조선총독부도서관	101,501	73%	80%
철도도서관	85,140		
경성부립도서관	28,983		
경성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의 종로분관)	15,355	27%	
부산부립도서관	11,776		
평양부립도서관	10,506		
국내 44개 도서관	61,97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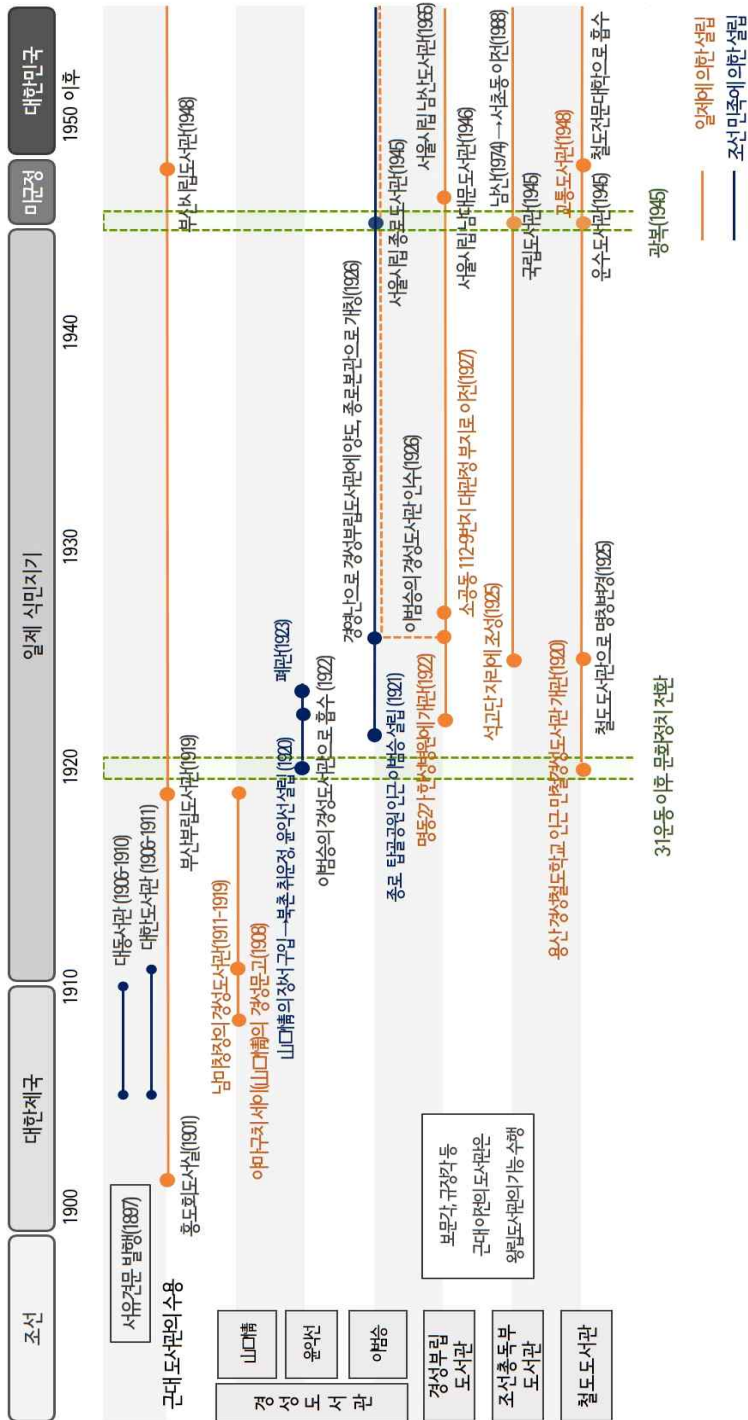
91) 오마이뉴스 2019, "조선총독부도서관① - 나치보다 일제의 '분서'가 더 악독한 이유", 2019.06.13. 기사 일부

73%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과 함께 특정 도서관의 장서 편중 문제도 나타났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 거류지의 분포에 따라 차이가 나며, 과거 경운궁(덕수궁)의 중명전도 고종의 황실도서관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도심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근대 문화시설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대 도서관의 특징으로 첫째, 도서관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접근이 편리해야 한다. 둘째, 책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서 구성에서 지식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주류 지식에 반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대중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기의 도서관은 설립 주체와 운영 방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존재하였고 공공성, 일상성, 보편성의 차원에서 근대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반쪽의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설립에 대한 경성부민들의 열망이 존재하였고,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 경성도서관은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을 거쳐 종로도서관으로, 경성부립도서관은 남산도서관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경성의 도서관이 일제 식민지기 조선교육령을 통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여가, 독서 문화와 지식 공간 조성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그림 3-30] 일제 식민지기 도서관의 전수 분포



[그림 3-31] 일제 식민지기 경기도서관의 설립과 변화과정

제4장 근대 극장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

1. 극장의 기원과 ‘협률사’와 ‘광무대’의 설립
2. 남·북촌 극장의 조성 and 도시 공간
3. 근대 고급문화의 장으로서 공회당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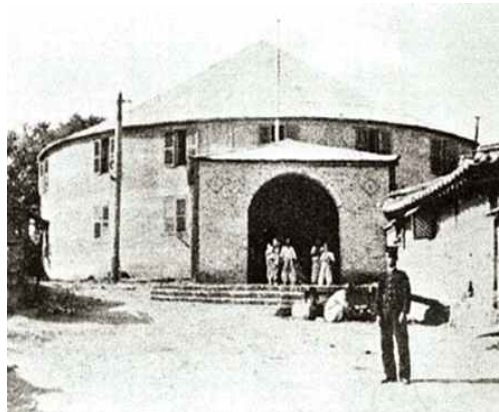
제1절 극장의 기원과 ‘협률사’와 ‘광무대’의 설립

1. 협률사의 설립

근대 이전의 연극에서는 건축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무대와 관객석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홍선영, 2009). 이후 개항기의 제도 변화, 타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변화가 나타났고 극장 건축을 통해 그 양상이 변화하였다. 한성부에 서구식 실내 극장이 출현한 것은 1902년으로, 국제행사로 기획된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望六旬) 기념식’을 위해 설치된 희대가 처음이었다. 희대는 봉상시 건물 일부를 터서 만든 극장으로 로마의 콜로세움을 본떠 한성부 야주현(현 종로구 신문로 1가)에 건설되었다⁹²⁾. 그러나 전염병 등의 이유로 청경예식은 치러지지 않았고, 1903년부터 협률사⁹³⁾로 불리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무를 공연하였다. 협률사는 당시 관립 극장이었기 때문에 공연 역량이 집중되었고 기녀들의 춤과 판소리, 광대들의 곡예 등 전통연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연이었다. 한 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외교사절을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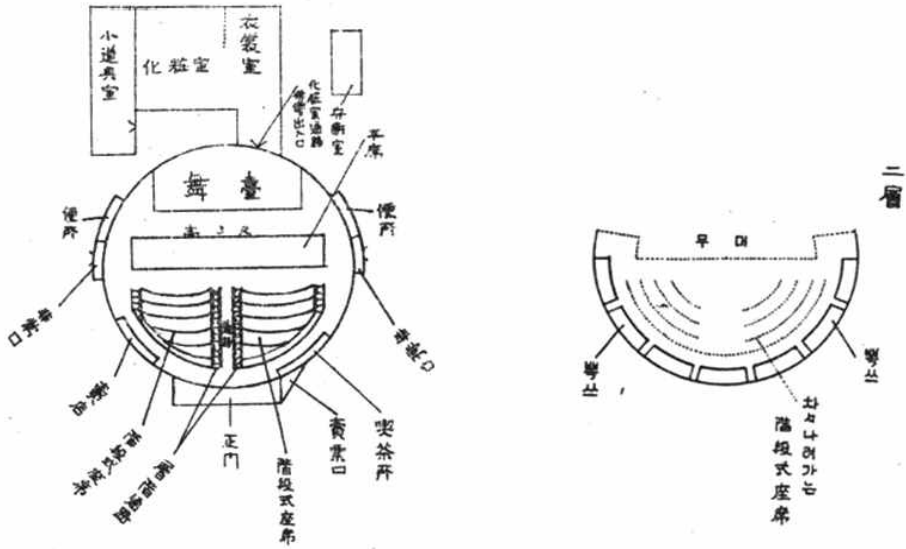
[그림 4-1] 봉상시가 표시된 당시의 지도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그림 4-2] 최초의 서양식 원형극장 희대
출처 : 국가보훈처,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92) 희대가 봉상시의 일부를 개조하여 만든 극장으로 설명한 것은 최남선(2013)의 책에서 '봉상시의 일부를 터서 지방 새문안 예배당이 있는 자리'라는 내용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성신문(1902.08.21)에 따르면, 봉상시 내 희대를 설치하였다는 기사가 난지 일주일 만에 신문로 내의 서북철도국 건물로 이전하여 극장을 마련하였고, 그 위치는 새문안 교회가 자리한 터 옆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협률사로 불린 희대는 1908년 원각사로 계승되어 공연장으로 활용하였고 새문안교회는 1910년부터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문안교회 터를 원각사의 터라 보기는 어렵다. 즉, 봉상시 내의 희대(협률사)가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객들의 접근성이 좋고, 공연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재석, 2019)

93) 협률사라는 명칭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국악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흥행단체의 이름으로, 기존의 협률사(協律司) 소속에서 협률사(協律社)란 독립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림 4-3] 원각사 1층, 2층 평면도

출처 : 조영규, 『협률사와 원각사 연구』

청하여 기념행사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위상을 새롭게 하려했던 협률사는 이후 배우들의 공연보다는 기생들의 예능만이 공연됨으로써 사회 풍기문제를 야기하였고 봉상시 부제조의 상소로 1906년 국가 기관으로의 운영은 중단되었다. 폐지된 협률사는 1908년 원각사로 다시 개관하였다. 원각사의 운영자는 친일관료였던 송병준으로 통감부 관리들과 이완용 등 내각 대신들이 주 관람객이었다. 당시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일제가 의병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조영규, 2006). 당시 원각사의 내부 공간은 전면에 무대가 있고 객석은 계단식으로 구성되었다⁹⁴). 협률사의 공연과는 달리, 원각사는 창부와 가기들의 창극이 주로 공연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협률사의 공간 구조가 원각사와 다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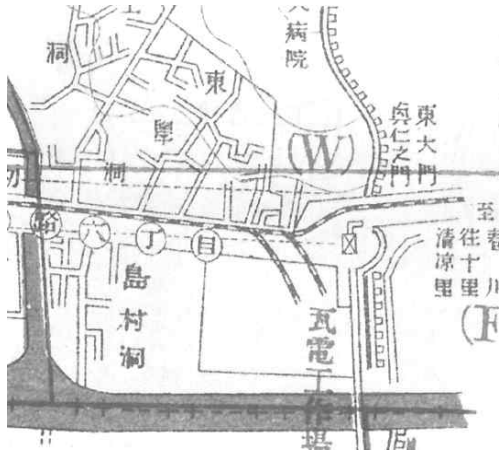
2. 광무대의 입지와 공간적 변화

민간 분야에서는 1903년 한성전기회사가 주최한 활동사진 상영회가 동대문 기계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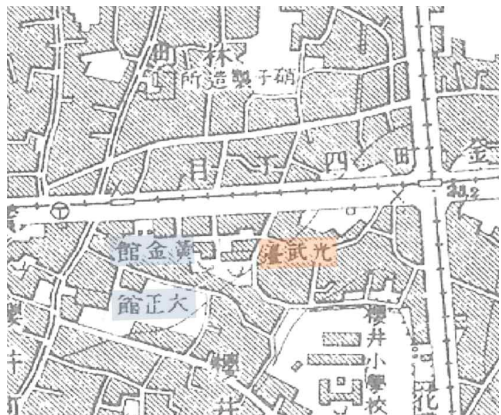
94) 원각사의 공간구성은 1950년 국립극장이 개관되면서 공연되었던 〈원술랑〉 팸플릿에 게재된 윤백남의 〈50년 전 우리 국립극장〉이라는 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원각사는 2층 극장으로, 구조는 벽돌조에 목재 트러스트로 추정된다. 1층과 2층에 객석 창문이 있으며 정면에 위치한 주출입구와 실내 바닥의 높이가 같고 계단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초기 협률사의 것이 아니라, 극장시설을 여러 번 개축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곳은 초기에 ‘동대문전기회사’, ‘동대문기계장’, ‘동대문 전차차고’ 등으로 불렸으나, 활동사진 상영이 일반화되고 시설이 갖추어짐에 따라 ‘동대문활동사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⁹⁵⁾. 당시의 신문에 따르면, 일요일과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상영하였으며 제대로 갖추진 좌석이나 장비가 없어 바닥이나 목재 더미에 앉은 채 영화를 관람해야 했지만 매일 1천 명이 넘는 관객이 입장할 정도의 인기가 있는 장소였다. 1907년부터 광무대로 불렸으며, 낮에는 소리패들이 공연하였고 밤에는 서양의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 서양담배 광고를 목적으로 빈 담뱃갑을 입장료로 받았으며, 영리목적의 전문공연장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차고 소유주였던 일본의 와사전기회사(한성전기회사 흡수)가 이전을 요구하면서 1913년 폐관되었고, 광무대는 황금유원(구 황금좌가 위치)⁹⁶⁾의 연기관(1913년)을 임대하여 공연을 재개하였다. 광무대는 우리나라 연극사에서 최초의 실내 극장이었다는 점과 전통 연희가 이루어진 전문극장으로 이후 창극이 완성될 수 있는 공간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그림 4-4] 광무대의 위치 (와전공작장으로 표기)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그림 4-5] 이전한 광무대의 위치
출처 : 경성지형도(1921), 서울역사박물관

95) 원래는 동대문 부근에 있던 한성전기회사의 공터였으나 미국인 H.콜브란과 H.R.보스트윅이 1903년 영화를 유료 상영한 것을 계기로 영화상영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특별한 시설 없이 야외상영장의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2~3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 극장 시설을 갖추었다. 특별한 내용 소개가 없이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의 빼어난 경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볼 때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의 자료에서 최초의 상영을 1898년 또는 1899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차 차고 안에 설치된 가설무대가 만들어진 시기이며 영화는 1903년 6월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6) 황금유원(현 을지로 4가)은 황금정에 위치한 놀이공원으로 넓은 공간에 신사와 상점, 음식점 및 유흥장이 있었다. 신분에 관계없이 도시와 벽지에서 남녀노소 찾아와 즐기는 공간이지만, 여타의 공원들과 달리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했다. 특히, 여름철 야간에는 많은 인파로 북적였으며, 조선에 유입된 전통적인 일본식 유흥문화를 보다 진화된 형태의 놀이공원으로 현재의 테마파크와 가까운 시설이었다. (岡良助, 1915; 한상언, 2012)

제2절 남·북촌 극장의 조성 and 도시 공간

1. 문화정치 이전의 남·북촌 극장

1) 남촌의 극장

남촌이란 목척산(남산)의 북쪽 기슭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한양도성 내 남부 지역을 일컫는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은 조선의 양해 없이 청국 거류지 일대를 점수하였고, 이곳에 개항장과 내지의 일본인들이 몰려들었다.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이들의 이주는 가속화되었고, 조선인들의 세력권인 북촌과 달리 기득권층이 적고 상인층의 거주 공간이었던 남촌에 자리하기 시작하였다(김기호 외, 2003). 일본인 중심지로서 남촌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가 이곳에 자리함으로써 뚜렷이 부각되었다⁹⁷⁾. 일본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1900년대 초, 경성은 조선인과 일본인 지역으로 구분되는 이중도시의 구조가 되었다.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로의 모습으로 종로는 여전히 기와집이 다수 존재한 반면, 일본인 거류지에는 일본식 건물로 지어진 상점가가 형성되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상점가는 일제 거류지의 독특한 모습이었으며, 돈을 지불하고 볼거리를 즐기는 흥행업은 유교국가인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화였다⁹⁸⁾.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전파된 서구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남촌이었다. 남촌의 문화시설은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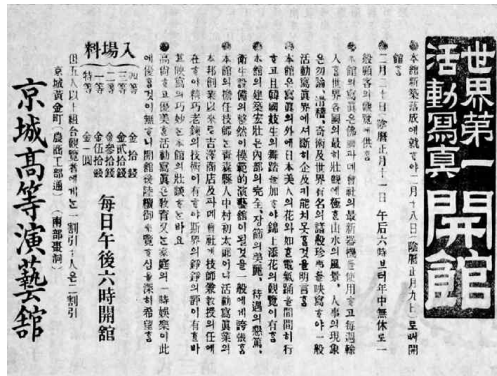
[그림 4-6] 경성우편국 옆의 본정1정목 입구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97)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서대문 밖 천연정에 있던 일본 공사관은 화재로 인해 1885년 남산 아래 녹천정(綠天亭) 자리로 이전하였다. 공사관이 이 지역에 자리하면서 남촌의 일본인 거류지는 확산되었고 1905년 이곳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통감부가 되었고, 1910년 조선총독부로 탈바꿈했다. 1926년 경복궁으로 조선총독부청사를 이전하기까지 남산 자락은 식민통치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8) 한상연(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흥행장과 유곽, 상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찰과 신사 주변에 형성되었다. 각종 축제일에 사찰과 신사를 찾은 사람들은 인근의 극장과 유곽에 들렀고,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한 상점들이 들어섰다. 대표적인 곳이 도쿄의 아사쿠사 공원으로 1873년 일본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 조성되자 주변으로 환락가는 더욱 번성했다. 남촌의 경우에도 남산의 왜성대(倭城臺)에 황대신궁(皇大神宮)을 세우고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일본인을 위한 공원이 입지한 남산의 끝단에 신정유곽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박현(2015)의 연구에서 신정유곽은 일본인 거류지 외곽에 적합한 공지가 있었고 주변에 군대가 있어서 형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형성 기원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흥행업을 위한 유곽과 극장의 설립은 일본식 도시문화가 조선에 이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으로 대표되는 상업 문화시설에서는 흥행극과 활동사진 상영을 통해 서구와 일본의 문화가 조선에 소개되었다(김기호 외, 2003).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재조선 일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남촌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이 건립되었다. 남촌의 진고개에는 이미 1904년부터 경성좌⁹⁹⁾라는 극장이 조성되어 러일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거류민들을 위한 하는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후 가부키좌(1906년), 수좌(1908년)¹⁰⁰⁾, 낭화관(1909년), 남대문 밖의 여성좌(1906년) 등의 공연 공간이 생겨났다. 1900년대 세워진 극장은 공연, 묘기, 기타 여흥거리 중심의 극장이었으나, 1910년 황금정에 경성고등연예관이 개관하면서 활동사진이 상영되었고(김순주b, 2014), 대정관(1912년), 수관(1912년)¹⁰¹⁾, 황금관(1913년), 유락관(1915년) 등이 건립되었다¹⁰²⁾.

당시 남촌의 극장을 살펴보면, 일본인 상권의 중심인 본정과 공원이 있던 남산으로 향한 길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한상언, 2012). 1900년대에 형성된 남촌의 극장 중 경성좌(1904년)는 본정에서 남산 왜성대공원 방향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가부키좌(1906년)는 한양공원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수좌(1908년)는 왜성대공원과 500m의 거리에 있으며 여성좌(1906년)에서는 인근 서울 성곽을 따라 남산으로 오를 수 있다. 이후 조성된 1910년대 극장은 명치정(현 명동)에 낭화관이라는 이름의 요세(寄席)¹⁰³⁾를 중심으로, 본정통에서 다른 곳으로 영역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일제 식민지기 이전부터 황금정의 도로 개설계획으로 부동산 투기열이 가득했고, 1913년 황금정통이 개통되었



[그림 4-7] 세계제일활동사진 개관
1910년 2월 18일 황성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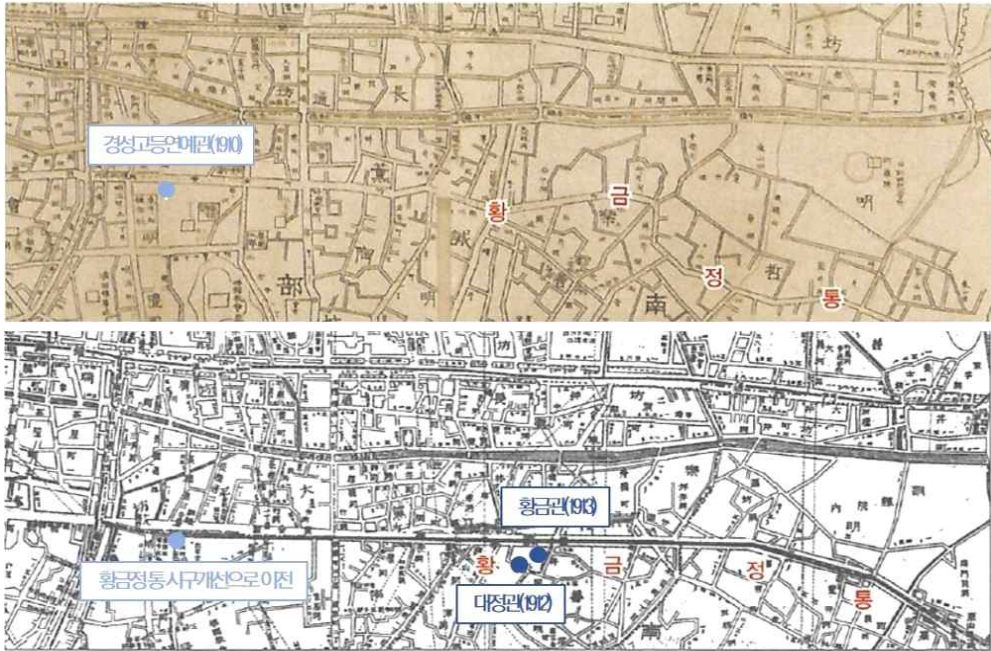
99) 경성좌(京城座)는 1904년에 설립되어, 1906년 경성좌선음악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 거류민을 위한 극장이었다. 개관 당시 신파극 공연을 주로 하였으며, 1908년 주정에서 본정7정목(시구개정 이후 본정4정목)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의 위치로는 중구 퇴계로 211-5번지이다.

100) 수좌는 판본좌(坂本座)의 후신으로 1919년 경성극장으로 개칭되었고 1929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1931년 경성연예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좌는 조선총독부 인근 본정2정목과 본정3정목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치로는 충무로3가 극동빌딩 뒤편으로 추정된다.

101) 남촌의 극장이었던 본정좌는 1909년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고, 수관(壽館)은 본정좌 자리에 만들어진 극장이다.

102) 당시 극장을 부르는 명칭은 ‘좌(座)’, ‘-관(館)’, 이후 ‘-극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연극양식인 가부키 공연을 하던 극장을 ‘좌(座)’로 부르던 것에 유래하며, 1911년 도쿄에 건립된 서양식의 ‘제국극장(帝國劇場)’을 시작으로 ‘-극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활동사진을 전문으로 한 극장은 공연물 위주의 극장과 달리 ‘-관(館)’이라 이름 짓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당시 경성 남촌의 극장은 시기별 차이는 존재하나, ‘좌(座)’, ‘-관(館)’, ‘-극장’ 등으로 명칭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홍선영, 2009; 김순주b, 2014)

103) ‘寄世席’의 출입말로, 사람을 모아 돈을 받고 재담, 만담, 야담 등을 들려주는 곳으로, 당시 일본 본국의 시가지에서 대중적인 연예장이었다.



[그림 4-8] 황금정통 개수와 극장의 입지 변화

출처: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참조 후, 재작성

다(김종근, 2003; 김백영, 2005). 1910년에 황금정에 개관한 경성고등연예관¹⁰⁴⁾은 황금정통 시구개수에 따른 도로의 확장으로 이전하였고, 1912년에는 인접한 앵정정(현 중구 인현동)에 대정관이 개관하였다. 황금정통 시구개수에 앞서 대정관의 극장주 니이다(新田耕市)는 이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고 경성고등연예관을 제2대정관(1915)으로 개관하여 황금정통 일대의 극장 번영에 기여하였다(홍선영, 2009). 1913년 황금관¹⁰⁵⁾이 개관하면서 당시 일본인 소유주의 극장과 상권이 점차 본정통에서 황금정통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극장 시설은 [그림 4-9]의 대정관 개관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극장 내부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깍다실, 담배나 주전부리를 판매하는 매품부, 흡연자를 위한 깍연실 등이 존재하였다. 광고에서 표현된 운동장은 탁구대나 당구대를 비치한 공간으로 추측되며, 화장실은 여성이 화장을 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승구,

104) 1910년 경성고등연예관은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현재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옆 자리인 황금정 63동 7호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912년 황금정통 시구개수로 건물이 헐리게 되자 황금정 3번지에 다시 신축되었다. 한상연의 연구(2012)에서 초기의 위치를 이전 장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황금정통 개수가 1912년임을 감안하면 초기 동양척식주식회사(현 하나금융그룹) 옆 황금정 63동 7호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5) 황금관은 1913년 황금연예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25년 경성보창극장, 1928년 동아구락부, 1936년 황금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송죽(쇼치쿠)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어서 이곳을 송죽좌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1946년 신축 개관하면서 '국도극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호텔 건립을 위해 1999년 철거되었다.

2012). 또한 양장한 부인 안내자를 고용하여 관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감독자로 하여금 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시의 극장 시설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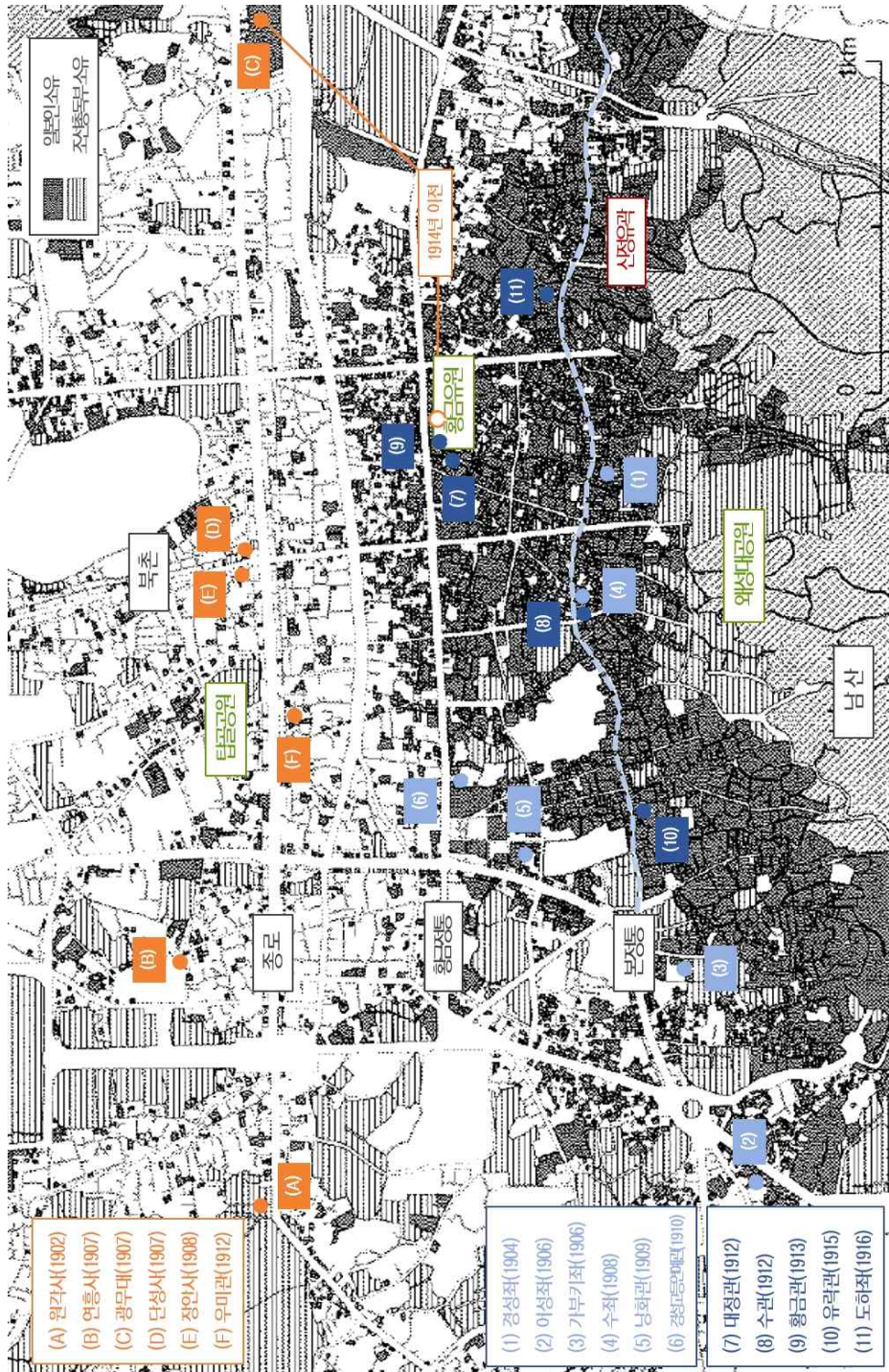
1910년대 남촌의 극장들은 우수한 설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확보하였다. 인형극 분라쿠(文樂)와 전통연희인 노(能)를 공연하는 한편 조선 기생들의 연희를 영화처럼 상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내지의 각종 흥행물들이 공연되고 종류는 가부키, 활동사진까지 다양했지만 흥행의 중심은 신파극으로, 극장을 방문하는 조선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유민영, 1998). 당시의 영화는 무성영화로서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림 4-9] 대정관 개관 광고
1912년 11월 8일 매일신보 광고

[표 4-1] 1910년대 남촌의 극장 현황
(출처 : 홍선영(2009), 한상연(2012), 김재석 (2019)의 연구, 검토 후 재작성)

극장명	개관 시기	위치	정원	내용
경성좌	1904	주정 → 본정 4정목 이전	-	1910년 화재로 소실, 해방 후 극동극장으로 개관
여성좌	1906	남대문동 5정목	약 400명	남성좌로 바뀌어 1935년까지 존재 현 남대문 WISE타워 주변으로 위치
가부키좌	1906	-	-	1912년 화재로 소실, 현 신세계백화점 좌측 위치
수좌	1908	수정 3정목	경성연예관 이후, 약 500명	판본좌의 후신, 경성극장(1919), 경성연예관(1931)으로 변경
낭화관	1909	명치정 소재	-	주요 성격은 요세이며, 해방 이후의 명동극장
경성고등연예관	1910	황금정 2정목	세계관 이후, 약 1,200명	제2대정관, 세계관(1915)으로 개칭
대정관	1912	앵정정 1정목	1,040명	활동사진 전문관
수관	1912	본정 3정목	약 800명	1909년 소실된 본정좌 후신, 본정좌(1920)로 명칭 변경
황금관	1913	황금정 4정목	약 1,000명	동아구락부(1928), 황금좌(1936) 등으로 변경
유락관	1915	본정 1정목	희락관 이후, 950명	1918년 희락관으로 개칭, 1945년 화재로 전소
도하좌	1916	본정 5정목	-	신정유곽 입구 낭화좌(1920), 조일좌(1932), 해방 후 장안극장



[그림 4-10] 1917년 일본인 토지소유 현황에 작성된 1910년대 남촌과 북촌의 극장
출처 : 김종근, 『서울 중심부의 일본인 시가지 확산』 참조 후, 재작성

변사와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악사, 가수 등이 등장하였다. 황금정 경성고등연예관의 경우, 초기의 변사는 일본인이었으나 점차 조선인 관람객이 증가하자 조선인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당시의 정치적 대립을 희석하기 위한 장치로서, 문화주의적 발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기호 외, 2003).

극장의 홍보 방식에 있어서도, 일제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식되었다. 초기에는 ‘마치미와 리(町回り)’로 불린 거리순회 광고를 하였고 건물에 많은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당시 간판의 모양과 설치방법 등은 대부분 일본 내지 간판의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일정한 형식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어 일본 거류지의 가로경관 양식을 지배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홍보 방식은 신문지면 광고로 변화한다. 1906년 ‘경성일보’와 1910년 ‘매일신보’가 창간되면서 매일 주요 극장의 프로그램을 기사화하여, 모국어 신문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였다(김순주b, 2014). 특히 영화는 일본 내지와 동시에 개봉할 경우, 이를 강조해서 실었다¹⁰⁶⁾.

이처럼 남촌의 극장은 조선의 토양 위에 재조선 일본인들의 여가와 위안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본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비록 남촌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근대식 극장은 주체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당시의 극장은 극동극장(구 경성좌 - 아테나극장), 국도극장(구 황금관) 등의 이름으로 총무로 극장가에 최근까지 자리하였다. 당시 남촌의 일본인 토지 소유 현황과 이곳에 조성된 극장의 분포는 [그림 4-10]¹⁰⁷⁾과 같다.

2) 북촌의 극장

협률사(희대)와 광무대가 설립된 이래, 조선인 거류지인 북촌에도 많은 극장이 개관하였다. 북촌에 등장한 극장은 명칭을 통해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광무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극장은 ‘-사(社)’라고 불렸다. 상업적 영업을 시작한 협률사를 비롯하여 원각사, 단성사, 연흥사, 장안사가 이러한 사례로, 공연사의 흐름에서 ‘-사(社)’는 특정 연희단체 및 그 연희단체가 활동하는 연희장에 혼용되다가 점차 극장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조영규, 2003). 을사늑약 이후인 1907년 연흥사¹⁰⁸⁾와 단성사가 문을 열었고, 1908년 장안사와 협률사에 재개관 된 원각사, 1912년 우미관이 차례로 개관하였다. 당시의 영화관은 영화

106) 당시의 영화는 대개 일본 내지보다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봉되었다. 동시 개봉이라는 것은 그 만큼 문화 혜택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경성의 일본인들로서는 일본 내지와 동일한 문화를 누리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김기호 외, 2003)

107) 홍선영(2009), 한상언(2012), 김순주b(2014)의 연구에서, 일제 식민지기 극장의 소재지와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극장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1차 자료 및 타 문헌을 참고하여 남촌과 북촌의 극장을 정확히 표기하였다.

108) <한국 근·현대연극 100년사>에 따르면, 연흥사는 1907년 송지만, 이종동, 이종진 등 3인이 현 종로구청 자리인 장윤직의 개인 저택을 개조하여 개관하였다. 처음에는 무동, 예기창, 판소리 등 주로 구극을 공연하였으나, 1910년대 이후 신파극이 유행하면서 신파극 전문극장으로 발전하였으나, 1915년을 전후하여 폐관하였다.



[그림 4-11]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재개장한 단성사 광고
1918년 12월 21일 매일신보 광고

상영 뿐 아니라 공연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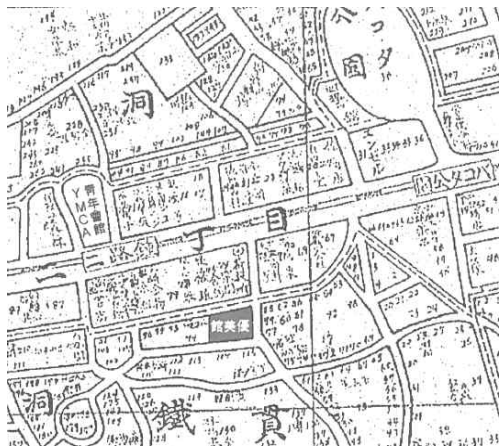
단성사가 자리한 종로 3정목 파조교 인근에는 조선시대 좌포도청이 있던 곳으로, 포도청이 폐지된 이후 1898년 최시형이 순교한 장소로서 조선인들에게는 기억의 공간이었다. 단성사가 개관한 1907년은 협률사가 비판 여론에 의해 관인구락부로 변경된 해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단성사는 ‘교육상 장려와 자선적 사업’을 목표로 출발하였다(이순진, 2011). 당시의 사설 극장들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의 극장은 기생들의 창이나 무용 등 자선공연의 공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 대중들의 오락 공간 역할을 하던 단성사는 1912년부터 조금씩 신극극 공연을 시작하였으며, 1917년 활동사진관으로 개축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여러 차례 조선인과 일본인의 소유권이 교체된 끝에 1917년 일본인 다무라 요시지로(田村義次郎)가 그 땅과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황금유원의 소유주이기도 했던 다무라는 광무대라는 이름으로 판소리와 창극을 주로 공연하여 흥행하고 있던 박승필에게 운영권을 넘김으로써 [그림 4-11]과 같이, 1918년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문 영화관으로 특성화하였다. 객석 1천석의 규모로 상등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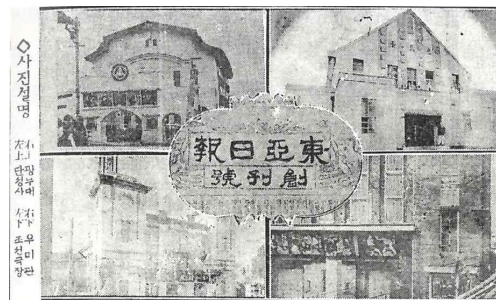
[그림 4-12] 의리적 구토 개봉 광고
1919년 10월 28일 매일신보 광고

다다미, 하등석은 긴 의자로 내부는 일본식이었고 외형은 서양식 건물이었다. 이후 북촌의 대표적인 극장으로 일본과 미국의 영화사로부터 필름을 직접 들여와 일주일에 두 편 상영하는 등 경성 제일의 영화개봉관으로 자리하였다¹⁰⁹⁾. 또한 1919년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 상영하였고 당시의 신파극과 일본 영화의 모방에서 벗어나 민족영화인 ‘아리랑’이 개봉된 곳도 단성사였다. 단성사는 영화와 연극이 함께 이루어진 상업 극장으로, 일제 식민지기 조선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근대 문화의 중심이었다. 극장 소유주가 일본인이었다고 해도 그곳이 조선인 극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흥행권 보장으로 일부 자율성이 있었다(이승희, 2010). 일본인 소유의 건물이었지만 흥행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단성사는 조선인 극장으로 공연예술 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우미관은 1912년 종로구 관철동 89번지에 일본인 하야시다(林田金次郎)에 의해 설립된 조선인 전용 활동사진관으로, 2층의 벽돌 건물로 수용 인원 1,000명 정도의 극장이었다. 실내는 긴 나무의자가 마련되었고, 항상 2,000명이 넘는 관객들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극장이었다. 당시의 프로그램은 단편무성영화로 5-10분 정도의 실사물이 대부분이었으며, 이후 미국영화에 변사의 입담이 추가되어 당시 관객의 흥미와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우미관을 비롯한 단성사, 장안사는 탑골공원의 반경 300m 안에 입지하였고 이들 극장 주변으로는 유흥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공간 변화는 근대식 공원과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흥행업을 위한 일본식 환락가가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한상언, 2012). 또한, 이 시기에 종로의 시구개수가 진행되어, 지가가 상승하였다. 우미관과 같이,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일본인 상인 세력



[그림 4-13] 1930년대 우미관의 위치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그림 4-14] 1925년 당시 조선인 극장들
1925년 4월 1일 동아일보 기사

109) 단성사는 1932년 경영주 박승필이 타계한 이후 발성영화관으로 변모하고자 1934년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명치좌, 약초극장 등 일본인 대형 영화관이 등장하면서 고전하다가 1939년 명치좌 소유주에 의해 체인극장이 되어 이름도 대륙극장으로 개명되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표 4-2] 1920년대 북촌의 극장 현황
 (출처 : 朝鮮總督府警務局(1931),朝鮮總督府(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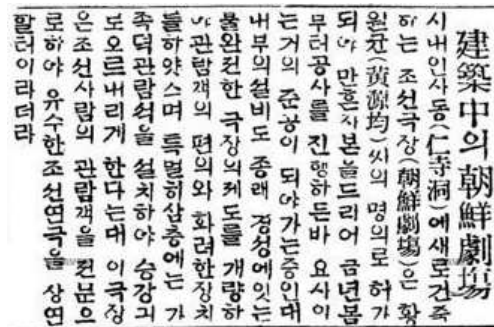
극장명	개관 시기	위치	정원	내용
단성사	1907	수은동	960명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 상영 1910년 중반부터 1932년까지 조선인 박승필이 운영 대륙극장(1940), 해방 이후, 단성사로 환원
우미관	1912	관철동	약 1,000명	서양영화 개봉관으로 출발하여, 1910년대 부흥 한국전쟁으로 소실 후 명맥만 유지, 1982년 폐업
조선극장	1922	종로 2정목 인사동 130번지	800명	영화상설관으로 허가 및 추후 연극 공연으로 확대 일본인 기요미즈 만지로가 운영 1936년 화재로 소실

들은 종로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촌의 극장은 경성인의 여가 공간으로서 활동사진 관람이 확대되면서,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서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세계였다. 1910년대 남촌과 북촌의 영화관에서는 주로 자국 영화를 상영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나, 1920년대를 지나면서 북촌의 영화관은 선동과 교화를 위한 선전 공간으로 변화하였다(이세영, 2016). 남촌과 북촌의 극장은 언어 뿐 아니라 상영하는 영화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제의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는 장소로 점차 변화를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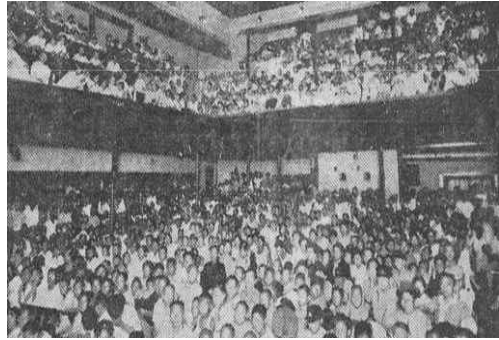
2. 문화정치 이후 전문극장의 등장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로 전환하였고, 이에 본격적인 상업주의가 대두하고 소비문화가 확산되었다. 1920년대 경성에는 전문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극장이 등장하였으며, 그 분포는 남촌과 북촌 구분없이 다양한 곳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극장 운영에 있어 일본인의 자본력을 감당하지 못했고, 조선인이 개관한 몇몇 극장들도 일본인이 인수하여 경영주 역할을 하였다(유민영, 1998). 1922년 설립된 조선극장은 조선인이 극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위해 노력한 사례이다. 조선극장은 조선인 상권의 중심인 종로(인사동 130번



[그림 4-15] 건축중의 조선극장
1922년 9월 18일 동아일보 기사

지)에 위치하였으며, 대동권번의 황원균¹¹⁰⁾에 의해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개관 작품으로는 서양 영화와 판소리 독창, 5대 권번 기생들의 가무 등을 공연하였다. 당시 3층의 건물로 3층의 관람석에는 가족 관람석을 제공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우수한 설비를 갖추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다른 극장과 달리 연극공연을



[그림 4-16] 공연 초일의 성황
1936년 2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겸한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1922년 결성된 토월회의 창립 공연도 조선극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여러 명창대회가 열리면서 각종 극단과 단체들이 조선극장을 이용하였다¹¹¹⁾. 그러나 1935년 최신시설의 동양극장이 개관하면서 조선극장은 영화상설극장으로 전환되었고, 1936년 6월 방화로 소실되었다. 현재는 인사동 문화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선극장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남아 있다.



[그림 4-17] 백주 인시정대화 부근일대대혼잡
1936년 6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110) 평양기생들이 중심이 된 대동권번은 3·1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이 높아가던 화류계에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 지바(千葉) 경찰부장의 주도로 화류계의 친일인사들에 의해 1920년 8월 14일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된 권번이었다. 황원균은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탈출하려는 의친왕의 계획을 일본관현에 신고하여 그 시도를 무마시킨 장본인으로, 그 사건으로 지바 경찰부장의 신임을 얻어 친일권번인 대동권번의 창설에 관여했으며 조선인 최초로 극장 건설과 운영권 모두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승희, 2010)

111) 조선극장이 준공될 당시 광무대, 우미관, 단성사 등의 극장들은 영화 상영을 주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대가 좁게 설계되어 연극을 공연할 수 없었다. 조선극장도 처음에는 영화 상영을 위한 영화상설관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 중에 연극 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를 다시 설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편 남촌에는 중앙관(1922년), 약초극장(1935년), 명치좌(1936년)가 새롭게 건립되었고, 황금좌(1936년)는 황금관을 개축하여 개관하였다. 1914년 일제는 시구개수의 네 번째 노선인 돈화문통의 개수를 시작하였다. 식민지 이전까지 개설되지 않았던 종로와 청계천 남쪽을 연결하는 도로로, 경성의 전통적 도심부와 일본인 거류지를 연결하는 개수사업이었다(염복규, 2016). 돈화문통 가로에 위치한 약초극장¹¹²⁾은 약초동보극장으로 불렸는데, 동보라는 명칭은 일본의 동보영화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의 영화사들의 국내 투자가 직접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약초극장은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로서 외부에서 눈에 잘 띄도록 반원형의 현관을 외부로 돌출시켜 극장의 전실이 넓어지도록 계획하였고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밝은 실내 공간을 형성하였다(최윤실 외, 2008). 또한 콘크리트 구조로 돌출부에 형성된 수직의 긴 창과 함께 배치된 기둥은 서구의 건축 양식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건물 입면에 수평의 창을 특징으로 근대건축 어휘를 사용하는 등 단조로운 평면과 입면에 변화를 주면서 좁은 대지에 건물을 효과적으로 디자인 한 것을 알 수 있다(이근혜, 2008).

명치좌는 명치정2정목에 입지하여, 당시 미도파백화점에서 명동 성당까지 이어지는 축선상에 위치하였다.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라는 사업가에 의해 건립되었고, 지하 1층



[그림 4-18] 돈화문통의 개수와 약초극장
출처: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참조 후, 재작성

112) 약초극장은 2개 층의 객석을 가진 전용 영화관으로 지어졌다. 대지 면적은 약 300평으로 도로면이 좁아 극장 전면을 대로(현 충무로)에 접하게 하였으며, 당시에는 영화 상영과 공연물 등을 함께 상영하였다. 1,172석을 보유한 대형극장으로 해방 이후 수도극장, 스카라극장을 거치면서 충무로의 대표적인 극장이었으나, 2005년 문화재청이 극장을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습 철거로 논란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지상 4층의 규모로 개관하였다¹¹³⁾. 개관 당시 언론에서는 ‘대경성의 명치정에 아사쿠사 다이쇼칸(大正館)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본 딴 건물’로, ‘45만원을 들인 조선 제일을 자랑하는 대영화전당, 좌석 1,500석, 재생기(발성기)는 웨스턴 대형을 부착, 시사실 설비’를 갖춘 극장으로 홍보되었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전체적으로는 절충주의적 건축양식으로 현관 상부의 상체는 바로크적 요소가 채택되었다. 명치정 네거리의 교차하는 모서리에 위치한 명치좌는 두 방향에서의 접근성과 시각적 효과를 감안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모서리에 주출입구를 두어 동선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면의 현관은 옥탑까지 외벽을 세워 5층으로 보이도록 계획하였으며 3-4층은 아치창으로 고전적인 건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외부는 화강석으로 마감하였고 1층과 4층의 외벽에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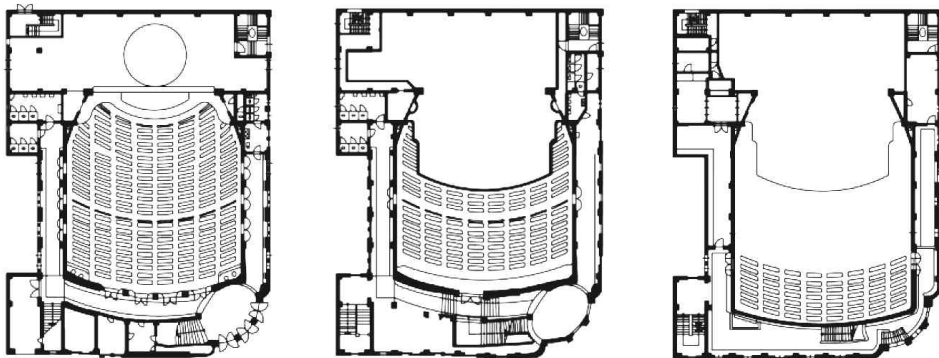
[그림 4-19] 약초극장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그림 4-20] 1930년대의 명치좌

출처 : <http://www.culturecontent.com>



[그림 4-21] 명치좌의 1-3층 평면도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113)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는 나가사키현 출신의 사업가이다. 1939년 단성사를 인수하여 대륙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서울역사편찬원, 2017)

적으로 타일과 조각된 석재를 사용하여 장식적 요소가 많이 표현되었다. 극장의 내부는 [그림 4-21]과 같이, 곡선의 형태의 객석과 무대 앞쪽으로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설치되어 있어 다목적 용도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복도의 양쪽 끝에 화장실이 있으며, 홀의 왼쪽으로는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다. 2층에는 휴게공간과 홀이 조성되어 있으며, 상층부로 갈수록 셋백(Setback)되어 객석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도록 계획되었다.

명치좌는 현재 부민관과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제 식민지기의 극장이다. 해방 이후 국제극장으로 명명되었고 이후 서울시 소유의 시공관으로 집회시설 및 연극 등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1957년 명동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3년 남산 국립극장이 개관될 때까지 국립극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금융업체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매입, 2009년 명동예술극장으로 재개관하였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황금좌는 황금관이 있던 곳에 1936년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새롭게 지어진 1,128석 규모의 극장이다. 전면부는 서양 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지붕은 기와를 사용한 제관 양식의 건축이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이는 1930년대 군국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동양풍을 가미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불렸다. 전면에 10개의 각형 편개주를 부착하여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처마 밑에 코린트식 주두를 계획하였다. 1층 중앙부에 주출입구가 있으며, 좌우대칭으로 원형과 아치모양의 창이 장식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최윤실 외, 2008). 관객석 내부는 프로시니엄 극장 구성으로 장방형 평면 형태이며, 오케스트라 피트도 계획되었으나 좁은 무대로 영화관으로만 사용되었다.

극장의 건축에서 약초극장을 제외한 명치좌와 황금좌는 모두 오카다(玉田)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동일



[그림 4-22] 황금좌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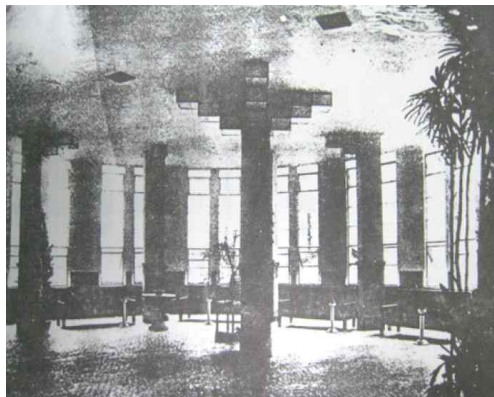


[그림 4-23] 1934년 모더니즘 형태로 신축된 단성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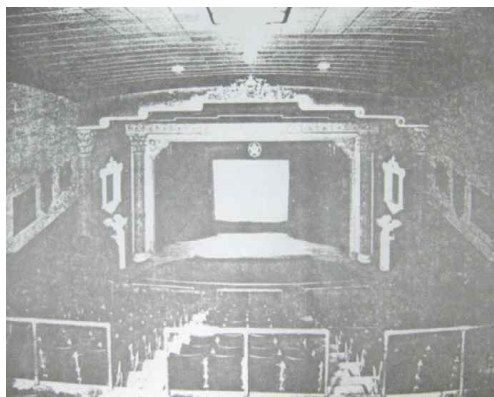
한 사무소에서 같은 시기에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촌의 단성사는 모더니즘 경향으로 계획하였고 남촌의 명치좌와 황금좌는 서구 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동일한 설계자에 의해 같은 용도의 시설물이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용객의 차이, 시설의 성격에 따라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제가 서구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을 계획한 건물을 통해 조선의 건축과 '구별 짓기'로서, 선진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30년대 전문극장으로 지어진 극장은 규모 면에서 서구의 극장에 비해, 뒤떨어지는 시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극장은 근대적 건축 양식으로서 좌석 수 1,000여 석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발성영화가 선을 보이면서 변사의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차코(お茶子)라는 관행도 폐지하였다. 오차코는 말 그대로 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리를 안내하는 일종의 도우미로, 일본의 극장문화가 그대로 답습되었으나 전문극장이 도입되면서 운영에 변화를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극장 내부는 복층의 구조로 측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초창기의 극장은 남녀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고 '부인석'은 주로 2층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차츰 좌석의 분리는 사라지게 되었다(김승구, 2012). 스크린을 포함한 무대와 객석은 높이 차이로 구분되어 있고 객석 후면부에 영사실이 있는 모습은 현대의 영화관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극장 구내에는 매점과 화장실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특이한 점은 무대의 측면에 광고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광고등은 관객을 찾는 사람이 있을 때, 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최신 시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극장은 마당극에 익숙한 우리 민족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다. 일



[그림 4-24] 약초극장의 2층 홀
朝鮮と建築 15집 2호(1936년 2월)



[그림 4-25] 황금좌의 무대와 2층 관객석
朝鮮と建築 15집 2호(1936년 2월)

찍 온 사람이 좋은 좌석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변사의 목소리나 영화의 내용에 환호성과 야유를 수시로 보내며 소란스러운 환경이었다(김승구, 2012). 공공공간이었던 극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근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극장은 과도기적 환경이었다.



[그림 4-26] 황금좌의 2층 홀
朝鮮と建築 15집 2호(1936년 2월)

당시에 새롭게 지어진 전문극장은 화려한 외관과 내부 공간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영화 문화를 선보였다. 경성의 모든 부민들이 영화관에 출입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린 것은 아니었으나,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학생들을 비롯해 여성들도 영화관에 가게 되었던 것이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근대적으로 건축된 극장은 거리의 행인들을 건물 안으로 유인하고 시각적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지어진 극장은 도로개수사업 이후, 도로 주변으로 넓은 부지에 큰 규모로 입지하였고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보다 근대적인 것에 대한 동경의 대상으로 경성의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제3절 근대 고급문화의 장으로서 공회당

1. 문화정치 이전의 공회당

1)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황성기독교청년회(서울YMCA)의 교육·체육·종교 사업이 확장되면서 준공된 근대적 건물로, 1913년 황성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으로 개칭되었다¹¹⁴⁾. 황성기독교청년회가 결성된 뒤 마련된 장소는 옛 태화궁 터¹¹⁵⁾였으

114) 원래 명칭은 황성기독교청년회관(皇城基督教青年會館)이었으나, 1913년 '황제의 성' 혹은 '황제의 나라'를 표현한 '황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조선중앙'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대한제국이나 독립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하여 '대한', '황성'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YMCA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115) 태화궁은 조선시대 현종의 후궁인 김씨가 살던 곳으로, 대한제국 말 고종이 이윤용에게 하사하였다. 현재의 삼청동 일부 지역으로 경복궁 후원구역의 동측문인 춘생문과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후 일제 식민지기에 태화궁이 헐리고 일본인 관사가 들어섰으며, 현재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림 4-27] 종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입지

출처 : 안정연 외, “서울 종로2가 도시건축 형성과정의 도시설계적 의미” 참조 후, 재작성

나, 1908년 새롭게 조성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종로2정목 9번지에 당시로서는 최고층인 지상 3층의 건물이었다¹¹⁶⁾. 600여 평 규모의 서양식 벽돌 건물로, 황실 및 내·외국인의 기부금과 현흥택 등 지역 세력가의 토지를 기부 받아 조성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당시 건립된 건물에 대하여 독립운동가 황현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간사였던 그레그(G. A. Gregg)는 다음과 같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독교청년회관이 낙성되었다. (중략) .. 회관이 낙성되자 지붕 높이가 산 같았는데, 종현의 교회당(명동성당)과 함께 우뚝 솟아 남북으로 맞섰다. 장안에 가장 커다란 건물이 되었는데, 예부터 공사 관청이나 집 가운데 그만한 건물이 없었다.” (황현의 ‘매천야록’ 中)

“청년회관이 우뚝 서게 되었다. 이 웅장한 3층 서구식 벽돌집이 온 시기를 한눈에 내려다보게 되니 이 집이야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집.” (The Annual Report, 1909.9.30.)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명칭이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소통의 장소였다. 상하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 뚜렷한 전 근대 풍토가 만연하던 조선인들에게 이곳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장소로 인식되었고, 선교사 게일(J. S. Gale)은 다음과 같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을 평가하고 있다.

“상점들과 관가의 중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지 역시 훌륭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중략) .. 하류층의 자녀들, 상인들의 자제들, 선비나 양반의 자녀들이 모여와 한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밤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J. S. Gale's letter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기관 초기부터 청년활동의 일환으로 사회활동, 문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1층에는

116) 종로에 위치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경성의 도로개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로개수 과정에서, 종로 북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의 가로만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원인은 북쪽에 청년회관과 같은 큰 건축물이 남쪽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24, “종로도로의 정리”, 1924.08.27.)

목공실과 철공실, 식당, 목욕탕이 있었고 2층에는 강당과 친교실, 3층에는 일반교실과 교직원실이 존재하였다. 이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의 규모는 더욱 커져 1914년 바로 옆에 증축을 하였고, 조선의 첫 실내체육관으로 활용되었다. 이곳은 당시 청년들의 만남의 장이자 서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¹¹⁷⁾였으며, 물산장려운동, 농촌운동 등 계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1915년 여러 교파 연합의 조선기독교신학대학(CCC, Chosun Christian College)으로 불리던 연희전문학교도 회관 3층에서 수업을 시작하였고 음악교육활동도 진행하여 기독교청년회 내의 자체적인 음악 문화를 구축하였다.

공연이나 행사가 개최된 곳은 2층의 강당으로, 8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당시 마땅한 행사 장소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개관은 의미가 컸으며,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 의해 적극 활

용되었다(금융웅, 2018). 종로2정목에 위치하여 전차로 이동이 가능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 종로에 가로수가 심어지고, 도로 포장이 이루어지는 등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종로의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앞은 매일 밤 각종 공연과 강연 등을 보고 쏟아져 나오는 조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경성의 조선인 문화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림 4-28]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출처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그림 4-29] 증축된 회관과 종로 거리
출처 : 서울학연구소

“청년회관 - 종로경찰서하고 나란히 서 있는 저 군함같이 큰 양옥집이 중앙기독교청년회관일세.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미국 사람이 8만 원 기부한 돈에 조선서 모은 돈을 보태어 30만 원 들여 지어 가지고 이 안에 주, 야학 학관이 있고 사진 인쇄 목공까지 따로따로 전문으로 배우는 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한 5-6백명 수용하는 강당이 있어서 천도교 신교당이나 또 그 기념관이 생기기까지는 경성 민간의 유일한 공회당이었던 데.” (“이일동안에 서울구경 끝고로 하는 법”, 별간군(1929. 9) 中)

117)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공연은 대부분 서양음악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황성기독교청년회 시절부터 선교활동을 통해 찬송가 등 서양음악이 연주되었고, 1912년 음악과를 신설, 서양음악을 보급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서양음악가 및 서양음악 연주단체의 공연 개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택부, 2017)

일반적으로 공연은 저녁 7-8시에 시작되어 10-11시 사이에 종료되었다. 전차는 새벽 5시부터 0시 30분까지 운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늦은 시간에 교통편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저녁 음악회 문화를 공유할 여건이 되었다(김영근, 1999). 그러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취소, 연기, 중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로는 전기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거나 폭우와 같은 날씨의 변화, 연주자의 교통편, 조선총독부의 미허가 등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조운영, 2018). 또한 [그림 4-30]과 같이, 기독교청년단체들은 부패한 풍기를 숙청하고 새로운 문화의 수립을 위해 기생의 존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기생의 공연을 부적합한 것으로 금기하였으며, 일제의 문화정치에 의해 언론 및 집회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많은 단체들의 공연 주최 및 후원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어 기존 신문사들과 함께 ‘독자위안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게 되었다(금융웅, 2018). 여러 공연을 통해, 동·서양 교류의 현상이었고 민족주의자들의 토론과 논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자리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1930년대 민족말살정책으로 일제의 방해공작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일본YMCA 경성 종로지회’로 격하되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교양강연회, 토론회, 환등회, 음악회,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등 일곱 가지의 활동에 대해 YMCA의 역사적 공헌으로 언급되며(전택부, 2017), 당시 우리 민족의 결집을 강화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림 4-30] 신일청년단체가 일당에 집회하야
1923년 7월 13일 동아일보 기사

2) 천도교 중앙대교당

천도교는 1860년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선포하며 창시한 동학에서 비롯되어, 1905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인간평등주의를 전개하고 안정된 조직과 재정을 갖춘 사회 세력으로 성장, 100만 명 이상의 교세로 확장하였다. 당시 조선의 종교 중 가장 많은 신도 수를 가진 천도교의 문화운동은 학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계몽운동과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고 농민운동 및 노동운동,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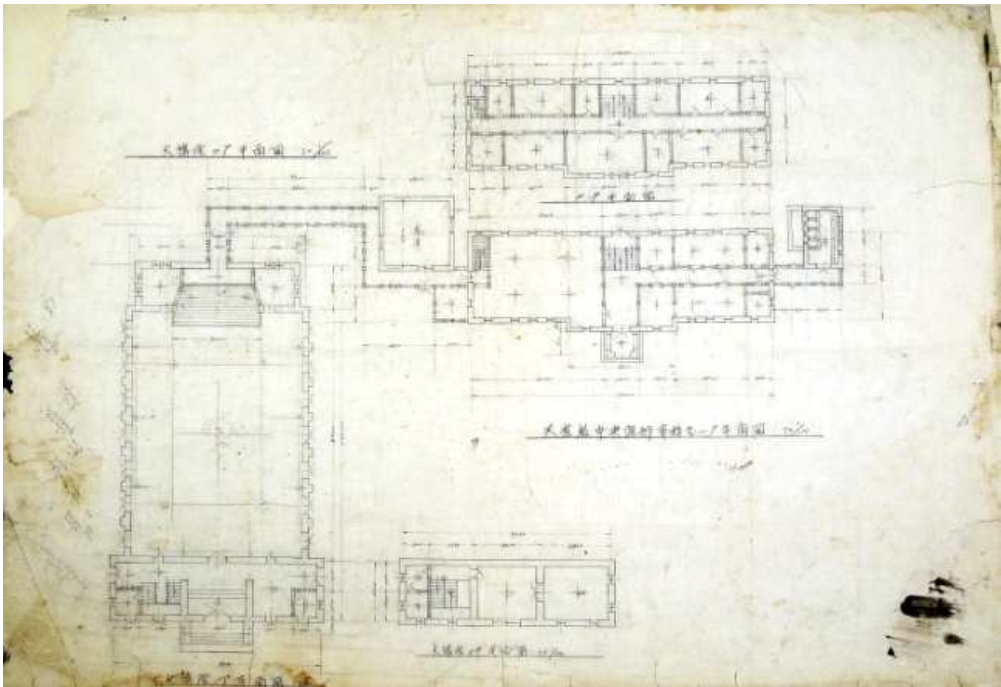
이운동까지 각 부문별로 주도적인 문화운동을 펼쳤다(이동초, 2008).

천도교의 교세 확장에 따라 종로구 송현동에 있던 천도교 본부를 이전하고 교당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1918년 손병희에 의해 세워졌다. 당시 천도교측은 400평 규모의 대교당을 계획하고 당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이 지체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신축교당이 지나치게 크다’, ‘성금모금을 중지하고 받은 성금은 돌려줘라’, ‘중앙에 기둥이 없어 위험하다’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절반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를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방해로 1921년 완공까지 4년이 걸렸으며, 건물은 연면적 280여 평, 4층으로 후면에 강당을 연결한 형태의 건물이다. 규모는 3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바닥에 앉는 형태였기



[그림 4-31] 1921년 건축된 천도교 중앙대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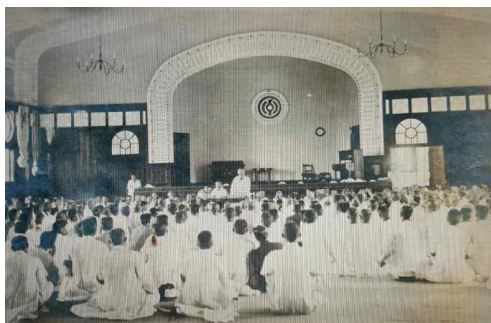
완공까지 4년이 걸렸으며, 건물은 연면적 280여 평, 4층으로 후면에 강당을 연결한 형태의 건물이다. 규모는 3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바닥에 앉는 형태였기



[그림 4-32]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축 설계도

출처 : '3·1운동과 천도교 중앙대교당 展', 서울역사박물관

때문에 가능한 인원이라 할 수 있다(이동초, 2008)¹¹⁸⁾. 당시 조선인 건축가가 부재하고 조선총독부 산하의 건축가를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건축가 나카무라 요시헤이(中村 興資平)에게 설계를 요청한 것은 조선의 근대성을 실현하는 역량이 미흡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인근 창신동에서 채취한 화강석의 기초 위에 붉은 벽돌조의 단층 교당은 미국에서 수입한 철골 앵글로 지붕을 계획하였다. 나카무리는 서양의 여러 양식이 절충된 계획으로 설계하였고,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는 서구에서 발현한 세션(Seession) 스타일도 읽을 수 있다(김영재, 2013).



[그림 4-33]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내부
출처 : 이동초, 『천도교중앙대교당 50년 이야기』

“천도교당 - 공원 윗 골목으로 북으로 4-5정(丁)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마당에 굉장히 높고 큰 양옥건축이 세 채나 있는 곳. 여기가 천도교중앙교당이고 중앙종리원이고 또 기념관일세. 경성 안에서 조선 사람의 힘으로만 지은 집 중에 제일 큰 건물이니 결국 조선에서 제일 큰 집이 아닌가. 350여만의 도인을 가진 교단이라 참말 굉장한 건물일세. 교당 하나에만 26만원을 들여서 기미년에 지었는데 중간 기둥 하나 없이 별관같이 넓은 집에 2천여 명을 편안히 들여앉히니 굉장하지 않은가. 또 이 교당 앞 높은 다락은 5층 누각이나 되는데 저기 올라가서 유리창을 열어 놓고 내려다보면 경성 일원이 바둑판같이 조그맣게 내려다보인다네.” (‘이일동인에 서울구경 골고로 하는 법’, 별건곤(1929. 9) 中)

당시의 종로 운현궁 주변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 외에 1922년 중앙종리원 건물(중앙총부 본관)과 1924년 최제우 탄생 100주년 기념 ‘대신사백년기념관(수운기념관)’이 건립되면서, 이 일대는 ‘천도교 단지’로 성장하였다(이동초, 2008).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당시 명동성당(1898), 조선총독부(1926) 건물과 함께 서울의 3대 건축물로 손꼽혔으며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성금만으로 지은 건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경성의 수많은 문화행사가 열리던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수운기념관은 집회, 강연회, 음악회, 무용발표회 등 강당이 필요한 사회활동에 적극 장소를 제공하였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된 음악회를 살펴보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 음악인의 음악회보다는 발표회 형식의 대중을 위한 오락

118)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이후 1930년대 일본식 다다미를 시공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나무의자를 설치하였다. (이동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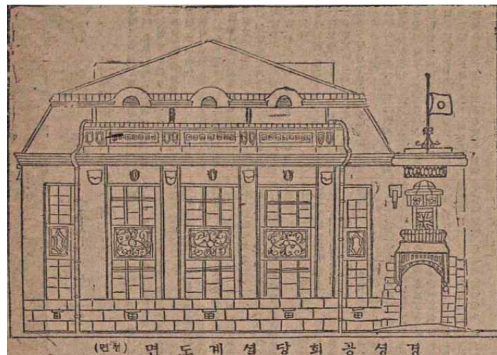
기능이 주요 목적이었고 어린이 관련 행사나 동요대회 등이 주요 음악행사로 다루어졌다(조윤영, 2018). 또한 이곳은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조선총독부의 집중적 감시를 받던 세력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였다. 당시 천도교는 기독교와 함께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독립운동 기본계획과 독립선언서의 배포 그리고 해외독립운동 자금 운영 등의 거점 공간이었다. 3·1운동과 최초의 기자회견인 <전조선기자대회>, 김구 선생의 임정 귀국 연설 등 일제 식민지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 민족종교운동, 문화운동의 산실로 자리하였다(이동초, 2008). 또한 1922년 10월 22일 열린 노동자대회는 몸값 40전과 매달 30전을 경찰에 상납해야 했던 서울시내의 지계꾼들이 운집한 성토대회의 장이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한 음악회의 많지 않지만, 조선인을 하나로 모아 노래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였고 종교와 관계없이 조선의 모든 연령에게 음악을 보급하였다. 또한 일제 식민지기 억눌리고 빼앗긴 조선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민중계몽 운동을 펼친, 민족 화합의 공간으로 비극의 역사를 함께한 민의의 전당이었다.

2. 문화정치 이후, 극장 계획과 기능 변화

1) 일본 자본에 의한 경성공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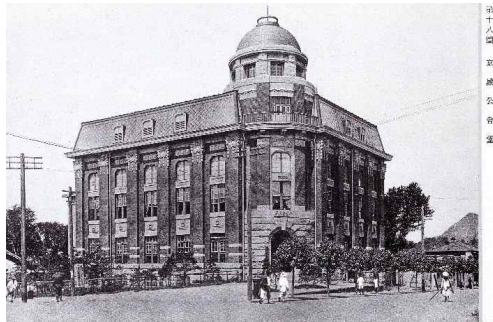
경성공회당은 경성상업회의소 2층에 위치한 시민회관이다. 당시 경성부민을 위한 회합 공간의 부재와 동양척식회사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던 경성상업회의소¹¹⁹⁾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성공회당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경성상업회의소와 공회당 건립은 많은 자금을 소요하는 사업으로, 부호층의 상당수가 상업 자본이었다는 점과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업종의 특성상 도심부 입지가 필수조건이었다(황병주, 2010). 그러나 일본인 거류지라는 지리적 입지는 배제 하더라도 조선인을 제외한 일본인 상공인 중심의 비밀회의가 진행되는 등 경성공회당의 건립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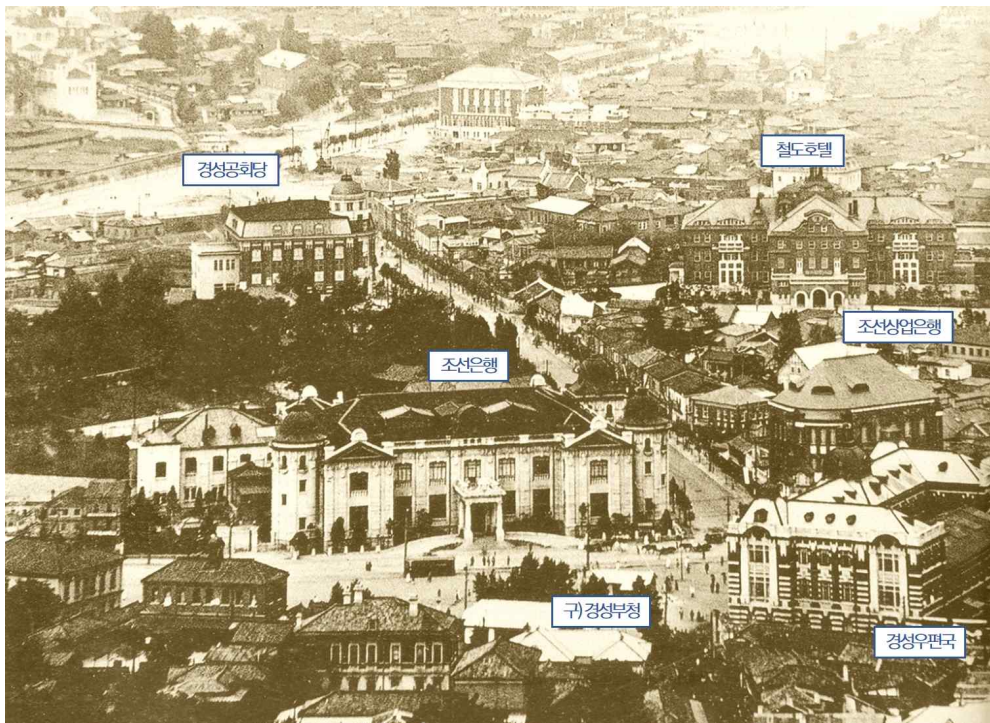
[그림 4-34] 경성공회당 설계도면
1918년 2월 27일 매일신보 기사

119) 경성상업회의소는 상공인과 산업 발전을 위해 1915년 조선인과 일본인 상인 20여 명이 발기하여 만든 상인단체이다. 그러나 조선 상공업계를 통제하기 위한 일본인 위주의 상인단체였으며, 경성에서의 상업 활동을 위해 이 단체의 가입은 상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김기호 외, 2003)

상업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경성 상업회의소는 장곡천정(현 소공로)에 위치하여 장곡천정공회당이라 불렸으며, 1920년 철도호텔의 맞은편에 조성되었다¹²⁰. 당시 조선은행(1909년)과 조선상업은행(1911년), 경성우체국(1915년)이 위치한 소공동, 명동 일대에 경성상공회의소를 입지함으로써 이 일대는 일제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경성공회당은 경성역과 재조선 일본인 거류지와의 가까워 경성을 드나드는 외국인을 위한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경성공회당 1층은 상업회의소 사무소와 도서실, 응접실로 사용되었으며 2층의 공회당은 140여 평에 765명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각종 공연이나 행사를 주최하였다(금융웅, 2018). 경성공



[그림 4-35] 경성공회당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4-36] 1920년대 경성공회당과 주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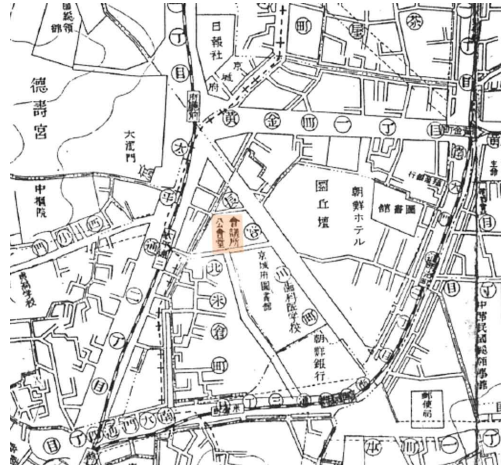
출처 : 부산근대역사관

120) 고종의 '한성도시개조사업'은 덕수궁을 교통과 시선의 종점으로 만들어 왕권의 절대성을 공간적으로 각인하고자 하였다. 소공로는 서구도시계획에서 많이 사용한 방사형 도로체계를 모방하여, 도시적 팽창을 꾀하고 자생적 도시 근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김광우, 1991)

회당은 사용법을 구별하여 제1종은 강연회 일반, 제2종은 회사 및 은행의 주주총회와 기타 상공업에 대한 회장, 제3종은 회화전람회와 연회, 제4종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연예회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입장료를 받지 않는 연예회는 주간 20원, 야간 40원, 입장료를 받는 연예회는 주간 25원, 야간 50원으로 각각 차등 요금을 징수하였다¹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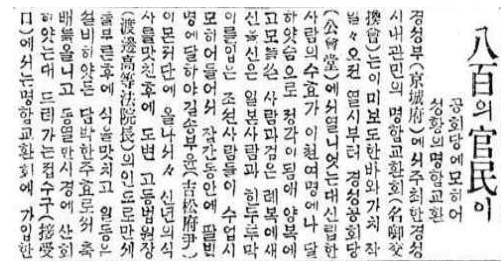
초창기의 경성공회당은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소였다. 1920년대 초 경성부는 경성공회당에서 신년맞이 명함교환회를 개최하였고, 강연회 및 환영회, 송별회장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음악공연 관람에 있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객석이 일렬로 여러 명이 앉는 나무벤치였던 반면 경성공회당은 등받이가 있는 개인 좌석으로 관객들은 보다 독립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조운영, 2018).

당시 경성에는 음악회 전용 공간이 없었다. 경성공회당은 입지적으로도 경성역과 가까워 외국인 음악가에게도 편리한 위치였기 때문에 일본인 음악가와 서양의 공연은 대부분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공연 시간은 저녁 7-8시에 시작된 경우가 많았으며, 출연자는 전문 음악가의 공연이 다수였다. 경성공회당에서는 각종 서양인 초청 음악회와 이시아바쿠 무용발표회¹²²⁾ 등 서양인과 일본인이 중심이었다. [그림 4-39]와 같이, 관객들 대부분이 일본인이었으며 유



[그림 4-37] 1929년의 소공로 일대

출처 : 경성시지도,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4-38] 팔백의관민이 공회당에모이며 성황의명함교환

1922년 1월 2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4-39] 크라이슬러 대공연회

1923년 5월 24일 경성일보 기사

121) 동아일보 1920, "공회당 사용규칙", 1920.07.11. 기사 일부

122) 1926년 이시아바쿠의 공연에 매료된 최승희가 우리나라 신무용의 개척자가 된 것에서 경성공회당의 공연이 당시 경성부민에게 신문화를 소개하는 직접적인 창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명 음악가의 공연이 '경성일보'에 사진과 함께 보도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채동선의 바이올린 독주회처럼 일본에서 유학한 후, 귀국한 음악가들도 종종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연 공간의 입지와 역할을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 저급과 고급의 문화로 구분되었고 조선인은 경성공회당과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변인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³⁾.

다양한 공연 공간의 역할을 했던 경성공회당은 1935년 이후 공연 횟수가 급감한다. 이는 1935년 태평통의 부민관 개관에 따른 영향으로 부민관 대관 빈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음악 공연, 회합 등 사회적 행사가 큰 규모와 최신시설을 겸비한 부민관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에 의해 설립된 부민관

1912년 황토현 광장(현 세종로사거리)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태평통 시구개수를 통해 덕수궁의 동쪽 궁성이 잘리며 도로가 확장되고 직선화되었다. 이후 1926년 경성부청이



[그림 4-40] 경성도시계획 도심부근의 조감도

출처 :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調查書』

123) 1931년 흥남파의 '중앙악단의 가을씨손'에 따르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을 제일로 장소가 음악연주에 부족하며, 경성에는 아직까지 적당한 연주당이 없기도 하지마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공회당만한 곳도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경성공회당이 경성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음악회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윤영, 2018)

현 위치(서울특별시청)로 이전하고 경복궁에 조선총독부청사가 건립되면서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원근법적 조망체계가 구축되었다. 경성부청 앞의 광장은 물리적 중심으로 태평통, 황금정통, 장곡천정통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경성의 도시구조는 통치에 용이하고 치안확보를 위한 공간구조로 탈바꿈하였다. 경성부청은 광화문통의 조선총독부청사와 연계된 공간적 기획의 산물로, 본정통 중심의 일본인 세력이 북촌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행정의 중심과 상업·금융의 중심이 공간적으로 분화하게 되었다(김백영, 2005).



이곳에 부민관의 건립은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일제의 의도가 완성되는 것이었다¹²⁴). 부민관은 경성기독교청년회와 이왕직 소유의 덕안궁¹²⁵이 위치한 곳에 건립하면서, 일제는 이 일대를 새로운 ‘발전의 장소’로 재구성하였다. 1935년 부민관 낙성식 당시, 경성부윤은 ‘이왕직 및 조선총독부의 크나큰 배려로 부내 요충지인 태평통의 땅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제의 의도적인 입지임을 알 수 있다. 봉건적 지배 대신 근대적 발전을 대입함으로써 일제는 자신의 지배를 은폐하거나 ‘발전을 위한 지배’로 치환하고자 한 것이다(황병주, 2010). 당시 부민관의 입지에 대하여, 경성부윤은 특별히 ‘조선인 사회와 일본인 사회’의 융



[그림 4-41] 태평동 시구개수와 부민관의 입지
출처: 엄복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참조 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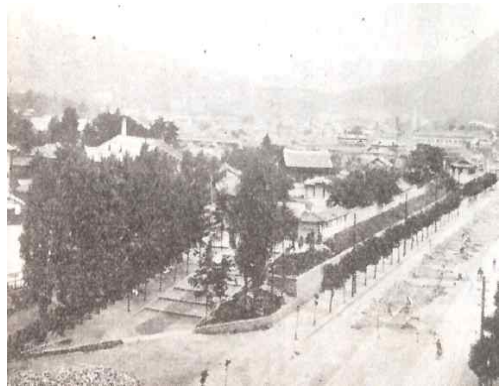
124) 경성부청 자리에는 조선시대에 무기를 제작하는 공장인 ‘군기시(軍器寺)’가 있던 곳이다. 을사늑약 이후, 군기시 터에는 경성일보사 사옥을 건립하였고, 경성부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 경성일보사는 바로 옆(현 한국프레스센터)으로 이전하였다. (문화일보 2017, “日帝 ‘모더니즘 건축’이 지금 ‘市民의 소리 듣는 공간’ 됐다”, 2017.07.12.)

125) 덕안궁은 고종의 후궁이며,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 엄씨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1903년에 건립되었다. 부민관 조성으로 1929년 육상궁으로 옮겨 현재는 종로구 공정동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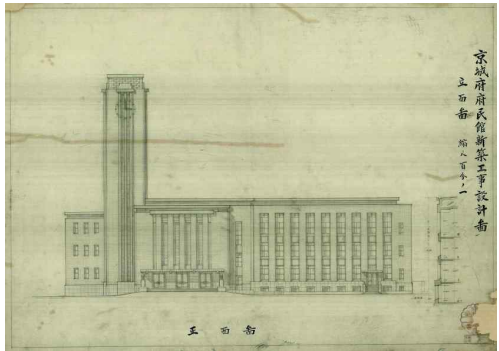
화를 주문하였으나, 조선인 예술가들은 부민관의 위치가 남촌에 인접한 것에 불만을 표하고, 광화문과 종로 축 상에 위치하기를 열망하였다(황병주, 2010; 김호연, 2000).

강당이나 극장의 부재가 민중의 오락생활의 결핍으로 여겨지고, 동시에 훌륭한 강당과 극장의 개방은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인식되어진 것은 식민지시기의 발상이다(김순주, 2014).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극장과 같은 오락시설은 존재해야 했고, 내지와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은 열악하고 수준 낮은 곳임을 주지하였다. 부민관은 초기 재조선 일본인들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당시 경성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본국의 공연을 초청하려 해도 이를 수용할 만한 적합한 극장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였고, 극장의 부재는 경성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낸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에 경성부는 경성전기회사의 기부금 100만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공표하면서 부민관 건립을 확정하였다. 부민관은 모더니즘 건축으로, 절제된 수직적 요소가 강조되었고 44m 높이의 탑으로 상징성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의회 본관 입구와는 달리, 부민관이 개관할 당시에는 태평통과 마주한 곳을 주 출입구로 사용하였다. 건립된 부민관의 대강당은 1,800명 이상을 수용하고 강연회,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위해 마련되었고, 일본 가부키 무대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공회당 건축물을 통해 일본 내지의 문화적 요소가 식민지 사회에 이식되는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좌석 400석의 중강당은 강연회, 각종 전람회, 결혼식을 위한



[그림 4-42] 이전하기 전의 덕안궁
출처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경성부사』



[그림 4-43] 부민관 입면 설계도
출처 : 국가기록원



[그림 4-44] 일제 식민지기 부민관과 태평통
출처 : 부산박물관학예연구실, 『사진업서로 보는 근대풍경 1』

공간이었으며, 160석의 소강당은 소강연회, 아동 사진 및 회화 전람회장으로 사용되었다.

부민관은 대관제로 운영되었으며, 비상사적인 행사와 입장료는 성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김순주a, 2014). 공연은 1930년대 확산된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대중들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한 공간에서 보여주었다(김용웅, 2018). 또한 공연 뿐 아니라 총회, 강연회, 표창식, 사교모임, 결혼식 등 각 사회조직을 기반으로 여러 행사를 수용하였다. 타 시설들에 비해 넓은 무대와 최신 시설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승무(1935) 등의 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신불출을 비롯한 삼귀재



[그림 4-45] 경성학우영화회의 모습
보도월보(보도월보) 1936년 4월



[그림 4-46] 조선권번의 船遊樂(선유락) 공연
京城彙報(경성회보) 1936년 1월

만담 경연대회(1936) 같은 대중 공연도 개최되었다. 극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초등·중등의 어린이도 1936년부터 경성학우영화회를 통해 부민관 대강당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오락적 요소의 대중문화가 자리 잡는 역할을 하였다.

부민관은 관민 간 그리고 민족 간 통합을 향한 '부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1930년대 통합을 향한 공적 '대극장'이 필요해진 배경에는 식민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배, 민족 간 차별과 갈등, 경쟁을 완화하고 구분된 식민지 도시민을 '부민'으로 호명하기 위한 기제라고 판단한다. 통합된 식민지의 '부민'들이 참여하는 부민관의 무대는 일제의 손쉬운 활용대상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부민관은 다양한 민족의 부민들이 군국주의 하에 '국민'으로 재조직되는 전쟁의 무대로 활용되었다(황병주, 2010). 부민관은 국책연극의 온상이 되었으며 전시 체제로 넘어가면서 선전장으로 관제행사에 주로 사용되었다(김호연, 2000).

일제에 의해 통합의 목표로 설립된 부민관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임시로 사용하다가 1950년 국립극장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회의사당과 시민회관으로 사용되었고, 1976년 세종문화회관의 별관, 1991년부터는 서울시의회 건물로 현재까지 자리하고 있다.

제4절 소결

‘경성’은 조선시대의 한성과 현재를 잇는 과도기적 공간으로, 일본과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는 창구였다. 영화와 공연은 당시에 도입된 문화로 소비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재로 인한 극장의 소멸과 생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성의 극장은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되었다. 남촌의 극장은 1900년대 본정통을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1910년대 경성 시구개수사업 이후, 황금정통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돈화문동 주변과 명치정에 입지함으로써 재조선 일본인의 영역을 공고히 하였다. 반면, 북촌의 극장은 탑골공원 주변으로 조선인 극장이 밀집되어 나타났다.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어 있던 극장가는 이름, 언어, 프로그램, 홍보 전략 등을 통해 ‘민족적 장소’로 만들어 갔다. 조선인 극장이라는 영역화된 공간은 오히려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수월하게 하였다. 조선인들만 모여 있는 ‘종족 공간’으로서 극장은 그 안에서 형성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동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다(이승희, 2010). 조선인 극장과 일본인 극장이 분리되어 있고 조선인 극장의 소유권은 일본인이, 흥행권은 조선인이 갖는 상황은 조선이 식민지 경제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조선의 공연 예술 근거지이자 민족적 장소로 극장이 존재하였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조선인 관객을 분리, 수용함으로써 통치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의 공간이었다.

북촌의 극장에서 ‘아리랑’과 같은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극단을 운영하며 조선의 공연 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였다. 발성영화의 상영, 외화 상영제한, 필름 검열의 강화 등으로 몇몇의 극장을 제외하고 빠르게 쇠퇴하였으며, 자본력에 밀려 북촌의 극장들도 대부분 일본인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반면, 남촌에 자리한 극장은 일본 내지의 음악, 연극 등을 통해 향수를 달랠 위안의 장소였으며, 일본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이 그들의 문화를 조선화시키는 공간이었다. 일본인들에게 남촌의 극장이 본국과 이어지는 소통 창구였다면, 조선인



[그림 4-47] 단성사의 〈春香傳〉 광고
1935년 10월 5일 경성일보 광고



[그림 4-48] 단성사의 아리랑 第三篇 광고
1936년 5월 15일 경성일보 광고

들에게는 식민지의 이중도시 경계를 완화시키는 강력한 소비 문화공간으로 작동하였다. 활동사진과 다양한 공연은 식민지 사회에 매혹적인 일본 문화를 생산하였고 조선인들은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군중으로서 일본인 거주지에서 근대성을 경험하였다. 즉 민간부문에서 극장은 조선총독부의 영향력 보다 대립과 경쟁, 동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민족 경계를 완화하는 장소였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회합을 가진다는 것은 신분이나 혈연에 기초한 관계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공회당은 계급, 신분,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으로, 지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 통합의 기제로 등장하였다. 시민 사회와 자본이 집적된 경제계 그리고 당시 조선총독부의 시각에서 공회당은 공적 공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공회당은 서구적인 것, 근대적인 것이 재현되는 공간이자 아시아적 모방으로서 일제의 근대성과 문화가 시연되는 곳이었다(황병주, 2010).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당시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으로,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선학생회와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등의 창립대회가 열리는 등 식민지 조선인의 억눌린 정치, 사회적 욕구를 대변하는 민의



[그림 4-49] 1920년대 경성유람안내도에 표시된 극장과 공회당

출처 : 경성유람안내도, 서울역사박물관

의 전당이였다. 이후 경성공회당과 부민관이 개관하였지만, 이들 건물의 주된 수혜자는 경성의 일본인들로 경성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일본 내지의 일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부민관은 식민지 근대적 공간의 상징으로 경성의 도심 한가운데 등장했다. 주요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장, 발전된 근대사회의 위상으로써 도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경해야 하는 곳이었다. 당시의 공회당은 연극, 악극 등의 문화행사와 다양한 일상 의례 및 정치적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였다. 또한 이전의 신분제 사회와 달리, 공회당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근대적 삶의 방식을 습득하였고 훈육과 규율화라는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련된 방식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화시설의 사회교육의 기능으로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보다 압축하여 일제를 통해 들여옴으로써 교화된 시민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공회당의 기능은 식민지 조선이 처한 사회를 반영하고 공회당의 건립과 역할은 곧 당시 식민지라는 사회 형성 및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경성부는 부민을 위한 공회당 건립을 통해 민족 간, 부민 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이념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인에게 공회당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체제에 순응하는 상실된 삶에서 일제 사회와의 갈등과 긴장, 차별과 통합 등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는 공간임을 분석하였다.

제5장 근대 박물관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

1. 궁궐 내 조성된 공공박물관
2. 문화정치 이후, 전시시설의 발전
3. 경성 내 전시시설의 확장
4. 소결

제1절 궁궐 내 조성된 공공박물관

1. 이왕가박물관

1) 제실박물관의 설립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¹²⁶⁾ 명정전 일원에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제실박물관이 소장품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07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궁내부대신 이윤용이 ‘새 황제께서 이어하셔 새로운 취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설비를 해 달라’고 당부하자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가 동·식물원 및 박물관 창설을 제의하였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조선총독부의 기록에도 ‘본원은 메이지 41년 총리대신 이완용의 발기에 의해 계획되어 당초는 이왕 전하에 위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였다’(朝鮮總督府, 1935)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 1908년 1월 9일 <대한매일신보>의 ‘궁내부에서 제실박물관 설립 계획으로 조사 중’과 1908년 2월 12일 <황성신문>의 ‘국내 고미술품과 현 세계의 진품을 수취, 공람하도록 하여 국민의 지식을 계몽케 함이더라’라는 기사를 통해 제실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덕궁에서 순종을 모셨던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가 저술한 <이왕궁비사>에서도 제실박물관 건립의 공적인 취지를 명확히 보여준다(이연숙, 2007).

“사회민인에게 실물교육에 의해 지식을 보급한다는 뜻에서 예부터의 관례를 깨고 궁원을 개방해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설치해 신라, 고려 시대의 예술 및 세계 각국의 진기한 동식물을 관람케 하여 지식을 늘리고 오락을 즐기게 한다.” (1926년 곤도 시로스케)

사회민인에게 교육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것은 박물관의 공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경성의 박물관 및 동·식물원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왕가의 오락을 겸하고 공중의 관람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는 경성안내의 설명이나(경성협찬회, 1915) 박물관 설립을 총괄했던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熊彦)가 ‘경성인의 하루 취미를 맞볼 만한 창덕궁 박물관은 원래 이왕가 일가에 취미를 공급하고 조선의 고미술을 보호, 수집하기 위해 1908년에 설치된 것’이라는 일제의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개화문물에 대한 대신들의 이해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이념에 입각하여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126) 현재의 창덕궁과 창경궁은 당시 병용되었으며, 20세기 초 창덕궁이라 칭하는 것은 자연 양궁을 합병한 것을 의미했다. 제실박물관이 위치한 궁궐은 현재 창경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지명인 창경궁으로 지칭한다.

근대적 인식에 기초한 박물관의 기능과 의의에 대한 황실의 결정은 단순히 순종의 즐거움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실박물관의 설립이 순종의 창경궁 이어라는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발의되었고 당시 일본인 대신에 의해 입안하였을지라도, 1876년 개항 이후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박물관에 대하여 대한 제국과 정부 내의 근대적 인식이 없었다면, 궁궐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림 5-1] 창경궁 전각의 산재한 박물관 (1909년)
출처 : <http://contents.history.go.kr>

제실박물관의 입지에 대하여, 대다수의 매체에서 순종의 창경궁 이어를 계기로 취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정되었다는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1908년 궁내부 대신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의 글에서 박물관 부지로 다른 장소를 검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는 최초의 계획에서는 박물관은 경운궁 내 건축 중의 석조양관으로 채울 작정이었으나 중도에 모양이 바뀌어서 창덕궁 곧 현 황제폐하가 계시는 궁전의 뒤쪽, 대한의원에 면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 건물은 몇 채나 있어서 이번에 그 대부분을 철거하게 되었고 비교적 구조규모가 평대하고 또 미술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을 4, 5채 남기고 그것으로 박물관으로 쓰게 된 것이다.” (1908년 이노우에 마사지)

석조양관은 현 덕수궁의 석조전으로, 고종 황제가 임어하던 경운궁에 박물관을 설립하려 했다면 최초 박물관 및 어원 설립은 순종 황제의 이어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우동선 외, 2009). 경운궁은 정치적으로 광무 정부의 중심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공간적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비해 협소하여 박물관 및 동·식물원의 어원을 설립하여 공중에 개방하기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어원의 최초 평면계획이라고 할 수 ‘창경궁급비원평면도(昌慶宮及秘苑平面圖)’는 창경원 개원 이전인 1908년 4월에 측량, 작성되었다. 어원은 크게 명정전과 남북 행랑 및 주요 전각을 박물관으로 삼고 남쪽의 보루각 일대에 동물원, 북쪽 춘당대에는 식물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전체 어원의 관내 면적 158,268㎡를 삼분하여 동물원 40,920㎡, 박물관 51,150㎡, 식물원 66,198㎡ 각각의 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길과 기존의 못 그리고 신설 예정인 못에서 푸른색을 칠하였으며 기존의 길은 검은 선을 사용하고 신설 예정인



[그림 5-2] 창경궁급비원평면도 (1908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근대건축도면집』

길과 건물, 예를 들어 자경전 터의 채소원 및 식물본관 등은 붉은 선으로 구분하였다. 이 도면이 작성된 1908년에는 이미 창경궁의 침전 일곽이 크게 훼손, 변형되었으며, 그 밖의 건물은 대부분 헐리고 없는 것을 알 수 있다¹²⁷⁾. 이렇게 명정전 일곽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훼손한 것은 명정전 일곽이 임진왜란 이전의 건축양식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세키노 다다시(関野貞)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우동선, 2009)¹²⁸⁾. 배치 계획에 따르면, 어원에 들어오는 관람객은 멀리서부터 거대한 못과 식물본관을 바라보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초기 계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물원으로, 대표적인 건축물도 식물본관으로 계획되었으나, 어원의 중심부에 제실박물관 본관이 들어서면서 건축과 조경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공간 변화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어원사무국의 관련 직제 변화와 함께 두드러져 나타난다.

개관 당시 제실박물관의 관람료는 10전이였으며, 신문에 게재된 ‘어원관람 규정’에 따르면, “술 취한 자, 7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동반치 아니한 자는 입장 불가”, “누추한 의복을 입는 것이 불가함, 원내에서는 정숙할 것, 가족류의 입장은 불가함” 등의 조항이 있다. 일 본인 학생과 기타 외국인은 궁내부 서무과의 소개를 얻으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는

127) 전각의 훼손로 화려하고 웅장했던 전각 행랑 문루 등이 무참히 헐려, 여제는 경매로 팔리고 초석과 뿔들은 묻히거나 연못과 어구의 방축으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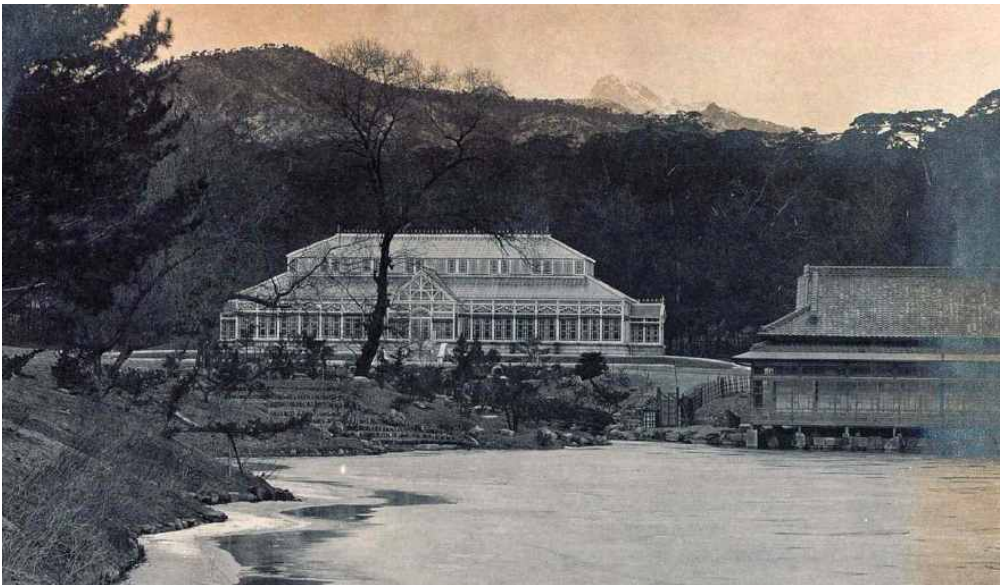
128) 경성 내 왕궁 중 주요한 것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으로서 경복궁과 창덕궁은 태조 때 창건하였고 창경궁은 성종 때 조영하였다. 모두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창덕궁과 창경궁은 광해군 때 중수하였고 경복궁은 고종 즉위 초 재건하였다. 단, 창경궁의 명정전 일곽은 화를 면하여, 당대 초기의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関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기사를 통해¹²⁹⁾,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문명인의 예절을 갖춰야 함과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2) 1910년 이후의 변화

1910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왕실은 일제 황실의 아래격인 왕가의 하나로 편입되었고 이왕가는 일본 궁내성 관할이 되었다¹³⁰⁾. 이왕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이왕직은 조선인이 맡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일본인 차관이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왕직 관할 하에 있는 동·식물원과 박물관은 주로 이왕직 차관이 관장하였으며, 제실박물관은 이듬해 ‘이왕가박물관’으로 격하되었다.

1908년도 초기의 제실박물관은 별도의 본관을 가지지 않고 기존의 전각에 소장품을 산재 전시하는 형태로 계획되었고, 이러한 전시 방법은 1911년 이왕가박물관 본관 신축 후에도 지속되었다¹³¹⁾. 명정전, 환경전, 양화당 등의 전각은 창경궁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또 미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井上雅二, 1908), 보존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기에 유리하였다. 생활공간으로 조성된 창경궁의 전각들은 내부에 온돌시설을 갖춘 작은 방들이 많았으나 박물관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해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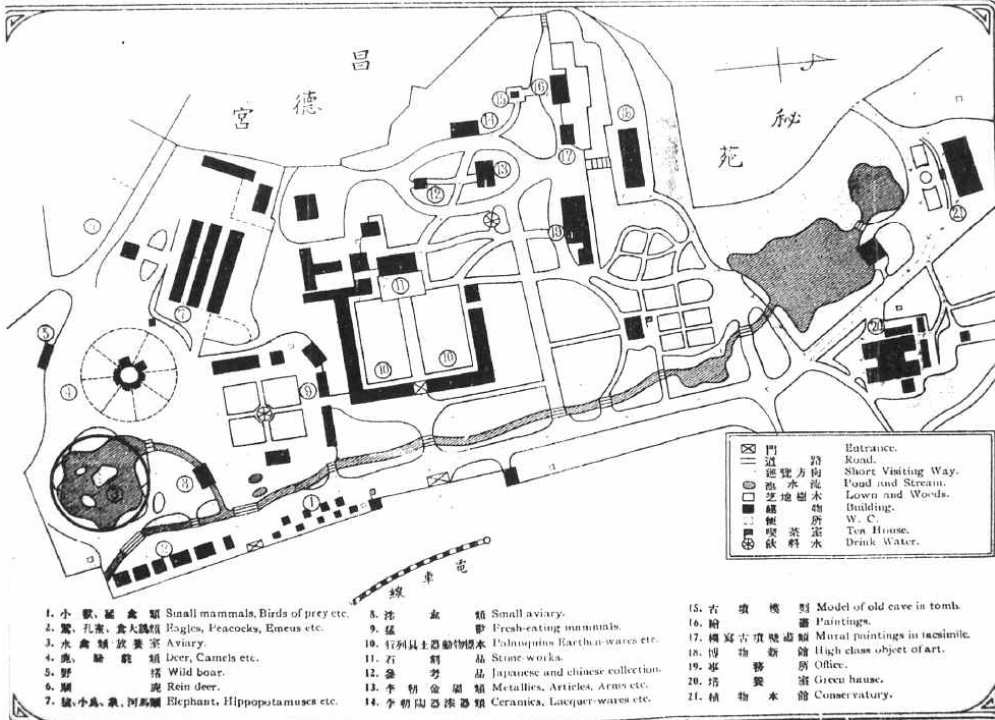
[그림 5-3] 식물본관과 춘당지, 1911-1917년 추정

출처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129) 황성신문 1909년 11월 2일, 3일, 11일의 기사 일부

130) 『순종실록』 부록, 융희 4년(1910) 8월 29일 일본천황 조서

131) [그림 5-4]와 같이, 박물관의 본관이(18) 건립되었으며 창경궁의 중심에 박물관 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5-4] 창경원 안내 (1919년 이후)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들은 하나의 공간으로 터서 마루로 만들고 온돌을 제거하였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기타 옛 궁궐의 전각, 행랑 등 1,320㎡ 가량의 면적이 수리를 거쳐 박물관에 흡수되었으며, 통명전(회화), 양화당(고구려 고분 벽화 모사도), 경춘전(조선시대의 도기, 목죽류), 환경전(조선시대의 금속 및 토속품류), 함인정(일본과 중국에서 제작된 참 고품), 명정전(석각품), 명정전 행랑(열행 구토기) 등이 이관되었다(송기형, 1999). 또한, 명정전과 행랑 일대, 명정전 침전 구역 등에 화단이 조성되었다. [그림 5-5]와 같이, 1910년 이후로 추정되는 사진에서 박물관으로 활용된 침전 영역의 전각들(통명전, 경춘전, 환경전 등) 사이에는 서양식 정원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5] 통명전 앞 정원, 1910-1912년 추정

‘제실박물관신축계획도’에 입각하여 지

출처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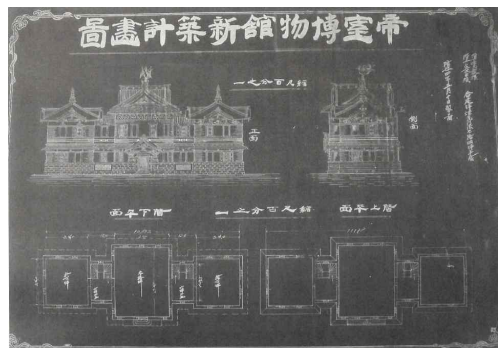


[그림 5-6] 창경원의 이왕가박물관(제실박물관) 본관

출처 :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8』

은 건물이 1911년 완성된 제실박물관 본관으로, 건물의 외형이 일본 우지 시 묘도인의 봉황당을 본뜬 것이다(우동선, 2009). 봉황이 마치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명명된 봉황당과 마찬가지로 제실박물관은 중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랑과 익실을 가지고 있으며, 용마루 위에 봉황을 위치시키고 있어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팔작지붕을 직각으로 중첩시켜 십자형 용마루를 가진 건축은 1893년 시카고박람회 일본관이었던 ‘봉황전’의 지붕과 같은 형식으로 제실박물관의 건축과 관계가 깊으며, 창경궁 자경전 자리에 세워진 본관은 지하실을 포함하여 220여 평의 3층 일본식 벽돌 건물로 불상과 금속제품, 도자기와 칠기, 옥과 석목 제품을 진열하였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개관 이후, 창경원은 경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탈바꿈하였고, 일제는 조선의 관광 코스로 소개하고 경성 관람에 창경원 및 박물관을 포함시켰다. 창경원이 본격적으로 유원 행락이 이루어진 시기는 1922년



[그림 5-7] 제실박물관신축계획도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봄이왔다! 봄이왔다!
昌慶苑을
벗꽃필때에
수주일동안
밤에도연다

봄이갓가워온다! 봄빛이갓터
 김홍조차 발서부러 동물원에는
 산보가는 시민의발자취가 자취
 지게되얏다 해마다 꽃노리
 봄노리러로 가장만호손을 다쳐
 드리는 동물원의용을이로운 벗
 갓가지에도연회를기다리는

◇ **꽃봉오** 리가 매켜나기
 을시작하얏다. 꽃이피면얼마나
 그찬란한빛이 일반시면의위안
 제가되겟는가 해마다 꽃이필때
 다다「밤에도연다」는볼록
 이만했스나 여러가지 고리하는
 영이만하 리왕좌에서는 몇해재
 더리

보류할하야와드니 임의출로파
 더에서도 벗꽃이피일때마다 인
 (櫻谷)에연동호를상치하고(하
 꽃)의용처를일반에게맞보게하
 는권해는잇습으로 불하

◇ **금년봄** 벗꽃이 만개함
 해를기다려 이삼주일동안 시그
 를당하야 동물원을밤에도 열고
 수천개의 연동호를상치하야 흥취
 를도유기로 리왕좌과왕좌의예
 처는 의용이일치되야 임의그시
 행방법을갓고주이라하니 읍너
 봄노리에 은 한용처가 더하리리
 더리

[그림 5-8] 창경원을 밤에도연다
 1924년 3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5-9] 춘당지에 오색홍담
 1935년 4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벗나무를 추가로 심고 1924년 야간 공개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다¹³²⁾. 규모가 커진 창경원은 박물관, 동·식물원을 갖춘 공원으로써 입장료 20전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며, '경성 시민의 놀이터가 되어 가지가지의 위안을 피로한 도회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¹³³⁾. 1926년 4월 순종의 붕어 이후 이듬해 7월 1일부터 창경원은 '이왕전하의 어하명으로 민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하였다¹³⁴⁾. 당시의 창경원은 민족이나 계급, 성별에 따라 공간적 제약이 없었다. 동일한 입장료가 책정되어 박물관을 비롯한 어원은 누구나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일상의 결핍을 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132) 동아일보 1924, "봄이왔다! 봄이왔다! 창경원을 벗꽃필때에 수주일동안 밤에도연다", 1924.03.11. 기사 일부
 133) 동아일보 1927, "창경원", 1927.04.17. 기사 일부
 134) 동아일보 1927, "창경원은 목요일도 개원 왕년하어명", 1927.06.29. 기사 일부

제실박물관 건립 당시의 목적은 순종의 취미생활과 공중의 근대적 교육을 위함으로, 일제가 조선 최초의 동·식물원을 기획하면서 창경원의 인기는 예견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관람을 적극 권장, 유치하였다. 어원사무국은 각 관, 학교장 앞으로 통첩하여 원하는 관람 일시와 학생 수를 미리 신청케 한 다음 차례로 인솔 관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학생 단체 관람을 위한 어원사무국의 움직임은 제실박물관과 어원이 단순한 오락시설일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국민계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원 개방과 함께 시행된 ‘관람객 숙지사항’에는 근대적 교양을 배우는 체험학습의 장소로 문명화된 예절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순종 황제와 어원사무국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벚꽃 구경 및 이국적 자연에 대한 경험으로, 대중적 볼거리가 더해지면서 근대적 교육보다는 오락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봉건 왕조의 정치적 상징 공간이었던 궁궐에 공원 형식의 박물관이 조성됨으로써 권력의 공간은 대중을 위한 취미 오락시설, 나아가 행락장으로 변모했음을 당시 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새로운 풍경이 식민지 현실을 은폐하였고, 대중은 볼거리를 통해 누구에게나 개방된 보편적 문화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1937년 일제에 의해 도발된 중일전쟁과 1938년의 제실(이왕가)박물관의 이전 및 폐관은 창경원의 분위기를 변화시켰고, 동·식물원 등의 다른 시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조선총독부박물관

1) 경성박람회와 조선물산공진회

박람회는 물품 전시의 의미를 넘어 문명개화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이벤트 공간으로, 일시적인 행사이지만 인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과학기술 문명의 시전이라 할 수 있다 (신주백, 2004).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일제의 문명개화를 살펴보기 위해 1881년 파견된 시찰단의 보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1883년 미국 〈보스턴만국박람회〉 참관을 계기로 박람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883년 창간된 ‘한성순보’와 1886년의 ‘한성주보’를 통해 박람회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그림 5-10] 경성박람회의 기념엽서

출처 : <https://museum.yonsei.ac.kr>

1893년 〈시카고만국박람회〉에는 직접 출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기가 시작되며, 우리 민족에 의한 자주적인 박람회 개최는 무산되었다. 본격적인 대규모 공람시설은 1905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가 문명개화와 물산 선전을 위해, 경성에서 개최한 〈경성박람회〉이다. 1907년 9월 1일부터 75일간 지금의 을지로 입구인 구리개의 대동구락부¹³⁵⁾ 자리에서 개최되었고 약 8만 점이 진열되는 대규모 행사였다. 당시 ‘황성신문’에 20여 차례에 걸쳐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가 실렸으며, 여성들의 참관을 유도하기 위해 ‘부인일’을 3회 따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20여 만 명이 관람한 〈경성박람회〉는 대동구락부 건물 230평을 본관으로, 인근 언덕 일대에 4개의 전시관과 식물원, 연예원, 그리고 문방사우 등을 진열한 사랑채 건물을 배치하였다. 중심 공간에는 미술품을 진열하는 일제의 박람회 형식을 따라, 복식을 입힌 마네킨과 회화, 공예, 사진, 인쇄물 등을 전시하였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전국에서 수집된 총 79,100여 점 중 94%가 일본인들의 출품작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구성은 조선인이 73%를 차지할 만큼, 일제의 상권과 자본이 경성에 침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출품작을 살펴보면, 조선 제품은 직물, 지류, 가내제조품의 토속품이었고 일본 제품은 공업품이 대부분으로 산업 발달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근대화를 명분으로 식민지 정책을 선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박람회가 개최된 1907년은 헤이그 특사와 고종의 퇴위, 의병 봉기 등 일제의 식민 정책에 저항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일제는 박람회에 무동들의 무악연주, 기생들의 연희, 경품행사 등을 열어 민심을 수습하고 관람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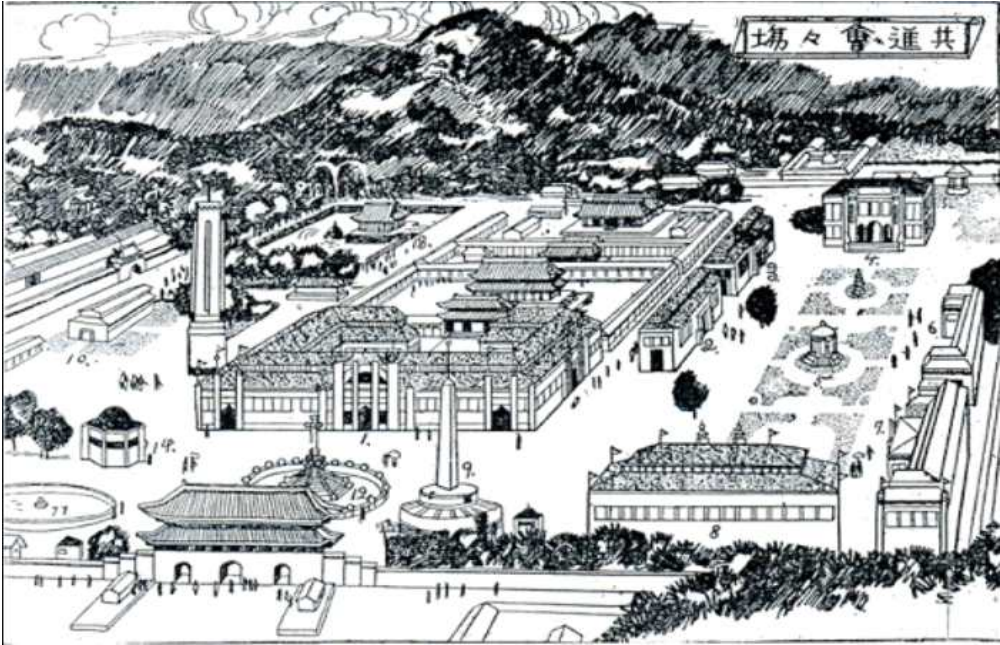
당시의 대표적인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경성박람회〉를 보는 시각에 차이를 드러냈다. ‘황성신문’이 〈경성박람회〉를 문명개화의 입장에서 호의적으로 보도했다면, ‘대한매일신보’는 농상공부의 박람회 출품 독촉에 대해 ‘위급한 시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로 비판하거나 박람회의 흥을 돋우기 위한 기생들의 출현을 기생박람회로 질책하였다(한국미술



[그림 5-11] 1907년 경성박람회의 대동구락부

출처 : <https://blog.naver.com/ohyh45>

135) 1887년 흥영식의 재동 집터에 세워졌던 제중원이 구리개(현 을지로 2가)로 옮겨왔다. 1904년 남대문 밖의 세브란스 의원이 건립됨에 따라 제중원의 터는 우리 정부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 공사관의 하기하라 모리카즈(萩原守一)가 발기하여 조직한 한일관민(韓日官民) 친목단체인 대동구락부가 이곳을 차지하였다. 대동구락부는 현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구 외환은행 본점)의 위치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림 5-12] 조선물산공진회 조감도
1915년 9월 3일 매일신보 기사

연구소, 2018). 이러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양을 통해 유입된 근대적 신문물이 한 데 모인 박람회를 ‘진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기회’, 즉 새로운 ‘구경거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인들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였다.

〈경성박람회〉보다 큰 규모로 경성을 시각화하고 공람제도를 확산시킨 것은 조선총독부 통치 5주년을 맞아 식민권력이 통치와 훈육의 공간으로 연출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였다¹³⁶⁾.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50일간 주·야간으로 열린 〈공진회〉는 조선총독의 여러 차례 훈시에서 공진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공진회 개최의 취지는 널리 조선 물산을 수집 진열하고 산업개발 진보의 실적을 명시해서 일반 조선인의 분발심을 환기하고 출진생산물과 생산사업의 우열득실을 심사공격해서 당업자를 고무 작흥하는데 그치지 않고 .. (중략) .. 첫째, 조선의 산업무역의 발달에 투자하며, 둘째, 촉진개선의 표적을 시범으로 보여 조선인의 구안을 경계해서 그 결과 조선인으로 깊이 스스로 반성개발해서 사치하고 노는 폐습을 고치고 근검역행의 미풍을 조장해서 .. (중략) .. 국부의 중진을 도모해야 하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 있다.” (조선총독부, 1915년, 조선회보, 1915년 9월)

136) 공진회라는 명칭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의 주장에 의한 것으로, 박람회는 사치경박(奢侈輕薄)의 악풍(惡風)을 조장하는 반면, 공진회는 근면역행(勤勉力行)의 미풍(美風)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 공진회를 구경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조선총독의 의지가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회보, 1915.09.)

〈경성박람회〉가 일본 상품의 선전을 위한 경제적 목적이었다면, 〈조선물산공진회〉는 조선 민중에게 새로운 정부의 혜택을 알리고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의 실상을 보게 하여, 향후 조선 개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조선총독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보고서, 1916) 이는 〈경성박람회〉와 달리, 일제 식민통치의 치적을 선전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해졌다. 〈조선물산공진회〉는 경복궁을 훼손하고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개최하였는데, 장소가 경복궁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보고서’에



[그림 5-13] 조선물산공진회의 배치도
1915년 3월 7일 매일신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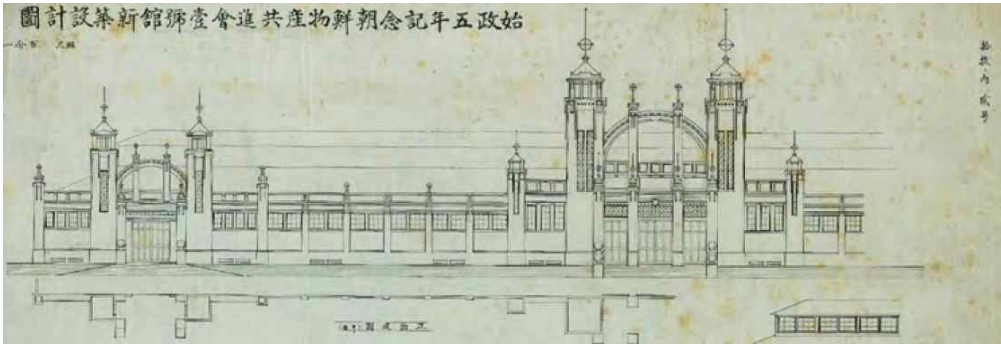
따르면, 공진회장의 부지를 경복궁으로 정한 이유를 교통의 편의, 비용의 절약, 넓고 평탄한 부지 형태, 잔존한 고 궁전각이 관람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경복궁은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비어 있었으며, 경운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각들이 뜯어졌고 공식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0년경 서양 선교사나 외교관이 촬영한 사진 자료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화된 경복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김백영, 2007). 그러나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으로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폐허로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후 일본인 권력층의 만찬장으로 활용하거나¹³⁷⁾ 일반인들에게 경복궁 관람을 허용하였다¹³⁸⁾. 조선총독부의 신청사의 건설부지가 경복궁으로 결정된 것은 1912년으로, 이후에도 고관들의 만찬장으로 사용하였고,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장소로 결정되었다. 즉 과거 한때 정궁이었으나 지금은 방치된 도심부의 방대한 토지는 조선인 거주지와 물리적 경계가 분명하였고 녹지가 형성되어 입지적으로 우수하

[표 5-1]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공사 내역
(출처 : 박성진(2005),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회장부지	진열관		잡건물	공사비 총액	기타 특설공사비
	신축건물	재래 수선 건물			
240,240㎡	13,820㎡	3,841㎡	4,771㎡	240,856원 35전 7리	35,161원 73전 7리
	17,661㎡				

137) 주로 풍치가 좋은 경회루가 만찬장으로 활용되었다. (황성신문, 1908.08.04.)

138) 황성신문, 1908.11.27. 기사 일부



[그림 5-14]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일호관신축설계도

출처 : 국가기록원

였다.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 궁궐의 유희부지의 활용이 가장 용이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

〈조선물산공진회〉에 앞서 진행된 시구개수사업은 경복궁 근정전 전면의 흥례문과 그 양편의 유희문, 용성문, 협성문을 해체하였다. 또한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근정전, 교태전 및 경회루 등의 주요 건물을 수리하여 공진회장으로 사용하였다. 그 밖의 많은 전각을 헐어내는 대신 전시를 위한 각종 진열관을 신축하여 전시장으로 사용하였으며¹³⁹⁾, 공진회 정문으로 광화문을 이용하고 건춘문을 통용문으로 활용하였다. [표 5-1]은 1915년 공진회의 부지 규모와 전시장으로 이용한 건축물의 내역으로, 전시관에 사용된 신축 건물의 비율은 기존 건물의 4배 규모이다. 〈조선물산공진회〉를 위해 일제는 르네상스 양식의 백색 전시관을 건축하였고 기존의 궁궐 건축은 전근대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전략시켰다. 또한 공진회를 대표하는 제1호관은 근정전을 가로막아 계획하였고 여흥과 휴식을 위한 연예관, 양어장, 분수대, 음악당의 시설도 계획되었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또한 공진회장의 정문으로 광화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장식탑 모형 등 전시에 필요한 시설을 광화문통에 설치하였다. 옛 육조거리의 단층 한옥으로 형성되어 공진회의 상징성은 부족하였다. 이에 [그림 5-15]와 같이, 광화문통에는 경성협찬회가 제작한



[그림 5-15] 광화문 앞 조선물산공진회의 장식탑

출처 : 서울학연구소

139) 본래의 전각들은 가능한 수리하여 사용하는 방침이었다고는 하나, 이미 심각하게 파손된 건물과 불필요한 건물은 공진회를 계기로 정리하였다.



[그림 5-16] 조선물산공진회 관람객

출처 : <http://contents.history.go.kr>

탑과 석등 모형(대형 16기, 소형 64기)이 세워졌고 전등이 설치되어 밤낮으로 화려한 풍경을 연출하였다(목수현, 2000). 80기의 시설물로 강한 축을 형성하였고 대규모 구경거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가로가 활용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공진회장은 일제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로 인해 조선 왕실의 권력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신문물을 전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로 일제가 자리하였다(임지현 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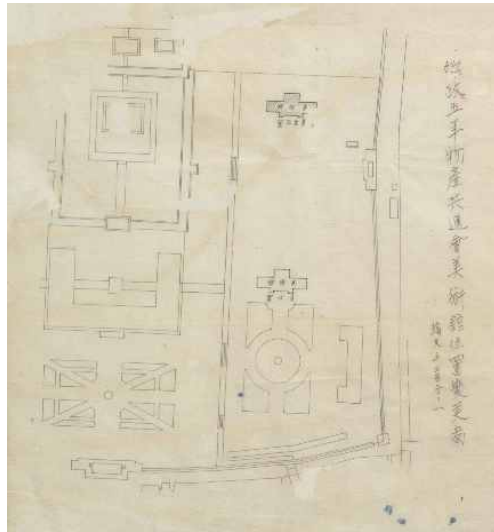
관람객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도 <경성박람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선물산공진회> 개장 이후 입장객 수를 보면 주간 98,735명, 야간 55,237명으로 합계 153,972명, 1일 평균 19,246명 정도이다(조선총독부, 1915). 이후 전국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공진회를 관람하도록 동원되었으며, 지방민의 공진회 관람을 촉진하기 위해 각 도청 및 부청 소재지에 ‘협찬회’와 ‘관람단’이 조직되었다(강상훈, 200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관람했는지 조선총독부에게 중요했으며, 관제 동원과 조직화된 행정지원이 이를 위해 작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인과 외국인에게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합목적성을 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였고, 동시에 일본 산업의 이식과 일제 문화의 보급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2)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공간 변화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5년 경복궁에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였을 때, 미술관이었던 공간이다.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조선의 고미술품을 전시하였으며, 공

진회 이후 이를 활용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다른 건물들이 거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건물로 철거된 반면, 근정전의 동쪽, 건춘문 부근의 계조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한 미술관은 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로, 영구 사용의 목적으로 계획되었다¹⁴⁰⁾. [그림 5-17]을 살펴보면,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계획된 미술관이 흥례문 동쪽의 원위치에서 건춘문 위쪽으로 이동하였다. 1915년 공진회가 개최되었음을 감안할 때, 조선총독부청사의 경복궁 입지는 이전부터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¹⁾.

<조선물산공진회> 때 미술관이었던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정면에 열주를 계획하고 지면에서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구성되어, 제국주의적 권위가 강조된 건물이었다. 그러나 521㎡의 소규모 건물로, 창경궁 내 이왕가박물관처럼 경복궁 내 전각을 박물관 시설로 활용하였다. 1915년 11월 미술관을 인수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2월에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인접한 자경전(慈慶殿)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1910년부터 실시된 고적조사와 발굴사업의 성과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전시되었고 이들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개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한 수장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조선총독부박물관 개관 초기에는 독립적인 직제조차 구성되지



[그림 5-17]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의 위치 변경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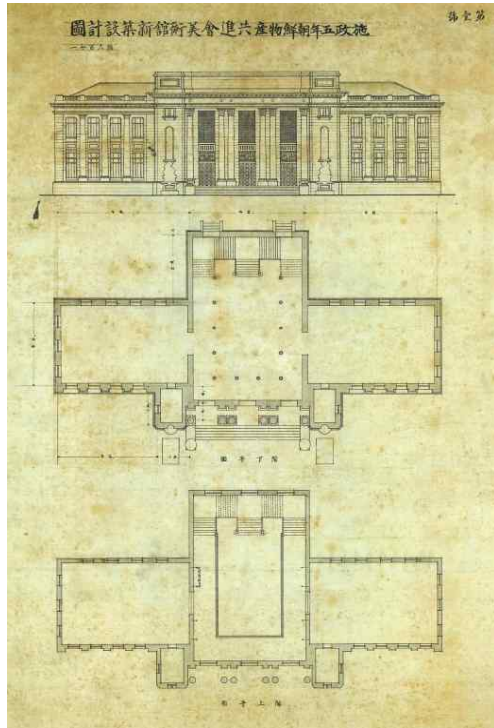
[그림 5-18] 조선총독부박물관 전경
출처 :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8』

140)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상설화시킨 것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義) 총독의 명령으로, 처음부터 조선 왕실의 상징 시설을 없애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임지현 외, 2004)
141) 조선총독부는 남산 왜성대에 위치하였던 기존의 통감부 건물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간 부족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청사의 산재(散在)로 인한 집무 불편 및 건물 노화'를 이유로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1911년 데라우치 총독이 180만원의 신청사 예산을 메이지 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경복궁의 광화문과 근정전의 중간 위치가 청사의 터로 선정되었고 1912년 경복궁의 소관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었고 이후로 경복궁 내 건물의 이전 및 철거가 시작되었다. (<http://theme.archives.go.kr> 참조)

못했으며 관장직도 없었다¹⁴²⁾.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매일신보’에 개관 공고를 내면서, 일반 관람인의 주의사항 여덟 가지를 명시했다. ‘첫째 관람하기 위한 관람권을 구매하고 10세 미만 동반자는 무료, 둘째 관람인은 가축을 끌거나 짐을 휴대함을 금함, 셋째 관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을 금함, 넷째 관내에서는 정해진 장소 외에 흡연을 금함. 다섯째 진열품에 손대지 말 것, 여섯째 수목 화훼와 건물을 훼손, 오염시키지 말 것, 일곱째 휴대품 검사 거부 불가, 여덟째 관내 질서를 문란히 하거나 염려가 있는 사람은 관람을 거절하고 퇴관케 할 수 있음’ 이상의 조항으로 박물관이 근대 시민 형성의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 개관 후 얼마 동안은 매달 관람 인원이 집계되어 신문에 보도되었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1916년 6월의 집계 상황을 보면, ‘오월 중의 총독부박물관 관람 인원은 내지인 791명, 조선인 926명, 특별 입장자는 내지인 607명, 외국인 50명 합계 2,381명’¹⁴³⁾이다. 1917년 1월의 관람 인원도 내지인 256명, 조선인 195명, 외국인 24명, 특별 관람자 내지인 600명 합계 1,075명¹⁴⁴⁾으로, 내지인과 특별 관람자를 합친 일본인 관람자가 조선인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별 입장자는 연구를 위해 소장품 수장고에서 실 견하고 소장품 사진 원판을 모사, 촬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조선의 유물 및 자료에 대한 일체의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개관 초기 박물관이 유물을 보존하고 체계화 하였다면, 1920년 이후에는 경성의 주요 관광 코스로서 박물관을 활용하였다. 지방에서 온 단체나 수학여행의 학생들, 일본에서 오는 관광단은 전차를 타고 경복궁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관람토록 하여, 조직적으로 관람객을 동원였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설립 및 전시의 목적은 역사적 문화유산의 변천을 밝히고 이를 진열할 뿐만 아



[그림 5-19]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신축공사 설계도
출처 : 국가기록원

142) <http://theme.archives.go.kr> 국가기록원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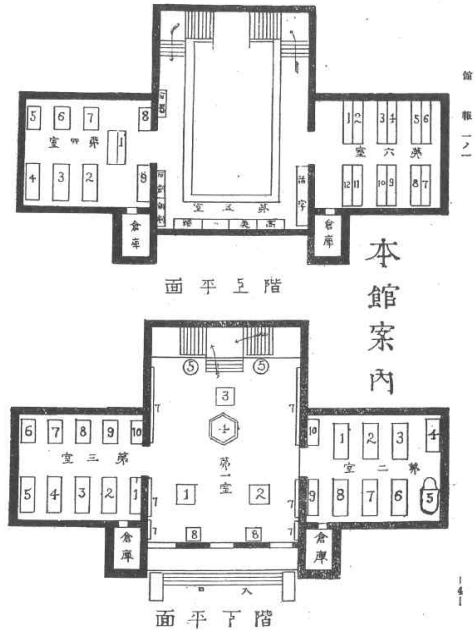
143) 매일신보, 1916. 6. 4. 기사 일부

144) 매일신보, 1917. 2. 9. 기사 일부

나라 중국의 대륙 문화와 일본 문화와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藤田亮, 1951). 조선총독부박물관 로비와 여섯 개의 전시 공간에 전시된 유물의 구성을 보면 중국 유물이 19%, 조선시대의 유물이 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석기시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불상과 유물, 고려시대의 도자기와 불상 등의 유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¹⁴⁵⁾. 이는 한국 문화가 자주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불교의 영향을 부각하면서 고대와 삼국시대에 일본과의 교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낙후된 조선을 인정하고 우월한 문화의 일제를 수용하여 조선인을 ‘교화’하려는 취지를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조선’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조선의 문화가 고대 일본 문화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식민지적 한국의 고대사 인식을 위한 의도적인 동선 계획으로 이후 개최된 특별전시를 통하여 일제는 동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박물관을 적극 활용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20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1919년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총독관방 총무국에 속해 있었고 1919년 조선총독부 관제 개편에 따라 학무국 소속으로, 다시 1921년에는 학무국 종교과에 소속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회교육의 말단 연구기관이 아니라 전문학자의 교육기관, 사회교육을 담당했던 식민 통치의 조직임을 알 수 있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고적조사 연차계획 수립과 시행, 박물관의 진열과 진열품 수집 및 구입, 고적도보와 보고서 등의 출판, 국보 보존과 사적 지정 등으로 조선총독부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역사 유물을 관리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운영은 철저하게 식민지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5-20] 조선총독부박물관 평면도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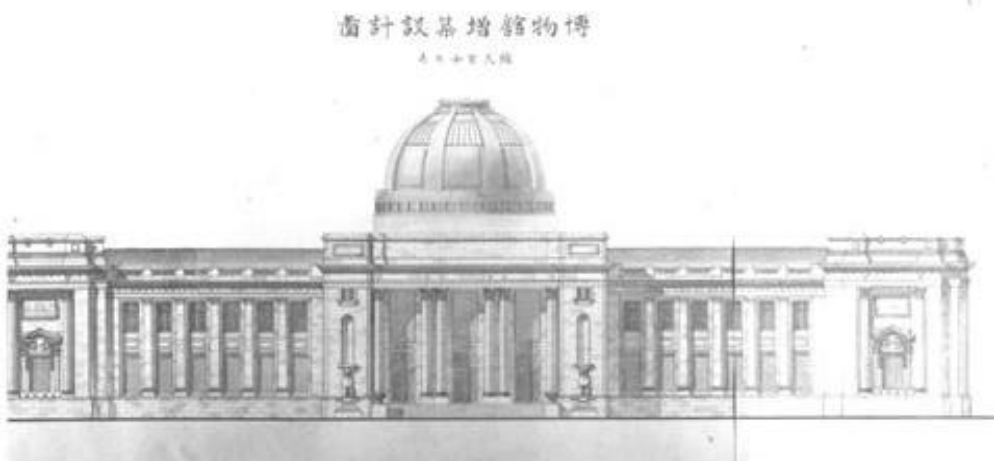
145) 매일신보, 1916. 4.30. 기사 일부

또한 박물관의 전시방법에 있어 일제가 지배를 위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보기 쉽도록 박물관에 전시하였고, 전시하였을 때 지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유폐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전경수, 2005). ‘옛 조선 경복궁의 장엄한 모습이 새로 들어온 ‘백석관’(조선총독부박물관)에 힘이 부쳐 자라지 못하거나 썩어가는 경회루 근정전이 박물관의 진열품 같이 보인다’는 [그림 5-21]의 기사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일제의 선진 문물과 문화정책에 동화되는 조선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결국 박물관의 구성과 운영이 일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전통, 문화적 맥락이 근대적으로 변모할 기회가 박탈되었고(목수현, 2000),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타율적 조선 문화를 규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사회교화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일제는 조선총독부 시정25년(1935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박물관 계획을 시작하였다. 박물관을 식민지 사회교화



[그림 5-21]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1926년 12월 16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5-22] 조선총독부박물관 증축설계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로서 미술, 과학을 통합한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한 채 보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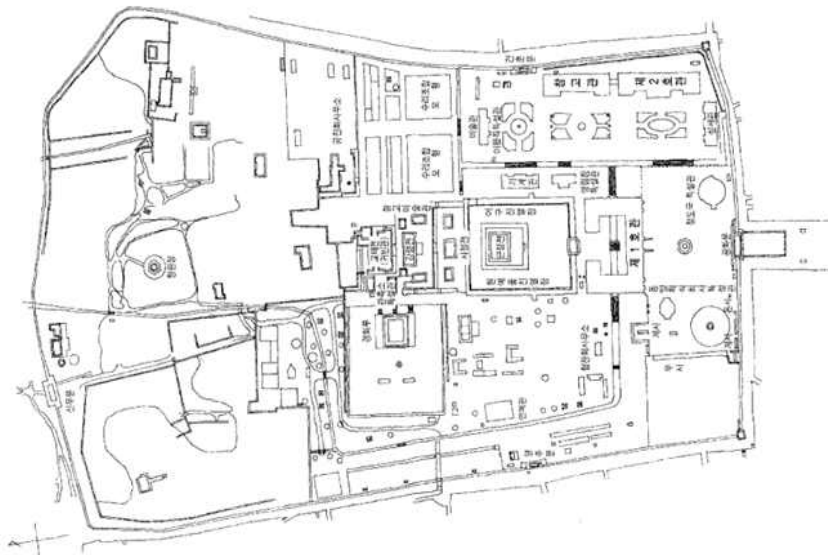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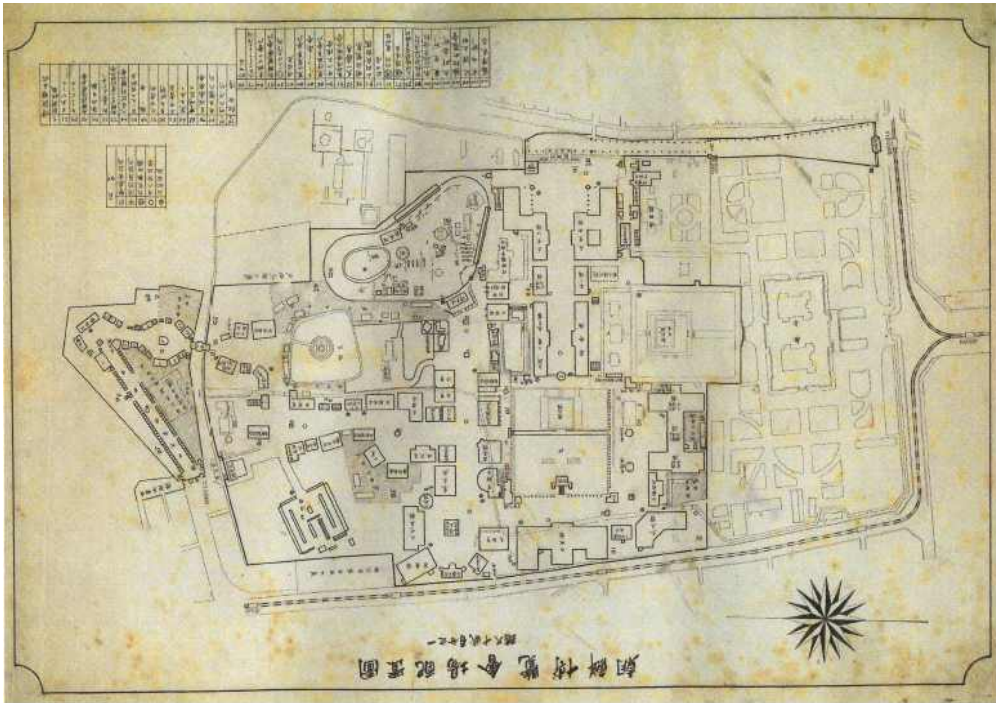
제2절 문화정치 이후, 전시시설의 발전

1. 시각 체험의 장, 조선박람회

1920년대에는 ‘박람회의 시대’라 언급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조선물산공진회>처럼 관 주도로 기획된 대규모 박람회와 공진회라는 이벤트를 통해 조선의 민중들은 점차 근대적 스펙터클을 체화하고 내면화하였다. 또한 ‘근대’와 식민지 수도 ‘경성’을 표상하는 이미지는 박람회를 통해 강화되었는데, 문화정치 이후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1929년의 <조선박람회>였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조선박람회>의 개최 목적에 대해, ‘내외의 관람자를 유치하여 조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상호 협력하여 한반도의 개발과 국운의 융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제는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부의 20년간 통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최 시기와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장소는 경복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림 5-23]과 같이, 조선박람회장은 경복궁 후원까지

[표 5-2] 일제 식민지기 경성에서 개최된 공진화와 박람회

명칭	주최	기간	장소	관람객 수
조선물산공진회	조선총독부	1915.09.11 - 10.31	경복궁	117만 명
조선부업품공진회	조선농회	1923.10.05. - 10.24	경복궁	50만 명
조선가금공진회	조선축산협회	1925.04.16. - 04.20	경복궁	10만 명
조선박람회	조선신문사	1926.05.13. - 06.21	제1회 왜성대 총독부 제2회 경복궁	60만 명
조선산업박람회	경성일일신문사	1927.06.01. - 06.30	구 경성부청사	-
조선박람회	조선총독부	1929.09.12. - 10.31	경복궁	100만 명
신흥만몽박람회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서울프레스사	1932.07.21. - 09.18	경성훈련원	40만 명
조선산업박람회	조선신문사	1935.04.20. - 06.10	경복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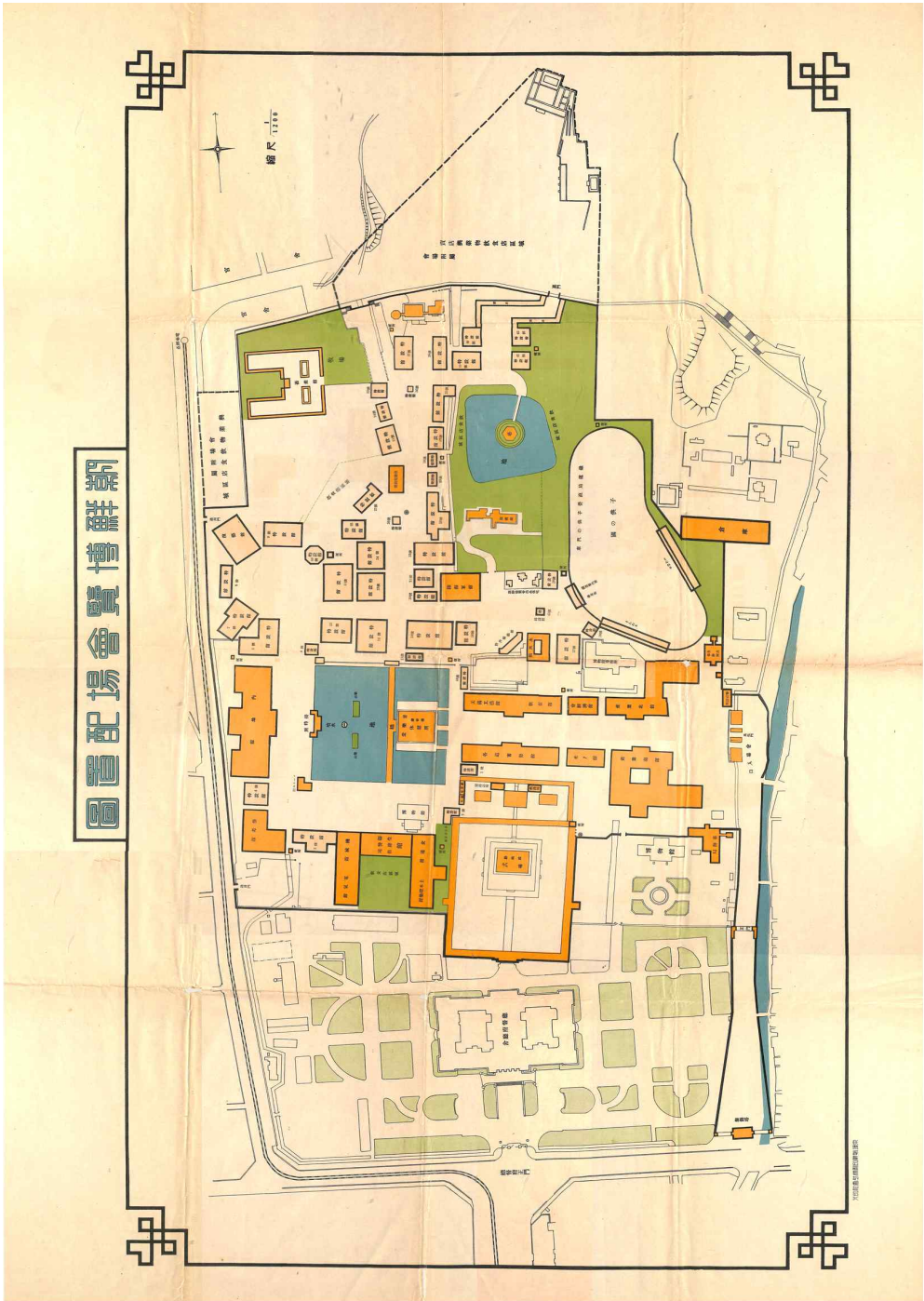
[그림 5-23]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아래)와 1929년 조선박람회의 배치도(위)
출처 : (아래)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위) 국가기록원

확장되었다. 또한 1915년 공진회장으로 사용되었던 근정전의 남측 공간은 1926년 조선총독부가 건립되었고 광화문은 1927년 건춘문의 북쪽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이에 박람회장은 옮겨진 광화문에서 경회루에 이르는 근정전의 북측 공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축을 따라 형성되었다. 경복궁 전면부는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통에서 경복궁 북쪽 권역의 박람회장까지 접근의 어려움이 있었고, 투시도적 경관은 구성되지 못하였다. 그 대안으로 동십자각 앞에 전차정류소를 개설하고 궁궐의 담장 일부를 훼손하였다. 또한 도로를 확장하여 박람회장의 입구인 동십자각을 화려하게 개조하였다(송인호 외, 2014). 이렇게 변화된 동십자각은 <조선박람회>의 새로운 정문이 되었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광화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동십자각에서 진입부를 따라 광화문에 이르는 회랑을 만들어 다소 왜소해 보일 수 있는 진입 축을 강조하였다.

<조선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독립 파빌리온이 조성되었고 내지관, 도쿄관, 교토관 등 일본의 지방관과 대만관, 만몽관 등 당시 일제의 세력 하에 있던 식민지 파빌리온이 세워졌다는 점이다. 주 전시장 외에 많은 파빌리온이 건립된 것은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조선박람회>로 전시의 등급이 상향되면서 규모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제의 세력범위를 선전하는 제국주의적 전시 측면이 강조되었다(강상훈, 2004). <조선박람회>의 전시물은 <조선물산공진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시 내용은 피폐한 조선의 현실과 대비하여, 식민통치의 업적을 선전하고 문명국으로서 일제의 모습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최석영, 2001). 그 사례로, 전시관의 중심인 산업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미쓰이(三井)상사 등 일본 기업이 산업기술의 성과를 선전한 반면, 국내 전시관에서는 조선시대 행정제도를 전시하거나 개량 갯을 쓴 노인을 등장시켜 전통 풍물을 시연토록 하는 등 시각적으로 대비되도록 하였다(강상훈, 2004). 이러한 장치는 일제의 문명 세계와 조선의 전근대성을 노골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조선은 일제에 의한 개화의 대상임을 암묵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림 5-24] 1929년 조선박람회 포스터



[그림 5-25] 조선박람회의 배치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박람회 직영관의 대부분은 조선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이는 <조선박람회>의 건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서구 양식으로 구성되었던 <조선물산공진회>의 건축과 큰 차이를 보인다(강상훈, 2004). 일반적으로 새로운 건축 양식을 선보이는 박람회의 경향을 거스르면서 식민지 전통 건축 양식을 박람회장 건축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의도된 목적 없이 실현하기는 힘든 일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장이었던 이와이 쇼사부로(岩井長三郎)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중략) .. 내지의 박람회를 보아도 가능한 새롭고 신선한 양식을 채용하고 색채도 풍부하여 강렬한 분위기를 갖춰 보는 이의 즐거움을 돋우려 .. (중략) .. 조선박람회의 건축은 새로운 맛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이겠으나, 가능한 조선의 맛이 풍부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내지에서 온 관람자도 조선의 박람회에 대해서는 무언가 조선의 맛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거기에 맞는 건축시설을 위해 고심하였다.” (朝鮮と建築, 8집, 9호, 1929)

<조선박람회>는 식민지 조선에서 개최된 박람회로서 식민본국이었던 일제의 박람회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의 파빌리온관을 전통 양식으로 건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내지의 관람객에게 식민지의 풍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박람회 건축에서 조선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나 일본인들에게는 이국적인 조선의 양식이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이는 전통적 조선의 건축 양식을 통해 서구화된 일본과의 거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이국적 취미를 만족시키려는 것이다(강상훈, 2004). 다시 말해, <조선박람회>가 철저히 일본인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을 보여주며, 식민지 ‘조선’은 외부의 시선에 의해 ‘타자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람회장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과 연예관의 가무공연을 통해 당시 <조선박람회>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희석시키려는



[그림 5-26] 조선박람회 산업북관의 모습
출처 : 朝鮮總督府, 『朝鮮博覽會紀念寫真帖』



[그림 5-27]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한 광화문
출처 : 朝鮮總督府, 『朝鮮博覽會紀念寫真帖』



[그림 5-28] 무엇을 어들가
1929년 9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식민지 경영의 정치적 성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측은 관람객이 예상보다 많지 않자 관제 동원과 조직화된 행정지원을 통해 관람을 권유하였다(최석영, 2001).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유료 입장 수는 100여만 명으로 우대권 및 기타 무료로 입장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120여만 명에 이르렀다. <조선박람회>를 관람한 대다수의 민중들은 상당수가 지방에서 상경한 농민들이었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전시품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짧은 시간에 관람이 이루어짐으로써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복잡하고 화려함이 당시 <조선박람회> 경험의 대부분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의 민중에게 <조선박람회>는 형식적인 관람 행사였다. 또한, 소매치기와 협잡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일반인에게는 전시물을 통한 선전 효과 보다는 경성의 박람회장에 수십만의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당시 민중들이 경험한 근대성은 박람회장 내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성의 발전상과 흥행을 위한 각종 행사 등 수동적인 구경꾼을 만들어 냈다. 오히려 여태껏 접할 수 없었던 경복궁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변화된 사회와 식민지적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 예술 산업의 성장과 미술관 개관

조선총독부가 설립하여 조선인들에게 거리감이 있었던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달리, 국민의 지식을 계몽한다는 목적으로 1909년 창경원 내에 개관한 제실박물관은 경성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원지로 부상하였다(한국미술연구소, 2018). 그러나 제실박물관은 일본 정부의 기획과 방침에 따라 이왕기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왕직을 통해 운영되었다. 1920년대는 이왕직의 운영 방침 변경으로 조선총독부 이관설, 미술박물관 계획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고종황제가 승하한 이래 단혀 있던 덕수궁의 일부를 개방하고 양관인 석조전에 박물관과 정원을 조성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1933년 덕수궁이 일반에 개방되고 석조전에서 개최된 미술 전람회는 일본의 근대미술품을 전시하였다. 일본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의 미술품을 상설 전시하였는데, 이는 미술관

의 설립을 우선시 하였다기보다는 전시가 먼저 결정되고 이를 덕수궁에서 진행하여, '덕수궁 일본근대미술 전시'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전시의 목적은 조선 민중들에게 최고의 예술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여 반도에서의 예술 활동을 계몽하고자 한 것이라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의 열망에 대치되는 것으로, 1933년 당시의 기사에서 석조전에 이왕가박물관의 유물이 전시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본 근대미술품이 전시되었던 것이다¹⁴⁶⁾. 당시 창경원의 이왕가박물관 본관을 비롯하여 목조 전각에도 많은 유물이 전시되었으나 공간이 좁고 채광이 좋지 않아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청과 석조전의 근대 미술품 전시는 자연스럽게 덕수궁에 미술관 건립이 논의되었고, 1938년 미술관이 준공되었다¹⁴⁷⁾.

미술관의 건립으로,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이 신축 미술관으로 이관되었고 기존 일본의 근대미술품을 전시하던 석조전과 합쳐 '이왕가미술관'으로 명명하였다. 일제는 덕수궁에도 창경원의 동·식물원처럼 공원화하여, 조수 사육장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고 궁궐이 위락 공간으로 전치되는 과정은 지속되었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이왕가미술관은 덕수궁 경내의 서북쪽에 위치하여 석조전과 신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덕수궁 내 차지하는 면적은 총 66,376㎡ 이었다. 석조전과 신관의 앞쪽 공간에는 서양식 정원이 꾸며졌으며 덕수궁은 남녀관광객의 행락지로 1938년 조선에서 가장 큰 분수가 설치되기도 하였다¹⁴⁸⁾.

146) 동아일보 1933, "구궁에 필 천연한 미술의 꽃", 1933. 9.15. 기사 일부

147) 조선일보 1936, "석조전과 나란히 호화 미술관 건축", 1936. 6. 4. 기사 일부

148) 조선일보 1938, "덕수궁미술관 앞에 분수 신설", 1938. 9. 27. 기사 일부



[그림 5-29] 이왕직과 총독부 양박물관도 합병
1926년 7월 2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5-30] 구궁에 필 천연한 미술의 꽃
1933년 9월 15일 동아일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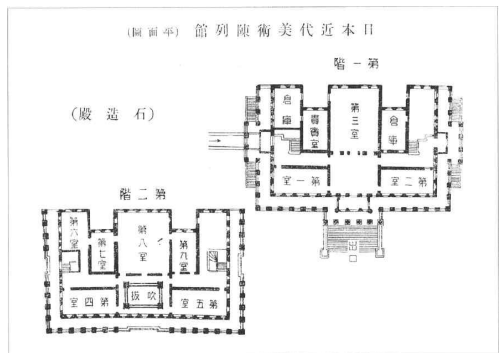
석조전은 1910년 영국인 건축가 하딩(J. R. Harding)에게 의뢰하여 조성된 대한제국 궁궐의 양관으로, 내부 시설을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5-32]와 같이, 전시 공간으로 2층과 3층을 사용하였으며 총 9개의 전시 공간을 구성하였다. 3층의 중앙에는 천창이 있고 진열실 또한 측광이 비치는 창으로 전시에 자연광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왕가미술관의 신관은 동향의 건물로, 남북으로 긴 장방형 형태이다.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었고 외벽에 화강석을 부착하였다. 1,319㎡의 면적으로 1층은 사무실과 수장고, 2층과 3층은 진열실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신관 건물의 1층 층고는 3.6m 이나 2층과 3층은 각각 4.8m, 4.5m로 처음부터 전시를 위해 천장 높이를 계획한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이왕가미술관은 이왕가의 사무기구인 이왕직에서 운영하였다. 매년 1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운영하였고, 관람료, 관람 규정 등을 책정하였다. 1933년 덕수궁이 공원으로 개방되고, 1938년 이왕가미술관이 새롭게 개관함에 따라 이곳은 경성의 대표적인 위락 공간이 되었다. 덕수궁과 석조전의 관람 요금 인하 및 부인 고궁순례단을 통한 관람객 동원은 정책적으로 계속되었고 많은 관객으로 호황이라는 기사는 주기적으로 보도되었다¹⁴⁹⁾. [표 5-3]은 1933년 이후 덕수궁과 이왕가미술관의 관람객 추이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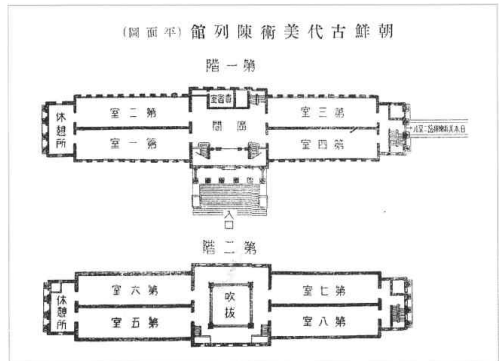
[그림 5-31] 이왕가미술관 전경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그림 5-32] 석조전 전시실 평면도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그림 5-33] 신관 전시실 평면도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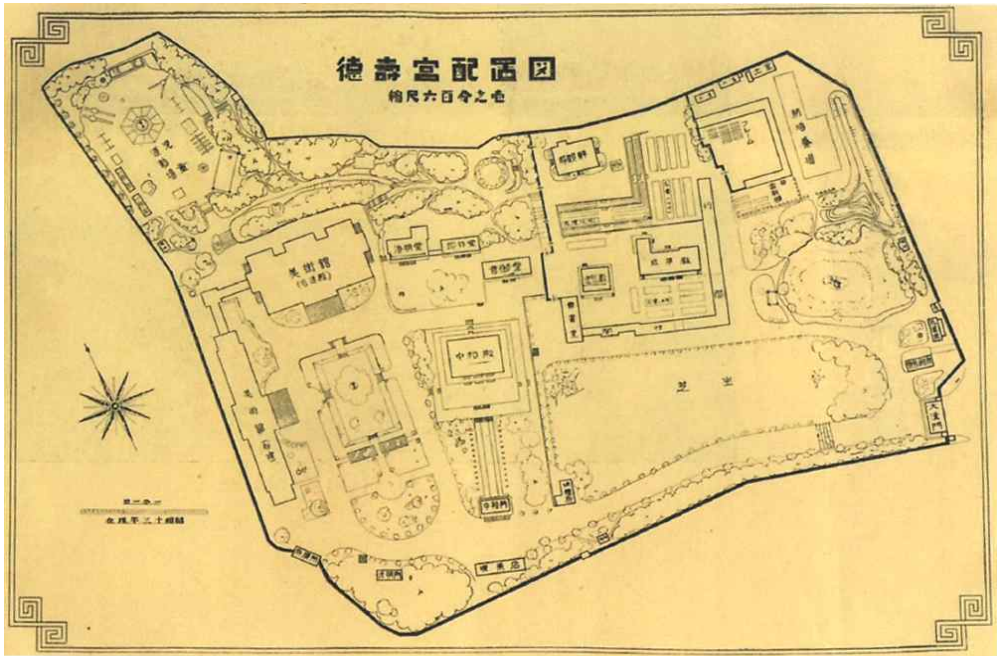
149) 동아일보 1936, “오시오 오는 일요일 가을빛 짙어가는 옛 궁전을 찾읍시다”, 1933.10.26. 기사 일부

[표 5-3] 덕수궁과 석조전 관람자 통계표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덕수궁	33,941	54,716	93,246	137,898	186,303	263,773	336,033	410,740	456,197	418,368	312,181
석조전 / 미술관	36,723	30,326	35,990	30,632	28,872	72,707	124,108	214,488	174,366	192,270	185,711
계	70,664	84,952	129,236	168,530	215,175	336,480	460,141	625,228	630,563	610,638	497,892

주는 자료로, 1935년 이후 덕수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39년 이후 석조전과 미술관의 관람객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1933년부터 석조전에 전시한 일본의 근대미술품 보다 1938년부터 신관에 전시한 조선의 고미술품에 대해 조선 민중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반도미술을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개최되는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용 공간을 구하지 못해 상품진열관, 왜성대 구 조선총독부 청사, 조선총독부도서관 등을 이전하였다¹⁵⁰. 1929년 <조선박람회>



[그림 5-34] 1938년 덕수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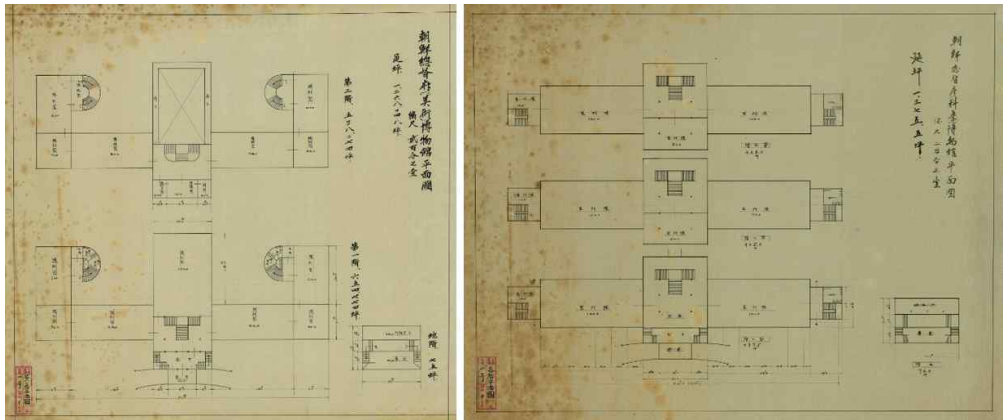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150) 매일신보 1932. 5.31. 기사 일부

이후, 경복궁 내 박람회장에서 조선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고, 조선 화단에서는 미술관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다¹⁵¹⁾.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시정 25주년 기념사업으로 경복궁 후원에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신축하려 하였다. 이 계획은 총공사비 100만 원으로 박물관 3,305.8㎡, 과학관 1,983.5㎡와 전람회장, 공회당 1,124㎡, 기타 1,421.5㎡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¹⁵²⁾. 이 계획은 시정 25주년의 기념 성격과 함께,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조성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협소한 공간과 왜성대의 은사기념과학박물관 확장 필요성에 의해 경복궁 후원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다(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조선총독부는 1935년 9월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기념 박물관 계획'을 현상 모집하였다¹⁵³⁾. 현상 모집에는 88건이 응모하였고 응모작 가운데 4점의 당선작과 6점의 가작을 선발하였다. 응모 요건으로 '조선 특유의 색



[그림 5-35] 조선총독부박물관 현상설계 당선작 투시도
朝鮮と建築 15집 1호(1936년 1월)



[그림 5-36] 조선총독부 시정25년기념 박물관과 과학박물관 평면도

출처 : 국가기록원

151)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시장은 영락정에 있던 조선총독부 상품진열장으로, 이곳에서 제4회인 1925년까지 개최되었다. 1926년에는 왜성대에 위치한 옛 총독부 청사에서 열렸는데, '회색빛으로 늙어가는 구청사의 모양 없는 건물도 예술품으로 그 자취가 짙어졌고 조선박람회의 큰 아치와 묘기를 다한 장식으로 화려함을 보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1927년에는 남대문동의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채광 관계가 서화전람회장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경복궁 옛 조선물산공진회 건물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목수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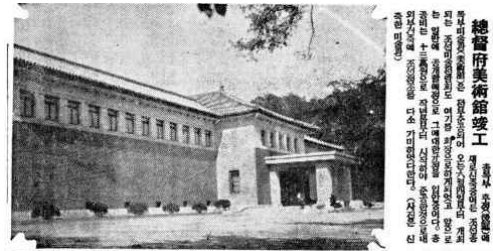
152) 朝鮮と建築, 1935. 4. 14권 4호 내용 일부

153) 朝鮮と建築, 1935. 9. 14권 9호 내용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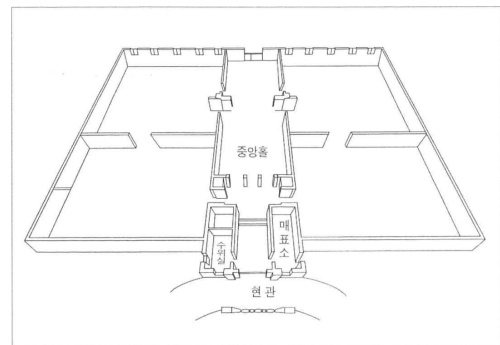
체'가 요구되어, 당선작 모두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물이었지만 목조건축에 지붕 계획하였다¹⁵⁴⁾. 이후 박물관과 과학박물관은 각각 3-4개씩의 대안이 동시에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자료는 [그림 5-36]과 같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미술 공예와 과학을 한곳에서 관람하도록 하고자 미술관과 과학관, 그 두 건물을 잇는 3개 동으로 구성하도록 요구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29년 이후부터 <조선박람회> 공간을 조선미술전람회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박물관 부지가 경복궁 후원이었기 때문에, 신축 조선미술공예관을 건립하여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¹⁵⁵⁾.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당선 안을 축소하여 전체 박물관 계획 중 미술관만 짓게 되는데, 이 건물이 1939년 준공된 조선총독부미술관이다. 종합박물관 계획에서는 미술관 건물이 2층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규모가 축소되었고, 계획은 최소화하여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미술관은 1909년에 철거된 건청궁의 오른쪽, 향원정의 북쪽에 건립되었는데 경복궁의 후원에 위치하여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였다. 건물은 정면성이 강한 대칭형 건물로 [그림 5-37]과 같이 1층은 높은 담장으로 조성되었다. 지붕은 '조선색을 가미'했다고 하지만, 조선 기와집의 선적인 표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직선의 기와지붕이다. [그림 5-38]처럼, 정면에 상하로 긴 중앙 홀이 있으며 좌우로 전시실이 둘씩 배치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미술관에서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람에는 성인 20전, 소인 10전의 관람료를 받았다¹⁵⁶⁾.

조선총독부미술관이 완공된 이후, 1939년 다시 박물관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이 진행된다. [그림 5-39]는 1930년대 초중반의 경복궁과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신영공사 과학관 배치도'로서, 경복궁 선원전의



[그림 5-37] 조선총독부미술관 준공
1939년 5월 15일 동아일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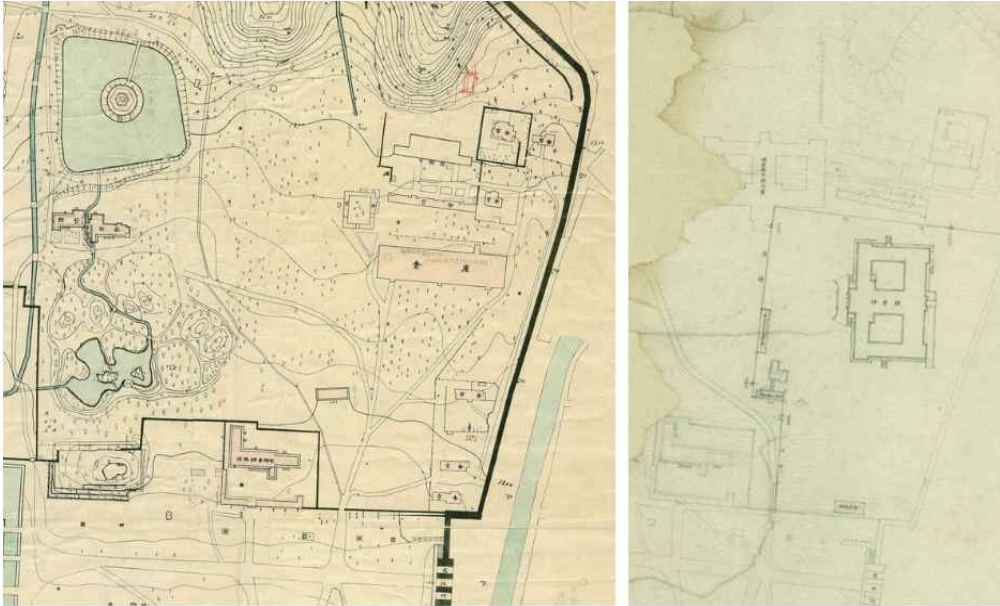


[그림 5-38] 조선총독부미술관 전시실 배치도
출처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154) 朝鮮と建築, 1936. 1. 15권 1호 내용 일부

155) 朝鮮と建築, 1936. 5. 15권 5호 내용 일부

156) 매일신보 1939, "선전 금일 공개", 1939.06.04. 기사 일부



[그림 5-39] 1930년대 초중반의 경복궁과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신영공사의 과학관 배치도
출처 : 국가기록원

남쪽 영역에 과학관 건물을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¹⁵⁷⁾. 과학관의 서북쪽으로는 박물관 본관이 건립 예정으로 배치되어 있고, 박물관의 남쪽으로는 원 위치에서 옮겨진 광화문을 통해 박물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복궁 내에 종합박물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궁궐이라는 권위 있는 장소에 종합박물관 조성 계획을 통해 구 시대의 종언과 신시대의 도래를 부각하려 하였다. 이는 창경궁의 박물관 및 덕수궁 미술관의 성공에 힘입어, 경복궁의 후원 또한 조선 민중의 여가 공간으로 전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왕가미술관은 이왕직에서 관장하며 조선 고미술품과 일본 근대미술품을 전시하는 일제 식민지기의 대표적인 전시 공간으로, 창경원과 함께 경성의 대표적인 위락공간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미술관은 1930년대 후반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시장으로 마련되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운영하며 상설 운영기구를 갖춘 공간이 아니었기에, 그 쓰임새는 조선미술전람회와 전시체제의 몇몇 전시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경복궁 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을 계승하여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157) 실제 경복궁 내 조선총독부박물관 계획은 여러 차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9]의 1930년대 초중반의 경복궁 부지평면도에서 박물관은 ‘-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939년의 배치도에서는 과학관이 ‘日자형’의 모습으로 계획되었고, 서북쪽으로 박물관 본관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의 일부로, 일제 식민지기 우리나라 공공미술 공간의 탄생과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경성 내 전시시설의 확장

1. 은사기념과학관

은사기념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관이다. 1925년 천황이 훈인 25주년을 기념하여 ‘사회교화사업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조선총독부에 하사한 은사금 17만 엔으로 계획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낙후한 조선에 일제가 보유한 근대 과학을 보급하는 ‘문명화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과학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천황이 명한 사회교화사업은 빈곤과 비위생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중을 교육하는 풍속개량사업으로 일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시행되었다(이정연, 2003). 조선총독부는 1911년 공포한 조선교육령에서 ‘조선에 맞는 사회교육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실적이 없었고, 문화정치 이후 은사금 17만 엔은 사회교육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이경선, 2012).

1920년대 당시 조선 내 사회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던 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이왕가박물관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입장에서 두 시설은 사회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교육은 민중을 대상으로 하지만, 두 박물관은 위치부터 궁궐 내에 있어 사회교육의 기능보다는 새롭게 개방된 왕실을 경험하는 여가 및 취미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두 박물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전시 활동보다는 조선 내 고적조사와 유물수집에 치중하여 식민 지배를 위한 조사기관 역할을 하였다. 또한 궁궐의 박물관은 ‘조선의 과거’를 발굴하고 결과를 전시하는 공간이었기에, 일제가 가져온 근대 문명의 혜택을 전시하고 변화된 ‘조선의 미래’를 선전할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였다.

경성에 과학박물관을 설립하려 했던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동경박물관의 지식 보급 활동을 참고하여 새로운 과학박물관 설립을 구체화 하였다¹⁵⁸⁾. 당시 과학관 설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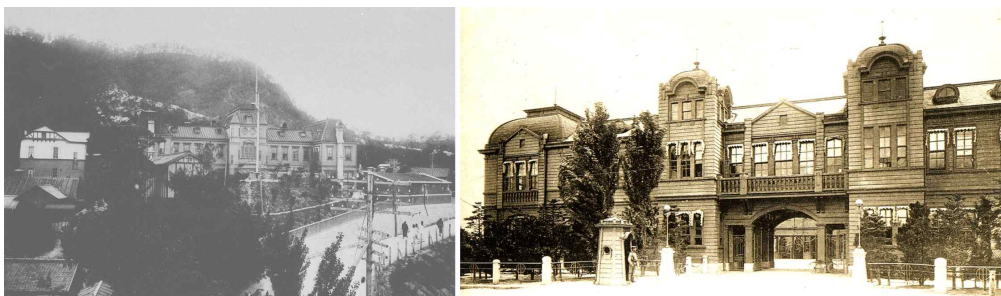
[그림 5-40] 과학관 명추개관
1925년 12월 25일 동아일보 기사

목적이 민중의 삶을 개선하도록 생활과 관련된 근대적 과학기구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설립 준비와 운영은 조선교육회가 담당하였다¹⁵⁹⁾. 조선교육회는 대의원회를 통해 ‘은사기념과학관’이라는 명칭과 설립 목적, 세부 규칙을 구체화하였고, 내외의 교육 자료를 전시하여, 과학관이 일제 통치자의 시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은사기념과학관이 지닌 상징적 기능은 건립된 장소, 그리고 인접 기관들과의 연관을 통해서도 부각되었다. 은사기념과학관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의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비워진 남산 왜성대 청사를 과학관으로 사용하였다. 구 청사가 위치한 왜성대는 일본인 거류 지역이다. 조선신궁, 경성신사 등이 위치하여 조선의 식민지배와 그 성과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결국 은사기념과학관이 자리 잡은 왜성대는



[그림 5-41] 은사기념과학관 안내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5-42] 남산 왜성대의 조선총독부 구 청사의 초기와 증축 모습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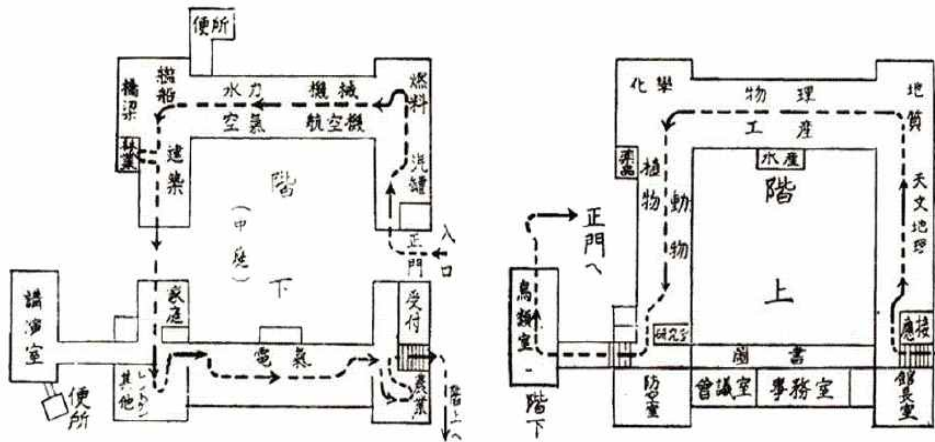
158)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전신인 동경박물관은 당시 ‘과학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연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물품을 전시하는 과학박물관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과학을 보여주는 ‘통속교육관’을 마련하였다. 일반 민중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위생, 건강, 가사, 도량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경선, 2012)

159) 조선교육회의 주요 활동은 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자문하고 사회교화사업으로 강습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거나 교육도서를 발행하였다. 민간단체를 표방하였지만, 총독부 학무국 고위관료가 주요 임원을 맡는 등 사실상 총독부의 관변단체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화)

‘전근대적’ 조선에 침투한 일제의 교두보였고 이러한 공간 배치와 ‘恩賜’라는 표현은 과학관과 그곳에 전시된 과학이 일제의 소유물임을 나타내고 있다(이경선, 2012).

조선총독부 구 청사는 1910년에 사무 공간의 부족으로 증축 공사가 이루어져 ‘一’자형의 건물이 ‘口’자형으로 변형되었고, 1911년에도 추가적으로 증축 공사가 진행되었다(이순우, 2010). ‘口’자형의 목조 2층 건물은 ‘은사기념과학관’으로 약 530평 규모의 전시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공간은 ‘조선총독부상품진열관’¹⁶⁰⁾이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은사기념과학관 설립 자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일제의 과학과 산업을 대변하는 두 기관이 조선 침략을 상징하는 장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은사기념과학관은 증축된 ‘口’자형의 건물에 [그림 5-43]과 같이 구성되었다. 정문 입구에서 왼편으로 진입하여 기관, 연료 등 1층의 전시공간을 관람한 후 2층의 천문지리, 물리, 공업 등을 관람하고 내려오도록 오도록 공간을 계획하였다. 진열품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았으며, <조선박람회> 출품물 중 사회교육에 참가가 될 만한 것을 기증받아 진열품을 확보하였다(국성하, 2001). 과학관은 개관 이후 기원절, 천장절, 명치절, 시정기념일 등의 휴관일 제외하고 운영하였으며 관람객이 진열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1932년부터 1939년까지 매달 진행된 강의와 과학실험 내용을 수록한 잡지 ‘과학관보’를 발행하여, 가정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이경선, 2012).



[그림 5-43] 은사기념과학관 전시실 배치도

출처 : 恩賜記念科學館, 『(恩賜記念)科學館案内』

160) 1911년 개관한 조선총독부상품진열관은 조선에서 생산된 상품의 개량과 판로 확장을 목적으로 조선산 상품들을 수집, 정리, 판매하는 시설이다. (국성하, 2001)

과학관이 과학지식 보급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상은 어린이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활동은 1928년 3월부터 진행한 ‘어린이날’ 행사로, 1945년까지 지속되었고 과학관의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매회 평균 4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입장한 사례도 있었다. ‘어린이날’ 행사의 주된 내용은 기초적인 과학지식에 대한 강연과 실험이었지만, 과학적 생활 방식에 대한 계몽, 나아가 만주사변 이래 일제의 군국주의적 팽창을 선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정치적, 사상적 내용도 포함되었다(국성하, 2001). 또한 교원을 중심으로 강습회와 경연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1927년에는 부인견학단을 편성하고 지방출장 강연과 영화강화회 등 과학관 밖의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러나 은사기념과학관의 운영 주체가 일본단체라는 것은 교육목적이 일본인을 위한 교육 또는 조선인들의 일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문명화사업’을 명분으로 조선에 침투하였으며, 기저에는 서구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우월감이 있었다. 은사기념과학관 설립에도 ‘문명화 사명’의 논리가 언급되었고 초대 관장 시계무라 기이치(重村義一)의 기념사에서도 과학관의 설립 목적이 ‘미개한 조선인에게 지식을 보급하여, 전근대적인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음’을 주장하였다(이경선, 2012). 이러한 견해는 과학관 설립을 주도한 일본인들이 조선 민중의 근대화라는 전형적인 ‘문명화 사명’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은사기념과학관을 통해 발달된 일제의 과학기술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인이 참여하여 일제 과학기술의 우수함을 알도록 하였다. 일제는 보편적 지식 확충의 의미로 은사기념과학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다. 1936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 사회교육과의 설치는 이러한 사회교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었다. 은사기념과학관은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조선 내 과학영역에서의 사회교육 기관으로 기능하였고, 1945년 이후에는 국립과학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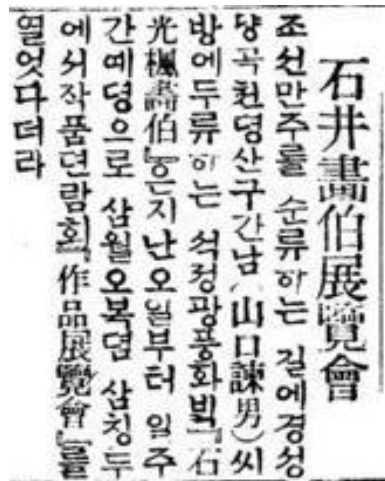
2. 백화점의 전시 공간

백화점은 여러 상품을 부문별로 나누어 진열, 판매하는 대규모의 소매점으로 대도시, 교통과 통신의 변화, 소비 자본,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로 성장하였다. 최초의 백화점은 1852년 프랑스의 부시코(Aristide Boucicaut)에 의해 개점한 봉 마르셰(Bon Marche) 백화점으로,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개방된 공간으

로 일상과는 다른 ‘근대적인 새로움’을 추구하였다(장석봉, 2006).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백화점은 경성의 미쓰코시(三越)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다¹⁶¹⁾. 1906년 일본 미쓰이(三井)사에서 경성에 미쓰코시 백화점 출장소를 개설하였으나, 당시의 출장소는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수출입상을 겸한 오복점이나 잡화점에 가까웠다. 미쓰코시가 백화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총무로 1가에 위치했던 출장소가 1929년 지점으로 승격되고, 경성부청사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약 2,200㎡를 매입, 1930년 건물을 완공하면서부터이다(신세계 백화점, 1987). 대지 739평, 종사 인원 360명으로 일본 내지를 제외한 동아시아 최대의 백화점으로 미쓰코시 경성지점은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조성되었다.

한편 조선인 상권에서 백화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16년 종로에 설립된 김윤백화점이었다. 1920년대까지 계림상회, 고려양행, 화양백화점 등 백화점식 경영을 표방하였지만, 취급 상품의 수,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하면 열악한 환경이었다(김소연, 2009). 당시의 잡지 ‘삼천리’는 1931년 2월호에서 일본계 백화점은 ‘본정 입구에다가 최신식의 대건축에 참신한 설비를 갖춘 당당한 백화점’인데 반해, 조선계 백화점은 ‘점포가 협소하고 백화점으로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감히 결눈질도 못하고 있는 狀態’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¹⁶²⁾.

당시의 백화점은 휴게실, 레스토랑, 카페, 강연실, 전시실 등판 단순한 판매시설을 넘어 대중적인 문화시설로 인식되었다. 백화점 공간에 화랑 등의 전시공간이 마련된 것은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어 일본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에서는 미술전이나 음악회와 같은 기획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한편, 백화점을 근대적인 신문화를 도입하는 문화생활의 개척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당대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 목적으로 하면서도 언제든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화랑 역할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였는데, 이러한 기획 전략이 경성지점에도 도입된 것이다(이태문, 2003). 미쓰코시에서



[그림 5-44] 석정화백전람회
1920년 5월 9일 동아일보 기사

161) 미쓰코시 백화점 [三越百貨店]은 1673년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설립된 에치고야 오복점[越後屋呉服店]라는 포목점에서 비롯되었다. 미쓰이 가문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찰제 등의 새로운 판매 기법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다. 각 지역에 지점을 세워 '미쓰이 오복점[三井呉服店]'을 운영하던 미쓰이 가문은 1904년 회사의 명칭을 미쓰이[三井]와 에치고야[越後屋]의 머리글자를 합쳐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呉服店]'으로 바꾸었고, 백화점으로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62) 삼천리 1931, "和信徳元 對 三越丁子 大百貨店戰", 1931.2월호. 내용 일부

처음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전신인 미쓰코시 오복점에서부터였다. 1920년 5월 5일부터 1주일간 미쓰코시 오복점에서는 경성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시이의 전람회가 열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3층의 일부를 할애하여 만든 미술관은 선진 문화의 전시장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은 각종 미술 문화 행사의 본거지였고 각 언론사 기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다(신세계백화점,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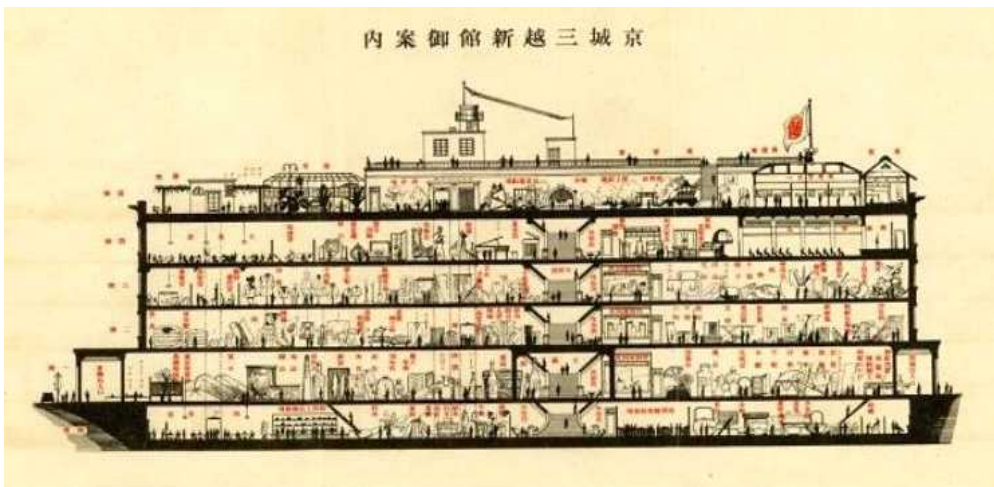
1931년부터 미쓰코시 백화점 화랑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한 작업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¹⁶³⁾, 상품 판매를 전략으로 이벤트 전시도 계획하였.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친일여성단체인 애국금차회가 금을 헌납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을 전시한 것과 1938년 전시체제를 반영하는 전적 전람회, 1940년 조선방공협회가 주최하여 사



[그림 5-45] 연초 포스타 전람회개최 삼월오층에서 1937년 12월 4일 동아일보 기사



[그림 5-46] 미쓰코시 백화점의 3층 화랑 모습 출처 : 신세계백화점,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그림 5-47] 미쓰코시 백화점의 층별 안내도

출처 : 신세계백화점,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163) 동아일보 1933, “조선미술가협회 발회기념전람회”, 1933.02.15. 기사 일부

상전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는 등¹⁶⁴⁾ 백화점 내 화랑은 일제의 시각을 반영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의 인기와 전시공간의 활성화는 조선의 상업시설과 관람 문화에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은 1931년 최남의 동아백화점이다. 사업가 박흥식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신상회를 인수하고 1932년 5월 콘크리트 3층 건물로 증개축하여 화신백화점을 개점하였다. 2개월 후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박흥식은 [그림 5-48]과 같이, 화신백화점을 서관, 동아백화점을 동관으로 하고 그 사이에 육교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의 화신백화점은 본정통의 미쓰코시 백화점에 대응하는 종로통의 조선인 백화점으로, 남촌에 치우쳤던 문화적 행사를 북촌으로 옮겨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목수현 2009). 그



[그림 5-48] 동아백화점 인수 후의 화신백화점
출처 : 박흥식, 『화신오십년사』



[그림 5-49] 종로의 화신백화점
출처 : 부산박물관, 『사진업서로 보는 근대풍경 1』

러나 1935년 화신백화점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서관 전체(기존 ‘화신상회’ 건물)와 동관(舊 동아백화점) 일부가 반소되었다. 이후 화신은 서관에 인접해 있던 대창무역 부지까지 새로 매입하여, 연건평 2,000평이 넘는 화신백화점 서관 건설을 마무리 하였다. 1937년 화신백화점은 7층 높이로 신축되었고, 이 건물은 당시 종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종로상권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화신백화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구관과 신관을 합하여 연건평이 2,500평에 달하였는데, 당시 남촌의 미쓰코시 백화점이나 미나카이(三中井), 조지아(丁字屋), 히라타(平田) 등 일본계 백화점 보다 규모 면에서 경성 최대의 백화점이 되었다(박흥식,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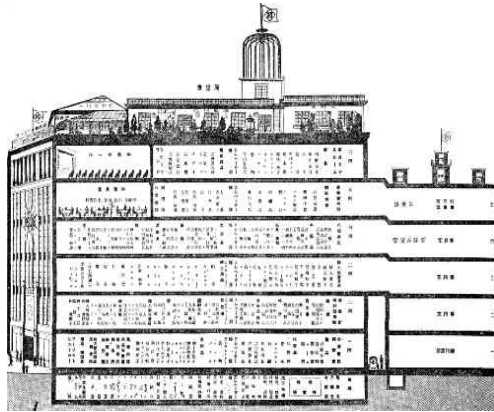
당시의 백화점은 역사적인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계획되었다(이태문, 2003). 이러한 건축 현상은 문화시설에서 두드러져 나타났으며, 백화점은 르네상스 양식의 절충주의가 주류였다. 화신백화점의 건축가 박길룡은 평소 모더니즘에

164) 동아일보 1937, “연초 전람회개최 삼월오층에서”, 1937.12.04.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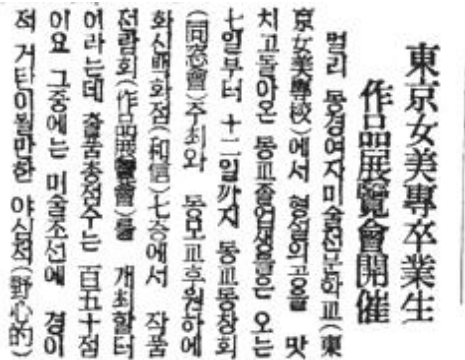
대한 그의 지론과 달리, 백화점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을 모방하였다. 당시 백화점 건축을 서양풍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짓는 설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일본 내지의 백화점 건축 양식도 우리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김소연, 2009).

화신백화점의 운영 전략은 ‘민족주의’였고, 일본인 거류지인 남촌 상권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북촌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부각하였다. 당시 일제의 상권은 점차 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조선인의 상점은 동대문, 서대문 등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화신백화점에 화랑이 개설된 이후, 조선인 화가들의 개인전이나 단체전은 화신백화점 화랑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화신백화점 7층에는 옥상정원, 미장실과 화랑이 조성되었고 당시 전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다¹⁶⁵⁾. 조선인들이 활용할 상설 전시장의 존재가 한 곳뿐이라는 점은 더욱 이곳의 화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 1939년에 신축된 조지아(丁字屋) 백화점¹⁶⁶⁾ 4층에도 화랑이 있어 전시회가 열렸으며, 본정과 명치정의 히라타(平田) 백화점¹⁶⁷⁾과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¹⁶⁸⁾은 서로



[그림 5-50] 화신백화점 화랑 위치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5-51] 동경여미전졸업생 작품전람회개최
1938년 5월 7일 동아일보 기사

165) 대부분 조선의 상점들은 전쟁 물자동원과 상품 수탈로 폐업하거나 축소되었다. 화신백화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황을 이루었다. 이는 과거 민족백화점을 외쳤던 박흥식이 전시총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김병도 외, 2006)

166) 조지아(丁字屋) 백화점은 1904년 남대문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고바야시 겐야몬의 조지아양복점이 모태이다. 1929년 백화점으로 개업하였고, 1939년 남대문동에 신관을 건축하여 조선 최대의 매장 면적을 보유한 백화점이 되었다. 위치는 지금의 롯데 영플라자 건물로, 1930년대 전시체제 상품 배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7) 히라타(平田) 백화점은 1904년 히라타가(平田家)에 의해 본정에 세워졌던 히라타 상점에서 출발하였으며 1926년 백화점으로 변경하였다. 경성의 백화점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으며, 재고품 판매점으로 차별화하여 저가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168)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은 1905년 대구에서 미나카이 오복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1년 본정에 미나카이 오복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경성에 진출하였다. 1933년 본정에 6층의 매장을 신축하였으며 조선 전역에 13곳의 지점을 개설하면서 조선 최대의 유통기업으로 부상하였다.

경쟁 관계에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적 공간을 구성하는 백화점의 전략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병도 외, 2006).

백화점은 과거 장터에서 좌판을 놓고 벌이던 상거래가 디자인을 가미한 화려한 최신식 건물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엘리베이터와 야간 조명으로 근대라는 신세계를 경험하였고 화랑과 레스토랑 등은 판매시설 이상의 문화공간이었다. 또한, 옥상정원은 도시의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이자 도심 속 유원지였다¹⁶⁹⁾. 당시 잡지에 소개된 나들이의 새로운 풍경은 아이와 함께 외출한 가족이 시내에서 축음기 소리를 듣고 화신백화점에 들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빔밥으로 식사를 한 후 전망 좋은 옥상에서 시내 구경을 한다고 전하고 있다.

서양풍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백화점은 제국에 의해 형성된 전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옥상정원과 화랑은 근대적인 문물을 경험하고 문명의 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특히 조선의 상류층은 문명인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백화점은 자연스럽게 선진 문화를 훈육하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백화점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탄생하였다. 백화점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구분되는 공적 영역을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이곳에서는 남녀의 성별 분리가 상품에 따른 공간의 구분으로 전환되었고, 가부장적 차별을 벗어나 근대적 소비의 일원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균열이 발생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당시 백화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로, 제한되었다. 백화점은 민족에 상관없이 경제력을 갖춘 상류층이나 부르주아 계층만 풍요를 느낄 수



[그림 5-52] 경성의 백화점 위치
출처 : 경성정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169) 매일신보 1933, “가존 본위의 대식당 출현”, 1933.04.01. 기사 일부

있는 곳으로 대다수 식민지의 민중에게는 단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백화점 공간에서 판매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시장경제가 발전되는 사회에서 소비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쓰코시와 화신백화점 등에 마련된 전시공간은 전시와 상업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 백화점은 전시를 유치함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작가의 입장에서는 백화점 화랑의 수익 배분을 전제로 한 작품 판매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당시 고미술에 한정되었던 미술시장이 당대의 현대 미술에 확산되어가는 방식이었다(목수현 2009). 이후 1930년대 전시공간의 다양화는 백화점에 그치지 않고 카페와 같은 개인의 소규모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5-53] 미쓰코시 백화점의 야경
출처 : 부산박물관, 『사진업서로 보는 근대풍경 1』



[그림 5-54] 미쓰코시 백화점의 옥상정원
출처 : 신세계백화점,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제4절 소결

서구의 박람회와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우리나라의 근대 박람회는 통치 권력에 의해 ‘위에서부터 기획에 의한’ 박람회였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 놓여있던 국가에서 이루어진 제도를 통한 ‘근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박람회는 ‘근대화 된’ 일제의 모습과 식민통치에 의해 ‘근대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선전하는 장이었다(강상훈, 2004). 일본 상품의 선전과 판로 확장을 위한 <경성박람회>가 상업적 목적이 강했다면, <조선물산공진회>와 <조선박람회>는 식민통치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였다. 두 차례의 박람회를 통하여, 경복궁의 정문이었던 광화문이 이전하였고 근정전이 행사장으로 변모하여 일본인 내빈이 자리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박람회의 전시공간이 경복궁 남측 일부에서 경복궁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은 주권이 상실된 조선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건축

양식도 〈조선물산공진회〉는 선진성과 근대성을 대표하는 르네상스 양식을 가미한 건축으로 구성된 반면, 〈조선박람회〉는 ‘지역성’이 강조된 조선 양식이 채택되었다. 이는 1930년대 후반 종합박물관 계획에도 나타나는데, 경복궁의 경관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타자화하고 일본인에게 이국적인 조선의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서구화된 일본과의 거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인의 취미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박람회의 이러한 이념적 성격은 식민지에 설립된 박물관에도 이어져, 박물관은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상설기관의 역할을 하였다(John M, 2009). 창경궁에 조성된 제실박물관은 경술국치 이후, 이왕가박물관으로 격하되었고 경복궁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덕수궁의 이왕가미술관은 궁궐이라는 권위 있는 장소에 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신시대의 도래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경궁 박물관 및 덕수궁 미술관의 성공에 힘입어, 1930년대 후반 종합박물관 계획은 경복궁을 다시 민중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치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설립된 제실박물관이 조선의 옛 미술품을 일본의 미적 기준에 따라 분류, 정리하는 기관이었고(박소현, 2006) 조선총독부미술관은 조선 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역사편찬에 활용하는 기관이었다(목수현, 2000). 은사기념과학관은 직접적으로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기관으로,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의 문명화’를 과시하고 일제 과학의 선진성을 보여주려 하였다. 근대화 된 일제의 과학과 문화를 조선 민중에 보여줌으로써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를 대변하는 장소였다. 이처럼 일제 식민지기의 박물관은 궁궐 및 구 조선총독부청사에 입지하여 일제의 통치체제 강화를 위해 기능하였다. 근대적 규율을 강조하고 문화의 우월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지만, 당시의 조선인들은 일제라는 선진 사회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궁궐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가 공간으로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유희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위상과 성격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림 5-55] 경성명승 유람 안내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시설이 고정된 역할의 기관으로 특징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근대 문화시설에 대한 조선인의 경험의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시시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는 민간 영역에서 전시 공간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기존 박람회와 박물관을 통해 공개되었던 진열품은 공공장소에서 다중에게 전시되었다. 도서관이나 상품진열관 등을 기획 전시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교양으로서 전시가 대중의 취미로 전환하는 계기를 보여주었고, 조선기독교청년회관 등과 같은 곳이 전시장으로 활용된 것은 대중에 대한 문화적인 계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 등에 마련된 전시공간은 전시와 상업성의 결합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이 아닌 백화점을 방문하고 여가생활을 누릴만한 조선인과 일본인이 경험하는 일부만의 문화 공간¹⁷⁰⁾으로 기존의 박물관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70) 1932년 11월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죠지아 백화점의 고객 60%, 미쓰코시 백화점의 고객 60-70%가 조선인으로, 미쓰코시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는 많은 양반과 유복한 조선인을 끌어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화신백화점의 주요 고객층은 중류층 이하의 조선인으로 일본인은 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백화점에서도 식민지 대중의 호기심과 욕망은 민족주의를 초월한 것을 알 수 있다.

제6장 근대문화시설로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의 해석

1. 이중도시의 경계 완화
2.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
3. 문화시설의 설립 주체별, 시기별 특성

제1절 이중도시의 경계 완화

1. 선진성에 대한 표상으로 분포

일제 식민지기 도입된 근대문화시설은 건축적, 도시경관적으로 기존의 건축과는 다른 모습으로 도심부에 입지하였다. 1908년 조성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은 서양식 벽돌 건물로 당시 최고층인 3층으로 종로에 지어졌으며, 천도교 중앙대교당도 신도들의 성금에 의해 인사동에서 종로로 이전, 신축 건물로서 경성의 3대 건축으로 손꼽을 만큼 큰 규모로 건립되었다. 또한 일본인 건축가를 고용하고 화강석과 같은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을 도입하는 등 건축적 표현에서도 서구적인 모습을 발현하였다. 두 건물은 서양 선교사들의 노력과 종교 단체 및 내·외국인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었고 접근성이 뛰어난 종로 가로변에 입지하여, 경성의 조선인 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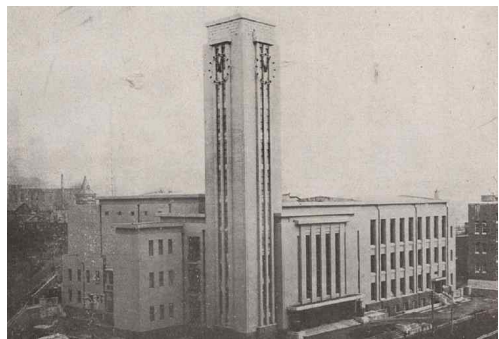
한편 일제는 1910년대 경성 시구개수사업 이후, 새롭게 조성된 거리에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근대적 공간을 선전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경성 시구개수사업의 목적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내세워 전통적인 도시공간이 갖는 상징성을 해체하였고, 광화문통에 부민관을 개관함으로써 일제의 근대성과 선진성을 상징적으로 부각하였다. 본정통에서 황금정통으로 확장된 일본인 거류지의 극장들은 황금좌를 비롯하여 돈화문통에 약초극장, 명치정에 명치좌가 건립되었고, 건축 계획에 있어 일제는 서구와 동일시하고 조선의 건축과 '구별짓기'를 통해 차이를 부각하였다.

조선 왕실 소유의 토지에 부민관을 건립한 것과 일제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들은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에 입지하거나 증축,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간적으로 문화시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건립된 문화시설



[그림 6-1] 명치정의 명치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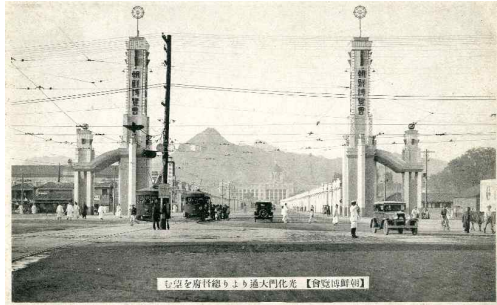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6-2] 태평동의 부민관

京城彙報(경성회보) 1936년 1월

은 궁궐 내 개최된 박람회 건물을 활용하여 박물관으로 전환, 식민지의 전근대성과 낙후성이 대비되는 선전장이 되도록 하였다. 박람회장의 부지를 경복궁으로 선택한 이유로 교통의 편의, 비용의 절약, 넓고 평탄한 부지 형태, 잔존한 고궁전각이 관람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당시의 기록은 경복궁이 조선의 정궁으로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 폐허로 방치할 수 없었던



[그림 6-3] 조선박람회의 우편엽서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자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 당시의 자료에서 광화문통에 선전탑을 조성하여 강한 축을 형성하였고 조선총독부의 건립과 함께 대규모 구경거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가로가 활용되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궁궐 내외의 공간은 일제의 근대성 표출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문화시설은 기존의 전통 건축과는 다른 양식으로 경성에 도입되었다. 서구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조선인의 거류지에 여러 시설이 건립되었지만, 일제는 궁궐의



[그림 6-4] 조선박람회의 조감도
출처 : 朝鮮博覽會, 『朝鮮博覽會 京城協贊會報告書』

전통 건물과 새로운 근대시설의 시각적 ‘차이’를 통해 식민통치를 위한 근대화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 선진성에 대한 표상으로 문화시설을 활용하였다. 또한 경성의 도심부에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외곽지역의 민중들은 박람회와 같은 이벤트가 없을 경우 문화시설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는 경성의 도심부가 다양한 건축으로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 남촌의 성장과 ‘공간 동화’

임오군란 이후, 서대문 밖 천연정에 있던 일본 공사관의 화재로, 일본인들은 경성의 남산 기슭에 공사관을 설치하였다. 이미 남대문 인근의 중심부는 청국 상인들이 점유하는 상황에서 일본인 거류 지역은 공사관 인근의 진고개 일대로 규정되었다. 일본인들은 공사관 부근에 거류지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남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인 수는 급속히 늘어났으며, 일본인 전용 병원의 개원, 전문 상품 진열소 설치 등 일본의 거류지는 질적,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문화가 경성에 유입되었고 남촌의 곳곳에 극장이 건립되었다. 야마구치 세이(山口情)에 의해 설립된 ‘경성 문고’는 무료로 거류민들에게 도서를 제공하였다. [그림 6-5]와 같이, 당시 남촌의 거리는 영화의 홍보방식, 간판 등으로 가로경관, 공연문화 등 일본식 문화가 이식되어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선인 거류지인 북촌에도 근대식 극장이 건립되었지만, 외화 상영의 제한, 조선총독부의 검열, 일본 자본의 대규모 영화관 건립 등으로 남촌과 북촌의 차등화는 심화되었다.

1920년 문화정치 이후, 경성에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도서관이 건립되었으나 일본인 거류지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도심부의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경성부립도서관이 지척에 위치함으로써 거류민단의 사무실, 우체국, 경찰서 등과 함께 일제의 행정중심지로 소공동, 명동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경성철도



[그림 6-5] 남촌의 극장인 희락관 외관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학교와 함께 조성된 만철의 철도도서관 역시 일본군 주둔지에 위치하여 일본 거류민단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하였다. 대표적 근대식 공회당이었던 경성공회당과 부민관은 남촌 인근에 위치하여 문화시설의 주된 수혜자는 경성의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차별적으로 배분되었던 공공문화시설은 식민지 균열의 배경이 되었다. 궁궐 이외의 장소에 공공 건립의 유일한 박물관이었던 은사과학기념관은 일제의 군사요충지였던 왜성대가 있던 곳으로, 입지와 그 명칭에 붙은 ‘恩賜’라는 표현을 통해 그곳에 전시된 과학이 제국일본의 자산임을 나타내고 있다.

극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은 이분화 된 식민지 경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조선인들을 남촌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소비 문화공간으로 작동하였다. 활동사진과 다양한 공연은 식민지 사회에 매혹적인 일본 문화를 생산하였고 조선인들은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군중으로써 일본인 거류지에서 근대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경성문고의 다양한 서적과 은사기념과학관의 과학 기구 및 조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료들을 통해, 이전까지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조선 민중에게 사회의 보편적 생활양식으로써 조선인들을 남촌으로 유입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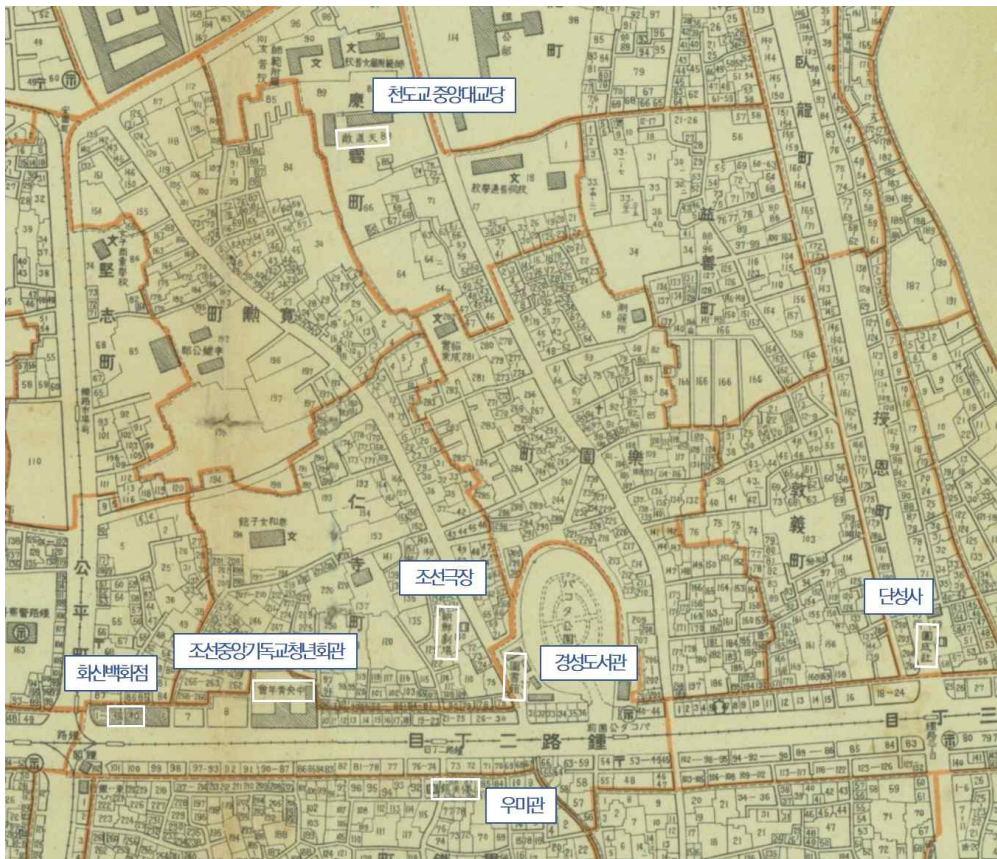
3. 민족공간의 병립과 와해

남촌에 거주했던 일본인과 북촌의 조선인으로 일제 식민지기 초기에는 이중도시의 성격을 띠었다. 북촌은 전통적, 전근대적 공간, 남촌은 근대적, 서구적 성격의 공간으로 식민지 도시의 공간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식민 권력의 관계 속에 새롭게 규정되었다.

일제 식민지기의 북촌은 ‘종족 공간’으로 극장 및 조선기독교청년회관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일제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의 동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고했던 민족적 영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경계는 점차 흐릿해졌다. 1930년대 이후 청계천 이남에 한정되었던 경제 권력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촌과 북촌의 중간 지점에는 혼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다중 이용시설인 문화공간의 분포와 조성이다. 이범승에 의해 설립된 경성도서관은 일제의 지원으로 탑골공원 근처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일제의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편입되어 일제의 검열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남·북촌으로 분리되었던 조선인의 극장 중 단성사와 우미관, 조선극장 등 북촌의 극장에 대한 소유권은 일본인이, 흥행권은 조선인이 갖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민간이 설립한 북촌의 극장 소유권을 보유한 일제는 조선인 관객을 분리, 수용함으로써 보다 통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인은 선진 문화공간에 대한 동경으로 남촌의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유람하였고 일본은 북촌에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인은 남촌의 선진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일본인은 경제적 수탈 및 피식민 국민 통제를 목적으로 일제는 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배의 대상인 조선인과 일본인 역시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인구 집단이 아니었고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대하여 민족적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만 없는 특징이 있다. 전근대시기 조선의 민중들은 조선 왕조에서 일본제국으로 지배층의 교체로만 이해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겪는 일상일 뿐이었다. 또한 재조선의 일본인들 역시 지배 체제는 관계없이 경성이라는 타지에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였다. 즉 민간부문에서 조선 총독부의 영향력 보다는 대립과 경쟁, 동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민족 경계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6]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조선인 거류지의 문화시설
출처 : 대경성정도, 서울역사박물관

식민지 도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중도시로, 식민지 공간과 피식민지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서구 사회의 식민 도시인 알제,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이다. 서구의 식민지 도시는 대부분 기존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한 반면, 경성은 이중도시의 공간 구조와 다르게 도시 내부에서 변화하였다. 서구의 제국주의 방식대로라면, 도성 밖의 공간에 이중도시의 거점으로 형성되어야 하나, 일제는 경성의 도심부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시설로 전치하였다. 우리가 표현하는 일제 식민지기 경성에 대한 ‘이중도시’적 규정은 당시 경성의 실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해석으로 근대문화시설은 식민지 도시의 이중도시 경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치기능이 우선시 되었던 조선 초기의 상징적 중심지나 중심축은 근대 박물관과 박람회장으로 변화하였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과정을 통해 상업 공간 그리고 문화 및 관광의 장소로 변화하였다. 일제는 전리품으로 빼앗은 공간에 의미를 역전하고자 궁궐 내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경복궁, 창경궁 등의 궁궐은 물론 왕실이나 국가 관련 시설이 있었던 대규모 필지는 일제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기에 기존의 국공유지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였다. 또한 궁궐과 왕실의 공간, 관아 등은 일반 조선인의 거주지와 물리적 경계가 분명하고 도시의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분리된 데다, 녹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입지적으로 우수하였다. 유희 부지를 활용하여 입지를 선정하였고 조선총독부 소유의 토지가 아니면, 국책기관의 자금과 토지 불하 등의 방식으로 문화시설의 입지를 결정하였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경성부민들에게 선진 사회로의 표상과 기존의 도시 공간과 ‘구별 짓기’를 통해, 경관적으로 근대 도시의 이미지는 표출되었다. 이처럼 권위 있는 장소의 의미를 역전시킴으로써 구시대의 종언과 신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이미지 전략은 우에노 박물관과 도서관, 동물원과 식물원이 함께 배치된 공원을 계획함으로써, 그곳에 도쿠가와 막부의 이미지를 지우려 했던 일본 메이지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우동선 외, 2009).

일제 식민지기 경성은 조선인 거류지인 북촌과 재경성 일본인 거류지인 남촌으로 이분화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문화정치



[그림 6-7] 일본인의 북진과 부정책도 북촌주력
1928년 11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이후 남촌은 신문화를 동경하는 경성의 민중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으며, 일제 자본의 성장으로 종로까지 진출하여 문화시설 복상은 병립된 민족공간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또한 설립주체에 따라 문화시설의 입지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마저도 1930년대 이후 민간과 공공에서 일제 소유의 문화시설이 득세하게 되었다. 부민관의 입지에 대한 논의도 결과적으로 일본인 거류지의 복진을 부추겼으며, 당시의 문화시설은 시각적, 사회적으로 신문물의 도입 장소로서 조선 민중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에 따라 외부적 팽창보다는 내부질서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문화시설은 도시 내부에 선진성에 대한 표상으로 공간적으로 분포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경성의 도심부에 대하여 효율성에 입각한 공간 활용으로 문화시설의 입지를 결정하였고 공공과 민간, 조선총독부의 결정과 조선인의 문화공간 향유 과정을 통해, 문화시설은 경성의 도시공간에 자연스럽게 침투하여 일제의 의도에 따라 형성되었다.

제2절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

1. 관 주도의 규율 공간

식민지에서 서구의 '문명화'를 답습하려 한 일제는 근대화의 구호 아래 선진화, 도시화 및 교육과 위생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대한 일련의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지'와 식민지 간의 문명 격차는 뚜렷하였다. 일제는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율 공간을 활용하였고, 문화시설은 그 중 하나였다. 일제라는 국체를 중심으로 두 민족이 동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민지 규율 권력, 즉 '동화정책'의 목적은 조선인을 미개한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마지막에는 '황국신민'이라는 식민지적 자각을 통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일제는 문명화라는 가치를 내세워 일상생활 전반에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을 세뇌시키고자 하였다(김진균 외, 2003).

식민지 초기에는 우민화정책을 실시하였고 후기에는 식민지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규율 권력에 의한 지배는 근대 서구에서 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더욱 내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가로환경의 변화, 경성에서의 새로운 시각 경험 등으로 일상 속에서 규율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는 권력이 중심이 되는 지배 담론을 '전시'

리는 이벤트로 재현하였다. [그림 6-8]과 같이, 조선박람회는 안내도를 제작하여 관람순서를 알려주었다. 또한 유물을 수집, 전시하는 이왕가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우리 역사에 대한 시선을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아래 종속시켰다. 박람회와 박물관이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전시라는 개념에서 식민지적 규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근대성을 조선인에게 효율적으로 내면화하였다. 또한 왜성대에 조성된 은사기념과학관은 근대화된 일제 과학을 조선 민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제에 의해 조성된 도서관은 조선어 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서 위주의 책을 수서하고 한글을 제한하였다. 일본어는 지식 전달의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매개로서, 특정 언어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권력을 함축하고 있다(김진균 외, 2003). 또한 문자를 통한 권력의 영향이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스며들도록 계획하였다. 당시의 도서관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소속으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발맞춰 운영되었다.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우리의 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대륙 침략의



[그림 6-8] 조선박람회장 안내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학술 교두보 역할을 통해, 규율화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또한 극장과 공회당은 다양한 공연을 통해 일제의 선진적인 문화 요소를 이식하고자 하였고 전시체제에서 일제의 선전과 제국 전쟁에 동참할 국민을 동원하는 장으로 관제행사를 주최하여 식민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제는 건립한 박물관과 도서관, 극장의 이용에 있어, 조선인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조선인은 조선총독부 주도의 전근대적인 지배를 비판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시설은 근대적 규율을 강조하고 문화의 우월성을 확립하고자 계획되었고, 통치체제의 강화를 위해 활용되었다.

2. 계몽의 장소와 새로운 계층 출현

전근대 사회에서 모든 질서는 왕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의 도서관, 극장, 박물관은 왕실 소유의 시설로 이용 대상도 일반인들에게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문화 시설은 근대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용을 통해 민중들이 근대 시민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체화되었다. 당시에 건립된 도서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띠고 있지만, 당시의 도서관은 아동도서관을 마련하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약자에 대한 사회교육을 수행하였다. 도서관 주간, 도서보급운동, 전국도서관대회 등 각종 운동과 대회를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목적과 달리 민간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로 이행되었고, 일시적이었지만 북촌의 경성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도서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기존 왕립 교육기관의 서고와는 달리, 일제 식민지기에 설립된 도서관은 순회문고, 독서회, 강연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계획, 실행하였다. 민족의 사회교육을 위하여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육 향쟁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경성부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극장을 통해 사람들은 근대적 삶의 방식을 체득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공연을 하고 있으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극장은 계량화된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했다. 대중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그림 6-9]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 첫날 광경
출처 : 이동초, 『천도교중앙대교당 50년 이야기』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존재로 변한 것이다(박노현, 2004). 당시의 극장에서 조선인은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고 자리 때문에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 하였으나 북촌의 단성사와 조선극장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장소로, 남촌의 극장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조선기독교청년회관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당시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으로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선학생회와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등의 창립대회가 열리는 등 식민지 조선인의 억눌린 정치, 사회적 욕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역할을 하였다. 한편 창경궁 제실박물관의 개관 과정과 덕수궁의 초기 박물관 건립 제안에서 순종의 취미생활과 공중의 근대적 교육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박물관과 동·식물원은 서구의 근대적인 잣대로 물품을 분류하고 정리하였고 소장품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화신백화점의 화랑 또한 미쓰코시 백화점에 대응하는 조선인만의 고급문화 공간으로 근대 시민으로의 형성과정에 역할을 하였다. 서구의 경우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정이 수세기에 걸친 장기적 과정이었지만(김진균 외, 2003),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식민지적 특성은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사회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근대적 주체로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 식민지기 문화시설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소년’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노년’을 대신할 주체로 근대적 ‘소년’이 부상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일컫는 의미로, ‘소년’을 내건 단체가 만들어지고 잡지가 발행되었다. 당시 식민지의 소년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농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자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열람실을 계획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박물관에는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



[그림 6-10] 여류웅변 고조된 신여성의 기백
1925년 3월 22일 동아일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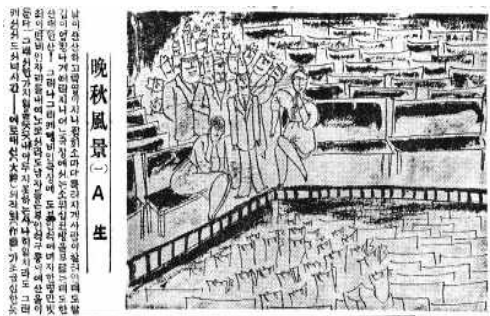
이 마련되었고 은사기념과학관은 ‘어린이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기초적인 과학 지식과 과학적 생활 방식을 주지하는 등 문화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계몽의 공간이었다.

이 시기의 여성도 근대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부각된 계층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은 제대로 된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봉건적 윤리규범과 맞물리면서 가정 내에서 소화되어 왔다(김진균 외, 2003). 그러나 3·1 운동 이후 1920년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조직된 여성청년회나 근우회 등은 여성 문제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당시의 여성은 부인으로 불렸는데, 문화시설에서 부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박람회 당시, 사회적 차별이 있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인일’을 따로 지정하였고, 경성도서관은 ‘조선여자청년회’라는 단체에 무료로 공간을 대여하여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제대로 된 아동교육을 위해서는 부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여성이 공교육을 받을 시회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시설에서는 여성 교육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도서관과 박물관 등 당시의 문화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교양과 합리적 이성을 갖기 위한 계몽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계층을 부각시켰다.

3. 조선인의 여가생활과 유희 공간

‘여가’라는 개념은 3·1운동 이후 등장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은 조선인 ‘교화’를 명목으로, 경성의 곳곳에 공원, 도서관, 박물관,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과 극장, 카페, 경마장 등의 오락시설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흥행취체규칙興行取締規則>을 제정하여 여가시설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성 시내에는 경성 민중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의 다양한 시설들이 건립되었다. 여가 활동에서 잘 드러나지 않던 기생, 기혼여성이 극장의 소비 주체로 등장한 것은 일제 식민지기 문화시설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다.

당시 경복궁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조선인들은 새로운 시설을 경험하였다. 일



[그림 6-11] 만추풍경
1930년 10월 26일 동아일보 기사

제는 조선 왕조의 유적과 현대적인 전시관을 대비시킴으로써 조선인을 동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지' 관광객에게는 조선의 이국적인 흥취를 맛볼 수 있는 장소였으나, 조선인 민족주의자에게는 식민지 수탈의 전시장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들 중 일부는 기생과 게이샤에 환호하거나 방문객들의 지갑을 훔치기도 하는 등 민족으로만 치환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들에게 박람회는 근대성의 선전장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원지에 가까웠으며 시골의 농민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떠밀려 큰돈을 들여 참석당한 관제 행사였다. 또한 창경원은 신분과 성별, 계층과 상관없이 대중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으며 경성 거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엄한 궁궐을 대중의 문화공간이자 오락 공간으로의 전치, 벚꽃 야행, 나들이, 상춘객으로 당시의 조선인에게는 생소하지만, 놀랍고 아름다움의 체험이었을 뿐 일제의 동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일제는 메이지유신 이후 학교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들에 주목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는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일제에 의해 설치된 도서관과 박물관, 민간에 의해 개설된 신문, 서적종람소가 이에 해당하며, 다양한 단체들에서 계획한 박람회도 사회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국성하, 2001). 일제 식민지기 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교육과 교화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해석으로 당시의 문화시설이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박람회, 공진회와 같은 행사와 도서관, 박물관, 진열관, 극장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1907년 경성박람회 개최, 1911년의 조선총독부 상품진열관 개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1915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개관 등은 일본인들이 자국에서 행했던 사회교육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교육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일제가 연고자 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의 영구적 지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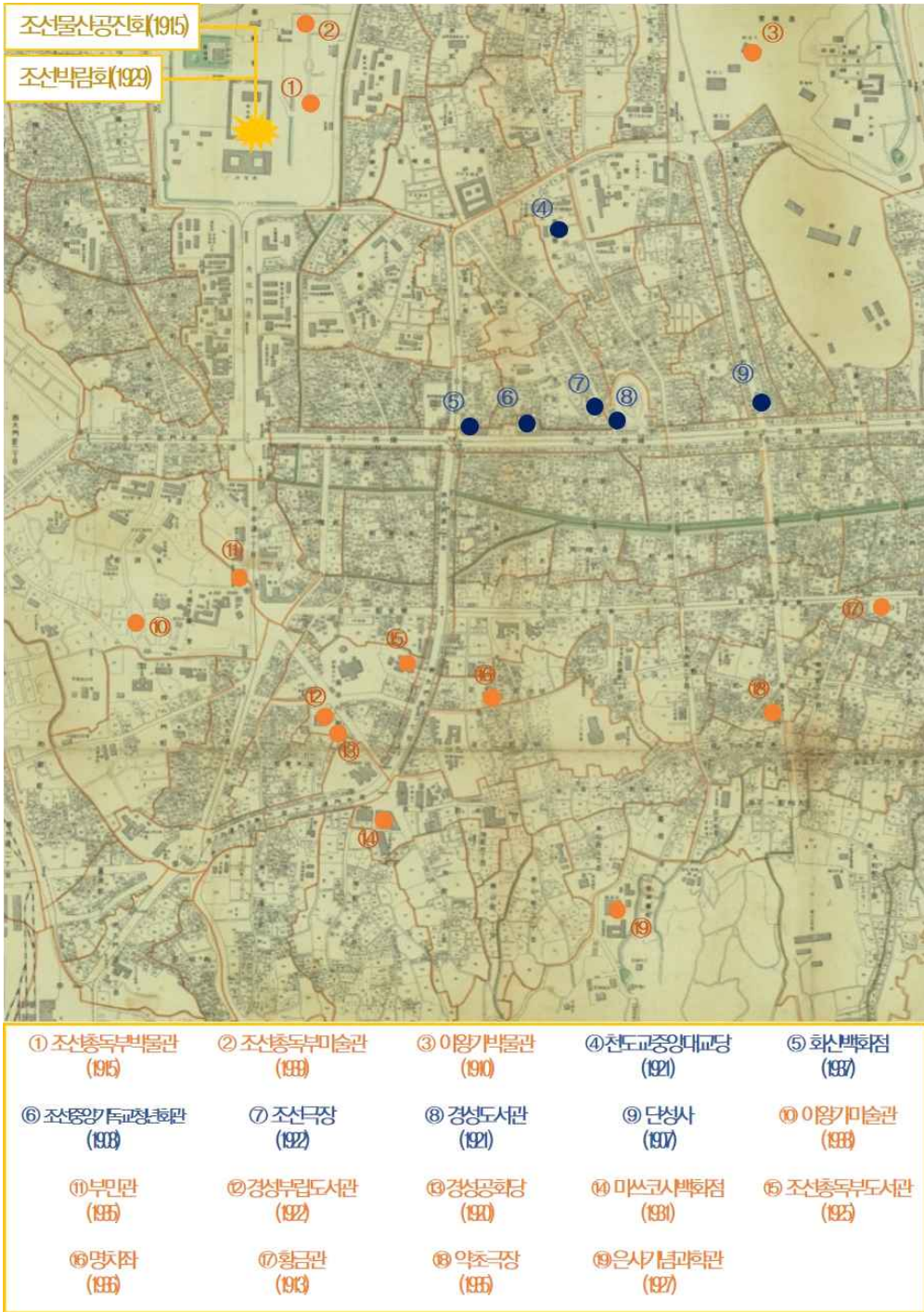
조선총독부는 식민 초기에 사회교육을 강조하지 않았다. 단지 공업, 미술, 과학 같은 조선총독부 관할의 교육 주변 영역들에서 사회교육이 행해질 뿐이다. 식민 초기 사회교육을 학교 중심의 소극적 의미로 생각한 조선총독부는 1920년 문화정치 이후 관련 문화시설을 건립하였고, 193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의 보편적 기반 확충을 위해 사회교육을 전개하고 이후에는 일본 신민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활용하였다. 사회교육은 학교 중심의 간단한 교육을 통한 민심의 개발과 선도를 기하는 것에서부터 이와 병행하는 사회교육의 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사회교육체제가 정비되자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일본화(化)를 위해서 이용하였다.

시기적으로 일제 식민지기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민간분야에서 극장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통치수단의 방편으로서 궁궐 내의 박람회 계획 및 박물관이 입지하였다. 또한 도심부에 도서관이 조성되었고 마지막으로 관 주도의 극장이 입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문화시설에 대해 일제는 선진 문물을 보여줌으로써 제국 우월성을 강조하려 하였지만, 조선인의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가공간에 가까웠다. 조선의 민중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문화시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일제의 ‘문명개화’를 통한 동화정책과는 다르게 당시의 ‘오락의 정화’, ‘취미생활의 일부’로 여겨졌다.

반면 민간에서 건립된 문화시설은 지역민들에게 사회교육의 장이 되었다. 사회교육의 장이 전근대의 서당에서 학교와 문화시설로 바뀌었고, 전통적 지식에서 근대적 지식으로 지배적 지식 양식이 바뀌는 시대에 설립된 문화시설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계획, 실행하였다. 민족의 사회교육을 위하여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여성과 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교육 활동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식의 보관소로서 정부가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후, 1920년대 경성은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 근대 시민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문화시설은 역할을 하였다. 근대 도시를 살아가는 주체는 도서관과 극장의 이용 방식, 박물관의 관람을 통해 근대적 지각 방식을 학습할 수 있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규율을 통해 일제는 당시 문화시설을 지배하였고, 근대적 시선 혹은 근대적 보는 방식의 학습 기제는 교양으로 추천되었다.

제3절 문화시설의 설립 주체별, 시기별 특성

서구 사회는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모더니즘 도시 공간을 계획하였고, 그 특징은 근대성의 표상과 합리성의 추구였다. 새로운 도시조직 위에 건립된 기념비적인 공공시설의 목적은 문명화된 도시의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문명의 위대함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김형준, 2004). 또한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와 수직적 관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근대사회의 주체로 민족, 국민으로의 호칭은 그 과정에서 교양과 이성의 계몽도 추가되었다. 이른바 ‘문화’는 교양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주체의 상징처럼 이해되었고, 훈육과 계몽의 공간으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이 활용되었다(황병주, 2010).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우리의 주체적 생각이 결여된 채, 문화시설의 설립 의도, 배경, 사회적 역할이 서구의 과정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6-12]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일제 식민지기의 대표적인 도서관, 극장, 박물관
출처 : 대경성정도, 서울역사박물관

일제가 식민지 경험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 ‘동화’는 조선총독부를 통해 위로부터 기획되었으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당시의 조선총독부는 결코 전능하지 않았으며, 금전적인 이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해야만 하는 한계가 나타난 정부 기관이었다. 물론 조선 왕실의 토지나 관아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궁궐을 훼손하고 전시 공간을 기획한 점은 제국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지만, 일제의 의도대로 조선인을 신민화하고 동화하기에는 여러 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 역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사고와 행동을 재단하지 않았으며, 사는 곳, 이주한 시기, 빈부 상황 등은 민족만큼이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김백영 외, 2020). 이처럼 식민지 경성



[그림 6-13]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1910년대 문화시설

출처 : 대경성정도, 서울역사박물관

의 문화시설에서 펼쳐진 동화의 과정은 종잡을 수 없이,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하나의 정연한 흐름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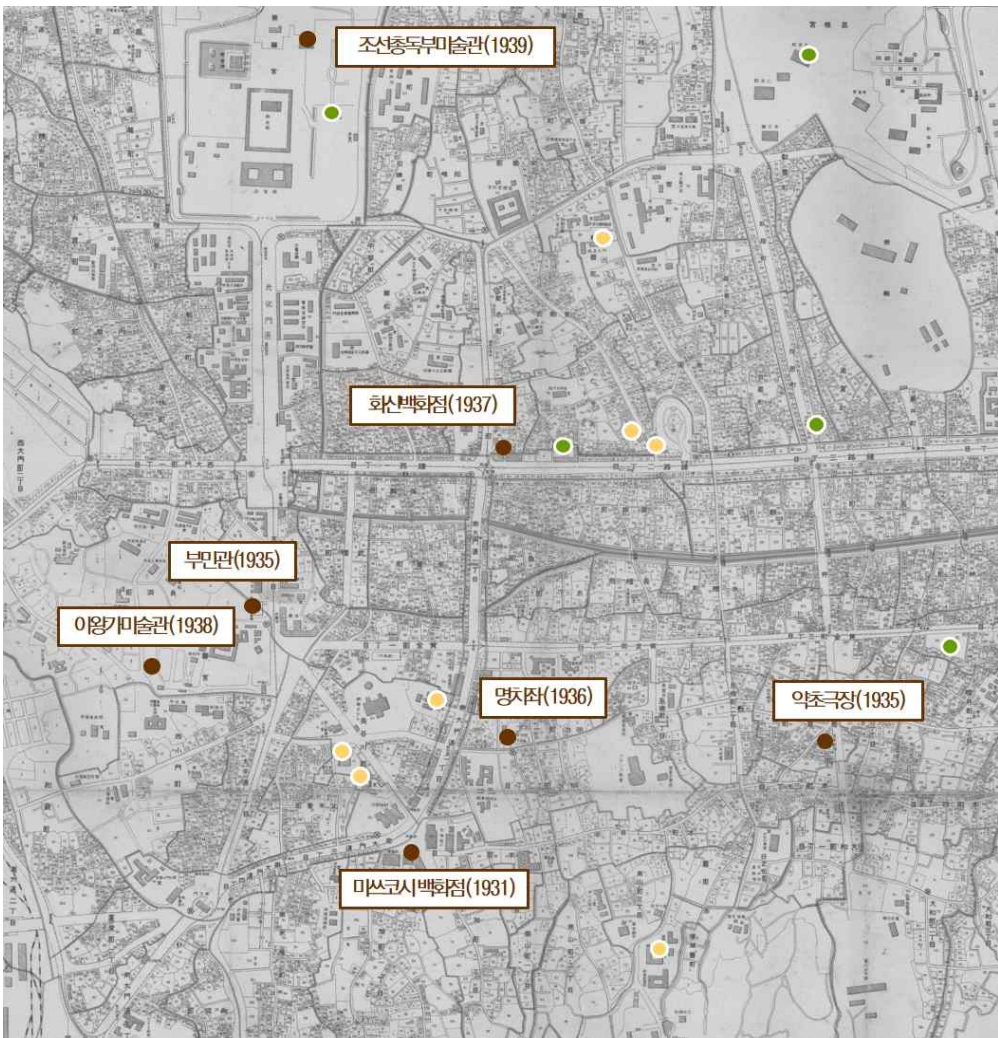
일제의 통치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무단통치(1910-1919), 문화정치(1919-1931),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1931-1945) 시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문화시설만 보았을 때, 이러한 구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경술국치 이후, 무단통치의 시대임에도 일제는 궁궐에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에 각각의 박물관을 조성하였다. 1910년 제실박물관에서 이왕가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및 조선총독부박물관 건립,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 1933년 덕수궁 석조전 전시 및 1938년 이왕가미술관 건립,



[그림 6-14]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1920년대 문화시설

출처 : 대경성정도, 서울역사박물관

1939년 조선총독부미술관 조성 등 조선 왕조의 공간을 일제에 의해 근대화 공간으로 전 치하는 과정을 통해, 궁궐 훼손은 지속되었다. 경성의 극장은 재조선 일본인의 여가를 위 해 민간에서 건립되었고 1900년대 초반 조선인 거류지에서도 회합의 공간과 극장이 건립 되었다. 일제의 상업 자본에 의해 형성된 경성공회당과 달리, 조선총독부의 허가에 의한 부민관은 1935년 비교적 늦은 시기에 근대적 공간의 상징으로 경성의 도심에 등장하였 다. 당시의 극장은 연극, 악극 등의 문화행사와 다양한 일상 의례 및 정치적 집회가 개최 되는 장소로, 이곳에서 민중들은 근대적 삶의 방식을 습득하였다. 도서관은 조선의 교육 시설을 규제하는 ‘조선교육령’ 선포 이후, 모두 폐관되었다. 이후 문화정치로 전환되는



[그림 6-15]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한 1930년대 문화시설

출처 : 대경성정도, 서울역사박물관

1920년을 기점으로 도심부 곳곳에 등장하는데, 조선총독부 주관의 공공도서관은 남촌에 설립되었고 조선인 민간이 설립한 도서관은 북촌에 계획 되었지만, 결국 일제의 공공도서관으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회교육과 관련된 직제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조선총독부 내 내무국에 사회과를 설치했지만, 사회과의 중심업무가 사회사업의 장려 보조, 지방개량, 사영 사회시설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사회교육과의 관련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격적으로 교육적 의미에서 사회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가 1932년에 사회과를 학무국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종교과를 폐지하고 이것을 사회과의 사무로 합쳐서 취급하였고, 1936년에 학무국을 신설하고 사회교육과를 설치하여 사회교육 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관심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성과 식민성이 동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시설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일제의 선전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 지식인층에서는 민족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문화시설은 여가 생활의 일부 또는 체험 공간, 유희의 장소로서 ‘근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극적 변화의 시대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선인들은 그 안에 담긴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어떠한 간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으로 이벤트를 즐겼으며, 문화시설을 가까이 이용하였다. 즉 ‘일제의 근대성’에 저항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근대’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한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문화시설을 분석하면, 공공성과 보편성, 일상성의 차원에서 이들의 공간은 근대성 구현을 실현하지 못한 반쪽의 문화시설이지만 당시에는 새롭게 수용했던 시설로 전근대 시대와의 경계를 형성한 공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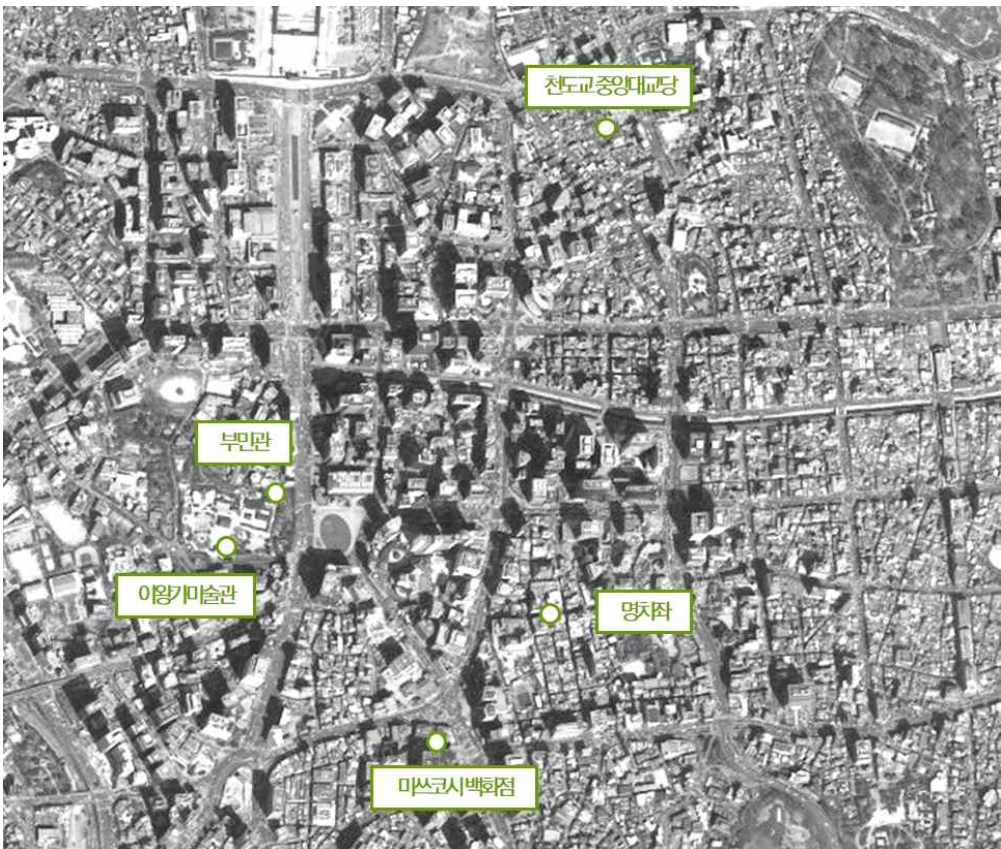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화시설은 해방 이후에도 국립도서관(조선총독부도서관), 국립극장(명치좌), 경북공미술관(조선총독부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연계되어 각 시설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민간에 의해 건립된 문화시설 중 일부는 지금까지 존재하며 우리의 여가, 교육, 지식 공간의 조성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 식민지기 존재했던 도서관, 극장,



[그림 6-16] 표지석으로 남아 있는 경성의 문화시설 (조선총독부도서관, 우미관, 조선극장)

박물관은 경성에서 조선인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였고, 문화시설이라는 기능적 유사성에 의해 그 시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건축의 가치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기라는 왜곡된 근대의 경험으로, 당시의 문화시설은 일제와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했다. 경복궁과 창경궁에 입지했던 박물관은 모두 사라졌으며, 경성 내에 존재했던 문화시설은 옛 터를 표시하는 표지석을 통해 ‘장소의 기억’만 남겨져 있다. 과거는 현재를 비육하게 하는 자산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족쇄를 채우기도 하며 때로는 기억 속에서 삭제되기도 한다.

역사적 흐름 속에 경성의 도서관, 극장, 박물관은 우리의 시각문화를 탄생시킨 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문화의 연속성이 중요하듯 근대 문화시설, 근대 건축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성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림 6-17] 현재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경성의 공연 및 전시시설

출처 : <https://map.kakao.com>

제7장 종합 결론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근대문화시설의 조성 측면 뿐 아니라 이용과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고지도를 분석하고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문화시설이 어떻게 이용되고 인식되었는지 그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였다. 식민 지배와 함께 진행된 경성의 도시화 과정에서 문화시설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 '식민'이라는 타율성이 작용하여, 문화시설의 보편적인 발달과정은 식민지의 특수성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지배 체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대중문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은 도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용되고 인식되었고 그곳에서 형성되었던 효용과 가치는 당시 문화시설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시설을 만드는 공공 및 민간 등의 주체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았다.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주체와 문화시설의 인식과 기능을 해석한 점, 그리고 근대도시 경성에서 문화시설이 차지하는 위치와 공간적 분포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가 처음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개방한 공간은 창경원의 이왕가박물관이다. 하지만 이왕가박물관 및 1910년대의 문화시설은 공공적 성격보다는 일제가 자신의 진보한 문명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였다.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와 1915년 건립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자신들의 근대 문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미개한 조선의 문화를 근대화된 일제가 개화시킨다는 시혜적 입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궁궐 내 공진회와 박물관을 활용하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하였다. 또한 광화문통에 조형물을 조성, 상징 축을 형성하였고 대규모 구경거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도시의 가로를 활용하였다. 한편 도서관과 극장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성장하였다. 남촌과 북촌에 민족적 영역을 구축하며 등장했던 극장은 남촌의 일본인들에게 유희 및 여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경성도서관 또한 일본인 거류지에 입지하여 당시 일본인을 위한 도서실 역할을 하였지만, 무단통치기 우리 민족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조선교육령의 선포로 조선의 도서관은 모두 폐관되었다. 또한 북촌에서는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공간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이 활용되었고 민간의 극장에서는 남촌과 대비되는 상영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910년대의 문화시설은 주로 문화적 교화와 선전의 장으로 이용되고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 전후로 문화시설은 다방면에서 설립되었다. 도서관은 일제에 의해서 조선총독부

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만철철도서관이 조성되었고 남촌의 경성도서관 폐지에 따른 장서 인수로 조선의 민간에서도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었다. 극장은 문화정치 이후, 전문극장이 등장하였고 일본인 민간단체에서 회합 공간으로 경성공회당을 건립하여, 고급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당시의 도서관과 공회당은 일제에 의해 의도된 장소에 입지하였고, 국가가 지정하거나 교회의 장소로 위로부터 기획되어 아래로 전해졌다. 이러한 시설은 무엇보다 도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교육의 실질적 혜택이 강조되었지만, 도심부의 일본인 거류지에 중점적으로 입지하여 지식의 공유는 폭넓게 제공되지 못하였다. 북촌의 조선인 사회는 경성도서관을 민족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인근의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 천도교 중앙대교당, 조선극장, 단성사 등을 구심점으로 종로 일대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인 사회의 움직임과 요구는 조선총독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인 통제가 수월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1929년 조선 박람회 통해, 경복궁의 해체는 보다 가속화되었고 구 조선총독부청사에 은사기념과학관을 건립하였다. 근대 과학의 체험을 통한 조선 민중의 근대화라는 전형적인 ‘문명화 사명’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한편 경성이 소비 위주의 도시로 변화하면서 도시문화시설 이용과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게다가 1920년대에 다양해진 매체를 통해, ‘관제 행사’ 및 ‘건립 광고’는 신문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근대 문화가 수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과 극장은 근대적 교양과 생활 규범을 체득하는 공간으로서 근대 시민으로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둘째, 궁궐 내의 박물관은 그 자체로 소비재가 되거나 다른 근대시설과 함께 여가 및 유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30년대에는 일제에 의한 문화시설이 보다 과감히 도시공간에 도입되었다. 재조선 일본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예술 산업의 성장으로 태평동에 부민관이 건립되었고, 덕수궁에 이왕가미술관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경복궁 북측 영역에 종합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민간에 의해 화려한 외관의 극장이 남촌에 건립되었고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에 전시공간을 도입하는 등 예술 산업이 자본과 결합한 모습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시설은 대다수 조선인들과의 무관한 공간으로, 이전까지 뚜렷이 구분되었던 민족의 공간은 점차 일제의 자본에 의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북촌까지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1940년대 본격적인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일제가 주도하는 문화 사업은 방공과 관련된 것으로 전치된다. 더불어 전시체제 하에서 극장과 박물관은 전쟁 선전의 무대, 군사 동원의 장소, 전쟁 자원의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이중도시로 뚜렷했던 민족적 경계는 점차 희미해졌으며, 각각의 문화시설도 이용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민족적 관점은 사실상 담론 그 자체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일제 식민지기 경성의 문화시설이 민족적 특징을 가진 식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는지라도, 문화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과 인식은 일반적인 도서관, 극장, 박물관의 문화 형성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공이 건립한 문화시설은 조선총독부나 경성부가 계획하고 건설하며 지배 체제의 목적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중이라는 주체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생적인 이용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문화시설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분위기, 시민들의 근대화 수준, 건립 시기 등 다양한 관련 요소들에 의해 조성과 역할 형성에 많은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문화시설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일제 식민지기 경성의 문화시설에도 유효함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의 시기별 도시 체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문화시설의 조성과 사회적 기능이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도시의 공간 변화에 따라 도서관, 극장, 박물관의 존재와 위상, 역할이 달라졌으며, 시기별 정치, 사회 이슈와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1910년대 초반부터 계획되어 온 경성의 문화시설은 당시 경성의 도시계획과 공간 전반의 총체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시설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습이 문화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경성의 도시공간 변화와 근대 문화시설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근대 시민 형성의 공간으로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식민지의 다른 분야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총독부의 권력은 차치하더라도, 행정, 사법, 교육체계 등 모든 새로운 사회 질서와 제도에 의해 조선인은 학습하고 훈육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일제가 장악하고 있는 경제 질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일본의 민간, 재조선의 선교사, 조선인 등 공공과 민간이 건립한

문화시설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성의 곳곳에 건립되었고, 이는 일제 식민지기 정치 제도의 변화, 문화시설의 설립 주체 및 조성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식민지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고, 일부 부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중심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억압을 당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인에게도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삶이 존재하였기에, 식민지적 ‘근대화’에 대해서 반감은 있으나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면서 현실을 경험하였다. 일제는 식민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였지만, 조선인들은 일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근대를 경험하면서 근대 시민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지기에서 ‘근대’를 경험했다면, 비록 식민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형성된 근대성의 기원은 그 시기부터 추적해야 한다. 해방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가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켰지만, 일제 식민지기의 근대적 경험은 현재 근대성의 성격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김영근, 2000).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식민지기 근대문화시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우리의 선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이라는 시설은 방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시설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며 도시경험도 보다 풍부하게 설명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문화시설의 사회적 기능을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통해 일제에 의해 복합적으로 전유되었던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적 보편성을 분석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예린·이치훈 2012, 『도서관 산책자』, 반비, 서울.
- 곽철완 2012, 『도서관의 역사 - 권력에 따른 도서관의 발달과 쇠퇴』, 조은글터, 서울.
- 국가보훈처 1993,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국학자료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립중앙도서관 70년사 : 1945-2015』,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 김경자 2003, 『부산의 공공도서관, 부산의 도서관사』,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부협의회, 서울.
- 김기호 외 2003, 『서울 남촌 :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동노 2006,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서울.
- 김문환 1998,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고지성사, 서울.
- 김백영 외 역 2020, 『서울, 권력 도시』 (Todd A. Henry 2014, *Assimilating: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산처럼, 서울.
- 김병도·주영혁 2006, 『한국 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승구 2012,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아름, 시네마 천국』, 책과함께, 서울.
- 김웅권 역 2005, 『실천이성, 행동의 이론에 대하여』 (Pierre Bourdieu 1996,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Palo Alto), 동문선, 서울.
- 김재석 2019, 『한국의 극장과 극장문화』, 지식과교양, 서울.
- 김정동 2004,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서울.
- 김진균 외 2003,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서울.
- 김태수 2005,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 신문광고로 본 근대의 풍경』, 황소자리, 서울.
- 김한결 역 2014, 『박물관의 탄생』 (Dominique Poulot 2010, *Musée et muséologie*, La Découverte, Paris), 돌베개, 경기.
- 남산도서관 80년사 편찬위 2002, 『남산도서관 80년사』, 남산도서관, 서울.
- 문화재관리국 1985,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서울.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6, 『일본 궁내청소장 창덕궁 사진첩』, 문화재청, 대전.
- 박경식 1986,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경기.

- 백낙청·염무웅 역 2016,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자연주의와 인상주의 영화의 시대』 (Arnold Hauser 1951,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C. H. Beck, Munich), 창비, 경기.
- 백린 1981, 『한국도서관사연구』, 한국도서관협회, 서울.
- 부산박물관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1 (도시)』, 민속원, 서울.
- 부산박물관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8 (조선인, 관제엽서)』, 민속원, 서울.
- 부산박물관학예연구실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관광)』, 민속원,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6,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의 대도시로의 성장과정 비교 연구, 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 서울역사편찬원 2017, 『근대문화유산과 서울 사람들』,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 서울역사편찬위원회 2015, 『서울 2천년사 26 -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서울600년사』, 서울특별시,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서울공연예술사』, 서울특별시,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5, 『경성부사』, 휴먼컬처아리랑, 서울.
- 서울YMCA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서울YMCA운동 100년사 (1903-2003)』, 서울YMCA, 서울.
- 손정목 2020,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한울, 경기.
- 신세계백화점 1987,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출판부, 서울.
- 박흥식 1977, 『화신오십년사』, 삼화출판사, 서울.
- 백선혜·라도삼 2015,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서울연구원, 서울.
- 안중화 1998, 『한국영화측면비사』, 현대미학사, 서울.
- 안창모 2009,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경기.
- 양윤재 역 2011, 『역사로 본 도시의 형태』 (Spiro Kostof 1992, *The City Assembled: The elements of urban form through history*; Little, Brown and Company, New York), 공간사, 서울.
- 양은경 2002, 『문화와 계급』, 동문선, 서울.
- 염복규 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서울.
- 우동선·박성진 2009,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 효형출판, 경기.

- 유민영 1998,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 태학사, 경기.
- 유민영 2004, 『문화공간 개혁과 예술 발전』, 연극과인간, 서울.
- 윤대석 역 2006, 『청중의 탄생』 (渡邊裕 2004, 聴衆の誕生 ポスト・モダン時代の音楽文化, 春秋社, Himeji), 강, 서울.
- 윤영애 역 2012, 『도서관의 탄생: 문명의 기록과 인간의 역사』 (Stuart A. P. Murray 2009, *The Library: An Illustrated History*, Skyhorse Pub, New York), 예경, 서울.
- 윤형숙 역 2003,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Benedict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 Spread of Nationalism*, Verso, New York), 나남, 경기.
- 윤희윤 2019, 『도서관 지식문화사』, 동아시아, 서울.
- 이동초 2008, 『천도교중앙대교당 50년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서울.
- 이론과실천모임 2002, 『국도와 환경 - 공간계획론의 새로운 접근을 중심으로』, 한울, 경기.
- 이성욱 2004,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학과학사, 서울.
- 이순우 2010,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서울.
- 이순진 2011, 『조선인극장 단성사 1907-1939』,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 이연숙 역 2007, 『대한제국 황실 비사』 (權藤四郎介 1926, *李王宮秘史*, 朝鮮新聞社, Tokyo), 이마고, 제주.
- 이영석 2003, 『역사가가 그린 근대의 풍경』, 푸른역사, 서울.
- 이영석 외 2011, 『도시는 역사다』, 서해문집, 경기.
- 이태문 역 2003, 『백화점, 도시문화의 근대』 (初田亨 1999, 百貨店の誕生, ちくま学芸文庫, Tokyo), 논형, 서울.
- 임석재 2018, 『극장의 역사, 건축과 연극의 사회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 임종엽 2005, 『극장의 역사, 상상과 욕망의 시공간』, 살림, 서울.
- 임지현·이성시 2004,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서울.
- 장석봉 역 2006, 『백화점의 탄생: 봉 마르세 백화점, 욕망을 진열하다』 (鹿島 茂 1991, *デパートを發明した夫婦*, 講談社現代新書, Tokyo), 뿌리와 이파리, 서울.
- 전상인 역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James C. Scott 199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예코리브르, 서울.
- 전경수 2005, 『한국 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일지사, 서울.
- 전택부 2017,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흥성사, 서울.

- 정태용 역 1993, 『18세기 건축』 (John Summerson 1986, *The Architecture of the Eighteenth Century*,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태림문화사, 서울.
- 주익중 역 2008, 『제국의 후예,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Carter Eckert 1996,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푸른역사, 서울.
- 최남선 2013, 『조선상식문답 속편』, 경인문화사, 서울.
- 최석영 2001, 『한국 근대의 박물관 박물관』, 서경문화사, 서울.
- 최석영 역 2008, 『일본 근대 국립박물관 탄생의 드라마』 (關秀夫 2005, 博物館の誕生 : 町田久成と東京帝室博物館, 岩波新書, Tokyo), 민속원, 서울.
- 최순남 2013,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부산의 지역 대표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
- 한국미술연구회 한국근대시각문화연구팀 2018,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 한국미술연구회 CAS, 서울.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근대건축도면집 : 도면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근대건축도면집 : 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
- 한석정 역 2003,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Takashi Fujitani 1996, *Splendid monarchy :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이산, 서울.
- 현명철 역 2006, 『메이지 유신과 서양 문명(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田中 彰 2003, 明治維新と西洋文明-岩倉使節団は何を見たか, 岩波新書, Tokyo), 소하, 서울.
- 關野貞 1910, 『朝鮮藝術の研究』, 朝鮮總督府, 京城.
- 京城商工會議所 1930, 『京城商工名錄』, 京城商工會議所, 京城.
- 京城府 1928, 『京城都市計劃調査書』, 京城府, 京城.
- 京城府 1934, 『京城都史』, 京城府, 京城.
- 藤井浩基 2017, 『日韓 音楽教育関係史 研究』, 勉誠出版, 東京.
- 飯塚キヨ 1984, 『植民都市の空間形成』, 大明堂, 東京.
- 柏書房 1985, 『(朝鮮總督府作製)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 柏書房株式會社, 東京.
- 岩佐彦二 1930, 『子供の科學お話と實驗へ』, 恩賜記念科學館, 京城.

- 山口情 1911, 『朝鮮産業誌』上・中・下卷, 寶文館, 京城.
- 山口情 1917, 『京城図書館概況』, 京城図書館, 京城.
- 李王家 1912, 『李王家美術館要覽』, 李王家, 京城.
- 李王職 1938,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 李王家美術館, 京城.
- 恩賜記念科學館 1941, 『(恩賜記念)科學館案内』, 恩賜記念科學館, 京城.
- 帝室博物館 1938, 『帝室博物館略史』, 帝室博物館, 京城.
- 朝鮮博覽會 1930, 『朝鮮博覽會 京城協贊會報告書』, 朝鮮總督府, 京城.
- 朝鮮博物學 1923, 『朝鮮博物學標本展覽會出品目錄』, 朝鮮博物學會, 京城.
- 朝鮮總督府 1916,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3券, 朝鮮總督府, 京城.
- 朝鮮總督府 1920, 『朝鮮彙報: 施政五年共進會記念號』, 朝鮮總督府, 京城.
- 朝鮮總督府 1930, 『朝鮮博覽會紀念寫真帖』, 朝鮮總督府, 京城.
- 青柳綱太郎 1925, 『大京城』, 朝鮮研究會, 京城.
- 布野修司 2005, 『近代世界システムと植民都市』, 京都大學出版會, 京都.
- 黃武達 1997, 『日治時代(1895-1945) 台北市之近代都市計畫』, 板橋: 台灣都市史研究室, Taipei.
- Benevolo, L. 2000. 『Histoire de la ville』. Parenthese, Paris.
- Carlos, N. Silva 2015, 『Urban Planning in Sub-Saharan Africa: Colonial and Post-Colonial Planning Cultures』, Taylor & Francis, Milton Park.
- Carlson, M. 1989, 『Place of Performance: The Semiotics of Theatre Architec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Celik, Z. 1997. 『Urban Forms and Colonial Confrontations: Algiers Under French Ru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David, B. 1987.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1868 to the Present』, Kodansha International, Tokyo.
- Desi, G. 2009. 『Subject to Colonialism: African Self-Fashioning and the Colonial Library』.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De Moncan, P. 2009. 『Le Paris d'Hausmann』, Ed. du Mécène, Paris.
- Dutt, Ashok K., et al.(eds.) 1994. 『The Asian City: Processes of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Planning』.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erlin.
- John M. Mackenzie 2009. 『Museums and Empire: Natural History, Human Culture, and Colonial Identi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McClellan, A. 1999. 『Inventing the Louvre: Art, Politics, and the Origins of the Modern Museum in Eighteenth-Century Pari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Mumford, L. 1938. 『The Culture of Cities』 . Harcourt Brace, San Diego.
- Marchand, B. 1993. 『Paris, histoire d'une ville』 , Seuil, Paris.
- Naoki Sakai 1997.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Peter H. Hoffenberg 2001. 『An Empire on Displa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Robert, H. 2013. 『Of Planting and Planning: The making of British colonial cities』 , Taylor & Francis, Milton Park.

학위논문

- 김상훈 2004,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 박람회·보통학교·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국성하 2003, 『일제 강점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석 1990,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백영 2005,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은 2017, “유원지의 수용과 공간문화적 변화 과정 - 창경원, 율미도, 뚝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의 1984, “일제하 철도도서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2007,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준 2004, “19세기 근대건축시설의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목수현 2000,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은선 2017, “일제강점기 철도종사원 양성교육과 철도도서관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염복규 2009,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경중 2010,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선 2012,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 - 일제강점기 은사기념과학관의 과학보급사업, 1925-1945』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수 1990, 『일제시기 경성부의 가로정비계획에 의한 가로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근혜 2008,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영규 2006, “협률사와 원각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운영 2018, “경성의 음악회(1920-1935) : 식민지 일상과 근대의 경험, 그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주상훈 2010,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 : 사범, 행형, 교육시설 건축도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차문성 2007, “근대박물관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의균 1986,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배경에 관한 연구 - 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학술논문

국성하 2001, “일제 강점기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성격 연구 : 『恩賜記念科學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3권, 2호, pp.147-170.

권영상·김진균 2004, “주요시설 이동에 의한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구조변화의 해석”, 『도시설계』, 5권, 3호, pp.63-79.

금용웅 2018, “일제강점기 주요 다목적 공간들에서의 공연양상 - 전통음악공연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6호, pp.603-647.

김광우 1991,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鄉土서울』, 50호, pp.95-122.

김기호 1995, “일제강점기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호, pp.41-66.

김나영 2014, “일본근대도시계획 형성에 미친 서구도시계획의 영향 : 유형별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 1권, 39호, pp.457-476.

김대호 2007, “일제강점 이후 경복궁의 毀撤과 ‘活用’(1910~현재)”, 『서울학연구』, 29호, pp.83-131.

김동노 2006,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독특성”, 『동방학지』, 133호, pp.199-242.

김소연 2009, “1930년대 잡지에 나타난 근대백화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5권, 3호, pp.131-138.

김성태·권영상 2020, “도시문화시설로서 한국 근대 도서관의 입지적 특성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21권, 1호, pp.5-24.

김순주a 2014,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 - 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

으로”, 『서울학연구』, 56호, pp.1-36.

김순주^b 2014, “‘영화 시장’으로서 식민지 조선 : 1920년대 경성(京城)의 조선인 극장가와 일본인 극장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7권, 1호, pp.135-172.

김신재 2016,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권, pp.191-225.

김백영 2006, “식민지적 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사회와 역사』, 72호, pp.169-212.

김백영 2007,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8권, pp.189-221.

김백영 2011, “식민지 시기 한국 도시사 연구의 흐름과 전망”, 『역사와 현실』, 81권, pp.395-411.

김병규·김병철·김형기 2009, “20세기 초 ‘지각 Wahrnehmung’의 등장 양상에 관한 연구 -벤 야민, 아도르노, 크라카우어를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8권, 2호, pp.69-77.

김영근 2000,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 경성에서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권, pp.11-46.

김영석 2009, “영국 공공도서관 건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권, 3호, pp.115-128.

김영석·이용재 201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본홍도회도서관 실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권, 2호, pp.131-150.

김용성 1997, “항일시대의 도시화 과정과 공공도서관”, 『인문과학연구논총』, 16권, pp.437-487.

김정은 2015, “일제강점기 창경원의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한국조경학회지』, 43권, 6호, pp.1-15.

김종근 2003, “서울 중심부의 일본인 시가지 확산 - 개화기에서 일제강점 전반기까지(1885년~1929년)”, 『서울학연구』, 20호, pp.181-233.

김태웅 2002, “타지부 건축소(1906-1910)의 기록물 관리와 현존 기록물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권, 3호, pp.7-19.

김포옥 1979, “일제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권, 1호, pp.137-163.

김호연 2000, “1930년대 서울 주민의 문화수용에 관한 연구 - ‘府民館’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호, pp.199-236.

김흥순 200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8권, 4호, pp.155-173.

목수현 2000,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

호, pp.81-104.

목수현 2009,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호, pp.97-116.

박노현 2004, “극장(劇場)의 탄생 - 1900~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19호, pp.7-39.

박명진 2008, “1930년대 경성의 시청각 환경과 극장문화”, 『한국극예술연구』, 27호, pp.63-93.

박삼헌 2009, “근대일본 '국체(國體)' 관념의 공간화 : 도쿄의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권, 11호, pp.33-58.

박삼헌 2010, “근대천황제의 공간, 도쿄”, 『내일을 여는 역사』, 39호, pp.215-236.

박선희 2006, “경성(京城)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1권, 3호, pp.301-318.

박성진 2002,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 방식”, 『기록학연구』, 5호, pp.179-208.

박소현 2006, “‘고려자기’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나-식민지시대 ‘고려자기열광’과 이왕가박물관의 정치학”, 『사회연구』, 11호, pp.9-45.

박윤덕 2015, “프랑스 혁명과 루브르의 재탄생”, 『역사와 담론』, 76호, pp.277-310.

박진아 2003, “19세기 오스만에 의한 파리개발계획의 구조분석 - 재원조달연구를 통한 도시개발 방식 이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9권, 12호, pp.227-234.

박현 2015, “일제시기 경성의 창기업(娼妓業) 변성과 조선인 유곽 시설”, 『도시연구』, 14호, pp.161-192.

박현선 2002, “근대 극장과 대중문화의 형성”, 『영상예술연구』, 2호, pp.102-118.

박희용 2010,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표상, 원구단”, 『서울학연구』, 40호, pp.107-157.

송기형 1999, “‘창경궁박물관’ 또는 ‘李王家박물관’의 연대기”, 『역사교육』, 72호, pp.169-198.

송기형 2001, “프랑스 역사가 살아있는 루브르박물관”, 『역사비평』, 56호, pp.351-369.

송승섭 2020, “일제 강점기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권, 1호, pp.71-90.

송도영 2002, “상징공간의 정치 :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 도시정책”, 『한국문화인류학』, 35권, 2호, pp.127-155.

송인호·김재정·최아신 2014, “일제강점기 박람회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5호, pp.111-138.

수수오빈(蘇碩斌) 2009,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한국문학연구』, 36호, pp.7-54.

신주백 2004, “박람회 - 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 『역사비평』, 67호, pp.357-394.

- 안정연 외 3인 2012, “서울 종로2가 도시건축 형성과정의 도시설계적 의미”, 『도시설계』, 13권, 6호, pp.159-175.
- 안창모 2022, “한국근대건축에서 식민지관광주의와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 철도 역사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1권, 2호, pp.7-22.
- 안현정 2010, “시선의 근대적 재편, 일제치하의 전시공간 : 박람회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권, pp.193-225.
- 여지숙·오동근 2004, “일제강점기 철도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2호, pp.95-114.
- 여지숙·오동근 2004,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3호, pp.293-319.
- 염복규 2004, “식민지근대의 공간형성 - 근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형성, 변용, 확장”, 『문화과학』, 39권, pp.197-219.
- 윤금선 2009,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2호, pp.375-407.
- 이범재·김창연 1992, “한국 문화건축의 형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문화정책시기구분에 따른 문화건축 변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8호, pp.21-38.
- 이세영 2016, “영화를 중심으로 본 근대 경성의 여가문화 연구”, 『미술사논단』, 43호, pp.135-155.
- 이소영 2011, “부르디외의 문화이론과 재생산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33권, 1호, pp.129-159.
- 이순진 2010, “1930년대 조선 영화문화의 변동과 조선인 영화상설관의 소멸 - 단성사의 몰락 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호, pp.157-200.
- 이승희 2010, “조선극장의 스킴들과 극장의 정치경제학”, 『대동문화연구』, 72호, pp.117-158.
- 이윤상 2007,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권, pp.315-342.
- 이정연 2003, “구한말 통속교육 및 사회교육개념의 도입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9권, 1호, pp.83-115.
- 이종대 2006, “근대의 헤테로토피아, 극장”, 『상허학보』, 16호, pp.185-211.
- 이지원 2000, “1920-30년대 일제의 조선문화 지배정책”, 『역사교육』, 75권, pp.55-94.
- 이춘희 1989, “근대 한국 도서관사 연구 - 개화기에 있어서 근대도서관사상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6권, 1호, pp.71-110.
-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권, 4호, pp.223-251.
- 전상인 1998,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권, pp.124-137.

- 정연복 2009, “루브르 박물관의 탄생 - 컬렉션에서 박물관으로”, 『불어문화권연구』, 19권, pp.341-375.
- 조광익 2006, “여가 소비 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권, 1호, pp.379-401.
- 정해성·여지숙 2007,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권, 3호, pp.405-423.
- 조희문 2006,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과 영화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7권, 6호, pp.1407-1415.
- 최민아 2014, “파리 오스만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근대 도시계획제도 도입 및 발전 연구”, 『공간과 사회』, 47호, pp.113-141.
- 최윤실·남경숙 2008, “서울 영화관의 디자인특성 변천 연구”, 『서울도시연구』, 9권, 4호, pp.199-218.
- 한동수·황보영희 2005, “서울 용산 지역의 도시화 과정에 관한 연구 - 개항이후부터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6권, 4호, pp.21-36.
- 한상언 2012, “1910년대 경성의 극장과 극장문화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53호, pp.403-429.
- 한해정 2017, “베를린(Berlin) 시립도서관의 초기역사”, 『도시연구』, 17호, pp.161 -190.
- 허유진·전봉희 2015, “석고전의 마지막 이견과 소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1권, 4호, pp.151-160.
- 현재열·김나영 2011,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50권, pp.655-689.
- 홍선영 2003,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호, pp.243-252.
- 홍선영 2009, “경성의 일본인 극장 변천사 - 식민지도시의 문화와 ‘극장’”, 『일본문화학보』, 43호, pp.281-305.
- 황병주 2010, “식민지기 공적공간의 등장과 공회당”, 『대동문화연구』, 69호, pp.261-307.
- 황혜진 2010,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유라시아연구』, 7권, 1호, pp.341-357.
- Kawabata Mitsuru·Tomii Masanori 1988, “1922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의 건축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울외편) - 잡지 ‘조선과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8권, 1호, pp.231-234.
- 石田頼房 1984, “日本近代都市計畵史における海外都市計畵との接點について”, 『都市計畵』, No.133, pp.37-41.
- 藤田亮 1951, “朝鮮古文化財の”, 『朝鮮學報』, No.1.

- 奥田浩司. 2016. “研究ノート 京城図書館の設立と利用状況についての一考察”, 『国語国文学報』, No.74, pp.35-46.
- 宇治郷毅 1985, “近代韓國公共圖書館史の研究-開花期から1920年代まで”, 『参考書誌研究』, No.30, pp.1-22.
- 宇治郷毅 1988, “近代韓國公共圖書館史の研究-植民地期を中心に-”, 『参考書誌研究』, No.34, pp.1-27.
- Akin L. Mabogunje 1990, “Urban Planning and the Post-Colonial State in Africa: A Research Overview”, 『African Studies Review』, Vol.33, No.2, pp.121-203.
- Ann Stoler 1992, “Sexual Affronts and Racial Frontiers: European Identiti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Exclusion in Colonial Southeast As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34, No.3, pp.514-551.
- AMBE J. NJOH 2004, “The experience and legacy of French colonial urban planning in sub-Saharan Africa”, 『Planning Perspectives』, Vol.19, No.4, pp.435-454.
- Andrew L. McClellan 1988, “The Musée du Louvre as Revolutionary Metaphor during the Terror”, 『The Art Bulletin』, Vol.70, No.2, pp.300-313.
- Belinda, Y. 2011, “Urban Planning in Southeast Asia: Perspective from Singapore”, 『The Town Planning Review』, Vol.82, No.2, pp.145-167.
- Irene Maffi 2009, “The emergence of cultural heritage in Jordan: The itinerary of a colonial invention”,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Vol.9, No.1, pp.5-34.
- James, B. 2006, “The African Bioscope - Movie House Culture in British Colonial Africa”, 『Afrique & histoire』, Vol.5, pp.65-80.
- Luk, Y T. 1998, “Post-Colonialism and Contemporary Hong Kong Theatre: Two Case Studies”, 『New Theatre Quarterly』, Vol.14, No.56, pp.366-372.
- Michael Adas 1981, “From Avoidance to Confrontation: Peasant Protest in Precolonial and Colonial Southeast As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23, No.2, pp.217-247.
- Michael Robinson 1999, “Broadcasting, Cultural Hegemony, an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1924-1945”, 『Asian Studies』, Vol.30, pp.52-69.
- THOMAS DAVID DUBOIS 2005, “Hegemony, Imperi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Relig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History and Theory』, Vol.44, pp.113-131.

신문 자료 및 기타

일간지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월간지

『京城彙報(경성휘보)』, 『保導月報(보도월보)』

기관지

『朝鮮と建築(조선과건축)』, 『조선총독부관보』

구글 어스, <https://www.google.com/earth>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및 관보, <https://www.nl.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다음 지도, <https://map.kakao.com>

부산근대역사관, <http://museum.busan.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http://museum.uos.ac.kr>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서울학연구소, <https://seoulstudies.uos.ac.kr>

연세대학교 박물관, <https://museum.yonsei.ac.kr>

일본 국회 도서관 National Diet Library, <http://www.ndl.go.jp>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http://www.kchmuseum.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Cultural Facilities in Gyeongseong(Seoul)

Sung-tae Kim
Graduate Program of Urba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Young-sang Kwon

This study begins from the question, “Did cultural facilities that introduced in the distorted modernization process originally set the same location and perform the same functions as they do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tional features of modern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social func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of the times. The core of urban space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origin, publicness, and administration of what we refer to as cultural facilities were cre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Moreover, research must be conducted on this period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the present times due to the current focus on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Culture is a material and spiritual product that is acquired, shared, and delivered by members of society, and cultural facilities are spaces in which various cultures are created, distributed, and consumed. Cultural facilities can be defined as places of mutual emotional, human communication, but they differ from traditional spaces and have grown remarkably at this turning point for modern society. While modern facilities in the military regime were focused on punishment in the judicial and penalty system, cultural facilities that enabled

interchange for assimilation were planned as “cultural politics.” Cultural facilities were “contact zone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Gyeongseong masses routinely met, clearly showing the spectrum of assimilation.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facilities established by various agents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modern urban planning and identify the social implications of cultural facilities in urban spaces.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the period from 1910 to 1937 in which Joseon shifted to a war footing.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cultural facilities as well as strategies in cultural politics starting from 1920 when changes first occurred in the ruling method.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the boundaries of Gyeongseong-bu, and the subjects are libraries, theaters, and museums as spaces of visual culture that are exclusive properties of modern society.

The analysis of cases of libraries, theaters, and museum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showed that cultural facilities at the time blurred the boundaries of a dual city from a locational perspective. There were a few reasons for this: first, cultural facilities at the time were established in various places of Gyeongseong as a symbol of advancement. Cultural facilities introduc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with exteriors that differed from those of conventional buildings in terms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The buildings introduced by the Empire of Japan were equated with the West and were expressed in terms of modernity and advancement through their “distinction” from Joseon architecture. Moreover, spatial hegemony was to be seized by creating cultural facilities in nationally symbolic spaces, such as establishing Buminkwan on the land owned by the royalty of Joseon and planning Gyeongseong Prefectural Library and Joseon Government-General Library in the territory of the Korean Empire. Second, cultural facilities were used for the spatial assimilation of Namchon where Japanese people resided, as a mechanism to attract Joseon people who admired advanced culture. Various modern theaters and Gyeongseong Gonghoedang

established by the Empire of Japan were located in Namchon, and the major beneficiaries of these facilities were Japanese people. Cultural facilities that were distribut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perated as spaces of consumer culture that attracted Joseon people to Namchon, where they experienced modernity as the masses, admiring advanced culture. Third, the boundaries of the ethnic space, which was divided into Namchon and Bukchon, were blurred by cultural facilities. Bukchon and Namchon had been defined within a relationship of colonial authority pointing to domination and resistance, but the boundaries were blurred as the economic power moved north. Gyeongseong Library in Joseon was closed due to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the theaters around Tapgol Park were also run by Japanese people, showing the way in which Japanese people led spatial changes with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and the control of colonized people. The boundaries were broken down in the process of ethnic conflicts, competition, and assimilation in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oreover, regarding the social function of cultural facilities, this study found that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used as spaces in which people were encouraged to learn to become modern citizens. First, the Empire of Japan used cultural facilities as disciplinary, government-led spaces. Cultural facilities were used as the academic bridgehead of the continental invasion by the Empire of Japan, with the intention to reproduce the discourse of colonial rule as an event of exhibition and effectively ensure the discipline of the colony by comparing it with Joseon. Libraries were mostly arranged with Japanese books, and theaters and museums were used to create cultural gaps between Japanese and Joseon people while also nurturing people to become war-focused. As such, the Empire of Japan used cultural facilities to emphasize modern discipline and establish cultural superiority in order to reinforce their regime.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Joseon people, cultural facilities served as places of enlightenment that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social class. Libraries and museums carried out cultural projects for children and women and continued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Unlike in Western

society, due to social education that was carried out rapidly due to Korea's colonial characteristics, cultural facilities were used as spaces of enlightenment for refinement and the development of rational reason. Third, for the general masses, cultural facilities served as spaces for leisure and entertainment. The Empire of Japan tried to assimilate Joseon by contrasting the historic sites of Joseon royalty with modern spaces, but the Joseon masses transformed these facilities into recreational facilities. At the time, cultural facilities were more like playgrounds that provided interesting attractions rather than places that propagated modernity. They were perceived and substituted as spaces of amusement and recreation by the people.

The Japanese colonial era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the military ruling method, cultural politics, and military logistics. However, the displacement of space by the Empire of Japan continued throughout the entir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hosting of exhibitions in Gyeongbokgung Palace and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in each palace. Libraries were closed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Joseon Education Decree and reappeared after cultural politics, being absorbed into the public libraries of Japan. Moreover, theaters were used as venues of propaganda used in government events. In other words, this study found that cultural facilities were introduced in a different manner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confirmed that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agent was Joseon or Japan. The transition to modernity in Western society delivered the greatness of civilization to the people through new public buildings as symbols of a civilized city. However, upon experiencing colonization, Korea lacked independence and showed a different process from that of the West. Japan's acts of randomly destroying urban spaces and constructing cultural facilities can be identified as part of the process of assimilation. However, as can be seen in many cases, there was no unilateral form of assimilation, and the use and role of cultural facilities cannot be summarized in an orderly fashion. In other words, for the masses, cultural facilities show that "modernity introduced by the Empire of Japan" as places of leisure and amusement does not consist of such a dramatic change as we may think. From today's perspective of publicness and

universality, cultural facilities at the time are incomplete spaces that failed to fulfill modernity, but the newly introduced facilities formed boundaries with premodernity.

This study analyzed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ith a focus on their construction as well as their uses and roles. Colonial power at the time intended to teach and discipline Joseon people with a new social order and system, but cultural facilities built by various agents were constructed in Gyeongseong representing each stance, revealing various outcomes. Even though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created as part of the colonization project, the way in which the masses as the main agent used these spaces was formed autonomously. At the time, cultural facilities formed connections with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regional atmosphere, the modernization level, and the point of construction in addition to physical shape, through which cultural facilities were formed as a changing subject instead of a fixed object.

Experiences of modernity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must trace the origin of modernity from that time, even if it was a colonial period. This is because the experience of the time cre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times. This study analyzed the space and function of cultural facilities, which are single buildings, along the current of the times as a contact zone for discipline and enlightenment. Studies on cultural facilities are fragmented into the fiel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rforming arts, and art history. However,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ity of colonial Joseon in a diachronic approach based on cross-disciplinary analysis, combined with urban planning. Considering that cities are labs of modernization as well as the base of cosmopolitanis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found in the need for and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studies on cultural facilities and urban spaces.

Key words : Japanese Rule, Modern Cultural Facilities, Locational Characteristic, Social Function, Library, Theater, Public Hall, Museum, Art Gallery

Student Number : 2015-31043